



횡성 정금리 민속의
-양중환을 중심으로-

보존과
전승

박관수 지음

 횡성문화원

황성 정금리 민속의 보존과 전승
-양중환을 중심으로-

박관수

황성문화원



발간사

지금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전통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전통 문화는 민관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 발전에 치중하면서 외형적인 변화에만 온갖 관심을 기울였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대로 자신들이 즐기던 문화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 밀어 놓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우천면 정금리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태기문화제를 개최해 오는 등, 마을 단위로 주민들 스스로 민속놀이의 보존과 전승에 직접 참여하는 민속 전승 현장은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금리에서는 민속이 전국적으로 전승 중단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 스스로 민속의 전승에 참여했다. 30여 년 전 양두환선생과 이종호선생이 민속 전승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금리에서는 1977년 제1회 강원도 태백문화제에 농악과 미나리로 출연하였고, 1984년에는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회다지소리'를 출품하였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 결과, 양중환선생은 ‘회다지소리’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을 받았고, 정금리는 1986년에 강원도로부터 회다지소리 전승마을로 지을 받았다. 그러면서 타지에서 이루어지는 민속경연대회에는 항상 황성군 대표로 정금민속보존회가 참가하였다.

정금민속보존회는 현재 지도자인 양중환선생, 이계범회장, 홍성익사무장의 활발한 활동과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속을 보전하고 전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운영이 쉽지는 않다는 말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민속보존회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금리의 민속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분이 회다지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양중환선생이다. 양중환선생은 정금민속보존회의 지도를 맡고 있으면서, 민속 전승에서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전승 현장에 있는 사람 스스로 민속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경탄할 만한 작업을 통해, 양중환선생은 민속 전승에서 또 다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양중환선생의 원고를 바탕으로, 황성문화원에서는 『황성 정금리 민속의 보전과 전승』이라는 책을 발간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2006년 5월 1일

황성문화원장 이일영

축간사

전통문화 그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는 지역의 활력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우선 정책에 밀려 소홀히 한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민선시대를 맞아 지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한축으로 지역의 정체성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금민속보존회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각종민속경연대회에 황성군의 대표로 황성의 전통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황성회다지소리는 완벽한 고증을 통해 재현되었고 그밖에 농악, 미나리 타령 등 수많은 전해져 내려오는 농요를 구수한 소리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때 우천농협에서 소책자를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민속전반에 걸쳐 소리꾼(기능보유자 양중환)이 직접 채록한 농요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로 분명한 가치가 있고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해학을 묻어내고, 그 당시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횡성 정금리 민속의 보전과 전승」이라는 책이 나오기 까지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채록한 양중환 선생님과 향토문화 발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횡성문화원 이일영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이 군민들에게 널리 읽히어 횡성전통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사랑하는 분이 많이 나와 횡성문화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일

횡성군수 조태진

축간사

전통문화 향연의 장인 태기문화제를 매년 개최하여 전통민속에 대한 애정을 순수 실천하며, 회다지소리의 완벽한 재현을 통해 강원도로부터 전승 마을로 지정된 정금리 지역의 민속의 보전과 전승에 대한 책자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란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생명을 가진 것으로 현재의 생활에 의미와 효용이 있는 문화유산을 뜻합니다.

전통문화는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뿐 아니라 사회문화 발전의 토대역할을 함으로서 한 사회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도 그 나라 고유의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여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소외받던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토 민속문화를 계승창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금리 주민들과, 양중환선생님을 필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금민속보존회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전통문화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다지소리 전승자로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양중환선생님이 오랜 기간동안 민속전반에 대한 자료를 직접 채록하고 정리한 책이 발간된다는 것은 지역과 전통민속에 대한 그의 열정과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전통민속 발전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한 사람의 각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빚어 진 『황성 정금리 민속의 보전과 전승』이 전통과 민속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또한 전통 민속을 밝히는 햇불로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일

황성군의회의장 조창호

머리말

2년 전에 양중환으로부터 한 뭉치의 원고를 건네받았다. 200자 원고지에 민요, 민속 등을 뽁뽁이 적어 놓은 것이었다. 소리꾼이 직접 채록한 원고는 처음이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정 부문만 채록한 것이 아니라 민속 전반에 대해 자필로 채록한 원고는 보물이었다.

원고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입력하였다. 그러다가 그 소식을 접한 흥성문화원 홍성진 사무국장이 출판을 하자고 제안했다. 흔쾌히 받아들였다. 내친 김에 채록한 원고를 컴퓨터에 입력만 할 것이 아니라, 채록한 사설에 대해 그의 설명을 덧붙이기로 했다. 그의 원고에 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빛을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리꾼이다. 소리꾼인데, 목에 풍이 왔다.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한다. 그는 하루에 소주 3,4병을 즐긴다. 채록한 사설에 군더더기를 더하는 질문을 하니,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해 본다. 내일 만나자고 하면, 그는 술을 먹지 않고 기다려준다. 말을 하려면 목이 괴로울텐데, 싫은 표정을 짓지 않는다. 아니, 즐겁게 대한다. 감정을 넘어서는 확고한 소신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필자는 보물 원고에 군더더기를 하나 더 달았다. 기왕에 정금리에서 채록한 민요 사설과 민속경연대회 출연 기획서들을 첨부했다. 그 사설들과 기획서에 대한 그의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였다.

그의 목에 온 풍이 가시면 좋겠다. 타고난 청으로 아랫배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한 번 듣고 싶다. 그의 말대로 사람들의 심금을 오랫동안 울리는 소리를 듣고 싶다.

원고 교정은 류민우 양이 고생을 했다.

2006년 5월 1일

박관수

일러두기

1. 본문은 양중환이 평소에 채록해 두었던 원고를 그대로 옮겼다. 표기는 그대로 두고, 띄어쓰기와 구두점은 고쳤다.
2. 각주에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이는 양중환의 본문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3. 각주에 필자나 다른 사람의 설명이 들어가면, * 표시를 하여 양중환의 설명과 구분하였다.
4. 다른 가창자의 제보를 본문에 실을 경우, 이는 각주에 표시하였다.
5. 각주에 표시된 '황'은 『황성의 구비문학 II』(황성문화원, 2002), 1747-1805 쪽에서 채록한 것을 채수록한 것임을 표시하였다.
6. 각주에 [정옥출]이라는 표시는 정옥출이 해당 본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7. → 표시는 양중환이 자신이 채록한 사실에 대해 원래의 원고에서 설명한 구절이다.

목차

I. 양중환의 삶	15
1. 생애	15
2. 민속세계	19
1) 민속 채록	19
2) 민속관	27
3. 정금민속보존회에서의 활동	29
II. 양중환의 민속 보전과 전승	33
1. 의식요	36
1) 기원의식요	36
2) 통과 의식요	43
2. 노동요	96
1) 농산노동요	96
2) 임산노동요	122
3) 토건노동요	127
4) 가사노동요	131
3. 유희요	136
1) 동작유희요	136
2) 언어유희요	140
3) 놀림유희요	143
4) 자연물상대유희요	147
5) 신비체험유희요	153
6) 생활유희요	155
7) 가장유희요	160

Ⅲ. 민속경연대회 출연기획서	209
1. 횡성 짐말 용기굽기	209
2. 횡성 농가월령가	217
3. 횡성 장타령	224
4. 횡성 어러리 풍년가	239
5. 춘향이 놀이	243
6. 장승혼례 놀이	252
Ⅳ. 태기문화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262
1. 제16회 태기문화제	262
2. 제17회 태기문화제	265
3. 제18회 태기문화제	267
4. 제19회 태기문화제	267



박광수

1955년생.

한국의국어대, 건국대, 충북대, 강릉대 강사.

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

한국민요학회, 한국무속학회 이사

저서로는 『횡성의 구비문학 I·II』(공저, 횡성문화원, 2001), 『강원의 민요 I』(공저, 강원도, 2001), 『강원의 민요 II』(공저, 강원도, 2002), 『어려리의 이해』(민속원, 2004), 『강원도 송경 연구1』(민속원, 2005), 『풀썩는소리의 이해』(민속원, 2006), 『강원도 송경 연구2』(민속원, 2006)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강원도 민요의 전승 연구(강원발전연구원, 2005), 회질경 연구(지역문화연구4, 2005), 강원도 지역 귀신잡이의 소멸에 관한 연구(한국무속학회, 2006), 1940년대 남자동성애 연구(비교민속회, 2006) 등이 있다.

횡성 정금리 민속의 보존과 전승

발행일 | 2006년 5월 1일

지은이 | 박 관 수

발행인 | 이 일 영

발행처 | 횡성문화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91-1

전화 (033) 343-2271 팩스 (033) 343-7652

<http://www.hs-culture.or.kr>

인쇄처 | 나눔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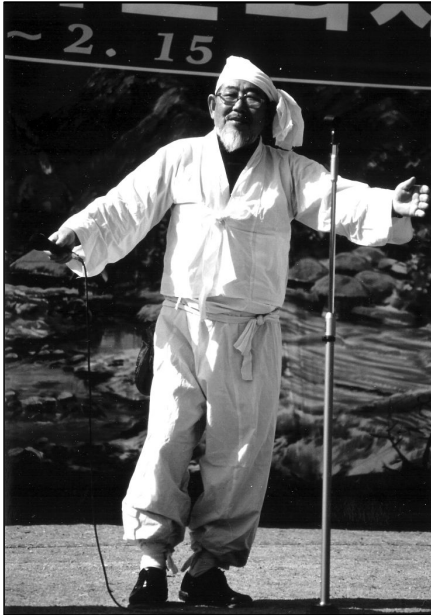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36-1

전화 (033) 342-7890 팩스 (033) 344-7890

(비 매 품)

이 책은 횡성군의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I. 양중환의 삶



양중환

1. 생애

양중환¹⁾이 태어난 날은 1937년 2월 28일이다. 양중환의 부인은 이름이 장이남이고, 태어난 날은 1937년 8월 17일이다.

양중환의 아버지는 양주하이고, 어머니는 장옥경이다. 그리고 아들은 양재학(50살), 양재호(44살), 양재운(40살), 양재웅(35살)이 있고, 딸은 양

1) 본 이름은 양중환인데, 호적에는 양중하라고 잘못 올라가 있다.

숙자(48살), 양미숙(39살)이 있다.

양중환의 아버지인 양주하는 일제 시대 때 산전리에 있는 은광에 나무를 공급해 주는 목상을 했다. 그리고 정금리에서 독점적으로 소금, 비료, 석유 등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고, 정미소, 양조장을 운영했다. 그리고 40여 개의 방을 갖추고 있는 여관을 운영했다. 그는 논을 80여 마지기, 밭을 5,000평 이상을 소유하며 머슴을 서너 명을 두었다.

양주하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소리꾼이었고 소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평양 권번 출신인 이옥진이 정금리에 낙향을 했는데, 그녀를 누이로 삼을 정도였다. 같은 동네에 사는, 양중환의 외삼촌도 동네에서 이름난 소리꾼이었다.

양중환은 유복한 집안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는 직접 농사일을 한 적도 없고 별다른 생업을 가진 적도 없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학교를 네 곳이나 옮겨 다녔고 마지막에는 충청북도에 있는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순탄하게 학업을 마치지 못했었다.

그는 ‘팔난봉’ 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자신도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다. 자신이 팔난봉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전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그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과거 문화가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네 노인들도 과거의 문화를 기억력의 문제 또는 가치관의 문제로 인하여 문화를 변형하여 후손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문화의 원래 모습을 있는 대로 파악하여 연구의 밑거름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적어도 45살 이전까지는 고향인 정금리에서 정착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 황성, 원주, 평창, 강릉 등을 돌아다니며 화투를 즐겼고, 옥이나 주막에 들어가 소리를 하고 듣는 것을 즐겼다. 그는 타지의 술집에 가서 ‘와리바시 곤장’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며 소리를 하기도 하고, ‘수심

가', '단가', '단가별곡', '청춘가', '어러리' 등을 기생들에게서 배우기도 했다. 그리고 정금리에 낙향하여 살고 있던 평양 권번 출신의 이옥진으로부터 서도 소리인 '공명가' 를 배웠고, 서울 권번 출신인 정옥화로 부터는 단가를 배우기도 했다. 그는 좋은 청을 타고나 기생들이 그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주 그를 초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삶은 집안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따라서 집안 재산은 소진되고 빚만 남게 되었다. 그때가 45살 전후였다.

그는 한때 정치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의 사촌형인 양덕인이 5대 민의원을 했는데, 그를 따라다니며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양덕인이 7번이나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5·16이 발생한 후 양덕인이 국회의원을 그만두자, 그와 함께 야당 생활에 몸을 담기도 했다. 양중환은 민주당 강원도 선전부장을 담당하기도 했고, 이범석이 이끄는 민족청년당의 황성, 평창 선전부장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사촌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활동을 한 것이다.

한편, 그는 박정희가 이끄는 공화당 시절, 정식 직원이 아닌 명예직인 중앙정보부 황성 총 관장을 3년 여 정도 하기도 했다. 그런 그는 군수나 경찰서장으로부터도 존대를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맛도 보았었다.

또한, 동네의 이장을 맡아 보기도 했다. 30대 후반에는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 자신의 생활보다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열중했다. 정금리는 평온한 시골 마을은 아니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이었다. 정금리 옆 마을인 산전리에는 일제 때 전국에서 2번째로 큰 동방광업주식회사라는 은광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광부로 전국 각지에서 거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용둔리, 산전리, 정금리, 하궁리에는 외지에서 2000여 명이 와서 살았는데, 다른 동네보다도 정금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살고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막이 정금리에만 48개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이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그는 깊숙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력으로 일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그의 풍부한 식견과

유식한 언변으로 잡패기들의 기를 꺾기도 했다.

이상에서와 같은, 그의 영서와 영동의 넘나들, 활발한 대인 관계, 옥과 주막의 잦은 출입은 그가 민속을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게 해 주는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

양중환이 민요, 민속 등에 의지적인 애정을 더한 것은 정금리에서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금리에서는 1977년 제1회 강원도 태백문화제에 농악과 미나리로 출연하였다. 이 당시 양중환의 친형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었던 양두환과 면사무소 출장소장을 했던 이중호의 주도 하에 민속경연대회 출연단이 결성되었다. 정금리는 양촌, 음촌, 향촌, 어둔리, 쇠깎, 대숲 마을로 이루어졌었고, 각 마을에는 농악대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할 농악대를 결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특별히 연습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준비된 상황에서 행정적인 지원만을 하면, 농악대 구성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였다.

1984년에는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정금민속보존회에서 ‘회다지’ 를 출품하였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때, ‘상여소리’ 는 우영진이 주고, ‘회다지소리’ 는 양중환이 주기로 했는데, 우영진이 배탈이 나는 관계로 양중환이 ‘상여소리’ 와 ‘회다지소리’ 를 주었고, 대통령상을 타게 된 결과, 양중환은 ‘회다지소리’ 로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4호로 지정을 받았고, 정금리는 1986년에 강원도로부터 회다지 전승마을로 지정을 받았다.

양중환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후 민속놀이의 보존과 계승에 의지적 열정을 보였다. 이중호와 협의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구상하여 각종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금민속보존회의 지도를 맡아 단원들을 지도하고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할 작품을 구상한다.

2. 양중환의 민속세계

1) 민속 채록

양중환의 민속 채록은 타고난 정확한 기억력과 예리한 관찰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옛날에는 민속은 보존적 가치를 띠고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 단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스쳐지나가는 일상일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두고 관찰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과거의 민속을 재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남들이 증언하지 못하는 내용을 증언한다. 이러한 것은 그의 기억력, 관찰력 등의 천부적 능력과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증언해야 하고 왜 그렇게 증언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의 민속에 대한 가치관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는 서원면 압곡리 최창규의 집에서 상여가 나갈 때 상여 앞에 광목을 까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나아가 부자집은 창호지를 많이 준비해 상여가 나갈 길을 창호지로 깐다고 했다. 이러한 증언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증언은 아니다. 그는 이러한 증언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노인들이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해 내지도 않는 사실을 그는 기억을 해내 증언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증언은 그의 영서, 영동을 넘나드는 활발한 사회 활동이 바탕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그는 민속 연구에 귀중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증언을 한다.

시골 마을의 토박이로 시골에서 직접 살면서 자신이 소유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민속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러한 관심은 민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증언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과거의 민속을 채록할 때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증언을 중시한다. 그는, 정확하게 증언을 해 줄 노인들을 선별할 능력이 있다. 토박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건성건성으로 증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인물인지를 안다. 그는 '장승 혼례'를 재구하여 민속놀이에 출품하기 위해 85살 이상의 토박이 노인들을 면담했다. 그들

은 어렴풋이나마 어려서 사라진 장승 혼례에 대해 증언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상만을 채록하지는 않았다. 그는 실제로 들관 노동이나 가사 노동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증언과 채록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마저도 채록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원래대로 채록하고 있다. ‘풀썩는소리’와 ‘곱세치기’가 그들이다.

그의 채록은 남다른 면이 있다. 특정 노래를 채록할 때 사실만을 채록하기도 하지만, 특정 노래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도 함께 채록한다. 다시 말하면, 민요의 특정 구절들은 후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는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사실은 물론 그 사실들이 담고 있는 의미도 함께 채록하는 치밀함과 선구자적 정신을 찾을 수 있다. ‘곱세치기’의 사실과 설명을 사례로 들어 보겠다.

본문 :

자아 일본놈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요술 꾸며 가지고 대한민국 잡아 먹을라는 일자란다

일노정장에 대포 소리다

일천이간장 일천이간장

송아지 송아지가 풀만 달라는 군

백낙천 권학문이로군

이천 도래가 견방하니 이천도래가 견방화

이천석 실은 배로군

이관악이 동쪽이요 관악이 동쪽 관악이 동쪽이다 관악이 동정이지 둘이 곱어서 틈이 없구나

삼월 삼월 모춘 삼일이 설한풍이 불면 비 온단다
전라감사는 고와만 우느냐
아 스리쌀작 견구보니 처녀쩍 걸음이다 슬근이 송풍
삼을 심으니 동자삼이요 삼 남게 연이 걸렸네

돌돌래 광천이로군
자녀덧이 곱세툼시다
뜯격이새 울어 동트는군 너덧이 곱세툼자는군

오시락 바시락 담 넘어간다
나경동정 나경이동정 오마던 님이 오셨네
자나격이 동정이요 나격이 동정
오대산 산신령님이다
오촌택이면 당숙모라지 꺾으니 오현밭이로군
오신 님 가실 줄 모르네

자 누구 누구가 곱새꾼이나 누워리갈길 청산만 고와 오누나
누워리갈길이 황천객이다 누워리갈길
육진장포가 열두맥이 누워가는 건 황천길이로군
자철산 가는 조기쟁이 배란다 농천호걸 한 방 맞다 청용도 드는 칼인가

칠두부측량 민주뜯이다 농천이호걸
농천이호걸에 디디고 나니 맵새난다 농철수 흐르는 물이로군

자 팔아라 드러라 돈 쓸 일 났네
팔도명산이 금강산 만물초로군
아금이도 억세계 상팔자요 금수두강산
팔아라 드러라 돈 쓰일 일 났네 금강산 유점사로군

북문이 터졌다 수원북문이로군
부자집 마당에 구두가 두 켤이 두 켤이

자 수물녀장 도시요리 장근도감이 나가신다 장근도감이
장차 할 말 취재도 하랴 장근도감이
아 장한림 수풀에 꿩이 긴다 장근이도감
장장거리고 덤비지마라 장근도감이다
십만 석 실어 놓은 배로군 장근이도감

설명 :

일노전장 :노일 전쟁.

백낙천 : 본명은 백거이. 중국 당대의 대표적 시인.

권학문 : 글을 가르쳐야 한다.

이천도래 : 이천 석의 곡물을 실고 배가 고향으로 드러온다.

곱세 : 집을 법집으로 역어 덤은 다음 맨꼭대기에 용구세를 싸우는 것인데,
이 용구세를 곱세라고 한다.

돌격이새 : 솟쩍새.

오현발 : 총이 속사 되는 것. 오연발.

누우리갈길 : 죽어서 가는 길.

육진장포 : 지난 날 함경북도 육진에서 나던 삼베. 또한, 사람이 죽어서 시
신의 염수습할때 쓰이던 마포. 육진은 이조 세종 조에서부터 육진을 두고 몽
고족과 여진족 난을 무찌르기 위해 세웠든 군사의 요충지이며, 문종 때 김종서
가 육진의 총수령이며 유명한 명장이기도 하다.

농철수 : 이것은 강의 이름인데, 어느 강의 이름인지 알지 못 함.

금의옥식 : 잘 입고 잘 먹는다.

국궁 다데기 : 굴게 다진다.

도시요리 : 일본 사람의 말이며, 지금 중화요리, 일본요리 하는 것과 같다.

슬근이 송풍 나경동정 장근도감 : 시장 장사판의 접장 어른을 말함. 접장의
권리가 상당했다.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곱세치기’ 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곱세치기’ 사실을 채록하고, 게다가 각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채록한 것은 채록의 치밀함과 선구적 자세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²⁾

‘풀씨는소리’ 를 채록할 때도 그의 이러한 채록 방식이 드러나 있다. 그의 설명대로 ‘떡섬거리’ 라는 말은 풀이 작두에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어시기 거시기 화식이 주식이’ 라는 말은 이 풀 저 풀 여러 가지 풀이 작두에 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횡성 지역 ‘풀씨는소리’ 에서 쓰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아가 영서 지역에서도 쓰이는 사실이 아니다. 필자가 강원도 전역을 답사한 결과, 이러한 구절은 주로 삼척 주변 지역의 ‘풀씨는소리’ 에 나오는 사실이다. 필자가 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으나, 그는 정금리 지역에서 채록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채록했다는 사람을 만나도 그러한 제보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정금리에 사는 여러 노인들을 만나도 ‘풀씨는소리’ 에서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다. 삼척에 살던 사람이 정금리에 이사 와 이러한 사실로 ‘풀씨는소리’ 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이 그에게 채록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여하튼, 그는 민요를 채록할 때 사실은 물론 현장적 상황 내지는 그 사실들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회다지소리’ 도 채록하고 있다. 그는 선대들이 ‘회다지소리’ 를 할 때 ‘토끼타령’ 을 불렀음을 알고 있다. 그는 필자의 질문에 ‘토끼타령’ 이 왜 ‘회다지소리’ 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즉, 그는 ‘토끼타령’ 이 회다지를 할 때 부르는 소리로서는 적절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선대들이 ‘토끼타령’ 을 ‘회다지소리’ 선소리로 주었기 때문에 현장적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채록한 것이다. 나아가

2) 필자도 이미 민요등의 구비문학을 채록시 단순하게 사실만을 채록할 게 아니라, 채록한 사실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향유주체’, ‘향유지식’, ‘향유의식’, ‘향유행위’ 등의 ‘향유소’ 를 함께 채록해야 함을 말했고, 그러한 방식에 입각하여 민요, 무가 등을 채록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이러한 ‘토끼타령’ 을 부를 줄 아는 선소리꾼이 없음을 애석해 한다.

그는 전승 현장을 증시함과 동시에 ‘문서’ 를 증시한다. ‘문서’ 를 증시하는 그의 생각은 문서를 이해하고 쓸 줄 하는 능력이 그 바탕을 이룬다. 그는 민속에 관한 책이나 자료를 구입해 읽기 때문에 특정 시안에 대해서는 오해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는 “정선의 아리랑은 고려가 망하고 정선으로 피신하여 와 한과 설음의 결합된 소리 그 소리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아라리’ 라고 하지 않고 ‘어러리’ 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강원도의 노인들이 ‘어러리’ 라고 말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러리’ 의 원조가 정선이 아님을 그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민요는 시대의 산물이고 지역민의 정서가 담겨 있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려다 어떤 책에선가 자신이 읽었던 내용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용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러리’ 가 정선에서 발생했다고 말한 것이다. 즉, 문서를 증시하는 생각이 자신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민요에 대한 생각을 가린 것이다.

그가 문서를 증시하게 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소리꾼의 능력은 문서의 보유 능력과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승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리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상여소리’ 를 줄 때 여덟 글자 정도로 구성되는 ‘짜른상여소리’ 를 주는 데에는 문서 보유 능력이 그리 크게 요구되지는 않지만, 16자 정도로 구성되는 ‘긴상여소리’ 를 줄 때는 문서 보유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 그가 ‘시중잡가’, ‘회심곡’, ‘초한가’ 등을 전승 현장에서 채록하지 않고 책이나 기왕에 채록된 글을 보고 재채록하는 이유는 바로 문서 보유 능력을 증시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한 작품을 구상할 때도 그는 기왕에 발간된 책에서 사실을 따온다. 최근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장승 혼례 놀이’ 라는 작품을 구상하는데, 일부 사실은 <신재효본 변강

쇠가>에 나오는 '장승타령' 에서 일부 사설을 따온 다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설을 조합해 만들었다.

열 ~ 널널 상사데야
영화로다 영화로다 우리 마을이 영화로다
후렴 열 ~ 널널 상사데야
太古라 天皇氏는 木德 으로 즉위하니
五行中 먼저난게 나무덕이 으뜸이요
天地人 三皇時에 一萬八仟歲 무위위화 하시고
유완유소 聖人君子 德化도 장할시고
구목위소 食木實이 그아니 좋을신가
世上天地 분화후에 삼남화상 이리나니
天皇氏는 불을주고 地皇氏는 물을주어
海東朝鮮 생겨나니 面面村村 넓은들과
높은데는 밭을갈고 앓튼데는 논을떠서
神農氏의 農事法이 子子孫孫 이어지고
상백초를 하시여서 아픈병을 고치시고
白頭山에 天池는 영대산에 내막이요
東皆骨 西九月하니 南地異 北香山하여
空中으로 드는煞은 솟대將丞 막어주고
땅으로 드는厄은 大將軍이 막어주고
우리洞里 大城皇은 영험하기 측량없어
大將軍과 솟대將丞 이리저리 제도하여
이산저산 승지간에 마마할멈 찾아들면
大將軍을 앞세우고 솟대將丞 뒤세워서
求民治病 하였으니 궁홀하기 그지없네
日出而作 요순백성 어찌편타 할수있나
하은주 夕陽되고 漢唐宋 風雨일어
국태민안 時和年豊 한복고복 하이시고

우리江山 좋을시고 永世無窮 하옵서소
영화로다 영화로다 大城皇任이 영화로다
얼렷렷 상사데야

그가 이처럼 다른 책에서 사설을 따오는 것은 한자투의 구절을 사용하고 미문이 담긴 사설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욕심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소리꾼들이 사설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생산하는 방식을 체득하여 이해하고 있다. 소리의 사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소리꾼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따라 자신의 소리로 삼는다. 소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울릴 수 있는 사설이면, 그것이 기왕에 전승되어 오던 것이든지 새로운 것이든지 자신의 사설에 도입하여 소리를 주면 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이러한 문서 정리를 정금리의 소리꾼들도 인정하고 활용한다. 정금리의 선소리꾼이었던 엄영태는 자신이 선소리로 주고 있는 ‘논농사소리’, ‘상여소리’, ‘회다지소리’ 등의 사설은 양중환이 정리한 사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평소에 아무 곳에서도 자유자재로 불렀던 ‘어러리’의 사설마저도 양중환이 정리한 사설을 암기하여 부른다고 했다. 엄영태는 양중환보다 나이가 10여 살이 많다. 양중환에 비해 훨씬 오래 전부터 실제 논농사에서 소리를 주었던 소리꾼이다. 그러한 그가 양중환이 정리한 사설을 암기하여 소리를 주는 것은 자신 원래 부르던 사설을 버렸다기보다는 좀더 양이 많게 잘 정리된 사설을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양중환의 민요 채록은 기왕에 출간된 책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타 지역의 소리꾼들로부터도 소리를 채록한다. 원주, 고성, 강릉의 ‘모심는소리’ 등도 채록하였다. 또한, 부인네들이 부르던 유희요도 채록했다. 일정한 분야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민요 나아가 민속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민속관

양중환은 각 지역 사투리의 억양 자체가 민요에 반영된다고 한다. 나아가 민요는 지역별 특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요소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부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 지역의 민요가 다른 지역에 비교 우위에 있지 않다고 한다. 민요는 각 지역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자연스럽게 유출하는 장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인식한다. 그는 소리꾼으로서 타고난 절대 음감을 지니고 각 지역의 소리가 차이점이 있음을 안다. 그는 ‘어러리’가 강원도의 소리이면서도 지역별로 다른 유형을 지닌 소리로 불린다고 한다.

‘횡성어러리’는 ‘정선어러리’는 물론 ‘평창어러리’와도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어러리’를 다른 소리로 부른다. 이러한 그의 각 지역 ‘어러리’에 대한 변별적 인식은 실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음주 가무를 즐겼던 체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어쨌든 ‘어러리’가 지역별로 달리 불렸다는 것은 유형화의 문제점 검토 차원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민요가 시대에 따라 변화함을 안다. ‘어러리’의 가사도 “요 중년에 나왔다.”, “중년에 나왔다.”, “오래 전에 나왔다.”라고 말하며, 사설의 형성 연대를 말한다. ‘요 중년’은 10여 년 전을, ‘중년’은 50여 년 전을, ‘오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설에 대한 시대 구분은 대부분의 창자들도 아는 바이지만, 그의 시대 구분은 비교적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다.

그리고 각 사설의 문구에 대한 지식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앎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창자들 사이에서 과거부터 전승되어 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어러리’ 사설에 나오는 ‘얼룩암소’가 서양에서 유입된 젓소 아님을 강변한다. ‘얼룩암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양에서 유입된 젓소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안해, ‘얼룩암소’가 ‘젓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는 털의 색깔이 얼룩덜룩한 소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초인지적 자세로 민속에 접근하고 있다.

반면에, 기왕에 형성된 자신의 ‘향유지식’이 틀림이 없음을 확신하며 어색한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어러리’에는 “일번초당에 병이 드러서 홀로 누웠으니 어느 누가 임이라고 병치장 하나”라는 각편이 있다. 그는 ‘일번초당’을 “서당에는 학동들이 공부를 하다 쉴 수 있는 초당을 만들어 놓는데, 일번초당이란 첫 번째 초당을 뜻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홀로 누웠으니’를 “학동들이 아파도 부모님들이 서당에 가라고 하니, 학동들은 서당에 와서 초당에 드러눕게 된다.”라고 해석한다. 정금리 마을에서 대부분의 창자들이 ‘일칸초당’이라고 하지 않고, ‘일번초당’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존중한 해석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 각편을 부르는 대부분의 가창자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다르다. 대부분의 가창자들은 “방이 한 칸인 초당에서 아파 누워 있어도”라고 해석한다. 여하튼, 그는 단순하게 사실의 문면적인 뜻 이외에도 그 사실을 둘러싸고 있는 가창자들의 해석을 존중한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민속 전반에도 적용된다. 그는 ‘지신밟기’와 ‘걸립’을 구별한다. ‘지신밟기’는 농악대들이 정월달에 자신의 동네만을 돌아다니며 고사반을 치며 마을의 안녕을 빈다고 했다. 반면에, ‘걸립’은 마을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농악대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 고사반을 치며 걸립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리고 ‘퇴룽’을 하는 것도 집안의 공간을 활용하고 시신이 덜 부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상여가 나가다가 노제를 지내는 것도 친척 집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밥을 대접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는 민속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3. 정금민속보존회에서의 활동

앞에서 정금민속보존회는 그리 어렵지 않게 출발했다고 했다. 이미 여러 마을에 농악대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정금리에서 외지의 민속놀이에 참가하기 위한 농악대 구성은 쉽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민속놀이에 참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농사일은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일년 내내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사일이 끝나면 민속놀이에 참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게다가 20년 전은 사람들이 도시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전이라 인적 구성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양중환과 이종호의 주도 아래 타지의 민속경연대회에 황성군 대표로 참가했다. 황성군청도 외지에서 민속놀이 참가 의뢰가 오면, 정금민속보존회에서 참가하기를 요청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민속경연대회는 황성군에서는 정금리 주민들만이 출전하게 되었다.

양중환이 정금민속보존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40대 중반쯤 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강원도에서 제4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종호와 함께 작품을 구성하여 여러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동일한 작품만을 들고 나갈 수 없어 농악 외에, ‘회다지’, ‘육레놀이’, ‘미나리타령’, ‘옹기굽기’, ‘농가월령가’, ‘장타령’ 등을 개발하여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년 참가하다 보니 특별한 자료를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동일한 내용을 제목만 바꾸어 출연하기도 했다. ‘두레농요’, ‘연자방아소리’, ‘연자매소리’, ‘황성어러리타령’, ‘황성들소리’, ‘황성두레농요’, ‘우밀어러리타령’ 라는 명칭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작품 제목을 달리 부른 것은 정금민속보존회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속대회 심사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제목으로 민속경연대회에 나가면, 애초에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제목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심사를 의식해 작품의 사설을 창작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태기산아 봉화산아 말 무려 보자
임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

어둔골 연자방아는 사시사철 도는데
시집 못 간 뒷집 처녀는 안달이 낮네

위와 같은 방식의 사설 개작은 ‘어러리’ 사설에 지역의 지명이 들어가야 그 지역 고유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작품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양중환은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작품 구성을 할 때 자신이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무엇보다도 촌노들의 증언을 참고한다. ‘장타령’, ‘지경다지기소리’의 사설을 구성할 때 우선 촌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그에 다른 사설을 첨가한다. 그리고 흙을 이길 때 부르는 소리인 ‘등치기소리’는 촌노들이 ‘지경다지는소리’와 유사하다는 증언을 참고하여 구성했다. 그리고 ‘장승 혼례 놀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에도 이미 70여 년 이전에 전승이 중단된 것을 85살이 넘는 노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했다.

그는 정금민속보존회의 지도로서 출연 작품을 연출하고 단원들을 지도한다.

황성군에서 타지의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는 것은 이제 정금리에 한정되는 분위기다. 이제는 정금리 외의 다른 동네에서 타지의 민속놀이에 출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금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속놀이에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참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금리에 거주하는, 어느 정도 민속놀이에 익숙한 노인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민속놀이에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젊은이들도 시간을 내 연습을 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젊은이들은 생업을 위해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거나 일터에 나가야 한다. 일시적으로 민속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정금민속보존회가 매년 정초에 행사를 벌이는 ‘태기문화제’에 군에서 2,0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각종 민속경연대회 출연경비로 2,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연습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 정금 민속보존회 지도를 맡고 있는 양중환, 회장인 이계범, 총무인 홍성익의 희생적인 주민 설득으로 민속보존회가 존속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민속에 대한 기억은 생생한 편이다. 비록 적극적인 자발성 속에서 민속놀이에 참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주민들에게는 민속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고 애정이 남아 있는 편이다. 이러한 면은 민속경연대회 위주의 민속 전승이 가져다주는 순기능 중 하나다. 생활 속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던 민속놀이는 그 전승이 중단된 지 오래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민속놀이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득히 사라졌다. 비록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민속놀이의 전승이지만, 그나마 전승의 불길을 가물거리게 한다.

양중환은 민속놀이의 전승 중단은 문화를 무시한 경제 발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사실 경제 발전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경제적인 마인드만 가득하게 만들었고, 민속문화적인 마인드를 제거했다. 도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마을로 지정된 정금리에서도 그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금이라도 민속의 전승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승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가 경제 발전 때문에 희생된 만큼, 경제가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상여 다리 건너기

II. 양중환의 민속 보전과 전승³⁾

우리 地域의 소리를 소개하고 論하고저 한다. 본디 소리는 其 國民의 감정을 그대로 表現한 것이다. 국태민안하고 시화년풍이 들면 태평성대와 안락도를 누가 지어서 부르게 한 것이 많고, 백성들이 마음 속으로 우리 나는 감사의 표시를 한갓 소리로서 불렀으며,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⁴⁾ ‘적벽가’, ‘수심가’, ‘춘향가’, ‘수궁가’, ‘홍부타령’, ‘육자베기’ 등 그 지역 특색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경기 민요’, ‘오봉산 타령’, ‘창덕궁 타령’ 등 이름 있는 곡과 가사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농요나 민요는 그 시대의 세월의 흐름 따라 많이 변했다고 생각된다.⁵⁾ 예

- 3) * 여기서부터는 양중환이 채록한 원고를 그대로 싣는다. 각편의 제목은 양중환이 작성한 원래의 원고대로 두었지만, 각편의 상위 항목에 대한 제목은 각편을 재조정하면서 필자가 임의대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 표시가 없는 각주의 설명은 양중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4)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들의 억양 자체가 소리로 연결된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좀처럼 전라도 소리를 할 수 없다. 타 지역의 사람들도 ‘어러리’의 독특한 음악적 자질을 살려 내지 못한다. 그리고 유행가조에 물든 사람들은 과거 소리의 흐름을 모른다. 특히, 높고 낮음을 소리로 내지 못한다. 소리를 하는 사람이 ‘꾼’이 되려면, 우선 궁상각치우의 기본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소리를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정읍리에서는 김영배의 소리가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이다. 소리꾼으로서 또 하나 갖추어야 할 것은 좋은 청을 타고나야 한다. 청을 타고 나지 않으면,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소리의 맛이 우리나라지 않는다. 소리꾼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는 소리를 잘 해야 함은 물론 재담(사설)이 풍부해야 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부르는 소리의 원맥 즉 그 지역에서만 부르는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를 줄 알아야 한다. 아들인 양재학은 소리꾼으로서 이러한 점들이 미흡하다.
- 5) * 양중환은 2006년 2월 28일 태기문화제에서 제를 올릴 때 사용된 지방에 쓴 신위의 이

컨대, “일본 東京을 갈러니는 노자돈 생각이 나고 남에 여자 불라니 매 마 줄 생각이 난다. 日本의 東京이 얼마나 좋아서 꽃 같은 나를 버리고 연락 선을 타나.” 위의 두 소설의 노래는 36년간 日本 治下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나온 것이고, 江原道 산골 정선의 아리랑은 고려가 망하고 정선으로 피신하여 와 한과 설음의 결합된 소리 그 소리인 것이다.⁶⁾ 歷史에 對하여 말할 자격도 없으나, 우리들의 소리는 그 땅 그 곳의 역사와 눈물 나는 고뇌가 같이 한 산 역사요 민요의 뿌리인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도 論하였으나, 다시 재론코져 한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소리가 지금의 정도나마 保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至今 우리는 농요, 민요를 너무도 많이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소리는 다시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우리 것을 영구 保全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⁷⁾ 이

를을 문제 삼았다. 그 지방에는 ‘皇天后之神 神位’ 라고 쓰여 있는데, ‘泰岐文化祭之神 神位’ 라고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 상여가 전래되어 오던 상여 모습과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변화는 전통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 6) 이런 내용은 구전되어 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어느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 7) [양재학] 아버지인 양중환은 자신에게 소리꾼은 항상 목을 가다듬고 사랑해야 하고, 소리를 깊고 길게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목과 입으로만 소리를 하면 듣는 사람의 귀는 즐거우나 순간적이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이어야 자신의 소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하는 깊은 감명을 준다고 하였다. * 양재학은 2006년 3월 1일 현재 50살의 정금리 토박이로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회다지 소리 전수 조교이다. 그는 무형문화재 전수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선 금전적인 지원이 적다고 하였다. 전수 조교가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전수 장학생이 한 달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 다음에 전수 조교나 장학생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였다. 회다지 전수 조교가 1명이고 전수 장학생이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수생들을 우천면 정금리에 사는, 40살 이하의 사람들로만 한정을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횡성군 전 지역에서 나이 제한 없이 적어도 40명 정도를 전수생으로 선발하여 특정 지역에서만 문화의 전승이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에서 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회다지 공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계범, 홍성익] 정금민속보존회가 결성된 것은 1977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하던 양중환의 친형인 양두환과 면사무소 출장소 소장을 하던 이종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이들이 주도하여 민속경연대회에 나갈 단원들을 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었다. 정금리에는 향촌, 읍촌, 양촌, 대숲, 어둔리, 쇠깎 등 6개 부락이 있었는데, 이들 각 부락에는 농악대가 활발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농악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농사일 이외에는 특별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달리 농번기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방법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農民은 農村에서, 都市人은 都市에서 손에 손 잡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 것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금리에서 농악과 미나리로 제1회 강원도 태백문화제에 출연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다가 조직적으로 연습을 하여 경연대회에 출품한 것은 1983년 제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미나리타령' 으로 출품할 때부터였다. 1984년에는 '회다지소리' 로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때 '상여소리' 는 우영진이 주고 '회다지소리' 는 양중환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우영진이 배탈이 나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중환이 '상여소리' 와 '회다지소리' 를 주게 되었고, 양중환은 '회다지소리' 로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4호로 지정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1986년에는 강원도로부터 정금리가 회다지 전승마을로 지정을 받았고, 1995년에는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마을로 지정을 받았다. 1987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태기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년 시행해 오다 2002년부터는 면 단위로 태기문화제 행사를 치른다. 여하튼, 군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로 민속경연대회가 있으면, 군청에서는 다른 동네에 권유하지 않고 매번 정금리에서 참가해 주기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매번 정금리에서 출연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일 년에 2,3차례 이상씩 외부에 가서 민속놀이를 한다. 이러한 민속놀이들은 양두환, 이종호, 양중환 등이 기획을 하였다. 태기문화제는 얼마 전까지 하공리, 산전리, 용둔리, 정금리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여 민속놀이를 진행했으나, 요즘에는 정금리에 사는 사람들만이 행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하여 행사에 참여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데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습을 15일 정도는 해야 하는데, 일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사람들은 놀이 연습보다는 일당을 많이 주는 노동을 택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금리에 사는 사람들이 양지촌 아주머니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마련하여 민속놀이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기문화제 행사와 외부 민속경연대회 출품을 위한 예산은 각각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60여 명의 단원이 연습을 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과거와는 달리 단원들에게 일당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행사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람들에게는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우선한다. * 이계범은 2006년 3월 3일 현재 70살의 토박이로 2001년부터 정금민속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고, 홍성익은 현재 65살의 토박이로 총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지도를 맡고 있는 양중환과 함께 정금민속보존회를 이끌고 있다.

1. 의식요

1) 기원의식요

(1) 고사소리⁸⁾

해동조선국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권명대주 ○○○ 甲子生

本官 ○○ 만고복덕이 떠드러 오십소서

국태 민안하니 시화연풍 안과태평 연년이 돌아든다

쑤州李氏 등극이요 五百年 도읍이라

삼각산이 기봉하니 봉학을 놀러 터를뒹아

옷대궐 아래대궐 경복궁에 새대궐

왕십리가 청룡이요 주작현무 백호로다

동작이 수구막어 왕호기지가 되었네

각도각읍을 마련할제

경상도를 내려가서 七十六주를 마련하고

전라도를 돌아들어 七十一주를 마련하고

충청도를 돌아들어 이십일관 마련하고

경기도를 돌고돌아 二十六관 마련할제

강원도를 돌고돌아 二十三관 마련하고

원주영문을 마련하고

횡성은 대읍이라 이동네도 대동이네

그건그러 하려니와

왕호기지⁹⁾에다 집이라도 지어보자

경상도로 내려가서 일등목수 데려다가¹⁰⁾

8) * () 항목에 있는 노래의 명칭은 양중환이 쓴 대로 썼다.

9) 왕후장상이 날 땅.

10) 경상도에는 큰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곳에 뛰어난 목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갖인쟁기¹¹⁾를 짚어지고 만첩청산 썩드러가서
 이나무 저나무 땅땅잡아
 굽은나무를 굽다듬고 젓은나무 젓다듬고 휘청휘청 치다듬어
 선자치¹²⁾ 두리지등¹³⁾ 육칸대청 세울적에
 이등¹⁴⁾풍수 모셔다가 자좌오향 잡어놓고
 거북구자 터클뒹어 용용자 집을지어
 점복자 상지등¹⁵⁾에 비인간지 오복이라 오복이 돌아든다
 인복은 걸어들고 구렁이복¹⁶⁾은 기어들고
 무량대복 흘러들어 친복은 돌아들어
 거부장자 점제하고
 아랫방웃방 가래달이¹⁷⁾ 국회수복에 완자무늬
 건네칸이 이칸이요 대청이 사칸이라
 열두칸 줄행낭에 솟을대문 달아놓고
 소지하니 황금출이¹⁸⁾ 개문하니 만복래라¹⁹⁾
 네귀에 풍경달아 동남풍이 드러불어
 애경대경²⁰⁾ 하는소리에
 만복이 돌아들어 거부장자 되게하고
 그건 그러하되 방치장이나 하여보자
 쳐다보니 소라반자 내려다보니 각장장판
 자개함농 반달이는 머리맛에 돌려놓고
 청동화리 백탄수라 인두한쌍 꽃았으니
 방치장도 수수하다

-
- 11) '쟁기' 는 소가 땅을 가는 도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끌, 망치, 톱 등 온갖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12) 무슨 뜻인지 모른다.
 13) 네모나게 다듬지 않은, 원래 모습대로 꺾질만 벗긴 둥근 기둥.
 14) 일등은 나라에서 쓴다.
 15) '卜' 자처럼 골게 뺀 큰 기둥.
 16) 구렁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집안에 있어도 잡지 않는다.
 17) 미닫이.
 18) 청소를 하면, 황금이 저절로 생긴다.
 19) 일찍 문을 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 풍경소리의 의성어.

그건 그러하되

강남서 나오시는 호구별상²¹⁾마마님이 원세분이 나오실제

조선이 적단말을 바람풍편에 넘짓들고

원분 호양하고²²⁾ 단세분이 나오실제

어떤손님 나오시나

말잘하는 호변손님 글잘쓰는 문장손님 활잘쏘는 활량손님

압록강을 다다르니 무슨배를 잡아탈까

무쇠배를 잡아타니 무쇠배는 지남철이 겁이나고

흙토선을 모아타니 흙토선은 동남풍에 풀어지고

나무배를 잡아타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하도낙선 썩내려가서 연잎대잎 쭈루룩흠어

연잎은섰을 바닥을삼고 댓잎을 섰을삼아

압록강에 띄어놓고 마마님이 노를저어

이기중에 드러와서 이기중에 옥동자를 바라볼제

하루이틀 몸을주어²³⁾ 사흘나흘 보람²⁴⁾내어

닷세엿세 보람건어 이레여드레 일취월장을 시켜놓고

오뉴월에 외가지불듯²⁵⁾ 칠팔월에 목화피듯

서귀발²⁶⁾로 낚은듯이 우릉층층 자라날제

한두살에 말배우고 세살네살 글배울제

무슨글을 가리킬고

친자이자²⁷⁾ 논어맹자 사서삼경

주역팔괘 무불통지 룡락하니 만고의 문장이라

문장은 이태백이요 필법은 왕희지라

나라가 태평하다 하여 과거를 보인다네

21) 마마 병을 앓게 한다.

22) 돌아가다.

23) 부모가 아이를 껴안아 준다.

24) 마마를 앓아 낫은 부분. 이 부분을 잡아 떼지 않으면, 마마 자국이 남지 않는다.

25) 오이와 가지는 금방 크다.

26) 서리.

27) 어느 책인지 모른다.

이덕에 도련님 거동뵈라
 구름같이 허튼머리 반달같이 화룡수로 허리설설 흘러벗고
 서각출이²⁸⁾ 궁초댕기 날출자로 잡아매고
 홍사도포 청사떡에 아청칭²⁹⁾ 놀러떠고 수수하게 잘도차렸네
 나구치장 둘러보세
 서산나구 끌어내여 호치돈움 돌위놓고
 비단다련³⁰⁾ 다달았으니 나구치장도 수수하예
 도련님 거동뵈라
 나구등에 선뜻앳아 비호같이 가는구나
 채를들어 비용안 을증³¹⁾ 건너 떡전거리³²⁾
 장중앙을 들어서니 팔도의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였거늘
 과일이 격한지라
 글제판 바라보니
 글제가 걸렸거늘 무슨글제 걸렸는고
 봄춘자 바람풍자 춘풍이라 걸렸거늘
 도련님 거동보소
 시지를 펼쳐놓고 용연에 먹을갈아
 무슨필 황무필 밤중등 흠씩적서 일필휘지로 선장하니
 상세관이 받아보고 아하이글 잘지었다
 글마다 비점이요 글귀마다 관주로다
 알장급장 독장원이요
 흥패백패 내여주니 흥패백패를 받아들고
 처소에 돌아오니 아해광대가 한쌍이요
 으른광대가 한쌍이 본덕으로 선문하니
 아해광대가 앞세우고 으른광대 뒷세우고
 거리소중³³⁾ 삼현육각을 올리면서 내려온다

28) 무슨 뜻인지 모른다.

29) 무슨 뜻인지 모른다.

30) 비단으로 한 머리 굴레.

31) 어디인지 모른다.

32) 어디인지 모른다.

본덕으로 선문하니 부모에게 현알하고
 조상님께 소분하니 이런영화 또있겠는가
 그거는 그러한데 농사라도 지어보세
 앞들논도 세마지기 뒷들논도 세마지기 건네베미도 세마지기
 무슨법씨 하여볼까
 여주이천 자차베요 광주문안 사살베
 많이먹자 김불베 수염많아 노인베³⁴⁾
 후두둑두둑둑 장끼찰 비단찰에 만물찰에 울통울통에 돼지찰³⁵⁾
 압눈에는 메베심고 뒷눈에는 찰베심어 추수는 동작이라
 추수를 걸어보자
 물매³⁶⁾같은 종놈은 지게걸어 저들이고
 앵두같은 종애기³⁷⁾는 따리밭쳐 여들이고
 우각뿔이 자각뿔이³⁸⁾ 별배기³⁹⁾ 노구거리⁴⁰⁾
 나갈적에 빈바리오 들어올적에 쌍쌍들어
 앞노적에 뒷노적에 멩에노적⁴¹⁾ 가리노적 다물다물 담었는데
 난데없는 부엉떡새는 너불넙쩍 날아들어
 한나래를 툇탁치니 이리만석 쏘아지고 저리만석 쏘어진다
 억만석수 만석이 쏘아지니 거부장자 되겠구나
 그럿키는 그러하되 우마유축 놓아보자
 말을놓으면 용마가되고 소를놓으면 창호⁴²⁾가되고
 개를먹이면 호박개⁴³⁾되고 닭을놓으면 봉이가된다
 고후박개 앞산을보구서 커경경 짓는소리

33) 거리 가운데.
 34) ‘관산벼’ 라고도 한다.
 35) 이는 모두 실제 벼 이름이다.
 36) 무슨 뜻인지 모른다.
 37) 여자를 귀히 여기는 단어.
 38) 소 뿔 중에 이런 뿔은 없다.
 39) 소 앞머리 가운데 별 모양으로 흰 털이 박혀 있는 소.
 40) 마른 소.
 41) 소 멩에 모양 가리를 썩는다.
 42) 큰 벼.
 43) 중국 개로 크다.

만복이 돌아들어 거부장자 점지하고
 낭걸립⁴⁴⁾에 가는길에 액살이나 풀구가자
 정월에 드는액은 이월영동⁴⁵⁾에 막어주고
 이월에 드는액은 삼월삼짓에 막어주고
 삼월에 드는액은 사월초파일 막어주고
 사월에 드는액은 오월단오로 막어주고
 오월에 드는액은 유월유두에 막어주고
 유월에 드는액은 七月七夕 막어주고
 칠월달에 드는액은 八月한가위 막어주고
 八月에 드는액은 九月九일에 막어주고
 구월달에 드는액은 시월무일 막어주고
 시월달 드는액은 동지팥죽 막어주고
 동지달이라 드는액은 선달이라 그믐달에
 방맹이맞은 북어대가리 의주월강 ○○○○⁴⁶⁾
 선달에 드는액은 正月이라 보름날 막어주고
 일년은 열두달이요 삼백육십 오일이요
 과년은 열숙달인데 남에눈에 꽃이되고
 남에눈에 잎이되어 웃음으로 연락하고
 안과태평 하옵기를 축원축원 이옵니다

→ 이 ‘고사소리’⁴⁷⁾는 一年 農事를 지어 놓고 고사반을 베푸는데, 조상

44) 자신의 동네에서 하는 지신밟기가 아니라 타 동네에 가는 걸립을 말한다.

45) 강릉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영동할머니 신을 많이 모신다.

46) 어떤 말이 오는지 모르겠다.

47) 이 ‘고사소리’는 둔내면에 사는, 팽과리를 잘 치는 심모 복술을 요즈음 돈으로 10만원 정도를 주고 초빙하여 고사반을 배우면서, 그 ‘문서’도 그로부터 얻은 것이다. 과거에는 고사반을 할 때 상쇠이건 상법고쟁이이건 문서를 많이 아는 사람이 고사반 상쇠를 했다. 집집이 다니며 이 고사반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쌀을 1말 정도 내놓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쌀을 내놓지도 않았고 고사반도 하지 못하게 했다. 1월 초순 경부터 보름 전후까지 동네 농악대들이 ‘고사반’을 하고 다닌다. 농악대의 상쇠가 대문 앞에서 팽과리를 두드리면, 주인은 부자집은 쌀 2,3말, 가난한 집은 쌀 1말을 마련하여 상 위에 올려 놓고 그 위에 실, 창호지, 돈 등을 올려 놓는다. 그리고 촛불과 정한수를 올려 놓는다. 어떤 집은 떡이나 술을 올려 놓기도 한다. 아주 가난할 경우 쌀 대신에 콩이나 옥수수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면 일렬로 늘어서 있는 농악대원의 앞에 서 있는 상쇠와 주인이 상에

과 토지지신께 농사를 잘 지었다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것이다. 또한, 건립을 치는데 건립고사반도 이와 비슷하다.⁴⁸⁾ 우리 民族은 다재다능하며 무

절을 한다. 그런 다음 고사반을 한다. 이러한 고사반은 자신의 동네에서만 한다. 그러나 ‘걸립’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고사반을 하는 것이다. 이는 아무 농약대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군수가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걸립은 동네의 어떤 건축물등을 짓는다는 사회적 명분이 있을 때 군수의 허가를 얻어 걸립을 한다. 이 걸립은 필요에 따라 정월달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월달에는 집집마다 ‘안택’을 하는데, 이는 전문적인 무속인인 ‘복술’이나 복술은 아니더라도 무속인에 가까운 동네 사람이 와서 경을 읽는다. 복술은 경을 읽을 때의 경채로 제상에 차린 물건을 다 가져가고, 현금도 하루 품삯 정도 준다. [정옥출] 고사반을 하는 상쇠는 복술이 많이 했다. 농약대는 자신의 동네에 걸립을 다니다 다른 동네에 가기도 하는데, 다른 동네에 갔는데 어떤 집에서 그 농약대를 못 들어오게 하면, 그 농약대가 농기를 거꾸로 들고 그 집에서 나오면, 그 동네는 그 해에는 망한다고 했다. 그래서 농약대가 들어오면 돈이라도 몇 푼 주고 술이라도 한 잔 주고 보낸다. [한광희] 고사반은 문서가 많은 사람이 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복술이 했다. 고사반을 하고 돌아다니면, 각 집마다 쌀 1말 정도를 내놓았다. “걸립을 쳐 지신을 밟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신밟기를 해야 액운을 막는다고 생각했었다. 지신밟기를 하러 돌아다니기 전에 서낭당 앞에 대기를 쏴 놓고 서낭신을 추워 서낭신이 대기에 내리게 한다. 신이 내리면 대기가 심하게 떠는데, 자신이 잡을 때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궁리의 서낭당에 있는 서낭신은 황씨의 혼을 모셨다. 황씨는 옛날에 그 마을의 큰 부자였다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 정옥출(여)은 2006년 1월 24일 현재 79살로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산다. 한광희는 2006년 2월 23일 현재 85살로 정금리 옆 마을인 하궁리에 사는 토박이로 한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농약대의 상쇠를 했다.

- 48) [한광희, 이한천] 지신밟기는 농약대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사반을 차리고 각 집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걸립은 다른 동네에 가서 고사반을 하는 것이다. 옆 마을인 궁중리에는 농약대가 없어 하궁리 농약대가 가서 걸립을 했다. 이럴 경우, 농약대가 없는 궁중리에서 하궁리에 농약대가 와 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오면, 영좌가 마을 농약대를 이끌고 궁중리에 가서 농약을 친다. 영좌나 고원은 마을 사람들이 협의해 “어느 분이 영좌 나면 좋겠다.”라고 해 뽑는다. 영좌는 농약대, 농사일을 관할하는데, 동네 사람과 협의를 해서 어느 날 누가 모를 심고 어느 날 누가 논을 맏지를 결정한다. 농약대는 상쇠 1명, 부쇠 1명, 징 치는 사람이 1명이나 2명, 장구 1명, 북 1명, 소고쟁이인 법구가 7명 내지 9명, 무동 6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등에는 주루먹을 짊어지고 허리에겐 꿩을 차고 어깨에는 종을 맨 ‘포구수’가 1명, 담뱃대를 물고 삼가래를 든 ‘샌님’이 그 뒤를 차례로 따른다. 그리고 농약대 맨 앞에는 영기가 가고, 그 뒤는 대기가 뒤따른다. 영좌나 고원은 그 뒤를 따르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 뒤를 잇는다. 팽파리의 가락에는 동네 사람들을 모이라고 알리는 ‘광고 가락’이 있고, 서낭을 지나갈 때 치는 ‘당굿 가락’이 있다. 이 당굿 가락을 치면서 서낭신에게 대기도 기를 숙이고,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절을 한다. 다리를 지날 때는 ‘다리굿 가락’을 치는데, 농약대 전체가 땅에 엎드리지 않고 서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한다.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는 ‘길군악 가락’을 친다. 농약이 끝날 때는 농약이 끝났음을 알리는 ‘해제 가락’을 친다. 다른 마을에 걸립을 갈 때는 무동이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은 소고쟁이가 가는 방식으로 어느 때와는 역순으로 간다. 그리고 2줄로 열을 지어 간다. 이와 같이 다른 마을로 농약대가 이동하다 또 다른 마을의 농약대를 만나면, 만든 지 오래되지 않은 대기가 만든지가 오래된 대기에 기를 숙여 예를 표한다. 각 대기에는 대기를 만든 연도가 표시되어 있다. * 이한천은 2006

영이든 먼저 祖上을 섬겨야 된다는 유교적 풍습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좋은 미덕이며 天理에 순응하는 民族이다.

2) 통과 의식요

(1) 喪禮

상예란 본디 사람이 죽어서 사모제까지 이르는 것을 모두 일컬어 喪禮라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숨이나 풀숨으로 死者의 입과 귀, 코, 눈을 숨으로 트러 막아서 공기의 유통을 막고, 六尺 미만의 널판지나 석가래같이 곧은 나무를 연결해 屍身의 몸을 올려 놓고 어깨와 다리를 반듯이 누이고, 끈으로 묶어서 屍身이 반듯하게 하고 알분 훗이불로 시신을 덮은 뒤 평풍으로 가려 공기의 유통을 막고, 동리에서 나이 많으신 안노인을 피쳐와서 사자밥을 지어서⁴⁹⁾ 밥 세 접시와 동전 셋⁵⁰⁾과 평소 신던 신발과 속적삼을 꺼내 와 초흔하는데,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복복.” 하면서, “某官 공이 모년 모월 모일 생 ○개동이 속적삼 가져 가시오.” 라고 하는 것이 喪禮의 시작이다.

成服은 寅申巳亥, 이 네 날이 당하면 屍身을 다룰 수 없으므로, 이 네 날만은 어느 지방이나 피하고 成服祭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成服을 치르면 求山하게 되는데, 미리 정해진 곳이 있으면 예외이지만, 求山을 꼭 하기 爲해선 지관을 동행하여 吉地를 택해 장예를 치르게 되는데, 잘 사는 부자는 石棺을 쓰고, 보통은 木棺을 쓴다. 좋은 木棺이 아니고서는 대략 값이 싼 것을 求해다 下棺 뒤 태우는 것이至今의 현실이라 생각된다. 예전에는 棺도 없이 거적에 싸서 장지로 운구한 예도 허다하다.⁵¹⁾ 사람이

년 2월 24일 현재 77살로 우천면 하궁리에 사는 토박이다.

49) 이렇게 해야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50) 노자돈.

51) 과거 장사를 치르자면, 쌀, 담배, 해물, 육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쌀 6가마 이상이 들어간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네 전체 사람들이 ‘유학’에 가입하여 상부상조한다. 100여 집 중에서 열서너 집은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유학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쌀 1말,

술 1동이, 떡 1시루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사람끼리는 ‘상포계’ 를 조직하여 부모상을 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안 살림이 어려워, 이러한 ‘유학’ 이나 ‘상포계’ 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상을 당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낮보다는 밤에 시체를 거적데기에 맡아 지게에 지고 가거나, 시신을 들것 위에 놓고 앞뒤에서 들고 가는 ‘마두쟁이’ 라고도 하는 ‘마주쟁이’ 를 하여 시신을 옮겨 매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주쟁이는 20살 이전에 죽었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도 행한다. 50여 년 전에 10집이면 3,4집은 이렇게 마주쟁이를 통해 상을 치렀다. 유학을 70, 80여 년 전에 생겼는데, 유학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먹을 정도의 술값, 밥값을 부조를 했다. ‘대동계’ 는 온 동네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20여 년 전에 생겼다. [이계동] ‘대동계’ 는 리 단위로 계를 하고, ‘상포계’ 는 반 단위로 계를 한다. [심운택] 황성군 청일면 유동2리, 81살, 2004년 9월 8일. 백정도 쌍놈 취급을 했지만, 상여를 매고 가는 상두꾼이나 시집갈 때 가마를 매고 가는 가마꾼도 쌍놈 취급을 했다. 상여를 매고 가는 상두꾼의 품삯은 그들이 부르기 나름인데, 하루에 보통 2,3개의 품값을 받았다. 이 때 상여꾼들의 우두머리인 ‘거관’ 의 기분에 따라 장사집에서의 횡포 정도가 달랐다. 그러기에 옛날에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상두꾼을 사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인 경우는 시신을 가마니에 싸 지게에 지고 나갔거나, 시신을 가마니나 훑이불로 덮어 두 사람이 앞뒤에서 들고 가는 ‘마두쟁이’ 를 하고 묘지에 갔다. 관에 시신을 넣는 경우는 부자인 경우인데, 그럴 경우 ‘큰장사가 났다’ 고 했다. 해방 뒤에는 ‘유학’ 이라는 친목계가 생겨, 이 유학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서로 품앗이로 상여를 매고 장지에 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옆집에 상이 났더라도 남의 상여를 매지 않았다. 상여는 유학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만들어 자기들끼리 사용했고, 유학에 가입 안 한 사람은 상여를 빌리는 값인 ‘유물세’ 로 백미쌀 1말을 주고 빌렸다. 과거에는 3일장은 없고 워낙 가난하면 5일장, 어느 정도 살면 7일장이나 9일장을 했다. 부자인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곧 묘를 썼지만, 가난한 집의 경우 여름처럼 일이 한참 바쁠 경우에는 장사가 나면 죽은 뒤 3일까지는 머리만 풀고 3일 뒤에 엮을 하고 성복을 한 뒤 집 근처 밭에 임시로 ‘퇴룡’ 을 만들어 매장했다. 가을이 지난 뒤 한가할 때 묘를 쓰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퇴룡’ 은 죽은 뒤 3일 뒤에 했고, 상주는 시시때때 그 곳에 가 곡을 하는 ‘석곡’ 을 했다. [한광희] ‘상포계’ 는 11명으로 구성되는 게 좋다고 하여 보통 11명으로 구성된다. 계원 1명의 집에서 상을 당하면, 나머지 계원들은 쌀 1말, 술 1동우, 종이 1권, 초 1갑 등을 부조한다. ‘유학계’ 는 80여 년 전에도 있었는데, 동네 전체가 계원으로 가입하여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부조를 했다. ‘상포계’ 에도 안 들고 ‘유학계’ 에도 들지 않은 집에 상이 났을 때는 마을의 각 집에서 쌀 2,3되를 부조하여 도와 주었다. 하궁리에서는 80여 년 전까지 다른 마을처럼 ‘마두쟁이’ 를 하여 시신을 운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 반상을 따질 때에는 상놈 집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조문도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부자집에서는 상놈을 상여꾼으로 품을 샀는데, 이때 상여꾼들이 부자집을 비아냥거리며 뜯어 먹었다. 대부분 상여꾼들은 독상을 받았는데, 자신의 식솔을 데리고 와서 상에 놓은 음식을 싸 가게 했다. 양반 집안에서 결혼을 할 때도 가마꾼을 샀는데, 하인들이 품을 팔러 왔다. 그 구성원은 찻아들을 낳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함진애비’ 1명, 등롱쟁이 2명, 가마채를 앞뒤에서 드는 가마꾼 2명, 가마꾼이 힘들면 교대를 해 줄 ‘조군’ 2명 등 총 7명으로 이루어진다. [한광희, 이한천] 옛날에는 보통 5일장, 7일장을 했고 9일장을 하기도 했다. 사람이 죽으면 엮을 한 후 시신을 관에 넣어 마당이나 집 주위에 ‘퇴룡’ 을 만들어 그 관을 묻고, 퇴룡이 비에 젖지 않게 이영을 해 그 위를 덮었다. 그런 다음, 때가 되면 안에 있다가도 퇴룡에 가서 곡을 했다. 엮을 한 후 자손들이 오면, 퇴룡 앞에서 곡을 하고, 이때 상제도 같이 곡을 한다. 조문객을 퇴룡 앞에서 예를 표하지 않고 제상 앞에서 예를 표

世上에 태어나 一生一死는 정해진 天理다. 이 天理를 어기는 者는 없다. 其 時代的 형식과 禮가 달라지는 것은 生活의 차이가 現 時代를 지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단, 農村과 都市의 차이일 뿐이다. 農村은 옛 그 대로 儀式을 치루워가고 있고, 都市는 生活相 복잡한 도시의 구조상으로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누구나 땅에 뭇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그러면 喪禮를 기술하고자 한다.

(2) 招魂

초혼⁵²⁾은 혼을 부른다는 뜻. 屍身의 魂이 구천에 맴돌지 않게 하여 屍身과 魂이 一身 同體가 되어 靈이 子孫과 사당에 魄셔⁵³⁾ 음덕을 배픈다는 깊고 깊은 뜻이다.

“복복복 某官公 某年 某月 某日 生 ○○○ 속적삼 가져 가시오.”

이것이 전부이다.

(3) 염

염은 寅申巳亥日에는 못 한다. 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통염’과 ‘가진염’이 있다. 보통 염은 農村이나 都市를 막론하고 보통 쓰는 염이나, 가진염은 女子의 경우 쪽도리 원삼과 연지를 바르고, 속적삼, 조고리, 바지, 속옷치마, 천금⁵⁴⁾과 지금⁵⁵⁾ 등을 입히고, 장매⁵⁶⁾를 놓고 조발랑 주머니⁵⁷⁾ 손톱, 발톱, 머리까락을 넣은 뒤 일곱 메끼를 목거 가는 것이다. 남자는 도포와 관복을 입혀 염을 하는 것이 ‘가진염’인 것이다. 現今 都

한다. 제상은 혼백을 모신 다음 광목으로 가리는데, 조문객이 오면 상제가 광목을 연 다음 혼백문을 열면, 조문객은 향불을 피운 다음 술을 한 잔 올리고 재배를 한다. 그런 다음, 상제와 조문객은 맞절을 하고 상제는 혼백을 닫고 광목 포장을 닫는다.

52) 밤에 지붕에 올라가서 한다.

53) 별 다른 의식은 없었다.

54) 가슴을 덮는 이불.

55) 등을 받치는 이불.

56) 시신에 옷을 입힌 뒤 시신을 덮는 삼베, 명주, 무명.

57) 삼베로 조그마하게 만든 ‘조랑발 주머니’에 망자의 손톱, 발톱을 쥐아 넣은 다음, 이 주머니를 망자의 겨드랑이 밑에 넣는다.

市에선 염사가 있어 염을 하지만, 農村에선 집안이 없는 경우엔 이웃이 도와 염수습을 한다. 염이 끝나면, 東西南北의 삼살과 대장군의 방위를 피하고, 棺의 길이 정도와 한자 정도 깊이를 파 놓고, 밑에 관목을 깔고 관을 운구한다. 운구할 때 방문 앞에 박아지를 놓고 앞 선 사람이 박을 밟아 깬(58) 뒤, 이영으로 옆을 비껴 놓은 뒤 용구세를 덮어 비가 와도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염과 퇴롱(59)이다.

(4) 成服

成服은 염수습을 끝내고 복을 입는데, 男子喪과 女子喪의 복 입는 절차가 다르다. 父母 中 한 분이 살아 계시면, 마당에 공석을 깔고 服을 입는데, 건이나 머리테도 男좌 女右로 쓴다. 女喪은 중단을 꼬매고, 男喪은 꼬매지 않는다. 중단과 굴건 제복을 입고 자식들이 살아 계신 부모님께 절을 한다.⁶⁰⁾ 절을 한 다음, 男子와 女子가 갈라서서 맞절을 하고⁶¹⁾ 곡을 한다. 예전에 喪主가 나이가 많으면, 복인이나 이웃사람으로 대곡도 식혀서⁶²⁾ 상중일에 임했으며, 부모님께 절을 할 때 父나 母를 西쪽⁶³⁾에 앉혀 놓고 절을 하였다. 成복 때 팔을 놓은 시루떡을 하는데, 이 떡을 ‘성복떡’이라 하며, 팔은 잡귀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儀式이기도 하다.

(5) 祝文式

朝祖祝 - 請朝祖

遷柩廳事祝 - 請柩于廳事

祖尊祝 - 永遷之禮靈辰不留금之柩車式遵祖道

58) 액을 깨고 나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9) ‘퇴롱’은 집 주변의 밭이나 마당 한쪽 귀퉁이에 만든다. 5일장인 경우 나흘 정도 퇴롱에 시체를 모신다. 퇴롱을 하면, 시신이 방 한 칸을 차지하지 않아 집의 공간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고, 시체가 덜 부패한다.

60)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61) 서로 싸움을 하지 않고 지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62) 상주가 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 대곡을 하게 하는데, 이 때 상주는 곡을 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조아린다.

63) 불교 의식과 관련이 있다.

遷柩祝輿祝 - 금 遷柩就輿敢告

遺奠祝 - 靈輻既駕往卽幽宅載진 遺禮永訣終天

土地祝 - 維歲次甲子十月甲子朔二十日壬戌 學生姓名敢昭告于土地之神今爲某官姓名營建宅兆(平土後는 궁 茲 幽宅)神其保佑俾無後艱謹以清酌脯醢 祇薦于神尙饗

虞祭祝 - 維歲次甲子十月甲子朔拾日己亥孤子某某敢昭告于顯考學生府君日月不居奄及初虞(再虞三虞小祥大祥卒哭禫祭)쇄 輿夜處哀慕不寧謹以清酌庶羞哀薦尙事尙饗

題主祝 - 維歲次甲子三月甲子朔五日戊辰孤子某 敢昭告于顯考學生府君形歸택 양 神返실존 神至旣成伏惟尊靈舍舊從新是憑是依

小大祥祝 - 維勢次庚寅九月甲子朔十三日丙子孝子某 敢昭告于顯考學生府君日月不居奄及小祥쇄여 夜處小心畏忌不惰其身哀慕不寧謹以清酌庶羞哀薦尙事(大祥에는)祥事尙饗

지방 顯考祖妣孺人金海金氏神位

顯考祖考學生府君 神位

→ 이 지역에서 傳해지는 喪禮이며, 他 地域도 大同小異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路祭를 말하고자 한다. 路祭는 子息들의 집이나 親友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지내는 儀式을 말하는데, 작은집이나 큰집에서 술과 밥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路祭⁶⁴⁾이다.

(6) 대도듬

대도듬은 상여가 나가기 하루 전에 했다. 이는 빈 상여를 메고 상여 나가는 것을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다. 즉, 사전에 상두꾼⁶⁵⁾들끼리 발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데, 상여 위에 물동이를 올려 놓아 물이 흔들려 넘치지

64) 노제는 일가 친척 집에서 행하는데, 일가 친척이 없을 경우 길거리에서 노제를 지낸다.

65) 옛날에는 양반들은 상여를 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양반인 척 하며 상여를 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70여 년 전에 '유학' 이 생겼다. 동네에서 이 유학에 가입하여 상을 당하면 서로 상부상조했다. 유학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서 상여를 매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않게 했다. 이 상여는 백 보 이상 나아가지 않고 집 주위에서만 맴돌았다. 가까운 곳에 사는 친척 집에는 오고갔어도 동네를 한 바퀴 돌지는 않았다. 이 행사는 가난한 집에서는 못 하고 부자집에서만 했다. 그리고 상두꾼은 상여 나가기 전날에는 자신들의 집에 가지 않고, 상가집에서 자든지 그 옆 집 방을 얻어 잤다.⁶⁶⁾

상두꾼이 상여를 매면, 선소리꾼이 “아 ~ 오 ~ 호” 를 세 번 소리한다. 그런 다음,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로 환생하십시오.” 를 소리한 다음, ‘상여소리’ 선소리를 주고 상두꾼들은 이를 받는다.



운상

66) 횡. [업영태] 대도들은 상여가 나가기 전날 빈상여를 매고 상여꾼이 1명 타고 마당에서 왔다갔다 한다. 오후 9시부터 10경까지 한다. 앞구짚이와 뒷구짚이가 서로 밀어대며 상가집 마당을 왔다갔다 하는 장난을 한다. [이계동] 앞구짚이는 맨 앞에 서 있는 네 명의 상두꾼, 뒷구짚이는 맨 뒤에 서 있는 네 명의 상두꾼을 말한다. 대도들을 할 때 빈 상여를 매고 땅자의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음식 대접을 받는다. [한광희, 이한진] 대도들은 70여 전에 사라졌다. 대도들을 하는 이유는 사전에 상여꾼 인원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여나가기 전날 상제집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상제들이 빈 상여 앞에서 곡을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한다. 대도들을 할 때 장난을 하지 않았다.

(7) 상여소리

시신을 운구할 때 부르던 ‘상여소리’, ‘행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보가’가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긴상여소리’, ‘짜른상여소리’, 산 밑에 다다려서 부르는 소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긴상여소리’는 “호오호오 허이나 갈까 호오”이며, ‘짜른상여소리’는 “어허 름차 호오”이고, 산에 오를 때 부르는 소리는 “허어 허이 허어 호오”이다. 이 세 가지 소리는 이 지역에서는 변하지 않고 보존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긴상여소리’를 소개합니다. 앞소리꾼이 “호오호오 허이나 갈까⁶⁷⁾ 호오”라고 앞소리를 주면, 뒤소리를 받는 상두꾼도 “호오호오 허이나 갈까 호오” 하며 소리를 받는다.

‘짜른상여소리’는 앞소리꾼이 “어허림차⁶⁸⁾ 오호”라고 소리를 주면, 상두꾼이 “어허림차 오호” 하면서 소리를 받는다. 산에 다다려서 산에 오르려면 ‘긴상여소리’나 ‘짜른상여소리’로 산에 오를 수 없으므로 소리꾼이 “허어 허이”라고 소리를 주면, 상두꾼들도 “허어 허이”. 소리꾼이 “허어 호오”하면, 상두꾼도 “허어 호오”라고 소리를 받는다. 이것이 ‘상여소리’며, 매김과 발음소리이다. 옛 祖上들은 빈 상여 위에 물동이를 먼저 놓고 그물이 넘치지 않도록 연습을 하였다고 하니, 시신에 대한 존엄성과 우대함에 경탄해 마지 않는다.

그러면 ‘긴상여소리’부터 소개한다.

“관세음 보살 왕생 극락세계”, “호오호오 허이나 갈까 호오”라고 소리를 주면

“호오호오 허이나 갈까 호오”하며 받는다

여보시오지원님들 이내 소리 드러보소 호오호오 허이나 갈까 호오

67) ‘어찌 갈까’라는 뜻이다.

68) 과거에는 상여를 조심스럽게 매고 가기 위해 상여 위에 물동이를 올려 놓고 상여가 흔들려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어허림차’는 ‘물이 넘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호오호오 허이나 갈까 호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호오호오 허이나 갈까 호오

여기서 뒷소리를 받는 상두꾼의 소리는 제쳐 두고, ‘상여소리’ 만 기술
코져 한다. 단, ‘상여소리’ 는 주로 ‘시중잡가’ 와 ‘回心曲’ 을 주는 것⁶⁹⁾
을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순우탕 문무주공 도덕이 관철해도
한번죽엄 못면해서 초로인생 되었으며
만승천자 진시황도 장생불사 하려구서
동남동녀 오백인을 삼신산에 보내여다
불사약을 구하여다 장생불사 하려쓰나
부운같은 초로인생 여산에 무덤일세
천하일색 양귀비도 매호관에 못쳐스며
말잘하는 소진장이 육국제후 다달래도
염라대왕 못달래서 부운인생 되었구나
만고충신 백이숙제 수양산에 아사하고
삼육십팔 요님금과 삼황오제 저님금도
一生一死 분명하여 천수천산⁷⁰⁾ 무덤되고
삼천갑자 동방석도 한번죽엄 못면하고
역발산 기가세도 오강에서 자문이사
시잘짓는 이태백도 추강에서 죽었으며
장자방의 옥통수로 八千제자 잃어쓰며
역발산도 할일없고 기가세도 소용없네
천하일색 왕소군도 호지에서 매몰되니

69) ‘상여소리’ 의 선소리로는 ‘회심곡’, ‘답산가’, ‘초한가’, ‘토끼타령’ 등이 있다. 그
리고 ‘회다지소리’ 선소리도 ‘회심곡’ 을 주는데, 강림면에서는 ‘옥설가’ 를 준다. ‘상여
소리’ 선소리는 보통 16글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회소리’ 의 선소리는 8자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에 한글을 모르고, 문서를 보지 않는 선소리꾼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설을 구성
해 선소리를 준다.

70) 天壽千山.

일생일사 분명하니 人生무상 할일없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三月 도라오면 꽃은다시 피려니와
 우리人生 어이하어 불여귀를 일삼는고
 일락서산 지는해를 어느장부가 잡어주고
 창해유수 흐르는물은 어느장부가 막을손가
 人生七十 길다지만 잠든날과 병든날을
 이리저리 다빠보면 단三十도 못사나니
 수용정이 풍부지오 부용양이 무부질세
 천중세월 인증수오 수지건곤 복만가라
 당상부모 천년수오 슬하지손 만세영을
 여보시오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젊어서는 두다리요 늙어서는 세다리네
 남아장부 태어나서 이름석자 남겨쓰니
 공수래 공수거인데 여한은 바이없네
 곤륜산 고송하재요 황하수심 사상류라
 세상천지 분회후에 삼남화상 이러나니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태어났나
 석가여래 제자되어 칠성님전 명을빌고
 아버님전 뼈를타고 어머님전 살을얼어
 제석님전 제도하에 이세상에 탄생했네
 한두살에 철을몰라 무럭무럭 자라다가
 四五十이 당도하여 부모생각 절로난다
 무정세월 약류파라 오늘날에 백발되고
 눈어둡고 귀먹으니 망녕이라 일삼는데
 실낱같이 약한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명의불러 약을쓰니 약덕인들 입을손가
 관수불러 경읽으니 경덕인들 입을소냐
 무너불러 곳을하니 곳덕인들 발을소냐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애달프고 애타케도 이세상을 하직할제
 일가친척 만타한들 어느누가 대신가며
 자식들이 만타한들 어느자식 대신가랴
 일직사자 월직사자 대문앞에 당도하여
 성명삼자 부르는소리 삼간대청 울려온다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인생공도 싸은뒤에 극락전에 입시하여

→ 이와 같이 ‘긴행보가’ 끝이는데, 소리꾼이 주는 소리는 소리꾼이 얼마
 나 소리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된다. ‘시중잡가’ 와
 ‘회심곡’ 을 능숙하게 외운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긴행보가’ 는 여덜
 자의 글귀로 이어지면 무영이든 해결할 수 있으며, ‘짜른행보가’ 일곱 자
 나 여덜 자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므로, 이것을 참작하면 소리를 주는 데 무
 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짜른행보가’ 를 기슬코저 한다.

앞소리 “어허름차~오호”, 뒷소리 “어허름차~오호”. 앞소리꾼이 소
 리를 주면, 뒷소리를 받는 상여꾼들은 “어허름차~오호.” 이 소리가 뒷소
 리리며, 앞소리와 관계없이 장지에 당도할 때까지 “어허름차~오호” 로 끝
 난다

아~어 호오	아~어호오
아~어 호오	아~어호오
어허름차~오호	어허름차~오호
여보시오 지원님들	어허름차~오호
이내말씀 드러보소	어허름차~오호
저승길이 멀다드니	어허름차~호오
대문밖이 저승일세	어허름차~호오
가세가세 어서가세	어허름차~호오
천년집을 찾아가세	어허름차~호오
일가친척 만타한들	어허름차~호오

어느친척 대신가며	어허름차~호오
아들딸이 만타한들	어허름차~호오
어느자식 대신가라	어허름차~호오
일락서산 지는해를	어허름차~호오
누구라서 잡어주고	어허름차~호오
창해유수 흐르는물을	어허름차~호오
누구라서 막어주고	어허름차~호오
명사십리 해당화야	어허름차~호오
꽃진다고 서리마라	어허름차~호오
명년三月 도라오면	어허름차~호오
꽃은다시 피려니와	어허름차~호오
우리인생은 한번가면	어허름차~호오
다시오지 못하는고	어허름차~호오
춘초는 연년록한데	어허름차~호오
왕손은 귀불귀가	어허름차~호오
人生百年 다사러도	어허름차~호오
잠든날과 병든날과	어허름차~호오
괴롭고도 슬픈날을	어허름차~호오
이리저리 다빠보면	어허름차~호오
단三十도 못사나니	어허름차~호오
화무하니 십일홍이요	어허름차~호오
달도차면 기우나니	어허름차~호오
시호시호 부자내라	어허름차~호오
다시젊지 못하리라	어허름차~호오
소년이노 학란성이요	어허름차~호오
일천광음 불가경을	어허름차~호오
천중세월 인증수요 ⁷¹⁾	어허름차~호오
수지건곤 복만가라	어허름차~호오

71) 하늘이 이 사람의 목숨을 정한다.

당상부모 천년수요	어허름차~호오
술하지손 만세영을	어허름차~호오
말잘하든 소진장이	어허름차~호오
육국제후 다달래도	어허름차~호오
염라대왕 못달래어	어허름차~호오
한번죽음 못면하고	어허름차~호오
글잘하든 이태백도	어허름차~호오
시잘짓든 도연명도	어허름차~호오
만고충신 백이숙제	어허름차~호오
일생일사 분명하여	어허름차~호오
무주고혼 되었구나	어허름차~호오
눌짚때를 이불삼고	어허름차~호오
울짚때를 울타리삼아	어허름차~호오
험산험로 돌고돌아	어허름차~호오
이내일신 잠들지니	어허름차~호오
애고답답 이내일신	어허름차~호오
어이어이 하잔말가	어허름차~호오
이세상에 나온사람	어허름차~호오
뉘덕으로 태어났다	어허름차~호오
석가여래 제자되어	어허름차~호오
칠성님전 명을타고	어허름차~호오
삼태성에 복을빌어	어허름차~호오
아버님전 뼈를타고	어허름차~호오
어머님전 살을얻어	어허름차~호오
이세상에 태어났네	어허름차~호오
한두살에 철을몰라	어허름차~호오
무럭무럭 자라다가	어허름차~호오
이삼십을 당도하여	어허름차~호오
부모은공 모르다가	어허름차~호오
오십평생 지나오니	어허름차~호오

유수같은 빠른세월	어허름차~호오
오늘날에 당하여서	어허름차~호오
부모생각 절로난다	어허름차~호오
회고하니 눈물일세	어허름차~호오
어제까지 검든머리	어허름차~호오
오늘날에 백발되고	어허름차~호오
눈어둡고 귀먹으니	어허름차~호오
부르나니 어머니요	어허름차~호오
찾느니 냉수로다	어허름차~호오
부운같은 우리인생	어허름차~호오
하月하시 다시불고	어허름차~호오
세상만사 분기정인데 ⁷²⁾	어허름차~호오
세인이 공자망이라 ⁷³⁾	어허름차~호오

→ 이것이 ‘짜른행보가’ 이다. ‘짜른행보가’ 는 부르기가 부두러우며, 소리꾼도 목을 쉬일 수 있으나, ‘긴행보가’ 는 뜻는이는 좀 좋은 것 같으나, 부르기가 힘도 들려니와, 18자나 십칠자의 긴 소리 내용을 수용해 부르기 힘겹다. ‘긴행보가’ ⁷⁴⁾는 거름거리가 빠르고 빨리 가기 위해서 브르는 소리라고 하여도 과연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 ‘행보가’ 를 소개하기로 한다. 산 밑에 다다르러 산에 오르려면, ‘긴행보가’ 나 ‘짜른행보가’ 를 부르면 소리로 받을 수 없으려니와, 소리꾼도 소리를 부를 수 없고 또한 발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리꾼이 “허~이” 하면, 상두꾼도 “허~이” , 소리꾼이 “호~오” 하면 상두꾼도 “호~오” 하며, 이 동작과 소리가 반복하면서 산에 오르는 것이 마지막 소리이며⁷⁵⁾, 소리 주는 세 가지인 것이다. 그러면 소리만 있고 상에는 없

72) 분리해서 정해져 있다.

73) 스스로 바쁘다.

74) ‘긴행보가’ 는 ‘긴상여소리’ 라고도 하는데, 받는 소리는 “허 호 허 호 허이나 갈까 허 호” 라고 한다. 이 소리는 장지가 멀거나 빨리 가기 위해 한다. ‘짜른행보가’ 는 ‘짧은 상여소리’ 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장지가 가깝거나 선소리를 주는 사람이 문서가 짧을 때 한다.

는 것인가. 그러치 않다. 지금 우리 주변엔 옛 풍속은 간 데 없고, 도시의 풍속이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맥이나마 농촌에서 유지되고 있다. 人間이 죽어 마지막으로 거치는 예인 것인즉, 초혼, 성복, 路祭, 山神祭, 開土祭, 下棺, 平土祭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



회다지 시연

(8) 회다지 선소리

‘회다지 선소리’⁷⁶⁾는 亡者의 幽宅을 짐승의 해나 木根의 뿌리가 屍身의 드러가지 않게 하기 爲해 灰를 흙과 섞어 물을 뿌리고 다지는 것을 회다지라고 하는데, 古文헌에 傳해 오기를 회다지의 律動은 세 가지로 區分되어 傳해지고 있다. 제1은 청회, 제2은 연회, 제3은 방회이다.⁷⁷⁾ 이

75) 상여가 다리를 건널 때도 이 소리를 한다.

76) 과거에는 ‘횃소리’ 라고 하지 않고 ‘회다지소리’ 라고 하였다. 이 ‘회다지소리’ 의 사실은 죽은 사람의 공적을 널리 알리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77) ‘청회’, ‘연회’, ‘방회’ 라는 단어는 그 전부터 전해오던 말이다. [한광희, 이한천]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단어들을 듣지 못했다. *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도 이 단어를 모르고 있다.

세 가지의 소리 주는 법과 율동이 다르다.

그러면 먼저 ‘청회’ 를 논하고자 한다. 請灰는 회를 부른다는 뜻이다. 소리는 긴 소리로서 “에~리 달회야.” 라고 소리꾼이 부르면, 회 다지는 지원이 “예에 이 번 소리는 산신령께 고했습니다.” 소리꾼이 다시 “에~리 달회야.” 라고 또 부른다. 이 번 역시 지원이 “이 소리는 상주님에게 고했습니다.” 다시 소리꾼이 “에~리 달회야.” 하며 소리를 부르면, 지원이 “이 번 소리는 6지원께 고했습니다.” 라고 고하면, 소리꾼이 “여보시오 지원님들” 하고 소리를 주면, 6지원은 “에~리 달회야” 소리를 받는다. 소리꾼이 다시 “차래 차래 연차래로”, “에~리 달회야”, “이내소리 받아주오”, “에~리 달회야”, “상모매기 굽어주오” 라는 소리가 나오면, “에~리 달회야” 하면서, 맨 앞에 있는 회다지꾼이 허리를 굽으면서 회를 다지기 시작한다.

‘灰다지 선소리’ 가 대략 다섯 가지로서 구분되는데, ‘回心曲’, ‘踏山歌’, ‘조한가’, ‘도끼타령’, ‘市中잡가’ 로서 불려지고 있다. 구변이 좋은 소리꾼들은 亡者의平生 유업을 소리로서 역어 나가면, 喪主와 복친, 조문객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것⁷⁸⁾이 통예인데,至今에 이르러서 그것에 구변이 좋은 소리꾼도 없으려니와,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의 소리의 기본도 모르면서 연회와 방회의 변형된 소리와 율동으로서 회다지를 마드리하는 것이 現今의 통예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면 청회에 제일 먼저 부르는 소리를 기술하고자 한다.

천중세월 인증수오	에~리 달회야
수지건곤 복만가라	에~리 달회야
당상부모 천년수오	에~리 달회야
슬하자손 만세영을	에~리 달회야(이하 후렴 계속)

78) 회다지를 할 때 주변 분위기가 시끌벅적하고, 회다지꾼들이 상주나 친족들에게 돈을 새끼줄에 걸으라고 하는 것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풍습이다. 그 전에는 일이 엄숙하게 치러졌다.

명사심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서러마라
明年三月 도라오면
꽃은다시 피려니와
우리人生 어이하어
붙어귀를 일삼는고
수용정이 풍부지요
부용량이 무부질세
人生七十 길다지만
잠든날과 병든날을
이리저리 다빠보면
단三十도 못사나니
초로人生 분명하다
근륜산과 松下在요
黃河水심 사상류라
채미하든 백이숙제
수양산에 아사하고
만고충신 사육신도
승군못만나 조사하고
계명산 추야월에
장자방의 옥통수로
팔천제자 훗틀적에
구추구추⁷⁹⁾ 밤도깊다
전쟁하면 죽을레라
오늘밤 삼경전에
방포일성 들리거든
고향향해 도라가소
人生무상 할일없네

79) 가을.

창포밭에 금잉어놀듯⁸⁰⁾

추근추근 다저보세
일락서산 지는해를
어느장부 잡아주고
창해유수 흐르는물을
누구라서 막을손가
오는백발 막지말고
가는세월 잡지마라
공수래 공수거니
무슨애환 또있으랴
글잘하든 이태백도
추강에서 죽어쓰며
역빨산 기가세도
오강에서 자문이사
말잘하든 소진장이
六國제후 다달래도
염라大王 못달랠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홍안 오늘백발
그아니나 가련한가
여보시오 지원님들
긴소리는 그만두고
짜른소리 발어주오
에이허라 달회 에이허라 달호
두마치장단 발맞추어 에이허라 달호
추근추근 다저보세 에이허라 달호

→ 지금까지 動作과 소리가 請灰가 끝나고 ‘연회’ 가 시작되는 과정이다.

80) 천천히 돌아다니다.

그러면 宴灰는 무엇인가? 연회는 베플 연(宴)灰. 灰를 베픈다는 뜻이다. 動作이 조금 빠르고 상으로부터 우측으로 빙글빙글 도리키는 과정을 반복 하는데, 이 율동이 회다지의 기본 동작이다. 그러면 타 지역은 이와는 다르다. 他 地域은 灰다지의 율동과 소리가 틀렸다고 論하고저 함은 추호도 ない다. 그 지역은 그 地域의 특색이 있는 法, 橫城 鼎金 地域만이 灰다지의 元祖라고 論하고저 함이 ない니, 후인들은 參考하길 眞心으로 願하는 바이다. 請灰 소리는 느리고 소리를 주는 분이나 소리를 받는 지원들도 좀 힘겹다 허나, 연회는 부르기가 좀 편하고 듣는이로 하여금 어깨에 힘이 솟으며, 천년 유택을 조성하는 회다지이나, 경쾌한 율동과 소리와 소리가 어우러져 듣기가 부드럽고, 그 맥의 장단을 論하기 힘들다. 우리 民族은 海학적인 民族이다. 西洋人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를 갖고 살지만, 우리 韓民族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一生 一死는 정해진 天理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박하고 海학적인 國民이었기에 그 많은 외침을 당해도 외침을 슬기롭게 물리쳤으며, 韓民族의 우수성과 단일 民族임을 유지했다고 보아도 過言이 ない다. 君臣은 不事二君이요 烈女는 不更二夫라 하였으므로, 우리 民族이 세계에 유래가 없는 단일 民族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면 '방灰' 는 무엇인가? '방회' 를 주는 소리는 연회 소리와 같은데, 단 하나 율동이 다르다. 찌을 방. 회를 짓이겨 발로 다진다는 뜻이다. 광중 안에 4명이 회를 다지는데, '세발찌기' 가 있고 '두발찌기' 가 있다. 두발찌기는 먼저 오른발이 나가고, 회 작대가 뒤에 나간다. 그러나 세발찌기는 먼저 灰 작대가 나가고, 오른발이 뒤에 나간다. 단, 차이점은 이것뿐이며, 이 動作과 율동을 방회라고들 한다. 연회와 방회는 소리가 다른 것은 ない며, 소리꾼이 "두발찌기는 그만두고 세발찌기를 다져주소." 라는 구령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방회로 드러가는데, 광중 안에 4명이 남고 두 명은 나온다. 4명이 오래 회를 찌을 수 없으므로, 이 명이 교대로 드러가 회를 다지는 것을 방회라고 한다. 그러면 연회와 방회를 기술했고저 한다. 본시 '답산가' 는 문구 문장이어서 외우기도 힘들러니와, 그 뜻이 난해하기도

하다.

① 답산가(踏山歌)⁸¹⁾

古降俗末⁸²⁾之中에 風水法이 생겨났오
山論眞價를 分別함은 언택으로 의논하니⁸³⁾
內容淸譯이 吉地를 누구라 서아리 불고
群砂 吉凶殘風處⁸⁴⁾를 누구라 서분별 하리
영웅호걸이 래야만 分明하게 알리로다
富貴 영화 好衣食은 山川의 發응이요⁸⁵⁾
근륜산의 대관령은 黃河水와 상응했네
운석산의 봉황성은 낙도의 여기로다
朝鮮國의 八道山을 歷歷하게 도라보니
咸鏡道에 大關嶺은 聖代山의 내맥이요
함경도의 백두산은 압록강이 상응했네
平安道の 慈母山은 大同江이 配合하고
黃海道の 九月山은 首陽山의 胎息이요
京畿道の 三角山은 漢江이 회조하고
江原道の 太白山은 王屋山의 技孫이요
忠淸道の 계룡산은 白馬江이 들러있고
慶尙道の 都陰山은 洛東江이 元潮로다
全羅道の 月出山은 乾首山이 상응했네
龍⁸⁶⁾ 三合穴 三合은 得水로서 尊主하며
녹분수에 王行地⁸⁷⁾ 穴三合도 하도 할사

81) 이는 '상여소리' 에도 들어가고, '회다지소리' 에도 들어간다. 이 '답산가' 는 해방 전 부터 있어 온 문서다.

82) 과거와 현재.

83) 좋고 나쁨을 말한다.

84) 산소의 '곤' 즉 남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 오면, 잔디가 죽는다.

85) 덕이다.

86) 묘까지 내려오는 산줄기.

87)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익친구산⁸⁸⁾ 하라할제 선창부귀생각하고
 세베안녕⁸⁹⁾ 이럿거든 殘風向陽구할소나
 速發速富하러하고 下敢風露 哉혈하니
 完富만밀었더니 下敢空亡하리로다
 人間쌍행살펴보소 망발한이더옥나서
 寅卯服은진방 요 속발속쾌저기로다
 노옥수와형옥수는 자손들의추앙이며
 손신허진戊風은 방명이화형이라
 간간하던태풍은 남잔여기저기로다
 과광의厄戊란은 골육상쟁참혹하다
 乾午方의形寅砂는 고목날줄누가아라
 어화어화가소롭다 富貴분山마치였고
 친삼심용재혈인들 그대토록의할소나
 永山水火염진은⁹¹⁾ 神眼으로마치였고
 ○○○○ 너가거든 內砂호환기하러면
 背曲要曲굽사등이 玄武曲尺八道中形
 두풍중풍와함질은 案對와석습류로다
 승세악치보기로는 이골입석살펴보소
 녹태방이중과하면 강보자식기를소나
 관대방이서과하면 자란자식다죽었다
 丑寅方의호화사는 고후지병고질풍신
 寅申巨亥소수마소 음질색이사행하리
 沐浴方에헌군자는 음형오륜가려한다
 자금오산어처뭇이 殘形三患어인일고
 卯酉구산너나거든 万牧탐한환재로다

88) 부모의 산을 구한다.
 89) 무슨 뜻인지 모른다.
 90) 무슨 뜻인지 모른다.
 91) 무슨 뜻인지 모른다.

坤申方の文筆峰万	쟁송시비가이없다
五間房의나는精氣	겹탈人뿐이로다
팔요方の걸인刀砂	헌법주에빠질세라
黃泉方の와우사는	水年橫死절로난다
구계금이조혼사법	아까울사坤未仰申
목표맹발너나거던	승이개질못면한다
포두측면안대마소	자손사옥그안인가
眞龍正穴吉凶地를	알아볼때전혀없다
功名富貴多子孫은	우상에버렸거든
탐용할말이없고	哉穴이눈에멀어
乾山方山제頭石은	대풍질풍석여온다
酒七급사질미치난	巽高險에險石이요
亥군방에안대마소	남녀노색흠별함이
民亥方에山을마소	於田賤子패가한이
龍虎안대안잔몸이	少妻好夫자즐시고
태수寅方장류수는	新婦도음하도다
高子臣下자주일고	요주안대자주일어
요질기고어진병은	坤方間에호슬견인가
홍부통배알거든	辰方險石타시로다
辰方長岩급어보소	一目失明포장이요
辰水連於巽水하면	구던어길이르도다
아골산어오청합이	亡目雀目흘게는
巫女한사너덜기는 ⁹²⁾	주후산측面이요

② 踏山歌 293)

고강속말지申에	풍수법이생겨났오
영웅호걸이라만	분명하게알리로다
조선國의八道山을	역역하게도라보나

92) 무녀가 너덜거리며 떠든다.

93) 이 ‘답산가’ 는 해방 이후에 생긴 문서이다.

백두산의증조봉은 압록강이상응하고
 운석산의봉황성은 낙도의여기로다
 함경도에백두산은 승대산에내맥이요
 평안도의자모산은 대동강이배합하고
 황해도구월산은 수양산의태식이요
 경기도의삼각산은 한강이회조로다
 강원도의태백산은 왕옥산의기손이요
 충청도의계룡산은 백마강이둘러있고
 경상도도읍산은 낙동강이원조로다
 전라도의월출산은 건지산이상응했네
 제주도에한라산은 사면해협둘러있고
 조선國의八道山을 역역하게도라보니
 좌청룡우백호와 득수득과분명하다
 문필봉이기봉하니 천하문장날것이요
 미인봉이솟았으니 만고절색날것이요
 장수봉이상응하니 천하명장날것이요
 효자봉이둘렀으니 당대효자날것이요
 만리주령⁹⁴⁾ 천리안대⁹⁵⁾ 이에서더할소냐
 이자리를쓰고나면 삼정승육판서가
 줄줄이 날것이니 기문의영화로다
 복인이 봉길지하니⁹⁶⁾ 물욕을탐하지마라
 세상만사분기점인데 세인이공자맘을

→ 以下 생략하고, ‘踏山歌’ 는 너무도 길고 길어 여기서 생략토록 함과
 동시 ‘市中잡가’ 를 소개합니다.

94) 묘 자리에 이어진 산줄기가 만 리를 뺏어 내려왔다.

95) 안산.

96) 복이 있는 사람은 명당 자리에 묻힌다.

③ 답산가

함경도 백두산은 압록강이 둘러있고
평안도 묘향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세류강이 둘러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이 귀유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계에서 명산일세
충청도 계룡산은 백마강이 원조로다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공주금강이 둘러있고
제주도 한라산은 사해바다가 둘러있다⁹⁷⁾

④ 관동팔경가

관동팔경 살펴보니
통천에는 충석정이요 고성에는 삼일포라
간성에는 청간정이요 양양에는 낙산사라
강릉에는 경포대요 삼척에는 죽서루라
울진에는 망양루요 평해에는 월송정이라
친구들 숨도찬데 추근추근 다져보세
어떤사람 팔지좋아 고대광실 높은집에
내귀에다 풍경을 달고 대청마루 돋우서서
흥에겨워 하는말이 개문해이 만복래요 소장이 황금철이라
탄산학벌 천년수요 우하능선 영선극락이라⁹⁸⁾

⑤ 市中잡가⁹⁹⁾

광증안에六지원님 이네말씀드리보소

97) 횡. [엄영태] 이 ‘답산가’ 문서는 양중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관동팔경’, ‘지경다 지기소리’, ‘논매는소리’, ‘회다지소리’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모두 양중환이 베껴준 문서를 보고 외워서 부른 것이다.

98) 횡.

99) 이는 시중의 잡스러운 노래를 모은 것이 아니고, ‘회심곡’, ‘초한가’, ‘답산가’ 등 이곳 저 곳에서 사설을 모은 것을 말한다.

광중안에六지원이요 광중밖은나혼자인데
 먼데손님듣기 좋게 가까운손님보기 좋게
 창포밭에금잉어놀듯 금실금실놀이보세
 도덕군자누구더냐 요순우탕문무주공
 도덕이과찬해도 한번죽엄못면해서
 초로인생되었으며 만승천자진시황도
 장생불사하려구서 동남동녀오백인을
 삼신산에보내여다 봉래산불사약을
 구해오라보냈으나 소식조차돈절하고
 이세상을하직하여 여산에무덤일세
 천하일색양귀비도 매호관에못처스며
 말잡하는소진장이 육국제후다달래도
 염래대왕못달래서 부운인생되었구나
 만고충신백이숙제 수양산에아사하고
 삼육십팔요님금과 삼천갑자동방석도
 一生一死분명하여 한번죽엄못면하고
 삼황오제저임금도 선수천산무덤되고
 역발산의기가세도 오강에서자문이사
 인생무상할일없네 시잘짓는이태백도
 추강에서죽었으며 계명산추야월에
 장자방의옥통수로 팔천제자읽어쓰며
 역발산도할일없고 기가세도소용없네
 천하일색왕소군도 호리에서매물되니
 만승천자진시황도 아방궁을높이짓고
 만리장성썩은후에 장생불사하려쓰나
 人生無상할일없네 一生一死분명하여
 글잘짓는도연명도 영영살지못했으며
 세상만사분기정인데 세인이공자망이라
 명사십리해당화야 꽃진다고서러마라
 명년三日도라오면 꽃은다시피려니와

우리人生어이하어 불여귀를일삼는고
 일락서산지는해를 어느장부잡어주고
 창해유수흐르는물은 어느누가막을손가
 人生七十길다지만 잠든날과병든날을
 이리저리다빠보면 단三十도못사나니
 수욕정이풍부시오 부용량이무부진데
 천중세월인증수오 수지건곤복만가라
 당상부모천년수오 슬하자손만세영웅
 여보시오소년들아 백발보고웃지마라
 어제는홍안ियो 오늘은백발되니

⑥ 市中잡가 2100)

이팔청춘소년들아 이내말슴드리보소
 화살같이빠른세월 돌고돌고또돌아서
 갔던봄이다시온다 나도어제홍안인데
 오늘날에백발일세 천만년을살갓더니
 약을쓴들소용있나 만고일색양귀비도
 매호관에뭇혀쓰며 말잘하는소진장이
 六國제후다달래도 염라대왕뭇달래서
 무주고혼분명하며 황천객이되었으며
 역발산기가세도 역발산도소용없고
 기가세도할일없네 우미인을부여잡고
 남아장부태어나서 이름석자남겼으니
 여한은바이없네 오강에서자문이사
 인생무상뿐이로다 도원결의삼형제는
 관우장비현덕일세 제갈공명되셔와서
 일국을세웠으니 엇지아니기빨소냐

100) ‘시중잡가’는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문서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른다는 의미로 ‘시중잡가1’, ‘시중잡가2’라고 한 것이다. ‘회심
 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위인들은	후세유명하려니와
초로같은이인생은	앗차한번실수하면
철성포로질끈감고	철성판대틀위에
뚜렷하게메고갈때	곳즌비는나리는데
한모퉁이돌고돌아	무주공산터를딱어
놀잔때를지붕삼고	울잔때를올다리삼아
살은폭폭씩어서	흙밥이나될인생
두견새로벗을삼고	주야장천누웠으니
산은적적물은관관	이것이낙이로다
명사십리해당화야	꽃진다고서러마라
明年三月도라오면	꽃은다시피려니와
우리人生어이하여	불여귀를일삼는고
나는나비우는새는	춘광춘색자랑하고
백척폭포급한물은	은하수에기우리고
잠든안개잠졌으니	선경일시분명하다
서왕묘의요지연인가	선관선녀놀이던가
이세상이아니로세	대궐같은집을두고
처자권술다버리고	저승길을가는구나
만첩청산다다러서	상두 ¹⁰¹⁾ 대체 ¹⁰²⁾ 내려놓고
팽이들고가래들고	땅을파기시작하네
땅을깊고깊이파서	이내일신너은뒤에
일조에함봉하니	못살겠네못살겠네
답답하여못살겠네	심심산곡나를두고
일시에흠터지니	이내평생이러한가
그아니나가련한가	짧어서는두다리요
늪어서는세다릴세	한번가면우리인생
자취조차간곳없네	어화세상벗님네야
이네말슴드러보소	늪은이망녕탓하지마라

101) 상여.
102) 큰 틀.

없던망녕절로나고 눈이침침보이지않네
 공수래공수건인데 이름석자남겼으니
 여한은바이없네 곤륜산고승하재오
 황하수집사상류라

→ ‘市中잡가’ 는 소리 가사 방대하며 다 쓰지를 못하고, ‘토끼타령’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토끼타령’ 은 ‘별주부전’ 에 나오는 것을 소리로 구상하여 전해지고 있으며, 비록 소리의 내용과 문장이 특이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맛이 풍겨나오는 듯 구수하며 서민적인 면이 가슴에 와 닿는다.至今에 이르러 ‘토끼타령’ 을 부르는 소리꾼이 없는 것이 되려 한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⑦ 토끼타령¹⁰³⁾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불었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불었오
 대명천자능하대에 일월그린환장이나
 대명천자능하대에 봉그리던환장이나
 용연에다먹을갈고 양피지한장펼쳐놓꼬
 황모한줄듬뿍찍어 이리저리그려갈제
 엄동설한설한풍에 방풍하든털그리고
 앵무공작지저꺾때 소리듯든귀그리고
 난초적초온갓잡초 꽃따먹든입그리고
 이산저산승지간에 경계보든눈그리고
 압발은짚고뒷발은길고 꼬리는몽탕하게
 아미산반월토끼 이에서더할소냐
 이엿다별주부야 너나가저가려므나

103) 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변종성으로부터 구전 받은 것이다. 이 ‘토끼타령’ 은 자신의 전대부터 ‘회다지소리’ 에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초한가’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해학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 이것이 ‘토끼타령’ 인즉, 토끼의 형상을 그린 것을 옛 선인들은 ‘토끼 타령’ 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몇 안 되는 소리꾼만이 애창하게 되어 그 맥이 끈어지게 되어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앞에 ‘踏山歌’ 와 ‘市中잡가’ , ‘토끼타령’ 을 소개하였으나, 알기 쉬운 ‘踏山歌’ 가 傳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많이들 애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변형된 가사와 내용을 쓰고저 한다.

다음에는 ‘초한가’ 를 논하고저 한다. 이 초한 승패를 논한 것으로 부르기를 ‘초한가’ 라고 한다. 역발산기가세도 시운이 불생하여 관동자제 八千人을 계명산 추야월에 장자방의 옥통수로 훗날 적의 그 참혹한 현상을 그린 것으로, 先人들의 이르기를 이 옥통수는 자웅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中國의 고사이므로 정확히는 말할 수 없다. 장자방이 분 옥통수는 압 높으로 그 소리가 애절하고, 뜻는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고 슬픔을 자아 내게 한다고 하며, 슬픈 사람이 들으면 더더욱 슬퍼한다고 한다. 그러면 ‘초한가’ 를 쓰고저 한다.

⑧ 초한가(楚漢歌)¹⁰⁴⁾

월문에월목을하니	수문이적막하다
살에맞은이자거는	폐왕을인도르다
삼보에조조하고 ¹⁰⁵⁾	오보에체휩하니 ¹⁰⁶⁾
강산이적막하다	계명산추야월에
장자방의옥통수로	폐왕군을훗날적에
관동자제 八千人은	온데간데간곳없네
구추구추달도밝다	이내소리드러보소
전쟁을하면죽을러라	날랜갈을빛겨들고
행복하면살것이요	반항하면죽을레라

104) 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변종성으로부터 구전받았다.

105) 삼 보를 움직이고 숨고.

106) 오 보를 움직이고 숨을 멈추고.

무도한패왕을위해	하나밖에없는목숨
버려본들소용있나	여러생각하지말고
오늘밤삼경전에	방포일성들리거든
고향향해도라가오	고향의사래긴발을
어느장부가러주고	어린자식늙은부모
어이봉양할것인가	밥달라는어린자식
누가있어길러주고	싸리문을부여잡고
슬피우는아낙네를	누구라서위로할고
슬픈것은죽음이요	기쁜것은행복일세
행복하면공후장상	자자손손누릴지니
주지말고도라오소	한고조는승군이분명하다
복소리가진동하고	화광이충천한다
날랜말을비껴타고	어느곳에피신할고
뒤를보니심면매복	운신할길바이없네
오강향해패주로다	천명이다했느냐
눈물흘려하는말이	역발산도할일없고
기가세도쓸대없다	우미인을부여잡고
눈물흘려하는말이	남아장부태어나서
이름석자남겼으니	여한은바이없네
선상에오른패왕	관동땅이적지마는
일국제왕될것이니	다시때를기다리소
이말들은조패왕은	허허웃어하는말이
이내복에천금상과	만호후가결렸으니
너나가저가러므나	오강에서자문이사
인생무상이아닌가	

→ 비록 中國의 고사를 ‘회다지소리’ 로 승화하였다 하여도 고사의 내용이 슬픈 것은 사실이다. 승즉군왕이요 패즉역적인데 王者의 씨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一國의 흥망성쇠를 보는 듯하여 筆者 역시 애석함을禁할 길이 없다. 그러면 ‘回心曲’ 을 論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본디 ‘回心曲’ 은

佛敎의 哲學이다. 佛敎의 오묘 불가사의한 이치를 論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鄉里 향촌에서 農業을 天職으로 生覺하며 現今에 이른 몸이 어찌 ‘回心曲’을 말할 수 있으련만, 그동안 本人이 여러 方面에서 듯고 또한 느낀 점과 소리의 내막을 아는 대로 쓰고저 한다.

⑨ 回心曲 1

이세상에나온사람	뉘덕으로태어났다
석가여래제자되어	칠성님전명을빌고
삼태성의복을빌어	아버님전뺨를타고
아버님전살을얻어	이세상에탄생했네
한두살에철을몰라	무럭무럭자라다가
부모은공모르다가	四五十이당도하여
부모생각절로난다	유수같이빠른세월
오늘날에당도하여	무정세월약류파라
어제까지검든머리	오늘날에백발되고
눈어둡고귀먹으니	망녕이라일삼는데
실낱같이약한몸에	태산같은병이드니
명의불러약을쓰니	약덕인들입을소나
판수몰리경읽으니	경덕인들입을소나
무너불러굿을하니	굿덕인들맡을손가
부르나니어머니요	찾는게냉수로다
애달프고애타게도	이세상을하직할제
일가친척만타한들	어느누가대신가며
자식들이만타한들	어느자식대신가라
일직사자월직사자	대문앞에당도하여
성명삼자부르는소리	삼칸대청올려온다
저승길이멀다드니	대문밖이저승일세
인생공덕싸은뒤에	극락전에입시하여
영생복록누리리라	

⑩ 回心曲 2

천지천지분화후에	삼남화상이러나니
세상천지만물중에	사람에서또있는가
여보시오시주님들	이내말씀드리보소
이세상에나온사람	뉘덕으로태어났다
부처님전은덕으로	아버님전뼈를타고
어머님전살을얻어	칠성님전명을타고
제석님전복을빌어	석가여래제도하에
인생일신탄생하니	한두살에철을몰라
부모은공모르다가	四五十이당하여서
야속한고생살이	부모은공값을소나
절통하고애통할손	부모은공못다값아
무정세월약류하여	원수백발찾아드니
人生七十교려희라	없든망녕절로난다
二八青春少年들아	늙은이망녕웃지마라
눈어둡고귀먹으니	망녕이라일삼으며
구석구석웃는소리	일천간장다녹는다
절통하고애닭을손	할일없고할일없다
홍안백발되였으니	다시젊지못하니
人間百年다사러도	병든날과잠든날을
걱정근심다제하면	단三十도못사나니
시호시호부자내라	어제까지성튼몸이
저녁나절병을얻어	섬섬약질약한몸에
태산같은병이드니	부르나니어머니요
찾는게냉수로다	人蔘녹용약을쓴들
약덕이나입을소가	관수불러경읽으니
경덕이나발을소나	무녀불러굿을하니
굿덕인들발을소나	재미쌀 ¹⁰⁷⁾ 을쓸고쓸어

명산대천찾아가서	상탕에메를짓고
중탕에수발씻고	하탕에세수하고
향로향합불갓추고	황초한쌍불켜놓고
소지삼장드린뒤에	비나이다비나이다
철성님께발원하고	부처님께공양한들
어느곳의부처님이	감응하여살릴소냐
십왕전에불인사자	십왕전에명을받아
일직사자월직사자	한손에는패자들고
또한손에철편들고	오라시슬빛겨차고
활등같이굽은길도	살대같이달려와서
달은문을박차면서	천둥같이호령하며
성명삼자불러내어	어서나서바빠가자
뉘분부라거사리며	뉘명이라거역할고
팔뚝같은쇠사슬로	실낱같은이내품을
잡아매어끌어내니	흔비백산나죽겠네
사자님네내말듯소	시장한데점심잡수
신발이나준비하고	노자돈냥가저가게
만단계유애걸한들	저사자가들을소냐
애고답답서룬지고	이를어이하잔말고
불쌍하다이내일신	人間하직망극하다
명사십리해당화야	꽃진다고서러마라
명년三月봄이오면	너는다시피려니와
人生한번도라가면	다시오기어려워라
이세상을하직하고	봉만산에도라가면
어찌갈고심산험로	정처없는길이로다
불쌍하고가련하다	언제다시도라오리
처자식의손을잡고	만담설화유언하고
정신차려도라보니	약탕관을버려놓고

107) 제사 지내는 쌀.

지성구호극진한들	죽을명을살릴소나
옛늬은이말들으니	저승길이멀다더니
오늘내가당하여서	대문박이저승일세
친구벗이만타한들	어느친구대신가라
일가친척있다한들	어느일가동행하라
구사당에하직하고	신사당에헌배하고
대문밖을씩나서니	적삼내어손에들고
흔백불러초혼하고	없던곡성절로난다
월직사자등을밀고	일직사자손을끌어
천방자방몰아갈제	높은데는낮아지고
낮은데는높아지니	시장하고숨이차다
애곡하고고생하여	일뜰살뜰모은재산
먹고가나쓰고가나	세상일이다허사로다
사자넘어쉬어가세	들은체도아니하며
쇠뭉치로두두리며	어서바빠가자하니
그럭저럭여러날에	저승문턱다다르니
인정 ¹⁰⁸⁾ 달라하는소리	인정쓸곳한픈없다
담배줄여모은재산	인정한픈씨나볼까
저승으로날라오며	환전불여가저올까
의복벗어인정쓰고	열두대문드러가니
무섭기도그지없고	두렵기도측량없다
대령하고기다리니	옥사장이분부하여
남녀죄인잡아드려	다짐맡고문초할제
귀면나찰나졸들이	전후죄우버터서고
거친창검삼엄한데	대상호령기다리니
엄속하기측량없다	남자죄인차래차래
영고하여납입한후	형벌하고못는말이
이놈들이물어보자	

108) 人情.

선심하여발원하고	인간세상나아가서
무슨선심하였으나	바른데로아뢰어라
용왕비간본을받아	임금에게충성하고
중자왕상효측하여	혼전신성효도하고
늪은이를공경하고	형우제공화순하고
부화부순화목하고	붕우유신하였느냐
진심공덕하렸더니	무슨공덕하였느냐
배꼽으니밥을주고	무사공덕하였느냐
헐벗은이옷을주어	구난공덕하였느냐
좋은데에집을지어	행인유숙하였느냐
깊은물에다리놓아	월천공덕하였느냐
목마르니물을주어	급수공덕하였느냐
병든사람약을주어	활인공덕하였느냐
높은피에불당지어	중생공덕하였느냐
좋은밭에원두 ¹⁰⁹⁾ 놓아	행인해갈시켰느냐
부처님께공양드려	염불공덕하였느냐
마음뒤편선심하여	어진사람오라하고
불의행사몹쓸마음	흉악하기극심하다
구렁뱀의암수되어	만집인들벗어나라
착한사람불러드려	공경하고대접하여
몹쓸놈들구경하라	극락가는사람봤소
내소원을다일러라	내원대로하여주마
극락세계가려느냐	연화계로가려느냐
신선세가되려느냐	장생불사하려느냐
옥제앞에신평하여	반도소임하려느냐
석가여래제자되어	선관소임하려느냐
선여차지선관되어	요지연에가려느냐
환생인간하려느냐	부귀공명하려느냐

109) 참외.

남중일색호풍신에	명문재가되려느냐
삼군사명총독하여	장수몸이되려느냐
팔도감사육조판서	대신몸이되려느냐
수명장수부귀하여	부자몸이되려느냐
어서바빠아뢰어라	옥제전에보장하자
석가여래아미타불	제도하여이문하자
삼십념어점진할제	바빠바빠제도하라
대우단에올려놓고	귀찬으로대접하고
몹쓸놈을잡아드려	착한사람구경하라
저런사람선심으로	귀히되여가는구나

⑪ 回心曲 3

世上天地萬物中에	사람에서또있는가
여보시오시주님네	이내말씀드리보소
以世上에나온사람	뉘덕으로태어났다
석가여래공덕으로	제석님전복을빌어
아버님전뻘를타고	어머님전살을얻어
칠성님전명을빌어	이내일신탄생하니
한두살에철을몰라	부모은덕알을손가
이삼십을당하여도	부모은공못다갚아
어이없고 애달고나	무정세월약류하여
원수백발도라오니	없는망년질로난다
망녕이라흥을보고	구석구석웃는소리
애닭고도설은지고	절통하고애통하다
할수없다할수없다	흥안백발늘어가면
인간에이공도를	누가능히막을손가
춘초는연연록하니	왕손은귀불귀라
우리人生늙어가면	다시젊지못하리라
人間百年다사러도	병든날과잠든날을

걱정근심다제하면	단사십도못사나니
어제오늘성튼몸이	저녁나절병을얻어
섬섬약질가는몸에	태산같은병이드니
부르나니어머니요	찾는것이냉수로다
人蔘녹용약을쓰니	약효힘이있을소냐
판수불리경읽으니	경덕이나입을소냐
무녀불러굿을하니	굿덕인들있을손가
재미쌀을끌고끌어	명산대천찾아가서
상탕에메를짓고	증탕에목욕하고
하탕에수발씻고	춧대한쌍버려놓고
향로향합불가추고	소지한지두연후에
비아니다비아이다	부처님전비아니다.
칠성님전발원하고	신장님전공양한들
어느성현이름있어	감응이나할까보냐
제일전에진광대왕	제이전에초강대왕
제삼전에송제대왕	제사전에오관대왕
제오전에염라대왕	제육전에변성대왕
제칠전에태산대왕	제팔전에평등대왕
제구전에도시대왕	제십전에전륜대왕
열시황의부린사자	일직사자월즉사자
또한손에창검들고	쇠사슬을비겨차고
열시왕의명을받아	한손에는철봉들고
활등같이급운길로	살대같이달려와서
달은문을박차면서	뇌성같이소리하고
성명삼자불러내어	어서가자바빠가자
뉘분부라거역하며	뉘명이라지체할까
실낱같은이내몸에	팔뚝같은쇠사슬로
절박하여끌어내니	흔비백산나죽겠네
여보시오사자님네	노자돈가저가게
만단개유애걸한들	어느사자들을손가

애고답답설을지고	이를어이하잔말가
불쌍하다이내일신	인간하직망극하다
명사십리해당화야	꽃진다고서러마라
명년三月봄이오면	너는다시피려니와
우리人生한번가면	다시오기어려워라
북망산을도라갈제	어찌갈고심산힘로
한정없는길이로다	언제다시도라오라
이세상을하직하니	불쌍하고가련하다
처자식의손을잡고	만단설화다못하여
정신차려살펴보니	약탕관을차려놓코
지성구호극진한들	죽은목숨살릴소나
옛늬은이말들으니	저승길이멀다드니
오늘내가당하여서	대문밖이저승일세
친구벗이많타한들	어느누가동행할까
구사당에하직하고	신사당에예배하고
대문밖을씩나서니	적삼내여손에들고
혼백볼러초혼하니	없던곡성낭자하다
일직사자손을끌고	월직사자등을밀어
풍우같이재촉하여	천방지방돌아갈제
높은데는낮아지고	낮은데는높아지니
악의악식 ¹¹⁰⁾ 모은재산	먹고가며쓰고가라
사자님아사자님아	내말잠깐들어주오
시장한데점심하고	신발이나고쳐신고
쉬어가자애걸한들	들은체도아니하고
쇠뿔치로등을밀어	어서가자바빠가자
이렇저렇여러날에	저승원문다다르니
우두나찰마두나찰	소리치며달려드러
인정달라비는구나	인정쓸돈한푼없다

110) 입지 않고 먹지 않고.

담배끓고모은재산	인정한번써볼손가
저승으로 옮겨올까	환전부처가저올까
의복벗어인정쓰며	열두대문드러가니
무섭기도끝이없고	두렵기도측량없다
대명하고기다리니	옥사장이분부듣고
남녀죄인등대할때	정신차려살피보니
열시황이재개하고	죄관관이문서잡고
남녀죄인잡아드려	다짐받고봉초할제
이두귀면나찰들은	전후죄우별려서서
기치창검삼엄한데	형벌가구차려놓코
대상호령기다리니	엄속하기측량없다
남자죄인잡아드려	형벌하여몰는말이
이놈들이들어보라	선심하라말원하고
인세간에나아가서	무슨선심하였느냐
바른대로아뢰어라	용왕 ¹¹¹⁾ 비간 ¹¹²⁾ 뿐을발어
임금님께극간하여	나라에충성하며
부모님께효도하여	가법을세웠는가
배꼽픈이밥을주어	이사구제하였는가
혈벗은이옷을주어	구난공덕하였는가
깊은물에다리놓아	월천공덕하였느냐
좋은곳에집을지어	행인공덕하였느냐
목마른이물을주어	급수공덕하였는가
병든사람약을주어	활인공덕하였느냐
높은산에불당지어	중생공덕하였느냐
좋은밭에원두심어	행인해갈하였는가
부처님께공양들여	마음뉘고선심하여
염불공덕하였느냐	어진사람모해하고
불의행사많이하고	탐재함이많이하어

111) 충신.

112) 사람 이름.

너의죄목어찌하라	죄악이심중하니
풍도옥에가두리라	착한사람불러드려
위로하고대접하여	몹쓸놈들구경하라
이사람은선심으로	극락세계올릴지니
이아니좋은손가	소원대로물을적에
네원대로하여주마	극락으로가려느냐
연화대로가려느냐	선경으로가려느냐
장생불사하려느냐	서황모의사환되어
반도소입하려느냐	네소원을아되어라
네소원을아되어라	옥제에게주품하사
남중절색되어나서	요지연에가려느냐
백만군중도독되어	장수몸이되려느냐
어서바빠아되어라	옥제전에주문하여
석가여래아미타불	제도하게입문하자
산신불리의논하며	어서바빠시하하자
저런사람선심으로	귀히되어가나니라
대웅전에초대되어	다과올려대접하고
몹쓸놈들잡아내어	착한사람구경하라
너희들은죄중하니	풍도옥에가두리라
남자죄인처결한후	여자죄인잡아들여
엄형국문하는말이	너희죄목들어봐라
시부모와친부모께	지성효도하였느냐
동생행렬우애하고	친척화목하였느냐
괴악하고간득한년	부모말씀거역하고
동생간에이간하고	형제불목하게하며
생사간악다부리며	열두시로마음변해
못드는체욕을하고	마주앉아웃음낙담
군말하고성내는년	남의말을일삼는년
시기하기좋아한년	풍도옥에가두어라
죄목을물은후에	온갖형벌하는구나

죄질경증가리어서	차례차례처벌할제
도안지옥화산지옥	한방지옥검수지옥
아침지옥거해지옥	각처지옥분부하여
모든되인처결한후	대연을배설한후
착한여자불러들여	공경하며하는말이
소원대로다일러라	소원대로다일러라
선녀되어가려느냐	요지연에가려느냐
남자되어가려느냐	재상부인되려느냐
제실황후되려느냐	제후왕비되려느냐
부귀공명하려느냐	네원대로하여주마
극락으로가게하니	그아니좋은손가
섬심하고마음뒹아	불의행사하지마소
회심곡을업시여겨	섬심공덕아니하면
우마형상못면하고	구렁배암못면하네
조심하여수신하라	수신정가능히하면
치국안민하오리니	아무쫓록힘은쓰오
적덕을아니하면	신후사가참혹하니
바라나니우리형제	자선사업많이해서
내생길을뺏어갈제	극락으로나아가세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 以上과 같이, ‘回心曲’ 1,2,3을 기술하였습니다.

⑫ 실제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¹¹³⁾

어허넘차 어호	어허넘차 어호
여보시오 기원님들	어허넘차 어호
노잣돈이 모자라니	어허넘차 어호
노잣돈을 마련하야	어허넘차 어호
아들딸들 잘들되고	어허넘차 어호

113) 횡. * 고 이종호 씨의 장례에서 녹음한 것을 채록하였다.

○○○○ ○○하니¹¹⁴⁾ 어허넘차 어호
 노갓돈¹¹⁵⁾이 급합니다 어허넘차 어호
 어허넘차 어호 어허넘차 어호
 인생칠십 사자더니 어허넘차 어호
 잠든날과 병든날과 어허넘차 어호
 이리저리 다빠보면 어허넘차 어호
 단삼십을 못사나니 어허넘차 어호
 이보시오 부자님네 어허넘차 어호
 인생무상 할일없네 어허넘차 어호
 명사십리 해당화야 어허넘차 어호
 꽃진다고 서러마라 어허넘차 어호
 명년삼월 돌아오면 어허넘차 어호
 꽃은다시 피려니와 어허넘차 어호
 우리인생 한번가면 어허넘차 어호
 다시오기 어려워라 어허넘차 어호
 일락서산 지는해를 어허넘차 어호
 어느장부가 받아주고 어허넘차 어호
 일락서산 지는해를 어허넘차 어호
 어느장부가 잡아주고 어허넘차 어호
 창해유수 흐르는물을 어허넘차 어호
 누구라서 막을손가 어허넘차 어호
 단비에 정이있나 어허넘차 어호
 도없다구 자랑을마라¹¹⁶⁾ 어허넘차 어호
 어젠홍안 오날백발 어허넘차 어호
 그아니 가련한가 어허넘차 어호

114) 공란에는 ‘형제간에 우애’가 들어가야 한다.

115) 상여가 나갈 때 부자집에서는 창호지 몇 십 권을 들어 지전을 만들어 상여 앞에도 뿌렸다. 이러한 풍속을 옛노인들에게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압곡리 최창규의 집에서는 상여가 나가는 앞에 광목을 퍼는 것을 본 일이 있다.

116) 이 구절과 윗구절은 소리를 잘못하거나 채록을 잘못했다. 여하튼, 이러한 말은 ‘문서’에 없으니 빼는 것이 좋겠다.

어제까지 성튼몸이 어허님차 어호
 저녁나절 병을은어 어허님차 어호
 인삼녹용 약을쓴들 어허님차 어호
 약첩이나 받을손가 어허님차 어호
 판수불러 경읽으니 어허님차 어호
 경덕인들 입을손가 어허님차 어호
 공수래 공수거로 어허님차 어호
 일생일파¹¹⁷⁾가 분명하다 어허님차 어호
 역발산 기자새¹¹⁸⁾도 어허님차 어호
 오강에서 죽었으며 어허님차 어호
 만승탱자¹¹⁹⁾ 진시황도 어허님차 어호
 여산에 묻었는데 어허님차 어호
 여~¹²⁰⁾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¹²¹⁾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루 태얼났나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석가여래 제지되어 칠성님전 명을타고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삼태성의 복을빌어 제석님전 은공으로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아버님전 뼈를타고 어머님전 살을얻어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제석님전 인도하에 이세상에 탄생했네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117) 일생일사.

118) 기자새.

119) 만승탱자.

120) 횡. * 양중환이 선소리를 주었는데, 잠시 상여를 멈추고 쉬었다. 상여가 멈춘 동안 그는 다음과 같이 장례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이 죽으면 국수를 해 먹지 않는 동네가 있는데, 이는 국수를 먹으면 또 장사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한 일에는 짬수로 일을 해도 무관하지만, 예사에서는 항상 홀수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회다지도 홀수로 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난한 사람도 5일장을 했고, 7일장, 9일장, 10일장인 순장 등을 했다. 그러기 위해 시신을 마당가나 집 주변 밭에 가매장을 하는 '퇴룡'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옆에 상주가 임시로 거처하는 '여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한다. 그리고 상주를 궤인이라고 하며 부인과 동침을 금한다. 부인과 동침을 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두건동이'라고 했고, 그게 흉이었다. 그리고 '회다지소리'는 죽은 사람의 일생을 만천하에 알리는 내용으로 문서를 짜기도 해야 한다.

121) * 다시 상여가 떠났다.

한두살엔 철을몰라 부모은공 모르다가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사오십이 지난뒤 부모생각 간절하다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어제까지 검던머리 오늘날에 백발되고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눈어둡고 귀먹으니 망령이라 일삼는데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구석구석 웃는소리¹²²⁾ 일편간장 다녹는다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어제까지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을은어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나니 냉수로다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정이나 받을손가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무녀불러 굿을하니 굿덕인들 입을손가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판수불러 경읽으니 경덕인들 입을손가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나니 냉수로다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산지수대¹²³⁾ 쓸고쓸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두발씻고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하탕에 목욕하고 도지산간¹²⁴⁾ 그리니¹²⁵⁾ 어허어허 어이나갈까 어허

허어이 허어이¹²⁶⁾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왜 소리 안 받아.;선소리꾼)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122) 살아 생전에 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
 123) 백미 서 되. 산등에 가서 축원을 할 때는 쌀을 1되나 3되 등을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
 올린다.
 124) 소지 삼 장.
 125) 드리니.
 126) * 잠시 쉬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허어이 허어오 허어오
 허어이 여어¹²⁷⁾

에이허리 달회야¹²⁸⁾ 여 이번 소리는 산신님께 고했습니다 예
 에이허리 달회야 여 이번 소리는 여러 외곽손님¹²⁹⁾께 고했습니다
 예
 여보시오 기원님들 여 이번 소리는 광중안 팔지원님께 고했습니다
 이내소리를 받아들주오 에이허리 달회야¹³⁰⁾
 먼데손님은 듣기가 좋게 에이허리 달회야
 가차운손님들 보기가 좋게 에이허리 달회야
 상고메기¹³¹⁾는 굽어를주오¹³²⁾ 에이허리 달회야
 차례차례 연차례로 에이허리 달회야
 일심협력 다져를주오 에이허리 달회야
 저승길이 머다드니 에이허리 달회야
 대문밖이 저승이로구나 에이허리 달회야
 인간칠십오년 길다지만 에이허리 달회야
 잠든날과 병이든날을 에이허리 달회야
 이리저리 다빠두이면 에이허리 달회야
 단삼십을 못살아니 에이허리 달회야
 창해유수 흐르는물을 에이허리 달회야

127) * 여기까지 양중환이 선소리를 주었다.
 128) 여기서부터 회다지가 시작되고, 우선 양중환이 선소리를 주었다.
 129) 외지에서 온 손님.
 130) 이 지역에서는 ‘달구꾼’ 이라고 하지 않고 ‘회다지꾼’ 이라고 한다.
 131) 회를 다지는 사람 중에서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132) 허리를 구부리며 회다지 동작을 시작하다.

누구라서 잡을손가	에이허리 달회야
긴소리는 그만두고	에이허리 달회야
짜른소리를 받아들주오 ¹³³⁾	에이허리 달회야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한번은 상으로쓸고 ¹³⁴⁾	에이허라 달호
또한번은 하루뺏아 ¹³⁵⁾	에이허라 달호
두마치장단에 발맞추어	에이허라 달호
추근추근 다져틀보자	에이허라 달호
여보시오 계원님들	에이허라 달호
무슨노래를 불러를볼까	에이허라 달호
회심곡을 아뢰어보자	에이허라 달호
이세상에 나온사람	에이허라 달호
뉘덕으로 태어를낳나	에이허라 달호
석가여래 시저 ¹³⁶⁾ 가되어	에이허라 달호
삼태성의 명을빌고	에이허라 달호
철성님전 복을빌어	에이허라 달호
체석님전 은덕으로	에이허라 달호
아버지께 뼈를타고	에이허라 달호
어머님전 살을은어	에이허라 달호
이세상에 탄생을했네	에이허라 달호
한두살엔 철을몰라	에이허라 달호
부모은공 모르다가	에이허라 달호
사십이 지난뒤에	에이허라 달호
부모님생각이 간절하다	에이허라 달호
어제까지 검던머리	에이허라 달호

133) '연회' 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소리다.
134) 오른쪽으로 허리를 구부리다.
135) 왼쪽으로 허리를 구부리다.
136) 제자.

오늘날에 백발이되고 에이허라 달호
 눈어둡고 귀먹으니 에이허라 달호
 망령이라 일삼는데 에이허라 달호
 구석구석 웃는소리 에이허라 달호
 일천간장이 다늑는다 에이허라 달호
 어제까지 성튼몸이 에이허라 달호
 저녁나절 병을은어 에이허라 달호
 부르나니 어머니요 에이허라 달호
 찾나니 냉수로다 에이허라 달호
 인삼녹용 약을쓴들 에이허라 달호
 약병인들 받을손가 에이허라 달호
 돌씩돌씩 마주서서 에이허라 달호
 세발치기¹³⁷⁾를 다저를보자 에이허라 달호
 월문에 월목하니 에이허라 달호
 추문이 적막하다 에이허라 달호
 가련하다 초패왕은 에이허라 달호
 말을장차 잃든말과¹³⁸⁾ 에이허라 달호
 창에맞은 이자거는 에이허라 달호
 대왕을 인도로다 에이허라 달호
 계명산 추야월에 에이허라 달호
 장자방에 옥통수로 에이허라 달호
 화전¹³⁹⁾ 제자 잃을적에 에이허라 달호
 우추우추¹⁴⁰⁾ 달도밝다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¹⁴¹⁾

137) ‘세발찌기’ 라고 한다. ‘짚는다’ 에서 나온 말이다. [한광희, 이한천] ‘두발치기’, ‘세발치기’ 라고 하지 않고, ‘두발찌기’, ‘세발찌기’ 라고 했다.

138) 무슨 뜻인지 모른다.

139) 팔천.

140) 구추구추.

141) * 1책이 끝났다.

에이허리 달회야 ¹⁴²⁾	네 이소리는 산신님께 고했습니다 예
먼데사람들 듣기가 좋게	네 이소리는 외각손님께 고했습니다 예
곁에사람들 보기가 좋게	네 이소리는 육지원님께 고했습니다 예
상모메기서 받아들주소	에이허리 달회야
이세상에 오신사람	에이허리 달회야
누덕으로 오셨는가	에이허리 달회야
상모메기서 굽어들주소	에이허리 달회야
차례차례 연차례로	에이허리 달회야
아버님전 뻘뻘빌어	에이허리 달회야
어머님전 살을받아	에이허리 달회야
칠성님께 명을타고	에이허리 달회야
이세상에 탄생하니	에이허리 달회야
한두살에 철을몰러	에이허리 달회야
사십이 지내가니	에이허리 달회야
부모님생각이 저절로난다	에이허리 달회야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긴노래는 고만두고	에이허라 달호
짜른노래를 불러를보세	에이허라 달호
한번은 상으로쓸고	에이허라 달호
또한번은 하루다빠며	에이허라 달호
육지원이 돌어들가며	에이허라 달호
세마치장단을 맞추어가며	에이허라 달호
기운차게 다져나본다	에이허라 달호
이세상에 오신사람	에이허라 달호
누덕으로나 오셨는가	에이허라 달호
석가여래 제자루서	에이허라 달호
아버님전 뻘뻘빌어	에이허라 달호

142) * 2째가 시작되고, 엄영태가 선소리를 주었다.

어머님전 살을받아 에이허라 달호
 칠성님께 명을타고 에이허라 달호
 둘씩둘씩 마주서서 에이허라 달호
 세벌찌기를 하여본다 에이허라 달호
 어제날에 성튼몸이 에이허라 달호
 태산같은 병이드니 에이허라 달호
 인삼녹용 약을쓰니 에이허라 달호
 약발인들 있을손나 에이허라 달호
 무당불러 굿을하니 에이허라 달호
 굿덕인들 있을소나 에이허라 달호
 복술불러 경을치니 에이허라 달호
 경덕인들 있을소나 에이허라 달호
 부르나니 어머니요 에이허라 달호
 찾느니 냉수로다 에이허라 달호
 일가친척 많다한들 에이허라 달호
 어느누가 대신가랴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리 달회야¹⁴³⁾ 여 이번소리는 산신님께 고했습니다 예
 에이허리 달회야 여 이번소리는 우리 외각손님께 고했습니다 예
 에이허리 달회야 여 이번소리는 광중안 팔기원님께 고했습니다 예
 에이허리 달회야 에이허리 달회야
 지나보니도 거리가매로¹⁴⁴⁾ 에이허리 달회야
 이세상에 태어는이나 에이허리 달회야
 상모메기는 굽어만주소 에이허리 달회야
 절에사람은 보거나 좋게 에이허리 달회야
 먼데사람은 듣거나 좋게 에이허리 달회야
 여보시오 계원남들 에이허리 달회야
 이내말씀을 들어만주소 에이허리 달회야

143) * 여기서부터는 3째로 김영배가 선소리를 주었다.
 144) 말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세상이 어느때고	에이허리 달회야
이삼사월이 돌아만왔네	에이허리 달회야
잎이피고 청산이되었네	에이허리 달회야
일락서산에 지는저해는	에이허리 달회야
진노래는 고만두고	에이허리 달회야
짜른노래를 불러만주소	에이허리 달회야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여보시오 동포님들	에이허라 달호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에이허라 달호
한번은 상으로쓸고	에이허라 달호
또한번은 하로쓸어	에이허라 달호
무슨노래를 불러를보나	에이허라 달호
초한가를 불러를보나	에이허라 달호
회심곡이나 불러를볼까	에이허라 달호
여보시오 동포님들	에이허라 달호
이내말씀을 들어보소	에이허라 달호
이세상에나 나온사람	에이허라 달호
누덕으로나 생겼으나	에이허라 달호
하나님전에 은덕으로	에이허라 달호
아버님전에 뼈를타고	에이허라 달호
어머님전에 살을타고	에이허라 달호
칠성님께나 명을타고	에이허라 달호
제석님께나 복을타고	에이허라 달호
석가여래 제도하니	에이허라 달호
인생일신 탄생하니	에이허라 달호
둘씩둘씩 마주서서	에이허라 달호
인생칠십 고래희라	에이허라 달호
없든망령이 절루나네	에이허라 달호
망령들어 편할소냐	에이허라 달호
이팔청춘에 소년들아	에이허라 달호

늙은이보고 웃지말고 에이허라 달호
 눈어둡고 귀먹으니 에이허라 달호
 망령이라 흉을보면 에이허라 달호
 구석구석에 웃는모양 에이허라 달호
 절통허구도 원통할손 에이허라 달호
 할일없구도 할일없네 에이허라 달호
 흉안백발 되었으니 에이허라 달호
 다시젊지는 못하리라 에이허라 달호
 인간백년 다살아도 에이허라 달호
 병든날 병든날과

에이허이 달회야¹⁴⁵⁾ 에이허리 달회야
 여보시오 육지원¹⁴⁶⁾님네 에이허리 달회야
 이내선소리를 들어를보소 에이허리 달회야
 상모메기서 곱어를주소 에이허리 달회야
 차례차례 연차례로 에이허리 달회야
 이세상에 오신사람 에이허리 달회야
 누덕으로 오셨는가 에이허리 달회야
 석가여래 제자루서 에이허리 달회야
 아버님전 뼈를받아 에이허리 달회야
 어머님전 살을타고 에이허리 달회야
 칠성님전 명을타고 에이허리 달회야
 이세상에 탄생하니 에이허리 달회야
 긴노래는 고만두고 에이허리 달회야
 짜른노래를 불러를보세 에이허리 달회야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긴노래는 고만두고 에이허라 달호
 짜른노래를 불러를보세 에이허라 달호

145) * 여기서부터 4째인데, 선소리는 엄영태가 주었다.

146) 보통은 광중 안에 6명이 회를 다지는데, 부잣집의 경우 과거 8명도 회를 다졌다.

한번은 상으로쓸고	에이허라 달호
또한번은 하루다빠며	에이허라 달호
육지원이 돌어들가며	에이허라 달호
세마치장단을 맞춰가며	에이허라 달호
기운차게 다져나본다	에이허라 달호
무슨노래를 부르리까	에이허라 달호
관동팔경을 부르리까	에이허라 달호
답산가를 부르리까	에이허라 달호
춘향가 ¹⁴⁷⁾ 를 부르리까	에이허라 달호
이소리저소리 다그만두고	에이허라 달호
회심곡을 부르리라	에이허라 달호
둘씩둘씩 마주서서	에이허라 달호
세발치기를 다져나본다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어제날에 쫄던몸이	에이허라 달호
오늘날에 백발일세	에이허라 달호
눈어둡고 귀먹으니	에이허라 달호
웁던망령이 절로난다	에이허라 달호
병든날과 잠든날을	에이허라 달호
이리저리 저쳐놓으면	에이허라 달호
단사십을 못사느니	에이허라 달호
에젯날에 성튼몸이	에이허라 달호
태산같은 병이드니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리 달회야 ¹⁴⁸⁾	에 이번소리는 꼬시래 ¹⁴⁹⁾
에이허리 달회야	에이허리 달회야

147) 회다지 할 때 '춘향가' 는 부르지 않았다.

148) * 여기서부터 5페이지, 선소리는 양재학이 주었다.

149) 귀신이 먹으라는 뜻이다.

에이허리 달회야	에이허리 달회야
여보시오 육지원님들	에이허리 달회야
상모메기는 곱어를주오	에이허리 달회야
광중안에는 육지원이오	에이허리 달회야
광중밖엔 나혼잔데	에이허리 달회야
가까운손님들 보기가 좋게	에이허리 달회야
먼데손님들 듣기가 좋게	에이허리 달회야
청과밭에 금잉어놀듯	에이허리 달회야
금실금실 놀아틀보세	에이허리 달회야
긴소리는 그만두고	에이허리 달회야
짧은소리를 불러틀보세	에이허리 달회야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한번은 상으로 쓸고	에이허라 달호
또한번은 하로구박 ¹⁵⁰⁾	에이허라 달호
두마치장단에 발맞추어	에이허라 달호
추근추근히 다져틀보세	에이허라 달호
만승천자 진시황이	에이허라 달호
육국을 통일후에	에이허라 달호
동남동녀 오백인을	에이허라 달호
삼신산에 보내어서	에이허라 달호
불사약을 구하려쓰나	에이허라 달호
한번죽음을 못면했고	에이허라 달호
말잘하는 도연명과	에이허라 달호
시잘짓는 이태백도	에이허라 달호
염라대왕을 못달래서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150) ‘하로뽑아’ 이다.

둘씩둘씩 마주서서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둘씩둘씩 마주서서	에이허라 달호
세발치기를 다져를보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에이허라 달호
이세상에 나온사람	에이허라 달호
뉘덕으로 태어났나	에이허라 달호
석가여래 제자가되어	에이허라 달호
칠성님님전 명을받고	에이허라 달호
제석님전 복을빌어	에이허라 달호
아버님전 뼈를타고	에이허라 달호
어머님전 살을얻어	에이허라 달호
이내일신이 탄생을했네	에이허라 달호
한두살엔 철을몰라	에이허라 달호
부모님은혜를 모르다가	에이허라 달호
사오십이 지난뒤에	에이허라 달호
부모님생각이 간절쿠나	에이허라 달호
여보시오 소년들아	에이허라 달호
백발보고서 웃지를마라	에이허라 달호
아침나절 성튼몸이	에이허라 달호
저녁나절 병을얻어	에이허라 달호
찾느니 냉수로다 ¹⁵¹⁾	

151) [한광희, 이한천] 3쾌를 다지든 5쾌를 다지든 마지막 쾌를 다지는 것을 끝낼 때에는 회를 다지는 사람 중에서 힘이 든 사람이 광중에서 나와 횃대를 휘둘러 회 다지는 것을 끝내도록 한다. “에 후후후” 라는 탄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40, 50여 년 전부터 회 다지는 것을 끝내고 장난을 했는데, 새끼줄을 짜서 걸고 그 사이에 친척들에게 돈을 꼽으라고 하기도 하고, 횃대를 광중 위에 삼각대 모양으로 만들어 그 위에 만사위를 얹히고 그 밑에 술가지 불을 피워 괴롭히기도 한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근엄하게 장사를 지냈다.

2 노동요

1) 농산노동요

(1) 거리소모는소리¹⁵²⁾

이러 이러 찌찌찌 마마 마라소¹⁵³⁾야 골새¹⁵⁴⁾로 드러서
마마 너무 잡추지¹⁵⁵⁾ 말고 추근추근¹⁵⁶⁾ 땡겨라 이러
안소는 너무 부대가지¹⁵⁷⁾ 말고
한 발 물러서 물러서 슬슬 땡겨라
이러 이러 위호오 슬슬 도라라
이놈의 쇠가 이리도 부대나 골새로 드러가 드러서
어이 참 잘도 땡긴다
이랴 어서 가자 어서 가
찌찌 이 안소야
골새로 드러서 생가리지지¹⁵⁸⁾ 앓도록 힘차게 땡겨라
위 호오 슬슬 도라 골새로 드러가
이 논땀이 얼른 갈고 장구땀이¹⁵⁹⁾로 얼른 가자

152) '소모는소리' 는 재담을 잘 하는 사람이 사설을 많이 한다. 소를 몰면서 '어러리' 등과 같은 노래는 하지 않는다. 논을 갈 때도 두 바리로 가는데, 두 번 간다. [김영배, 최영수] 김영배,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77살. 최영수,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77살. 논농사를 짓기 위해 맨 눈에 물을 담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 가래질을 하여 흙을 논둑에 올리면서 논둑에 있는 쥐구멍을 막는 등 논둑을 다듬는다. 이 때 '가래질소리' 를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 다음, 논을 보통 거리로 가는데, '아이 갈' 때는 그냥 갈지만, 두 벌 갈 때는 눈에 '물을 잡고' 간다. 아이 갈 때와 두 벌 갈 때의 소리는 같다. 그런 다음 썰레로 '해썰미를 켜' 다음, 그 위에 산에서 꺾어온 갈을 편다. 그리고 다시 이를 '거슬른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썰레질을 한다.

153) 오른쪽에 있는 소가 '마라소' 이고, 왼쪽에 있는 소가 '안소' 다. 안소에 비해 마라소가 힘이 세야 밭을 잘 갈 수 있다.

154) 쟁기로 파는 곳.

155) 바빠.

156) 슬슬.

157) 서로 앞 서 가려고 하다.

158) 땅이 갈리지 않다.

159) '장구땀미' 는 장구처럼 양쪽은 넓고 가운데는 좁은 논이다. '땡에땀미' 는 소 땡에처

이야 이러 해는 서산에 기우니 어서 땡겨라
찌찌지¹⁶⁰⁾ 올라서 올라서 마라소야
마마마 워 호오
돌머리¹⁶¹⁾ 잘 해야 매 안 맞고 너두 힘들지 않치
이야 이러 잘두 가러 간다 워~~워

→ 江原道는 논이나 밭을 소 두 바리로 간다.¹⁶²⁾ 비탈진 경사가 많고 토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두 바리 소로 간다. 그래야만 농사가 잘 되고 풀도 덜 나고 밭메기가 편리하다. 멩에가 논과 밭이 다르다. 논 멩에는 길이가 짧고, 밭 멩에 길이가 길다. 또한, 경기, 영·호남은 토심이 깊어 저리소로 갈지 않고 호리소로 논을 망을 트러¹⁶³⁾ 영농을 한다

이러 이러~ 어디어라
이러~ 너무 그렇게 다투지말고
주견주견¹⁶⁴⁾ 당겨라~ 어이~여
우소리¹⁶⁵⁾만 나가덜랑 썩들어 서게~
아 참 잘 한다 그 놈의 소 상장이다¹⁶⁶⁾
어호~ 오~
너무 그렇게 왔다갔다 해지를 말고
골새 새를 헤어리 어후~
꼬리를 살짝 감추고 저넘에 떨어질라
안소 우겨서~
어 참 잘 한다 이놈의 소들 말은 참 잘 듣는구나

럼 생긴 모양의 논이다.

160) 슬슬.

161) 밭 끝부분에서 소머리를 돌리는 것.

162) [이계동]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73살. 안소와 마라소가 있는데, 안소는 튼튼하고 노련한 소가 담당한다. 안소는 마라소를 가르치면서 논, 밭을 간다.

163) '망을 틀다' 는 벼 사이의 고랑의 흙을 퍼 올려 벼 밑 부분으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164) 추근추근. 이는 '천천히' 라는 뜻이다.

165) 소를 몰며 '우 ~' 하는 소리를 내면, 소가 가다가 멈춰선다.

166) 제일 좋다.

어 후~

우리 동네 소 상적일세

고개를 끄떡끄떡 하면서 자주나 당긴다

어 후~

너무 그렇게 다투질말고

추견추견 당겨라~

기거품을 내물면서 잘두나 당기네~

일락서산 해는 떨어진다 빨리 가자

얼른 갈고서 집에 가서 죽을 먹자~

어167)

(2) 호리소모는소리

이라 찌찌 슬슬 땡겨라

이 소야 골새 드러서 드러서

자추지 말고 추근추근 땡겨라 위 호오

슬슬 도라서 골새로 드러라

이라 이려 어서 가자 어서 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 말고 골새로 드러 골새로 드러라

위 호오 위위

→ ‘겨리소모는소리’ 는 사설이 많코 듯기도 좋으나, ‘호리소모는소리’ 는 단조롭다. ‘호리소모는소리’ 는 “골새 찌찌저 위 호오.” 등 몇 마디로 끝난다. 그러나 소와 소 모는 농부와 상합하여 별 탈 없이 영농에 임한다고 생각된다.

(3) 쓰레소리¹⁶⁸⁾

이려 이려 빨리 땡겨라

167) 황.

168) 논은 한 곳을 세 번 삶아 모 심기에 좋게 평탄하게 고른다.

마루¹⁶⁹)를 두고 가야지¹⁷⁰) 천방지축 가면 어쩔랴구
 이려 이려 잘두 땡긴다
 쇠머리에 모춤 올라가지 않게 빨리 삼자¹⁷¹) 위 호오
 슬슬 도라서 호우 이랴 이려
 모꾼들 오게 되었으니 어서 가자
 이랴 이려 이놈의 소 왜 부성대나 왜 부성대
 위위위

→ 이 지역 논은 질토가 적고 사토¹⁷²)가 많은 점이다. 논을 삼을 때 쓰레
 를 갈지 자(之) 형으로 마루를 두고 삼는다. 논을 삼는데 소를 2마리나 3
 마리로 삼는데, 앞쓰레가 마루를 두고 가면, 뒤에 소가 마루를 삼는데, 이
 곳에서는 아이(처음), 두 벌(두번째), 세 벌(세번째)로 삼는 것을 ‘세 벌
 놓았다’고 하며¹⁷³), 논을 잘 삼아야 모 심기가 좋으며 능률이 난다.

이려 어리 여라
 어라 허 말라서라
 이소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느냐
 골새에 서~
 이려 두리번거리지 말구서
 뒷두렁에 나가자
 어 응 어
 우소리 나거든 썩 들어만 서게
 말래두만 꼭 가자

169) 삶지 않은 곳.

170) 썩레는 호리소로 삶는데, 보통 두 마리나 세 마리가 논을 삶는다. 앞 소가 삶지 않은
 부분은 그 뒷 소가 삶는다. ‘마루를 두고 가다’는 말은 앞 소가 덩벙이며 이리 저리 가
 지 말고, 뒷 소가 삶은 길을 봐 두라는 뜻이다. 썩레질을 하는 사람을 ‘성군’ 혹은 ‘썩
 레꾼’이라고 한다.

171) 모꾼들이 논에 모춤을 던져 놓는데, 논을 삶지 않은 논에 모춤을 미리 던지기 전에 빨
 리 썩레질을 하자는 뜻이다.

172) 모래.

173) 1마리가 하루에 20마지기 정도를 삶는다.

말래¹⁷⁴)를 지키지 말고 말래만 꼭 타고 나가라
어 후~
물살이 짹짹 갈라지면서 잘두나 잡아 서있노~
어 후~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잘두나 당기네
아 상장이다 그 소 참 정금에선 제일 최고 상장이다
어떻게 기운이 그렇게 시고 말을 잘 듣는지 참 좋다 소
이라~ 어 후~
너는 사람보다 더 잘 한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는데
월출동영 저 달이 섰는데
어~~~
너무 그렇게 다투지 말고~
말래 서라~ 어 후~
신명이 저절로 뽕뽕 난다~
너는 우째 그렇게 씨레질을 잘하느냐~
어 후~
일락서산 해는 떨어지고 월출동영 별은 섰는데
빨리 삶고 집으로 가자~¹⁷⁵⁾

(4) 미나리타령

천하지대본은 농사라오	농사한철 지어보세
앞뜰논에는 천석지기	뒷뜰논에는 만석지기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줄모루 심어주게
지어가네 ¹⁷⁶⁾ 지어가네	점심참이 지어가네
점심참은 짓더라도	손을썩워서 ¹⁷⁷⁾ 심어주게

174) 씨레가 가지 않은 곳. ‘말을 타라’ 라고도 했다.

175) 횡. [엄영태] ‘번지하는소리’ 는 없었다. [이계동] ‘번지소리’ 는 ‘소모는소리’ 와 동일하다. [한광희, 이한천] ‘번지소리’ 는 따로 있지 않고, ‘소모는소리’ 를 한다.

176) 늦어간다.

177) 빨리 움직이다.

천하지대본 농군님네	우리기쁨 귀할제라
이논자리다 모를심어	검실검실 ¹⁷⁸⁾ 영화로다
시화연풍 좋아키는	우리마을이 제일이다
봄이면 진달래요	가을이면은 오곡일세
오뉴월에 흘린땀이	구시월에 열매되네
천하지대본 농군님네	우리마을이 영화로다
오실토실 익은곡식	동산밑에서 춤을춘다
농사한철 짓고나니	한복고복 하시리라
해는지고 저문날에	옥창앵도가 불거스니
시오시오는 ¹⁷⁹⁾ 부자네라	원정부지 ¹⁸⁰⁾ 가 이아닌가

→ 이 ‘메나리타령¹⁸¹⁾’은 봄에 이양할 때 부르던 노동요이다. 영동에는 ‘오돌띠기’라고 모를 심을 때 부르는 소리인 것이다. 강능시 학산 마을에 노동요는 영서의 지역 사람들이 부르기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강능 특유의 사투리가 가미되지 않코는 부를 수 없다. 그러나 횡성, 原州 地方의 ‘미나리’는 꺾끔 매디만 잘 다듬어 부르면 부르기가 그리 힘들지 않코, 夕陽 무렵 들력에서 들려오는 ‘메나리타령’¹⁸²⁾은 구수한 정감이 들고 뜻은이로 하여금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양기로 모를 심고 품아시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금 이 지역에 ‘미나리타령’을 부를 수 있는 보유자가 5명이 계셨는데, 1명은 死亡하시고 1명은 와병 중이며, 1명은 타처로 이거하여 현재 2명이 그 맥을 유지하는데, 머지 않은 將來에 그 맥이 끈긴다고 보아야

178) 검다. 튼튼한 벼는 검은 빛을 띠고, 약한 벼는 노란 빛을 띤다.

179) ‘時呼時呼’.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의미이다.

180) 무슨 뜻인지 모른다.

181) ‘모찌는소리’는 듣지 못했다.

182) 이는 모 심을 때만 부르고 밭을 땀 때나 놀 때는 부르지 않았다. 두세 명이 합창을 하기도 하고, 번갈아 가며 한 명씩 부르기도 하였다. 10명 중에 3,4명 정도가 ‘메나리타령’을 부를 줄 알았다. 모 심을 때 ‘어러리’는 부르지 않았다. [김영배, 최영수] ‘메나리’는 합창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부를 줄 아는 사람만 한 명씩 이어가며 불렀다. ‘줄모’는 일제 시대 때부터 나왔고, 그 전에는 줄모를 심지 않았다. [이계동] ‘메나리’라고 부르지 않고 ‘미나리’라고 불렀다.

좋을 것이다. 이 노동요가 사라지면 民族의 遺産이 사라지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郡에서나마 소리 保全을 爲해 녹음이나마 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 바이다. 이 ‘미나리타령’ 과 橫城 ‘어러리타령’ 을 가미하여 民俗藝術祭에 出品하여 江原道에서 1等を 하여 여수 전국大會에 出演하여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참으로 구수한 橫城의 소리인 것이다.

① 메나리

천하지~ 에이요~~ 대본은 농사라고~
농사~일 한철을 지어~보세~

뒤뜰~에요~~ 논은 천석지기~
앞뜰~에 논은 만석~지기~

심어주게~ 에이요~~ 심어주게~
오종종~ 에이 줄모루나 심어~주게~

지어가네~ 에이요~~ 지어가네~
점슴~에이 참이 지어~가네~

점슴~에이요~~ 참은 짓더라도¹⁸³⁾~
손은~ 에이 세워서¹⁸⁴⁾ 심어~주게~¹⁸⁵⁾

183) 耨더라도.

184) 세워서. 이는 ‘빨리빨리’ 라는 뜻이다.

185) 嶁. [홍순태] ‘어러리’ 는 모 심을 때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모 심을 때 ‘어러리’ 를 넣기도 하였다. [엄영태] ‘어러리’ 는 산에 나무하러 갈 때나 부른다. 모를 심고서 한 달여가 지난 뒤에 김을 맨다. 아이 때고 15일 뒤에 두 벌 맨다. 논 밭 때도 ‘어러리’ 를 하지 않았다. * 2001년 9월 19일 채록 당시 홍순태는 70살, 엄영태는 78살이었다. [한광희] 모는 1920년 경부터 일제의 강요에 의해 줄모를 심었다. 그 전에는 줄이 없이 적당히 심는 ‘산식’ 을 했다. 줄모는 할 때는 한 번에 7 ‘포고지’ 정도를 심었다. 일제 때 줄모를 심지 않으면, 면서기들이 씨래를 가지고 나와서 이미 모를 심어 놓은 논을 쏘아 버렸다. 모를 심을 때는 ‘미나리’ 를 불렀다. ‘메나리’ 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미나리 타령에는 “오종종 줄모로 심어주게 / 오늘의 해도 가 갔는지 골골 마다 그들이 지네” 라는 사설이 있다. 이 소리를 하는 방식은 한 사람이 한 사설을 부르

② 미나리타령

임계양천 맑은물에	배추씻는 저처녀야
것에걸대 다제쳐두고	속에속대 나를주오
속에속대 왜너를주나	네의마음에서 누모로리
원앙금침 잠벼계를	누워상사 일몽이면
천군만마 부럽지않고	월향선녀 이에또있으랴
해는불같이 내려찍고	땀은흘러 어이흘러 옷실에젖네
오늘에는 에이 여기서놀고	내일날은 에이 어데서놀고
지고뜨는 것 에이 해달이오	맘대로 에이 안되는것인생사라
남아 에이 하처불상봉인가	인의광시면 웬수가에없네
부모 에이 극진 봉양하니	가화 에이 하니 만사성이라

→ 여러 곡이 더 있고 있는 듯하다. 기재하지 못하고 채집에 한계를 느낀 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③ 메나리

심어주게 이어 심어를 주게
오종종 줄모¹⁸⁶⁾루 심어를 주게

면,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사설을 한꺼번에 같이 부른다. 그리고 모 심을 때 ‘미나리’ 이외에 ‘다복녀타령’을 부르기도 했는데, 한 사람이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 어디로 울면가나”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따라 한다. 선소리를 주었던 사람이 “우리엄마 젓줄따라 젓먹으러 울면간다”라고 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함께 따라 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계속 앞소리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받는 형태로 ‘다복녀타령’을 ‘모심는소리’로 불렀다. 그 당시 논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복녀타령’을 부를 줄 알았다. 모를 찢 때는 “얼른 해더니 한 춤 뿔었네”라고 ‘모찌는소리’를 했다. 초봄에 가래질을 하여 논둑을 다질 때 ‘가래질소리’는 부르지 않았다. 논일 하면서 ‘어러리’는 부르지 않았다.

186) ‘줄모’는 일제 시대 이전부터 있던 모심기 방법이다. 짚으로 가느다란 줄을 만들어 모 심는 간격을 가늠했다. 짚으로 끈 새끼를 옮기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줄쟁이’가 끈을 잡고 옮기기도 해야 하지만, 가운데에 한 사람이 서서 양쪽 사람과 같이 줄을 들어 옮겨 놓기도 해야 한다. ‘жат대모’라는 모심기 방법도 있는데, 모를 심으며 막대기를 옮기며 모 심는 간격을 가늠했다. 보통 모의 간격은 13cm 정도이고, 한번에 3,4개의 모를 심었다. 옛날에는 ‘돌개모’라는 모심기 방법도 있었는데, 4,5명이 논 가운데에 들어가 모여 한꺼번에 모를 심다가 점점 더 크게 원을 그리며 모를 심어 나가는 방법도 있었다. 일제 시대에는 노끈으로 줄을 사용하여 줄모를 심었다. [김영배, 최영수] ‘돌개모’는 동그

메꽃¹⁸⁷⁾같이 예 고운 얼굴
미나레꽃¹⁸⁸⁾이도 다 되었구나
해는 예 불같이 내러를 쪼고
땀은야 에이 흘러서 땀범벅이 됐네
오늘에 날른 여기서 놓고
내일에 에이 날로는 어디 가서 노나
강초에일입 한소생하니¹⁸⁹⁾
강물에 에이 프르러도 입에나 생각

→ 이 소리는 原州 地方의 ‘모심기소리’ 이다. 노동요로서 너무도 단조롭다.¹⁹⁰⁾

④ 고성 의 모심는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원양¹⁹¹⁾의 줄모루만 심어주게
놀다가 가거라 자다가가거라
저달이 지두룩만 놀다가가게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가네
바다같은 이논베미 넘어가네
세월이 갈려면은 너혼자가지
아니가는 내청춘을 왜텔고가나

란 논에서 모를 심는 방법이다. [한광희, 이한천] ‘돌개모’ 는 5,6명이 모를 심는데, 이는 가운데에서부터 차례대로 시계 방향으로 모을 심어가는 방법이다. 한 사람이 돌며 모심는 것을 마치면, 그는 마지막 사람이 심는 바로 외곽에서 모를 심어간다. 마지막으로 여러 구역은 각각 구역을 맡아 심는다. 모 심는 방법 중에서 ‘칸띠기’ 도 있는데, 이는 구역을 직선으로 길게 나누어 각 구역을 맡은 다음 5포기씩 모를 심어가는 방식이다.

187) 분홍 빛깔과 하얀 빛깔을 띤다.

188) 흰 빛깔의 꽃.

189) 무슨 뜻인지 모른다.

190) ‘원주 미나리’ 는 ‘횡성 미나리’ 에 비해 곡이 너무 단조롭다. 원주 미나리는 ‘어러리’ 곡과 거의 유사하다.

191) 한 번 줄을 옮길 때마다 모를 2줄 심는 방식의 모심기를 말한다. [김영배, 최영수] 무슨 뜻인지 모른다.

산천이 흐르면 오마더니
 백설이 휘날리도 왜아나나오나
 오늘의 해두나 거반갸네
 골골이 마두마듬 정자¹⁹²⁾가젓네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

→ 이 소리는 고성 지방의 노동요이다.¹⁹³⁾ 모 심을 제 부르는 것이 특색
 이나, 후렴으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넘어간다” 라
 는 후렴이 이색적이다. 모 심는 소리 미나리를 두 편 소개한다. 미나리가
 변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원유는 모르네라. 허나 강릉의 ‘오들뜨
 기’ 농요를 적어 봅니다.

⑤ 오들뜨기

머리 좋고 실한 처녀 줄	줄뽕낭계 ¹⁹⁴⁾ 걸얏 걸어 얏네
오는 해도 건중 갸너 골	골골마듬 정자 정자 젓네
모시 적삼 젓혀 들고 연	연적같은 젓을 젓을 주오
이슬 아침 만난 동무 석	석양 참에 이별일 이별일세
여주 이천 돌배 나무 배	배꽃이 피어서 으이 만발해 만발했네
강능이라 남대천에 빨	빨래 바으으어영치 등실 등실 떴네

192) 그늘.

193) 강릉, 속초, 양양 등에서는 아리랑 가사로 ‘미나리’ 를 부른다. 고성에서 한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머슴을 살았는데, 그로부터 이 가사를 채록했다.

194) 뽕나무를 ‘누에밥나무’ 라고 하지 않고 ‘뽕나무’ 라고 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아가씨가 뽕을 따러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에 여자들은 ‘짜개이 고쟁이’ 를 입었는데, 위
 로 올라가 가랑이를 벌리면, 밑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머슴이 이를 보고 음욕이 생겨, 배
 가 아프다고 하며 들어누었다. 그러자 그 아가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머슴은
 내 배꼽과 아가씨 배꼽을 맞추면 배가 낫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가씨는 배꼽만 맞추라
 고 허락했다. 그러면서 아래를 뽕나무 잎으로 가렸다. 아가씨와 머슴이 배꼽을 맞추는 순
 간 남자의 성기가 나뭇잎을 뽕하고 뚫으면서 삽입이 되었고, 그 처녀는 아이를 갖게 되었
 다. 부모에게 그 사연을 말하니, 어쩔수없이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그 나무를 ‘뽕나무’ 라고 하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는 구전된다.

방실에 방실 웃는 님을 못 못다 보으어이고 해너에 넘어가네¹⁹⁵⁾

→ 강능 ‘오들뜨기’ 는 끝소리에 줄 또한 골, 연, 석, 배, 빨, 못, 끝이 달
는 소리 자로서 가사내용을 꾸며 부르는 것이 이색적이며, 조상 슬기를 다
시 보는 듯하다. 강능 특유의 사투리가 없으면, 오들뜨기는 부르기 힘도
들려니와 끝 자로 소리 매김을 하니 더더욱 힘이 든다. 이 고장에서도 끝
자 노래가 있어으나, 그것은 가사가 없고 끝 자 음을 안에 부치는 것이니,
가사는 존재하지는 않아도 내용인 즉 다재다능하다. 역사의 변천과 時代의
흐름을 그 누가 가늠할 수 있겠는가. 영웅호걸이라도 모름지기 모르나니,
人生哀史가 슬프지 않겠는가.

(5) 단허리

어하얼수단허리야	어하얼수단허리야
어하얼수단허리야	어하얼수단허리야
여보시오지원남네	어하얼수단허리야
이네소리드러보소	어하얼수단허리야
천하지대본농사라오	어하얼수단허리야
농사한철지어보세	어하얼수단허리야
농사한철짓고나면	어하얼수단허리야
한복고복 ¹⁹⁶⁾ 하시리라	어하얼수단허리야
뒷뜰에는천석지기	어하얼수단허리야
앞뜰에는만석지기	어하얼수단허리야
이논짜리가늬논인가	어하얼수단허리야
김세원네논짜릴세	어하얼수단허리야
실농씨에농사법이	어하얼수단허리야
오늘날에이어저서	어하얼수단허리야
후직의뿌린씨앗	어하얼수단허리야

195) 이 ‘오들뜨기’ 는 강릉 학산에 사는 동기달로부터 들은 것을 채록하였다.
196) 배고픔을 면하다.

만백성이다먹는다	어하얼수단허리아
영화로다영화로다	어하얼수단허리아
우리농부가으뜸일세	어하얼수단허리아
요순우탕문무주공	어하얼수단허리아
도덕이관찰해도	어하얼수단허리아
농사없인못사나니	어하얼수단허리아
공자같은대성현도	어하얼수단허리아
지진지처하시였고	어하얼수단허리아
신야농부이윤이는	어하얼수단허리아
승군맛나귀히됐네	어하얼수단허리아
해동조선생겨날제	어하얼수단허리아
명산대천널분들에	어하얼수단허리아
면면촌촌생겨나니	어하얼수단허리아
우리동네으뜸일세	어하얼수단허리아
치산치수하였으니	어하얼수단허리아
문전옥답분명하다	어하얼수단허리아
하무은십일홍이요	어하얼수단허리아
달도차면기우나니	어하얼수단허리아
오뉴월에흘린땀이	어하얼수단허리아
구시월에열매되네	어하얼수단허리아
태기산아정금산아	어하얼수단허리아
지는저해잡아주게	어하얼수단허리아
나의할일태산같다	어하얼수단허리아
해는지고저문날에	어하얼수단허리아
월출동영달이솟네	어하얼수단허리아
산에올라산더더기 ¹⁹⁷⁾	어하얼수단허리아
들에내려드렁거리 ¹⁹⁸⁾	어하얼수단허리아
울긋불긋쟁기찰이 ¹⁹⁹⁾	어하얼수단허리아

197) 무슨 뜻인지 모른다.

198) ‘드렁거리’는 ‘드렁네미’다.

산지조종굴용산이요 어하얼수단허리아
수지조정황하수라 어하얼수단허리아
오실토실익은곡식 어하얼수단허리아
동산밑에춤을춘다 어하얼수단허리아
여보시오농부님네 어하얼수단허리아
힘도들고숨도차니 어하얼수단허리아
잠시잠깐쉬여매세 어하얼수단허리아
덩실덩실춤을추며 어하얼수단허리아
단허리를불러보세 어하얼수단허리아
이리저리갈러서서 어하얼수단허리아
갈개머리200)를우겨주세 어하얼수단허리201)야
아~아 우허오허오202)

199) ‘쟁기찰이’는 색깔이 빨간 벼다.

200) 눈을 맬 때 눈독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2포기 정도만 맬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사람은 3포기 정도를 맬고, 더 안쪽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포기를 맬다. 그러다 보면 눈 때는 사람들이 눈 가운데에 모이게 된다. 이 가운데 부분을 ‘갈개머리’라고 한다.

201) [한광희] 허리를 퍼지 않고 한 번 허리를 굽혀 일을 마치자는 의미이다. ‘단허리’ 사설에는 “단허리 단참 매어주면 공치 생선 나온다네”라는 사설도 있다.

202) [한광희] 아이노를 맬 때는 동네 전체가 함께 풀을 맬는데, 이를 ‘드렁넝기’, ‘만경드레’라고 한다. 이 때는 농악대가 선두에 서서 눈을 맬러 가는데, 서낭당을 지날 때는 서낭굿을 치고 간다. 농악대의 맨 앞에는 ‘연기’ (영기)가 가고, 그 뒤를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깃발 꼭대기에는 꿩의 깃털을 꼽은 ‘길장대’, ‘큰기’라고 하는 대기가 뒤따른다. 농악대가 가다가 다른 마을의 ‘영기’를 만나면 예를 차리는데, 만든 지 오래된 기에게 최근에 만든 기가 기를 숙여 예를 표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싸움이 벌어지고, 상대의 대기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눈 맬러 갈 때 농악대에는 범구짚이나 무동은 따라 가지 않았다. 아래 눈부터 눈을 맬는데, 풀을 맬 눈에 와서는 눈머리에 기를 꼽아 놓는다. 한 눈을 다 맬 다음에는 다음 윗눈으로 자리를 옮길 때에도 농악대는 농악을 치고 간다. 풀을 맬 때 눈 가운데에서는 북을 든 선소리꾼이 북을 두드리면서 선소리를 준다. 맨 처음에는 ‘뎡이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단허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상사 데야’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 가운데에 모여 두 손을 하늘로 치켜 올리며, “아~ 오~ 에호호호”라고 외친다. ‘뎡이소리’는 소리를 주는 사람이 “아~ 에~이 위~ 에~요~”라고 하면, 받는 여러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따라 부른다. ‘뎡이소리’는 부르기 힘들어 많이 부르지 않고 조금만 부른다. 그리고 아이노 맬 때 ‘방아소리’를 하는데, ‘방아소리’는 ‘짜른방아소리’를 먼저 하고, ‘긴방아소리’는 나중에 부른다. ‘짜른방아소리’나 ‘긴방아소리’는 사설은 같지만, ‘짜른방아소리’는 “에~여라 방아요”라고 받는 소리를 짧게 하고, ‘긴방아소리’는 “에~ 헤~ 여~ 라 방아요”라고 ‘뎡이소리’와 비슷하게 길게 받는다. ‘방아소리’의 주는 사설은 ‘단허리’ 사설과 마찬가지로 같다. 그러면 일꾼들은 받는 소리를 한다. 이들 각 ‘눈매는소리’는 일정한 순서가 없이 선

→ ‘단허리’ 는 이 지역의 초벌(아이논매기)의 농요이다. 앞소리꾼이 북을 치고 소리를 주는데, 북을 치지 않고 논을 맬 때도 있다. 특히, ‘드렁네미203)’ 라는 ‘만경드레’ 가 있을 때는 농기204), 영기205) 사물이가 나와서 농악놀이도 함께 한다.206) 이때 영좌, 고원, 총각대방이 있어 모든 영농의 지휘를 한다.207) 영좌, 고원의 명령은 절대적이며, 여하를 막론하고 복종하는 것 원칙으로 알고 있다. 특히, 총각대방은 젊은 초군을 지휘통솔하고, 노인의 담뱃불에서 참 대접에 이르기까지 선두지휘한다. 그리고 큰 마을 대기를 만나면, 대기예를 하고, 양쪽 농부들이 힘차게 사물놀이로서 흥을 돋군다.208) 그러나 지금은 四物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이다. 특히, ‘드렁넝이’ 로 농사진 다음, 七月에 ‘호미씻음’ 을 하는데, 떡, 술, 국수,

소리꾼의 의도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조그마한 논을 맬 때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 두 벌 맬 때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하지 않고 부자간이나 가까운 사람 몇이 모여 풀을 매기 때문이다. 두 벌 매기를 하더라도 10명 이상을 품을 얻어 논을 맬 때는 소리를 하기도 했을 수도 있으나, 직접 보지는 못했다. 두 벌 매기를 한 다음 각 집에서 막걸리나 칼국수를 마련하여 노는 ‘호무씻이’ 를 했다. 이는 농사일이 다 끝났다는 의미를 지닌다. 세 벌 맬 때는 혼자 돌아다니며 피를 뽑았다. * 이와 같이 대답을 나누는 말미에 이를 듣고 있던 양중환은 두 벌 매기를 할 때는 ‘논매는소리’ 를 하기도 했는데, 논이 많아 여러 사람을 동원할 경우 소리를 했다고 했다.

- 203) [이계동] 드렁네미는 아이 논을 맬 때 행하는데, 반 별로 호미를 찍어 논을 맬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나와 그 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논 전체를 돌아가며 다 맬다. 드렁네미가 다 끝난 뒤에는 각 집마다 소유하고 있는 논의 크기와 일에 참여한 사람 수를 계산하여 영좌의 지휘 아래 공원이 품을 정산하는 ‘마지기 풀이’ 를 한다. [한광희, 이한천] 아이논을 맬 때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드레’ 를 했고, 2벌 맬 때는 형제, 친척 등 몇이 모여 일을 하는 ‘소드레’ 를 했다. 아이논을 맬 때는 여러 장난을 하기도 했다. 논을 주인에게 “벼 구경을 시킨다.” 라고 하며, 주인의 양팔은 논을 짚고 두 다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 올려 주인이 논을 기계 한다. 그러면서 주인의 등에 논흙을 퍼 올리며 “농사 잘 지어.” 라고 말한다. 또한, 논을 맬는 도중에 벼포기 위에서 씨름을 하기도 한다. 씨름을 하여 구부러진 벼는 다시 일으켜 세워도 죽지 않고 잘 자란다.
- 204)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기인데, ‘대기’ 라고도 한다.
- 205) ‘습’ 자를 써 놓은 기.
- 206) [김영배, 최영수] ‘상사테야’ 보다는 ‘단허리’ 가 박자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단허리는 호미를 땅을 파 엮는 ‘아이 맬’ 때에 불러야 호미로 땅을 찍어 넘기는 동작과 어울린다. 리듬과 찍어넘기는 동작이 어울리지는 않는다. ‘상사테야’ 는 아이 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 207) 영좌가 각 집의 논 마지기 수를 계산하여 품값을 정산한다.
- 208) 작은 마을 기가 큰 마을 기를 만나서, 큰 마을의 기에게 작은 마을의 기를 속이는 ‘대기예’ 를 울리지 않으면, 큰 마을 사람들이 작은 마을의 대기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호박도래적 등 음식을 자기 형편대로 작만하여 온 동리의 大小人이 참석
해 품앗이 돈을 추렴한다. 천고미담의 풍속이다. 이 풍속이 사라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보세요 농부님들 애벌매기 논을맙시다
어하얼싸 단허리야 어하얼싸(썸) 단허리야
여보시오 농부님네 어하얼싸 단허리야
이내소릴 들어보소 어하얼싸(썸) 단허리야
천하지대본 농사라고 어하얼싸 단허리야
농사한철 지어보세 어하얼싸 단허리야
뒤뜰논은 천석이기 어하얼싸 단허리야
앞뜰논은 만석이기 어하얼싸 단허리야
이논자리는 누논자리냐 어하얼싸 단허리야
김생원네 논자릴세 어하얼싸 단허리야²⁰⁹⁾



농악

209) 횡.

(6) 상사테야²¹⁰⁾

얼렁렁렁 상사테야	얼렁렁렁 상사테야
오뉴월에 흘린땀이	얼렁렁렁 상사테야
구시월에 열매된다	얼렁렁렁 상사테야
여보시오 지원님네	얼렁렁렁 상사테야
허리잠시 펴어보세	얼렁렁렁 상사테야
상사바람에 신명이나네	얼렁렁렁 상사테야
덩실덩실 춤을추며	얼렁렁렁 상사테야
상사테이를 불러보세	얼렁렁렁 상사테야
우리人生 늙어지면	얼렁렁렁 상사테야
오던님도 아니온다	얼렁렁렁 상사테야
남구라도 고목이되면	얼렁렁렁 상사테야
오던새도 아니온다	얼렁렁렁 상사테야
물이라도 건수가되면	얼렁렁렁 상사테야
노던고기도 아니노네	얼렁렁렁 상사테야
화무하니 십일홍이요	얼렁렁렁 상사테야
달도차면 기우나니	얼렁렁렁 상사테야

210) 두 벌 땀 때 부른다. 아이는 땀 때 호미로 흙을 파 얹어 놓은 것을 손으로 풀면서 풀을 땅 속에 묻는다. 이 때 선소리를 주는 사람은 복을 들고 앞서 나가면서 소리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면서 선소리를 주면, 나머지 일꾼들이 이를 받는다. ‘짜른방아타령’, ‘긴방아타령’도 이때 부른다. [김영배, 최영수] ‘단허리’나 ‘상사테야’를 하면서 ‘어러리’ 등과 같은 노래는 하지 않는다. 아이 매거나 두 벌 땀 때 20여 호가 넘는, 1개 반이 모두 모여 ‘드렁네미’를 하는데, 사람이 적을 경우는 논 매는 사람 중 일부가 함께 논을 매면서 선소리를 주기도 하지만, 20여 명이 넘는 드렁네미일 경우 모 심는 앞에서 모 심는 모양을 바라보며 복을 치며 선소리를 주었다. 3벌 땀 때는 일부 풀을 뽑기도 하지만, 주로 엮으려 피를 뽑는 일이 주된 일이었다. 이 때는 ‘상사테야’를 하기도 하고, ‘어러리’나 ‘청춘가’ 등을 심심풀이로 부르기도 한다. [이계동] 아이 논 땀 때는 ‘단허리’, 두 벌 땀 때는 ‘상사테야’를 부른다. 세 벌 매기도 하고 매지 않기도 하는데, 이 때 부르는 특별한 소리는 없다. 아이 논 땀 때 물이 많은 논은 ‘단허리’를 부르고, 천수답으로 물이 없이 딱딱한 논은 ‘땡이소리’를 부른다. 이 ‘땡이소리’는 두 벌 땀 때도 불렀다. 그리고 두 벌 땀 때는 ‘상사테야’를 부른 다음, ‘진방아’를 부르고 그 다음에 논을 다 매가면서 일꾼들이 가운데로 모일 때 ‘자진방아’를 부른다. 마지막으로는 팔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일꾼들이 함께 “오 ~ 호 오호호호”라고 고향을 지른다. 마지막에 부르는 소리는 아이 논 땀 때도 마찬가지로 부른다. 그리고 ‘땡이소리’나 ‘방아소리’ 등도 선소리를 한 사람이 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했다.

우리농부도 귀히되면 얼릴릴릴 상사데야
 이고초를 면하나니 얼릴릴릴 상사데야
 왕후장상도 씨가있나 얼릴릴릴 상사데야
 신통씨의 농사법이 얼릴릴릴 상사데야
 오늘날에 이어지니 얼릴릴릴 상사데야
 만백성이 다먹으니 얼릴릴릴 상사데야
 화란춘성 만화는방창 얼릴릴릴 상사데야
 시절이좋구나 상사데야 얼릴릴릴 상사데야
 영화로다 영화로다 얼릴릴릴 상사데야
 우리농부가 으뜸일세 얼릴릴릴 상사데야
 오뉴월에 흘린땀이 얼릴릴릴 상사데야
 한복고복 하시리니 얼릴릴릴 상사데야
 세귀뻘이²¹¹⁾로 넘어가세 얼릴릴릴 상사데야
 얼릴릴릴 상사데야 얼릴릴릴 상사데야
 아 ~ ~ 우 ~ ~ 호²¹²⁾

→ 이 소리는 초벌(아이논 땀 때 부르는 ‘단허리’ 다음에) 부르는 소리로서, 두 번째 논을 땀 때 부르던 소리이다. ‘땡이소리’는 두 번째 논을 땀 다음 흙덩이를 푸는 소리이며, ‘땡이소리’가 두 벌 땀 때 부르던 소리는 아니다.²¹³⁾ 그러나 소리의 가사는 방대하고 내용도 君臣, 권농, 孝를 가사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특색이며, 지금은 소리를 들을 길이 없다.

내용인즉,

211) 삼각형의 논.

212) 일을 끝냈다고 하는 소리다.

213) 우영진, 윤양수 등이 ‘땡이소리’라고 했다. [김영배, 최영수] ‘땡이소리’는 아이 땀 때나 두 벌 땀 때 부르는 소리인데, 논을 매는 마지막에 논 가운데에 논 매는 사람이 동그렇게 모이는 ‘갈개 머리’를 형성한 다음 부르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논 땀 때뿐만이 아니라 모 심을 때도 끝 부분에서 불렀다. 그리고 이 소리가 끝나면서 일 마치면서 모두 함께 일어나며 손을 하늘로 치켜 들며 “아 ~ 호 ~ 오호호”를 소리쳤다.

천중세월 인증수오	수지건곤이 복만가라
당산부모 천년수오	슬하지손 만세영을
수용정이 풍부지오 ²¹⁴⁾	부용량이 무부지라 ²¹⁵⁾
공자같은 대승현도	지진지처 하시였고
요순우탕 문무주공	도덕이 관철해도
농사없이 못사노니	시화년풍 좋아기는
우리농부가 의뎌일세	시호시호 부자네라
소년이노 학난성하니	일천광음 불가경이라
여보시오 지호님들	허리잡시 피어보새

두벌논을 매어보세	어럴럴럴 상사데야
어럴럴럴 상사데야	어럴럴럴 상사데야
실렁실렁 농사법이	어럴럴럴 상사데야
어느노을에 이어져서	어럴럴럴 상사데야
우질기 ²¹⁶⁾ 뿌린씨앗	어럴럴럴 상사데야
만백성이 다먹는다	어럴럴럴 상사데야
야순우탕 문무주공	어럴럴럴 상사데야
사곡이 번철해도	어럴럴럴 상사데야
한철하○을 못사느니	어럴럴럴 상사데야
관자 ²¹⁷⁾ 같은 대성현도	어럴럴럴 상사데야
일인 ²¹⁸⁾ 지척 하옵시고	어럴럴럴 상사데야
십년농부 이음이는	어럴럴럴 상사데야
천군만마 길이됐네	어럴럴럴 상사데야 ²¹⁹⁾

(7) 텅이소리 1220)

214)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흔든다는 뜻이다.
 215) 아버지를 봉양하고 싶어도 돌아가시니 봉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216) ‘우직의’ 의 잘못.
 217) ‘공자’ 의 잘못.
 218) 지진.
 219) 횡.

어허 네어두 냉겨만 주라
어허허 네어두 냉겨를 주게
어허 헤어두 냉겨만 주게
어허네어두 냉겨만주라
어허허네어도 냉겨를주게
에헤헤어두 냉겨만주어라
어허내어두 냉겨만취라
이허허네어도 냉겨를주게
에헤헤어두 냉겨만주어라
우후 우우우

(8) 텅이소리 2221)

아 에 아 아 아아 오
이 예이 이이오
이 에 아 아 아 아오
이에이 이이오
이에 아아 아아오
이에아 이이오
이에 아아 아헤오
이에아 이이오
우후후후 우후후

(9) 방아타령²²²⁾

에헤허내어두 방아로구나
어허내어두 방아로구나

220) 이 소리는 이 동네에서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책에서 본 것을 기록해 놓았다.

221) 눈을 세 벌 매면서 흙을 풀고 풀을 땅 속에 집어 넣으며 부르는 소리다. 한 사람이 선 창을 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소리를 따라 한다. 이 소리를 부르기 힘든데, 점심을 먹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부른다. '미나리' 도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부른다.

222) 이는 유희요다.

이리몰고 저리몰아
 어허내여두 방아여
 갈지자로만 쓸어들주게²²³⁾
 어허내여두 방아로구나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어허내여두 방아요
 수지조종은 황하수로다
 어허내여두 방아로구나
 아혜조종은 강능도령
 에헤내여두 방아여
 양반의조종은 충청도라
 어허내여도 방아로구나
 방아소리조종은 강원돌세
 에헤내여두 방아요
 송백수양 프른가지
 에예 헤어두 방아로구나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에헤 내여두 방아여
 늙어지면 못노나니
 에헤 헤어두 방아로구나
 일락서산에 해결렸네
 에헤 내여두 방아여
 골골마다 그늘이지네
 에헤 헤어두 방아로구나
 에헤헤 헤어두 방아로구나
 에헤 하여두 방아요

→ ‘텅이소리’ 1 두 벌 땀 때 부르는 소리이고, ‘텅이소리’ 2 세 벌 땀 때 부르는 소리로서, ‘텅이소리’ 1보다 2번이 부르기가 무척 힘이 들며,

223) 텅어리를 풀다.

배에다 힘을 주지 않고 부를 수 없는 소리이다. 夕陽은 노을이 질 때, 들
력에서 들리든 소리가 지금은 자취가 없다. ‘방아타령’, ‘진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이 있는데, 이 소리가 부르는 이 없어 맥이 끈긴 듯하다.

에헤이아라 방아여~ 에헤이야 방아여~
덜커덩덜커덩 쫓느네방아 에헤이야 방아여~
여주이천 자채방아 에헤이야 방아여~
한섬두섬 짙어덜재 에헤이야 방아여~
백섬옥편 흰쌀일세 에헤이야 방아여~
에헤이아라 방아여~ 에헤이야 방아여~
방아처럼 잘두나맨다 에헤이야 방아여~
덩실더덩실 춤을추며 에헤이야 방아여~
방아타령을 굴러나보세 에헤이야 방아여~
어찌그렇게 잘두나하나 에헤이야 방아여~ 224)

(10) 긴방아타령²²⁵⁾

아 ~ 아 ~ ~ 우 ~ 에
이 ~ 워히 ~ 오 ~ 히오

(11) 보리밀채질소리

우 우 우우 이쿠 치구 치구
쳐라 잘도 친다
어 하 허이 하 허이허 허 어 하
이크 딸딸 굴러라
이크 지쿠 클코²²⁶⁾ 내코²²⁷⁾ 짝어글러

224) 횡. [엄영태] ‘방아타령’ 은 두 벌 맬 때와 세 벌 맬 때에 불렀다. ‘짜른방아’ 를 먼
저 하고, 그 다음에 ‘진방아’ 를 한다.

225) 세 벌 맬 때 부른다. 흙을 손으로 비비면서 풀을 땅 속에 집어 넣는다.

226) 코의 앞부분이 입술 쪽으로 처진 코.

227) 채질은 보리, 밀, 쌀 등을 단채로 들어 바위돌이나 큰 나무에 쳐 알갱이를 떨어내는 작

→ 오뉴월 염천에 보리나 밀을 타작하다 보면, 힘이 무척 힘겹고 습도 차다. 이 노동요가 없으면 또한 심심도 하려니와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보리 막걸리를 열큰히 자시고 소리를 번갈아가면서 하면, 협동심이 생겨 작업 능률이 높아진다.²²⁸⁾

이리두 켕 저리두 켕
쿵 울려라
휘이²²⁹⁾

(12) 방아타령
에헤아라 방아요
이방아를 누가냈나 강태공의 조작방아²³⁰⁾
덜커땡 덜커땡 찢는방아
한섬두섬 찢어낼제 배꽃같은 흰쌀릴세
오뉴월염천에 곱보리방아 여주이천 잡채방아
덩실덩실 춤을추며 방아타령을 불러보세
에헤어라 방아요 에헤어라 방아요

(13) 풀씨는소리
어 우러리
개다리 힘 내라
우러리

업이다. 한 사람이 '이크' 라고 하면서 내리 치면, 다른 사람은 '지쿠' 라고 한다. 또, 한 사람이 '클코'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내코' 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알갱이를 떨어낸 보리나 밀은 옆으로 던져 이를 다시 도리깨질을 하여 남아 있는 알갱이를 떨어낸다. 이때 '도리깨질 소리' 를 한다.

228) '도리깨질하는소리' 는 있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최영수] '벼베는소리', '벼뭉는소리' 는 없었다.

229) 횡.

230) 강태공이 처음으로 방아를 만들었다.

십리 절반 오리나무
참 우리리
방구꿨다 뽕나무
누워 자란다 눈버들
우리리
허 연애
강릉 꼬감고지 드러간다
죽죽 벗어 싸리나무
우리리 연애
어 물프래 꼬트리여
개다리 힘 났다
참 잘 썬다
이거 아름다
어 참우리리
어 싸리꼬투리
연애 막 드러간다
야 이 옷나무 과부댁이다²³¹⁾
아이~ 어이
어허
어리를
이렇게
먹섬거리 먹섬거리²³²⁾
잘 누린다
참 잘 누린다
야 이거 처녀
소리가 난다 북나무
야 처녀삭두다
아 처녀불알²³³⁾이구나

231) 왜 이렇게 위음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232) 연한 풀.

어 참 우리리
어허
어이를
목이 찬다
목이 차
어시기 거시기 화식이 주식이²³⁴⁾
갈빚대
처녀삭두
곤방대 공방대
처녀불알
어 불래노니
우리리
어 우리리 장 우리리
잘 누린다
허 연애
연애 막 드러간다
우후후
어하하
힘두 켜구나
가운데 다리 힘냈다
연애
우리리 참 우리리
고비 고사리
용문산 두리치나
잘 썬다 잘 썰어
아가리 짹짹 벌러라 열무김치 드러간다
연애 연애

233) [민창기]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80살. “대목장에는 ‘처녀봉알’ 만 없고 다 있다.” 라는 말이 있다. ‘풀썬소리’ 에서 ‘처녀불알’ 이라고 하는 사설을 듣지 못했다.

234) * 정금리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러한 사설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어블래 논다
참 잘 누빈다
연애 연애
돌쇄 재동이는 윤번 돌려라
돌려
연애 연애
단풍 드렸다 단풍나무
감사하다 감나무
우리리
연애 연애
잘도 한다
이이구 맛 있어 개암나무
연애 연애
꽃이 아름답다 복숭아나무
연애
어이
우리리
벗벗 꽃꽃이 벗나무
산골 도랑 개부랄꽃
힘내라 힘내
개다리 힘내라
젊은 놈이 힘이 없다
우리리
참 우리리
어허 잘 뒤진다
팽팽 도라라 팽나무
층층이 크다고 층층나무
우리리
허 연애
연애

이이 따가워 짚레나무
 미출하다 미루나무
 참 우러리
 연애
 들짐장수를 하였는가
 개다리 힘도 좋타
 목도 차고 힘도 든데 추근추근 하여보세
 주인택 방울아기 막걸리 대령 빨리 하소
 연애
 어~어이
 더벅머리 소나무나
 어이구 침 돈다 살구나무
 연애 연애
 속이 드러간다 국수나무
 어서 자시오 잣나무
 우러리
 떡섬거리 떡섬거리
 참 떡섬거리다
 우러리
 연애 연애
 사시사철 사철나무
 늘 프르다 칙백나무
 어이 연애
 참 우러리
 연애 연애
 참 우러리
 목이 찬다 목이 차
 연애 연애
 기발 놀리듯 하지 말구
 어서 목을 치워라

연애 연애
어이
참도 잘 한다
허리 한 번 펴보세
야호

→ 이 ‘풀씨는소리²³⁵⁾’ 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 六명이나 七명이 서로서로 드래를 만들어 풀을 베어다 큰 작두를 차려 놓고 풀을 쓰는데, (참 우리리 : 썰기가 힘든 것이 드러간다는 뜻. 연애 연실 : 연실 드러간다는 말. 목이 찬다 : 작두 앞에 써러 놓은 풀을 치우지 않아 부푸러 오른다는 뜻. 개다리 : 발의 힘을 말하는 것. 먹섬거리 : 먹섬거리는 작두의 입을 크게 벌여 쓸기가 좋도록 독촉하는 말. 어 잘 누린다 : 썰는 풀을 골고루 잘 대여 준다는 말이다. 처녀불알은 사설이다.) 답기도 하려니와 힘도 많이 든다. 그 힘든 일을 하기 위해 노동요로서 작업의 능율을 올리고저 하였으며, 또한 연한 풀이 드러가는데 힘을 무리하게 가미하면 작두를 쓰는 사람의 다리에 무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건강도 유의하고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고, 힘을 주어서 하는 구령을 주는 것이다. 우리 선조의 지혜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머시기 주식이 화식 거시기 : 여러 가지 풀이 드러간다. 갈빃대 : 연한 풀. 공방대 : 짚분 풀.

2) 임산노동요

(1) 運材소리

어이도 산호	어이도 산호
빨리와서 연장잡어	어이도 산호
환고향 시켜주마	어이도 산호

235) * 이 ‘풀씨는소리’ 와 관련된 ‘항유소’ 를 알아보기 위해 이 소리를 제공했다는 김영천을 만났으나, 이와 같이 엮음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배, 최영수] ‘옷나무 과부덕’, ‘먹섬거리’ 라는 엮음은 이 곳의 ‘풀씨는소리’ 에서 들어보지 못했다.

길가던 여자들이	어이도 산호
운재소리 들으면은	어이도 산호
길뚫가고 쉬어간다	어이도 산호
언제나 돈벌어서	어이도 산호
고향산천 찾아갈가	어이도 산호
빨리하오 돈벌어서	어이도 산호
처자식 먹여살리자	어이도 산호
산천초목 집삼아서	어이도 산호
이리저리 발방갈까 ²³⁶⁾	어이도 산호
저만투를 바로찍어	어이도 산호
뒷도비가 제대로만	어이도 산호
돌려돌려 돌려주게	어이도 산호
앞도비가 후림도비	어이도 산호
돌려줘야 나무간다	어이도 산호
어이도 산호	어이도 산호
일락서산 해떠러진다	어이도 산호
해떠러 지기전에	어이도 산호
보기는 크다해도	어이도 산호
빨리당기고 집에가자	어이도 산호
이나무를 끌어다가	어이도 산호
어디에다 쓰실거나	어이도 산호
큰아기 시집갈제	어이도 산호
장농감으로 나가신다	어이도 산호
힘을써서 당기면은	어이도 산호
안가는 ²³⁷⁾ 나무 또있는가	어이도 산호
산수갑산 큰아기가	어이도 산호
군감자를 굴리는듯	어이도 산호
잘털도 굴리운다	어이도 산호

236) 다른 곳으로 가다.
237) 끌어 당겨지지 않는.

목상이 오셨으니	어이도 산호
돈을야 줄래는지	어이도 산호
오늘저녁 어데가서	어이도 산호
기생집에 가볼꺼나	어이도 산호
이고생으로 돈벌어서	어이도 산호
기생집이 웬말이냐	어이도 산호
학발양친 우리부모	어이도 산호
밥달래는 어린자식	어이도 산호
남기다리는 안식구는	어이도 산호
내가없이 어이허구	어이도 산호
내몸하나 스라지면	어이도 산호
어이하잔 말이드냐	어이도 산호
어이도 산호	
어이도 산호	
어이도 산호	
잘들도 내려간다	어이도 산호
이럿케나 잘도한다	어이도 산호
재미도 있구나	어이도 산호
보는사람 있으면야	어이도 산호
춤두나 출만한데	어이도 산호
사람없는 이산중에	어이도 산호
칭찬소리 못받는다	어이도 산호
처량하다 처량하다	어이도 산호
산호소리 천번이면	어이도 산호
산천이 벌벌떨다	어이도 산호
잡아라 땡기여라	어이도 산호
어이좀 쉬었다하자	어이도 산호
오~~~오 오	

→ 큰 산에 드러가 나무를 산판하고 산이 그악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곳

에 나무로 조구통을 만들어 앞뒤 도비로 나무를 찍어 조구통에 올려 놓고 차가 오를 수 있는 곳까지 나무를 운재하는 것이다. 무거운 나무를 운재하려니 자연적으로 소리가 필요하다. 협동심을 일깨우고 소리의 구령과 같이 협력하여 사고 없이 서로가 서로의 몸을 아끼기 위해 불렀던 소리이다. 심산구곡에 몇몇 동료와 더불어 작업을 하려니 그 얼마나 고독하고 심심하였겠나. 그러나 그들은 가족과 삶을 위하여 피로한 줄을 모르고 작업은 하였다. 그러나 소리의 가사와 발음소리가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어어라 산호 어허이 산호야” 또한 “어이사코라 어이사 어이사” 라는 발음 소리가 있으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소리가 점차 부르는 분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좀더 배려하여 소리의 보존이 시급하다.

(2) 목도소리

어~허

이~영차

어허이

이영차허영 이영차허영

꼬리가단다허영 이영차허영

앞머리둘러 이영차허이

어허이허영 이영차허영

허영자허이 이영차허이

허영차하자 이영차허이

허거정하자 이영차허이

허거정하자 이영차허이

허거정하자 이영차허이

이영차허영 이영차허이

내리막길나온다 이영차허이

앞머리틀허이 이영차허이

슬슬둘러허이 이영차허이

허영차하자 이영차허이
만수갑산봉황새 이영차허이
새소리들리네 이영차허이
발이빠진다허이 이영차허이
허영차하여 이영차하여
허영차하여 이영차하여
기운차게하여 이영차하여
여보시오목도꾼들 이영차하여
기운차게허영 이영차허이
잘두나한다 이영차허이
얼른얼른허여 이영차허이
소리맞처허여 이영차허이
허거정하여 어영차허이
허영차하자 허영차허이
허영차하자 이영차허이
물찬제비같이허여 어영차허이
어깨펴고허여 어영차허이
힘도차게허여 이영차허이
잘도나한다 이영차허이
돈별기도힘이나든다 이영차허이
이다리를놓고나면 이영차허이
영화로다영화로다 이영차허이
우리마을이영화로다 이영차허이
허영차허여 이영차허이
허영차허여 이영차허이
발미추어허여 이영차허이
허영차허여 이영차허이
허영차허여 이영차허이
허영차허여 이영차허이
허영차허여 이영차허이
슬금슬금잘도하네 이영차허이

마음합쳐허여 이영차허이
 이영차허영 이영차허이
 이영차차허영 이영차허이
 이영차차허영 이영차허이
 물도맑다허영 이영차허여
 잘도나한다 이영차허이
 만물이공생하니 이영차허이
 영글었네허여 이영차허이
 땀방울이영글었네 이영차허이
 목마른다허여 이영차허이
 목마르면술을먹고 이영차허이
 배고프다허여 이영차허이
 배고프면밥을먹지 이영차허이
 이영차허영 이영차허이
 이영차놓고
 놓고

3) 토건노동요

(1) 지경다지소리²³⁸⁾

여기영차 지경이호	여기영차 지경 ²³⁹⁾ 이호
여기영차 지경이호	여기영차 지경이호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기영차 지경이호
이내소리 드러보소	여기영차 지경이호
여러분이 힘을합쳐	여기영차 지경이호

238) 이 '지경다지는소리'는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해 횡성 지방을 돌아다니며 촌로들의 소리를 듣고,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민속단장인 이종호가 지경다지기는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운 내용이라 적절치 못하다고 반대하여 출품하지 못했다.

239) 무슨 뜻인지 모른다.

지경다지 하여주오	여기영차 지경이호
이자리에 집터뺏아	여기영차 지경이호
이리찍고 저리찍어	여기영차 지경이호
좌우로 찌거갈제	여기영차 지경이호
갈지자로 다저본다 ²⁴⁰⁾	여기영차 지경이호
지경다짐 으뜸일세	여기영차 지경이호
여기영차 지경이호	여기영차 지경이호
이자리다 터를뺏아	여기영차 지경이호
기억자로 집을질때	여기영차 지경이호
이자리다 집을지면	여기영차 지경이호
석송의 부를타고	여기영차 지경이호
장공 ²⁴¹⁾ 의 복록으로	여기영차 지경이호
자자손손 누릴지니	여기영차 지경이호
천하길지 분명하다	여기영차 지경이호
네귀베기 주추돌에	여기영차 지경이호
싸리나무 ²⁴²⁾ 지둥세워	여기영차 지경이호
박달나무 대들보에	여기영차 지경이호
고래등같은 기와집에	여기영차 지경이호
사칸마루 ²⁴³⁾ 건너방에	여기영차 지경이호
네귀에 풍경달고	여기영차 지경이호
대궐같은 집을보니	여기영차 지경이호
어깨춤이 절로난다	여기영차 지경이호
묘방산이 기봉하니	여기영차 지경이호
당대명필 날것이요	여기영차 지경이호
유방산이 보이니	여기영차 지경이호
천하일색 날것이요	여기영차 지경이호

240) 이 곳 저 곳을 다듬는다.

241) 장공의 집에는 家道가 서 있어 개마저도 나이가 든 개가 먹은 다음에 그 다음 개들이 밥을 먹는다. 그리고 장공은 자손 복이 있어, 아들이 100명이고, 손자가 1000명이다.

242) 어느 절에선가 싸리나무로 기둥을 세운 것을 보았다.

243) 큰 집.

오방산이 자웅되니 여기영차 지경이호
 만고충신 날것이요 여기영차 지경이호
 자미봉에 아미산은 여기영차 지경이호
 삼정승 육판서가 여기영차 지경이호
 줄줄이 날것이네 여기영차 지경이호
 이집짓고 삼년만에 여기영차 지경이호
 뒤뜰에는 밭을사고 여기영차 지경이호
 앞뜰에는 논을사서 여기영차 지경이호
 농사한철 짓고나니 여기영차 지경이호
 황금같은 벼이삭이 여기영차 지경이호
 동산밑에 춤을준다 여기영차 지경이호
 밭에다가 조를심어 여기영차 지경이호
 피꼬리같은 조이삭이 여기영차 지경이호
 동서남북 춤을춘다 여기영차 지경이호
 우걱부리²⁴⁴⁾ 얼룩침소²⁴⁵⁾ 여기영차 지경이호
 대대생금²⁴⁶⁾ 될것이요 여기영차 지경이호
 네눈배기²⁴⁷⁾ 청삽사리 여기영차 지경이호
 그개경경 짓는소리 여기영차 지경이호
 만고복덕이 떠드러오²⁴⁸⁾

만고복덕절로온다 여기영차지경이호
 배고프면밥을먹고 여기영차지경이호
 목마르면술을마셔 여기영차지경이호
 이집짓고당년안에 여기영차지경이호

244) 소의 뿔 두 개가 하늘로 향하여 난 것을 ‘우걱부리’ 라고 하고, 하나는 땅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한 뿔은 ‘천지각’ 이라고 한다.

245) ‘얼룩침소’ 는 누런 빛깔에 흰 무늬가 점점이 박혀 있거나 검은 빛깔에 흰 무늬가 점점이 박혀 있는 소를 말한다.

246) 소가 송아지를 낳으니, 금이 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생금’ 이라 한다.

247) 토종 삽살개는 눈 위에 또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248) 날아 들어오다.

아들낳면효자되고	여기영차지경이호
딸을낳면열여로다	여기영차지경이호
산천첩첩흐르는물이	여기영차지경이호
압마당을회조하니 ²⁴⁹⁾	여기영차지경이호
그경치가가경이네	여기영차지경이호
울태 ²⁵⁰⁾ 밖에과일나무	여기영차지경오호
십리절반오리나무	여기영차지경이호
방구꿨다뽕나무	여기영차지경이호
봄이오면오얏나무	여기영차지경이호
가을이면 배나무를	여기영차지경이호
줄줄이 심어놓고	여기영차지경이호
봄이오면 잎이 피고	여기영차지경이호
가을이면 잎이 나네	여기영차지경이호
시와연풍 좋아기는	여기영차지경이호
우리농부 으뜸일세	여기영차지경이호
대궐같은 집을 보니	여기영차지경이호
지경돌에 술냄새 난다	여기영차지경이호
힘도 들고 숨도 차니	여기영차지경이호
허리 잠시 펴여보세	여기영차지경이호
여기영차지경이호	여기영차지경이호

→ ‘지경다지기소리’ 는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뚫고 지게나 가래로 흙을 모은 것을 구멍이 뚫린 돌(지경돌)을 가지고 다섯 갈래나 네 갈래로, 집을 틀어 굵은 동아줄로 매어 가지고 여럿이 줄을 뺏겨 번쩍 드렀다 놓으므로 집터를 다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경다지기라고 한다. 지경돌이 없는 곳에서는 큰 나무를 베어 와 지경돌로 대신한 적도 있다. 젊은 장정이 약 삼사십 명이 모여서 지경을 다지는데, 일 하는 품삯을 주지 않고 ‘울력’²⁵¹⁾이라 하는데, 주인집에서는 술과 떡,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

249) 휘돌다.
250) 울타리.

난다. 집을 짓기 위해서 지동이나 들보 석가래도 역시 ‘울력’ 을 드러 마
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부조하여 주었으며, 우리의 미덕이다. 이 한
가한 농촌에도 지금은 이 울력이라는 미덕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찾을 길
이 없다. 상부상조하는 우리 미덕이 아쉬울 따름이다.

① 지경다지는소리

어기영차 지경이호	어기영차 지경이호
이자리다 집터뒹어	어기영차 지경이호
지경다지기 하여본다	어기영차 지경이호
이리찍고 저리찍어	어기영차 지경이호
삽으로 찍어내겨	어기영차 지경이호
어기영차 지경이호	어기영차 지경이호
지경돌에서 술내가난다	어기영차 지경이호
지역자로 집을짓세	어기영차 지경이호 ²⁵²⁾

4) 가사노동요

(1) 동기타령

동기동기 동기야	동기동기 동기야
먹으나끓으나 동기야	자나입으나 동기야
이동기가 뉘동기냐	우리집안에 귀염동기
일가간에 우애동기	부모에는 孝子동기
나라에는 충신동기	앞으로봐도 내동기
뒤로보아도 내동기	두동동기 동기야

→ 이 ‘동기타령’ 은 나이 많으신 노할머니가 품에 손자손녀를 안고서 부
르던 소리로서 일가친척 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는 孝道하며,
나라에는 충성을 노래한 소박한 우리의 민요다.²⁵³⁾ 얼마나 좋은 문구 문

251) ‘어울림’ 은 주변 사람끼리 어울려 일을 하는 것을 이른다.
252) 횡.

장이냐. 비록 서민일지라도 나라에 부름이 있다면, 진충보국 하여야 된다는 뜻을 어려서부터 일깨웠으니, 참으로 이 ‘등기타령’ 만 보아도 國家관이나 民族관이 투철한 民族이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① 아키어르는소리

등개등개 등개야 등등 등개야
부모님께 효자동 사랑님께는 축신동
동네간에 축신동²⁵⁴⁾

(2) 시살달강

시살달강	시살달강
서울길로	가다가
밤한톨을	주워서
이빠진	녹엿솥 ²⁵⁵⁾ 데 살며서
그반쪽은	네가먹고
그반쪽은	내가먹고
누가오나	누가오나
두리두리	둘러보고
꼭옥꼬옥	씹어서
시살달강	먹고살자
시살달강	시살달강

→ 노인이 손자손녀의 손을 잡고 재롱을 보는 소리로서 여름에 시원한 밤나무나 느티나무 그늘 속에 멍석을 깔고 노닐던 소리이다.²⁵⁶⁾ 비록 소리

253) [정옥출] ‘등기타령’ 은 아이를 서게 하여 손바닥에 아이의 발을 올려 놓고 한 손으로는 아이의 허리를 잡고 흔들며, 아이와 놀 때 부르는 소리다. ‘불아불아’ 는 아이를 방바닥에 세워 놓고 아이의 양 어깨를 잡고 좌우로 흔들며, 아이는 좌우 발을 들었다 놔다 할 때 부르는 소리다.

254) 횡.

255) 노구솥. 조그마한 솥.

256) [정옥출] ‘시살달강’ 은 아이를 앉혀 놓고 앞뒤로 흔들며 하는 소리다. “밤한개를

는 단조로우나, 할머니와 손자손녀의 장성을 기원했던 노래이다.

① 달강 달강²⁵⁷⁾

달강달강 달강달강
서울서 할멈이
참밤 한 되 사온 걸
고물락²⁵⁸⁾에 치뜨랬데이
머리 깎은 생쥐가 다 파 먹구
참밤 한 게 남긴 걸
아범은 깍대이 주구
어멈은 고물²⁵⁹⁾ 주구
넬과 날과 정살²⁶⁰⁾ 먹자
달궁달궁 세살²⁶¹⁾ 달강
달궁달궁달궁 세살달강

② 아기어르는소리

시상달강
서울길로 가다가²⁶²⁾
밤을한되 사다가
고무락²⁶³⁾에 치때렸더니²⁶⁴⁾
머리깎은²⁶⁵⁾ 생쥐가

주어서 / 고무다락에 없었더니 / 고양쥐가 다까먹고 / 꺾데기는까서 할아버지 주고 / 속
허물은까서 아버지주고 / ○○○는 어머니주고 / 속알맹이는 너하고 나하고 먹자 / 시상
달강 시상달강” 이라고 소리를 한다.

257) 이 동요는 어린 아이를 앉혀 놓거나 세워 놓고 좌우 또는 앞뒤로 흔들며 할머니들이 부른 노래다.

258) 지붕과 천장 사이의 빈 공간.

259) 꺾데기.

260) 알갱이.

261) 무슨 뜻인지 모른다.

262) * 김연순은 2006년 2월 22일 이 구절 뒤에 “돈을한푼 주셔서” 를 더 집어 넣었다.

263) [정옥출] 고무다락.

264) [김연순] 올려 놓다.

들민날민 다까먹고
벌레밭이²⁶⁶ 한톨남은걸
이빠진 통로개²⁶⁷다 삶어서
떨어진 조리로 건져서
이빠진 남박에다 담어서
껍데기는 아범주고
버니²⁶⁸)는 어멈주고
등살²⁶⁹)은 너까나까 돌이먹자
시상달강²⁷⁰)

③ 아기어르는소리

불아 불아 불어라
불불 잘부네
불딱 불딱 불불²⁷¹)

④ 아기어르는소리

챜챜 짹짹
도리도리 짹짹
챜챜 짹짹²⁷²)

⑤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아기 우리애기잘두자네
먹구자구 놀구자구 자장자장우리애기

265) [김연순] 머리가 까맣다.

266) [정옥출] 벌레 먹은 것.

267) [정옥출] 통노구. 무쇠 솥.

268) [김연순] 속껍데기. 2001년 9월 20일 채록 당시 67살로 우천면 정금리에 산다.

269) [김연순] 알맹이.

270) 횡.

271) 횡. [김연순] 아기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 한다.

272) 횡.

젊어서는 푸른옷을 늙어서는 빨간옷을²⁷³⁾
 주렁주렁 잘두자라 자장자장 잘두잔다
 에미뎡에 머리물고 싸근싸근 잘두자네
 자장자장 우리아기

→ 이 ‘자장가’ 소리를 보면, 어려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자든 生甞이 절로 난다. 북풍한설 설한풍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자식을 누이고 자기는 옷목에서 잠드셨든 어머니. 이 얼마나 숭고한 우리들의 어머니상이냐. 지금은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들이 스스로 버리고 있다. 母유가 넉넉한데도 우유를 먹이고 모유를 먹이지 않는데서 아이들의 심성은 점점 빼들어진다. 어미의 모유엔 모든 병균을 죽이는 기가 맥힌 약이 드리 있고, 자식을 키울 때도 우유보다도 편리한데, 平生 늙지 않고 젊어 지려는지 부도덕한 행동은 국민건강상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영화에서도 보았드시 아이는 부모결을 원하고 바라는데, 격리 수용해 키우니, 아이의 정서함양이나 사랑은 찾을 길이 없으니 한심스럽구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의 가족제도와 서양인의 가족제도가 다르다. 우리의 후대들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선 아니 된다고 생각된다.

⑥ 아기재우는소리
 자장자장 우리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엄마젖이 먹고싶어
 엄마오도록 잠을자게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아가 신통하게
 옆드려서 잘도잔다²⁷⁴⁾

273) 고추가 처음에는 푸른 빛을 띠다가 점점 붉은 빛으로 변하는 것을 뜻하는데, 세월의 흐름을 뜻하고 있다.

274) 횡.

(6) 일벌모으는소리

모래라 모래라²⁷⁵⁾

3 유희요

1) 동작유희요

(1) 고모네 집에 갔더니

고모네 집에 갔더니 닭 한 마리 잡아서
기름이 동동 뜨는 것 나 한 숟갈 안 주고
우리 집에 와 봐라
암탉 수탉 잡어서 너 한 숟갈 안 준다.”

→ 이 소리는 六,七歲 된 아이들이 男女를 막론하고 발을 뺀어 하나하나
집으면서 부르던 童요다. 이러한 동요를 부르고 우리는 성장하였다. 지금
은 컴퓨터, 텔레비전 등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노래와 만화로 춤으로
일관하니, 정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성 교육에 문제라고 하겠다.

① 고모네 집에 갔더니

고모네집에 갔더니
암탉수탉 잡어서
기름이동동 뜨는것
나한술 안주고

275) [김연순] 이 소리는 여왕벌인 장수벌이 벌통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장수벌
주위에 일벌이 달라붙기를 기원하며 반복적으로 부르는 소리다. 장수벌 주위에 일벌이 많
이 달라 붙으면, 이를 떼어내 벌통에 넣는다. * 이 소리는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채록되
는 소리로 일벌 주위에 흙을 던지며 장수벌한테 일벌이 몰려들게 유도하기도 한다.

우리집에 와봐라
발죽한글 주나봐
허휘이 허휘이

→ 다리를 서로 끼워 놓고 다리를 두두려 나가면서 부르던 소리인데, 허휘이 끝소리가 닿는 다리는 빼고 지루함을 달랬던 아이들의 소리이다.

② 고모네집에 갔더니

고모네집에 갔더니 암탐수탐 잡아서
지름이동동 뜨는걸 나한술 안주더라
우리집에 와봐라 수수팔떡 안주지²⁷⁶⁾

(2) 이거리 저거리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두만두²⁷⁷⁾ 구만두
대장부 허리띠 푼말아 장구채
지부때기 양한 돈²⁷⁸⁾

① 이거리 저거리

이거리 저거리 박거리 천사만사 국거리 대장군 허리띠
푼말아 장구채²⁷⁹⁾ 지 부 때 기 양 한 돈²⁸⁰⁾

276) 횡.

277) 무슨 뜻인지 모른다.

278) [정옥출] 여자 아이들끼리 모여서 마주 앉아 다리 뻗어 서로 끼고 이 소리를 하거나 '앵기 땡기 ~ 고도리 땡'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땡' 에 끝난 다리는 하나씩 빼는 데, 그러다 마지막으로 남은 다리의 소유자는 노래를 부르는 벌칙을 받는다.

279) * 여기까지는 띄어쓰기 단위로 한 다리를 건너가면서 읽었고, 나머지는 한 음절에 한 다리를 짚으면서 소리를 했다고 김연순은 말했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다리짚기를 하다 마지막에 남은 다리는 그 다리와 땅을 번갈아 짚으며 읽었고 그러다가 다리에 마지막 말이 끝나면 놀이가 끝난다. 그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에게는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한다. 『횡성의 구비문학』 과 달리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자가 2006년 2월 22일 김연순을 직접 만나 여러 번 확인하여 고친 것이다. 이하 동일하다.

280) 횡.

② 이거리 저거리

이거리 저거리 박거리 천사만사 독거리
철팔월에 무서리 동지선달 대서리²⁸¹⁾

(3) 풍서방 다리세기

꼬공꼬공	풍서방 ²⁸²⁾
자네집이	어텐가
이산저산	넘다가
덤불밭이	내집이지
멀먹구	사느냐
멀구다래	따떡다
불알이 흘채 ²⁸³⁾	죽었네

(4) 수박따기

꼬부랑깽 할멈
왜 그래
뭘 하러 왔나
개 쫓아주게
지개²⁸⁴⁾
왜 왔나
수박 하나 사러 왔네
수박 판다구(이렇게 뚜들겨보고)
에고 안 익었네 넌 모레 오게
넌 모레 동동(이래고 또 와서)
할멈 왜 불러

281) 횡. [김연순] 아주 춥다는 의미이다.
282) 무슨 뜻인지 모른다.
283) 걸러.
284) [김연순] 저 개.

문 열어주게

딸각

개 쫓아주게

지개

수박 사러 왔네²⁸⁵⁾

285) 횡. [김연순] 정옥출과 거의 유사하게 놀이를 설명했다. [정옥출] 방 안에서 여자 아이 하나가 문지방을 잡고 안는다. 그러면 그 아이 허리를 감아 잡고 다른 아이는 안는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이 앞 아이의 허리를 잡고 안는다. 힘이 좋은 아이 중에서 지정을 받는, ‘수박따기’를 하는 술래는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리고 돌아다니다 문지방을 잡은 아이에게 가서 “꼬부랑 깽 꼬부랑 깽 할멈 수박 하나 주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이는 “한개 안 여물어서 안 돼. 넬모래 와.” 라고 한다. 그러면 술래가 “넬모래 동동 넬모래 동동.” 하면서 간다. 갔다 돌아서 오며 “할멈” 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아이는 “왜 그래” 라고 한다. 술래는 “수박 하나 줘.” 라고 한다. 그러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아이는 “한 개 털 여물었어. 넬 모래 와.” 라고 한다.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하다 문고리 잡은 아이가 “다 여물었으니 하나 따 가.” 라고 한다. 그러면 술래는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있는 아이를 떼어 내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앉아 있는 아이들은 안 떨어질려고 꼭 붙든다. 만약, 하나를 떼 놓으면 그 아이는 한 쪽 구석에다 놔 두고 다시 앞사람과 사설을 주고 받으며 다른 아이들을 떼내어 구석에다 모아 둔다. 아이들을 다 떼어 낼 때까지 놀이를 지속한다. 이 놀이는 처녀들은 물론 새댁들도 했다. 그리고 보름에 달이 환하면, 마당에 나가 여자 아이들이 ‘딸따기’ 놀이를 했다. 아이들이 서서 다른 아이의 허리를 움켜쥐고 일렬을 만들면, 술래가 맨뒤에 있는 아이를 빼내려고 한다. 그러면 줄을 선 아이들이 안 떨어지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종지놀이’ 를 했다. 이는 여자 아이들이 무릎을 구부리고 오금 밑에 손을 마주 잡고 빙 둘러 앉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라고 하며, 종지를 다른 아이들에게 넘기는 것이다. 가운데 앉아 있는 술래가 이 종지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 만약 못 찾으면 ‘어리랑타령’ 등과 같은 소리를 한다. 그리고 방 안에서 ‘고사리꺾기’ 라는 놀이를 하면서 ‘고사리꺾기소리’ 를 했다. 이는 여자 아이들이 양손을 서로 잡고 동그랗게 앉아서 하는 놀이다. 그런 다음, 한 사람씩 손을 놓고 다른 사람의 팔을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고사리 꺾으러 가세 / 고사리 꺾으러 가세 / 응달 고사리는 주먹 고사리 / 양지쪽 고사리는 세발 고사리 / 응달쪽 고사리 꺾으러 가세 / 양지쪽 고사리 꺾으러 가세” 라고 소리를 한다. 모든 아이들이 이와 같이 넘어가면, 놀이는 끝난다. 또한, ‘풍감돌리기’ 놀이가 있었다. 여자 아이들이 치마를 입고 양반 자세로 앉은 다음, 모든 아이들이 반지를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시늉을 한다. 가운데 있는 술래가 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 [한광희] 횡성군 전체 규모로 하는 민속놀이로는 정월 보름께 하는 줄다리기가 있었다. 옛날 경찰서를 경계로 해서 공근면, 서원면, 횡성 서쪽을 하동네라고 했고, 횡성 동쪽, 우천면, 둔내면, 안흥면을 상동네라고 했다. 섬강 백사장에서 양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양팀의 구성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정 많아도 됐다. 산전리에는 광산이 있어 사람이 많아 항상 상동네가 이기는 편이었다. 굉장히 긴 줄을 만들고 그 줄에 ‘젓줄’ 을 만들어 묶어 이 줄을 사람들이 잡아 당겼다. 일제 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이 놀이는 마을 단위로는 하지 않았고, 이 놀이를 해야 화재를 예방한다고 하였다. 줄다리기에 이기면, 상동네의 부자들은 다른 마을에서 온 농악대를 하루 이틀이고 재우면서 먹여 보냈다.



줄다리기

2) 언어유희요

(1) 말머리잇기

저 건너 김서방 낭그하러 가세
배가 아파 못 가겠네
무슨 배 자래배²⁸⁶
무슨 자래 읍자래²⁸⁷
무슨 읍 진지읍
무슨 진지 고래진지

286) 앓는 배.

287) 무슨 뜻인지 모른다.

무슨 고래 잣고래
무슨 잣 살구잣²⁸⁸⁾
무슨 살구 개살구
무슨 개 보리개²⁸⁹⁾
무슨 보리 텡보리²⁹⁰⁾
무슨 텡 비지텡²⁹¹⁾
무슨 비지 콩비지
무슨 콩 새콩²⁹²⁾
무슨 새 할미새
무슨 할미 네할미
혜혜

(2) 배스러주는소리

뭔자래 업자래²⁹³⁾
뭔업 탈업²⁹⁴⁾
뭔탈 연주탈²⁹⁵⁾
뭔연주 코리연주
뭔코리 버들코리
뭔버들 수영버들
뭔수영 내수영²⁹⁶⁾
뭔내 왕내
뭔왕 되왕

288) 무슨 뜻인지 모른다.

289) 보리 개떡.

290) 텡보리는 보리 중에서 제일 일찍 어무는 보리다.

291) 무슨 뜻인지 모른다.

292) 콩은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는 노랑지만 가운데가 까만 테두리가 있는 콩이 '새콩' 이다.

293) [김연순] 무슨 뜻인지 모른다.

294) [김연순] 무슨 뜻인지 모른다.

295) [김연순] 무슨 뜻인지 모른다.

296) [김연순] '수영 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다른 집안의 사람을 자신의 오빠, 언니, 아들, 어머니 등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뽕되 쌀되
뽕쌀 보리쌀
뽕보리 갈보리²⁹⁷⁾
뽕갈 떡갈²⁹⁸⁾
뽕떡 개떡²⁹⁹⁾
뽕개 새양개³⁰⁰⁾
뽕새양 꿩새양
뽕꿩 장꿩³⁰¹⁾

(3) 오로롱 보로롱

오로롱 보로롱³⁰²⁾ 물레질
아랫방 할머니 노리개
쏘삭쏘삭 바느질
웃방색시 노리개라³⁰³⁾

(4) 음운맛취엮는소리

고서방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발랐더니

297) [김연순] 가을 보리.

298) [김연순] 떡갈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말한다. 먹으면 약간 시큼하다.

299) [김연순] 이는 보리개떡을 말하는데, 보리쌀을 만들 때 나오는 거로 만든 떡을 말한다.

300) [김연순] 옛날에는 사냥을 ‘사양’ 이라고 했다.

301) 횡. 2006년 2월 22일에 김연순은 이 소리는 새댁 때 다른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할머니가 하는 것을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웠다고 했다. 자신은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지만,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따라 외웠고, 뜻을 모르는 내용도 그대로 따라 외웠다고 했다. 그 할머니는 낫으로 만든 밥그릇 뚜껑인 ‘복지게’ 에다 채한 손주 아이가 먹었던 음식을 약간 담고 그 아랫부분을 채한 아이의 배에다 대고 왔다갔다 하게 하면서 이 소리를 부르는 것을 듣고 외웠었다고 했다. 그리고 ‘장꿩’ 은 장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뒤에 “뽕장 꿩장” 이라는 구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302) [김연순] 물레 돌아가는 소리의 의성어.

303) 횡. [김연순] 다듬이질 할 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놀 때 부르는 소리다. 아랫방에서는 할머니가 물레질을 하고, 웃방에서는 새댁이 바느질을 한다는 뜻이다.

고대 낫더라³⁰⁴⁾

(5) 음운맞춰엮는소리
오도가도 못하고
오동나무 걸려서
오줌만 짹짹 깔렸대³⁰⁵⁾

(6) 구문맞춰엮는소리
시금먹고 시집가고
장³⁰⁶⁾먹고 장개가고
짚똥먹고 짚러가고
나물먹고 날러가고³⁰⁷⁾

3) 놀림유희요

(1) 앞니 빠진 갈가지
앞니 빠진 갈가지³⁰⁸⁾
뒷도랑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란다

→ 이 빠진 6세나 7세의 아이를 놀리는 동요다.

① 갈가지

앞니 빠진 갈가지

304) 횡.

305) 횡. [김연순] 앞부분은 잊었다.

306) [김연순] 된장을 옛날에는 '장' 이라고 하였다. 이 소리 뒤에 "다래먹고 달러가고 / 머루먹고 멀리갔다" 를 더 붙여 소리를 하기도 한다. [정옥출] 이런 풀은 없다. '장' 을 뜻한다.

307) 횡.

308) 살췘이. [정옥출] 늑대의 한 종류다.

서울 길에 가지마라
암답한테 채이고
수답한테 채인다

→ 어린아이 이 빠진 것을 놀리던 동요이다.

② 이빠진아이놀리는소리

앞니빠진 갈가지
뒷집에 가지마라
수답한테 쪼인다³⁰⁹⁾

(2) 까까머리놀리는소리

중중 까까중
얼마주고 깎았니
십원주고 깎았다³¹⁰⁾

(3) 곰보놀리는소리

엷구찌구 이곰보야
네눈에도 잠이오니³¹¹⁾
엷엇은들³¹²⁾ 내탓이요
찍엇은들 내탓이요
마마님 탓이지
싫고싫은³¹³⁾ 이백미도

309) 횡. [김연순] 2006년 2월 22일 그는 이 소리는 “앞니빠진 갈가지 / 뒷니빠진 갈가지 / 뒷집에 가지마라 / 수답한테 쪼인다” 라고 한다고 했다. [정옥출] 아이들이 빨간 옷을 입고 가면, 수답이 덤벼 들어 쫓다.

310) 횡. [정옥출] 머리 뽁뽁 깎은 아이 놀리는 소리.

311) [김연순] 여기까지는 곰보를 놀리는 내용이다.

312) [김연순]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놀리는 것에 대해 곰보가 응대하는 말이다. 썰고 썰은 백미에도 누가 있듯이, 사람도 손님을 알아 곰보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밥’은 ‘쌀밥’을 뜻한다.

313) 횡. [정옥출] 디딜방아에다 버를 넣어 찼는다. 정성을 들일 때는 일곱 번을 찼어야 한다. 그러면 쌀이 하얗게 된다.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찼지는 않는다.

돌도있고 뉘도있고³¹⁴⁾

(4) 우는아이놀리는소리

울배이 짚배이

개구정³¹⁵⁾

울배이 짚배이

담배밭에 호두배이³¹⁶⁾

울기는 왜울어³¹⁷⁾

(5) 성난아이놀리는소리

빠지기 따지기

빠졌다 따졌다³¹⁸⁾

호박국 끓여주리³¹⁹⁾

(6) 오줌싸개놀리는소리

오줌싸개 똥싸개

똥로 놀려주리³²⁰⁾

(7) 통성명³²¹⁾

314) 횡.

315) 횡.

316) [김연순] 무슨 뜻인지 모른다.

317) 횡.

318) [김연순] 입을 헤 벌리는 것을 ‘따졌다’ 라고 한다. [정옥출] ‘헤헤거린다’ 는 뜻이다.

319) 횡.

320) 횡.

321) 이는 일반적으로 ‘가진인사’ 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윗대로부터 말만 들었을 뿐이다. [한광희] 이십 안쪽의 총각들이 자신들의 동네를 지나가는 다른 총각을 붙들고 괴롭히는 장난이다. 길가는 총각을 붙들고 “나이를 치먹느냐 내리먹느냐? 술방울이 떨어지면 내리구르느냐 치구르느냐?” 라고 묻는다. 이렇게 질문을 당하면, “술방울이 떨어지면 내리구르지만, 나이는 치먹는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대답하면, 질문을 하는 총각들에게 붙들려 곤욕을 당한다. 그리고 “너집에 별당아가씨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으면, 집에 처녀가 있더라도 “없다.” 라고 해야 곤욕을

안나 수재야 이 총각
알았거든 가래 므나
시고 토지가 어 데이며
여생 식구가 무영인가

석구산이 분명 하니
도렴 도렴 하구 몇분인가

압남산 술방울이
뚝 떠러져서
치골렀다 내려 굴렀나

앞남산 술 방울이
뚝 떨어져서
저 강물에 빠지면
건져 주겠나 못 건져주겠나

담안의 꽃이
피었나 안 피었나

일강능 이춘친 삼원주 치켜달아
오 백년 도움이
무학이 터를 뚫아
경기 시골이
어데야 이 총각

→ 이 '통성명' 은 길을 가는 길손이나 신행차 신랑을 골려주던 소리로,
통성명을 잘 상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큰 욕을 당하며, 술과 인주를 사서

덜 당한다. "아나 수재야" 라고 하는 말은 길가는 총각을 부르는 말이다. '통성명' 이라고 하지 않고, '가진인사' 라고 했다.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 특히, 초군이 많고 총각들이 득실대는 지역은 작란이 심했으며, 힘 께나 쓰는 초군들은 싸움도 서슴치 않았다. 서생들은 특히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양반 행세를 하는 자를 놀려 주기 위한 서민들의 율부지춤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4) 자연물상대유희요

(1) 잠자리 뽕뽕³²²⁾

잠자리 뽕뽕

앉을 자리 좋다 뽕뽕

잠자리 동동 뽕뽕

이 자리가 너 자리다

앉을자리 좋다

잠자리 뽕뽕

① 청장이 동동

파리 동동 청장이 동동

저 건너 밭에 가지 마라

다시 이 곳 청장이 오면 똥물 먹고 뒤진다

청장이 동동 파리 동동 청장이 동동³²³⁾

→ 유소해 대감 三寸(숙부 유겸암) 先生이 安東의 하회 마을에 사셨는데, 日本國의 왜장 청장이가 韓國의 地理와 政府 要人을 암살할 目的으로 朝鮮에 잠입하여 활약 도중에 유겸암 先生께 굴복했는데, 이 때 아이들이 가느다른 작대기에 실을 매고 실끝에 파리를 잡아 매놓고 잠자리를 잡게 하는 것인데, 왜장 청장이를 혼내주기 위하여 불렀든 동요이다. 유겸암 先生

322) 이 노래는 잠자리를 잡을 때 부르는 동요다. 그러나 잠자리를 잡지 않더라도 심심풀이로 이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한다.

323) 어렸을 때 마을에서 이 동요를 부르며 놀았다.

은 壬辰年 日本國이 침입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청장이 잡자리는 동요를 지어서 부르게 하였다는 말이 傳해지고 있다. 八年 풍진에도 하회에는 日本人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말이 傳해지고 있다. 또한, 고추잠자리, 범잠자리³²⁴⁾, 청장이잠자리. 이 청장이잠자리는 몸에 회색 빛³²⁵⁾이 나고, 고추잠자리보다 크다. 이 잠자리가 청장이잠자리이다. 이러한 고사가 전해지고 있다.³²⁶⁾

② 잠자리잡는소리

잠자리 동동

파리 동동

앉을자리 앉어라³²⁷⁾

③ 잠자리 동동

잠자리 동동

파리 동동

앉을자리 앉어라

내너를 잡을 내아니다³²⁸⁾

(2) 아침 방아 짚어라

아침 방아 짚어라 저녁 방아 짚어라

아침 방아 짚어라 저녁방아 짚어라

강태공에 조작방아³²⁹⁾ 돌고 도는 물래방아

좌로 도러라 연자방아 하늘을 보는 절구방아

아침 방아 짚어라 저녁 방아 짚어라

324) 꼬리 부분이 노란 색과 까만 색이 반복된 잠자리.

325) 푸른 빛도 난다.

326) 이러한 전설은 다른 책을 보고 배웠는데, 어느 책인지는 모른다.

327) 횡.

328) 횡.

329) 강태공이 방아를 처음 만들었다.

아침 방아 짙어라 저녁방아 짙어라

→ 이 소리는 때까치³³⁰⁾는 솟놈이고 방개³³¹⁾(메뚜기)는 암놈인데, 암놈을 잡아서 두 다리를 부여잡고 앞으로 세우면 까딱까딱 하면서 방아 짙는 형상을 한다. 이것이 방아놀이며 가지고 놀다가 날개를 떼어버리고 화로불에 구워서 먹기도 한다. 농촌 논두렁이나 밭가에서 방개가 서식한다. 또, 때까치는 멀리 날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 그러나 때까치는 빵아를 더 잘 짙는다. 지금은 아이들이 곤충표본이나 도시의 아이들이 잡아 구경거리 곤충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① 메뚜기부리는소리

아침방아 짙라

저녁방아 짙라³³²⁾

(3) 다람쥐놀리는소리

다람쥐 동

말썽 동

네할에비 굴래씨워라

너잡아다 볶아먹는다³³³⁾

330) 때때때때 소리를 내며 멀리 날아가는 조그만 방아개비. 이도 구워 먹었다.

331) 때까치에 비해 큰 방아개비.

332) 횡.

333) 횡. [김연순] 다람쥐는 마누라를 아홉을 둔다. 그 아홉이 밤이나 도토리를 물어다 굴에 쌓아 둔다. 겨울이 되면, 마누라를 전부 내쫓고 눈이 먼 마누라만 봐 둔다. 눈이 먼 마누라에게는 도토리만 주고 자신은 밤을 먹는다. 도토리를 까 먹는 마누라는 쓰니까 “시거덩 씨거덩 씨거덩”이라고 하고, 밤을 까 먹는 다람쥐는 “달거덩 달거덩”이라고 한다. 2006년 2월 22일에는 사람이 다람쥐를 쳐다보면, 다람쥐는 앉아서 앞발을 들고 비빈다. 이는 다람쥐를 보는 사람을 욕하는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다람쥐를 욕하는 내용을 지닌 이 소리를 부르면, 다람쥐는 고양이가 앞발로 세수를 하듯이 양발로 머리를 한 바퀴 돌린다. 다람쥐에게 굴레를 씌워 잡으려고 할 때 부르는 소리가 아니다.

(4) 부슬비가 오네
부슬 부슬 비가 오네
아침 비는 형님 눈물
저녁 비는 딸님 눈물
형님 딸님 눈물 비 오네
부슬 부슬 부슬 비가 오네

→ 비가 오는 것을 표현한 이 지역의 동요이다. 지금은 이런 동요를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이에게는 이와 같은 동요나 민요를 많이 가르쳐서 맥을 잇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5) 비야 비야³³⁴⁾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우리 성님 시집 간다
분홍 치마 얼룩 진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우리 어미 매봉산³³⁵⁾에
나물 캐러 웃지 오노

(6) 청청 맑어라
청청 맑어라
물래각시³³⁶⁾ 물 이러온다
청청 맑어라
물래각시 물 이러온다
되 에헤헤³³⁷⁾

334) 이 노래는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말라고 부르는 동요다.
335) 정금리 근처에 있는 산.
336) 물 가에서 날아다니는 곤충의 하나.
337) 왜 그런지 연유는 모르나, 물에 침을 뱉는다.

→ 이 소리는 여름에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새암을 파 놓고 또한 새암 물에서 작난을 하여 흐린 물을 손으로 흘러 보내며³³⁸⁾ 부르던 동요이나 지금은 자취가 없다.

① 물맑게하는소리

새물은 나주고

흙물은 너가져라

튀³³⁹⁾

(7) 눈티없애는소리

색시야 색시야

내눈에 까시들어갔으니

내눈에 까시파내다구³⁴⁰⁾

(8) 귀물빼는소리

황새야 독새³⁴¹⁾야

내귀에 물빼다구³⁴²⁾

(9) 구구구 비둘기소리

뿌꿍뿌꿍 지집뿌꿍

지집죽어 상채³⁴³⁾하고 지숙죽어 애정하고³⁴⁴⁾

물가전지 수패하고³⁴⁵⁾ 산중천지 해정하고³⁴⁶⁾

338) 냇가에서 놀다 목이 마르면 모래를 파고 물이 맑아지게 하여 떠 먹는데, 이 때 부르는 동요다.

339) 횡. [김연순] 냇가에서 목욕하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고개를 옆으로 숙이고 귀에다 돌맹이를 대고 다른 돌맹이로 그 돌맹이를 두드리면 물이 나온다.

340) 횡. [김연순] 눈에 흙이 들어가면, “까치야 까치야 / 내눈에 흙 들어갔네 / 흙 파내다구” 라구 하면서 눈을 비빈다. 그러면 눈물이 나와서 그런지 눈이 개운해 진다.

341) [정옥출] 무슨 뜻인지 모른다.

342) 횡.

343) 부인이 죽다.

344) 슬퍼하다.

345) 물 가장자리의 논밭이 수해를 입다.

뿌꼭뿌꼭 지집뿌꼭³⁴⁷⁾

① 비둑비둑

지집 죽구 자식 죽구
흔누테기 장독 덮고³⁴⁸⁾
비둑비둑
어린 새끼 젓 달래고
자란 새끼 밥 달래고
마소 새끼 풀 달래고
비둑비둑

→ 비둘기는 부부가 되면 죽을 때까지 동거동락을 같이 하며 새끼를 치기 위해 알 두 개를 낳고 기른다. 그러므로 처녀나 부인들은 비둘기 고기를 옛 노인들은 먹지 못하게 했다.³⁴⁹⁾ 암수가 구구구 깃는 소리는 상당히 정겨움다.

② 비둘기흉내내는소리

지집죽구 자식죽구
어린자식 마저죽고
비네빠서 땅에꿏고
머리풀어 산발하고
댕기클러 낭게걸고
구국³⁵⁰⁾

346) 무슨 뜻인지 모른다.

347) [정옥출] 비둘기가 봄에 우는 소리는 “지집죽고 자식죽고 현투테기 목에걸고” 이다.

348) 가난하다는 의미이다.

349)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 그 혼이 먹은 사람에게 붙어 자식을 둘밖에 낳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러한 금기는 다산을 권장하는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350) 횡. [김연순] 비둘기에게는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어 한이 맺혀 죽은 남자의 혼이 들어있다고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10) 부엌이흥내내는소리

걱정마라 부엌
내일모레 제사다
떡해줄게 부엌³⁵¹⁾

5) 신비체험유희요

(1) 방망이접 노래

봉아 봉아 천지봉아	용바람에 대장고야 ³⁵²⁾
어깨 집고 소매 짚고	어리설설 내려주소
일공태자 함태자	이금불상 기영초
삼금민마 조자래	사철강모 황강모
오관천장 관운장	육구민마 진서왕
칠검칠검 제갈령	팔금푼조 초패왕
구연진사 한삼오	백자춘하 공부자
억자만세 조작세	천리만리 석시리 ³⁵³⁾
강재해 주시사 ³⁵⁴⁾	

→ 조자래(趙子龍)는 촉나라 명장. 오관참장 三國時代 관운장이 소패에서 조조에게 패해 유비는 하북의 원소에게 가 있고, 유비의 두 부인과 운장은 조조에게 억류되어 있다가 유비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도라가는 도중 다섯 군대의 수관장이 길을 막고 음해하려고 하므로 오관을 지나면서 여섯 장수를 버린 것을 말함. 촉한의 명장이다. 육구 민마 진시황이 六國 초, 연, 제, 한, 위, 조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통일을 말함(진서왕 : 진시황). 이것은 방망이로 위의 문장을 외우고 일혀 버린 물건을 찾기 위하여 부르

351) 횡.

352) 무슨 뜻인지 모른다.

353) 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대부분 장군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인데, 과거 옛날 장군들의 이름을 불러 신을 부르는 행위와 유사하다.

354) 내리다.

던 소리이다. 이 노리는 장난도 있고³⁵⁵⁾ 지루한 길삼놀이를 할 때 심심푸리로 불렀든 소리이다. 이 고장에 “춘향아 춘향아 28 춘향아 나이는 十八세 생일은 사월초하루.”³⁵⁶⁾라는 노리와 같은 내막이 있다.³⁵⁷⁾ 술가지를 들고 묘 위에 몰라 앉저 눈을 감고 계속 주문을 외우면³⁵⁸⁾, 대가 내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2) 춤추게하는소리

춘향아 춘향아 남아골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요
생일은 사월초파일이요
살살 내려주시오³⁵⁹⁾

-
- 355) ‘방망이점노래’는 처녀들 여럿이 방 안에서 놀면서 부르던 소리이다. 한 사람이 방망이를 세워 아랫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이 노래를 부르면, 신이 내리는지 손을 벌벌 떨다가 신명이 올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 사람을 정신이 들게 하려면, 그의 왼쪽 뺨을 때리면 정신이 든다. 이 소리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참고하여 채록하였다.
- 356) 처녀들이 방안에 모여 한 처녀가 가락지를 손 안에 쥐고 함장을 하며 이 소리를 부르면, 신이 내려 정신없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 357) [정옥출] 여자 아이들이 모여 노는 놀이다. 한 아이가 방망이 손잡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방망이 끝을 다듬이돌 위에 세우고 앉아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어깨장군 소매장군 용마루에 대장군 썰썰히 내려주십소사.”라는 축원을 반복해서 외운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방망이에 대가 내린다. 이 대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내리지 곧은 사람에게는 안 내린다. 방망이에 대가 내린 아이는 방망이를 흔들고 방안을 돌아다닌다. 내린 대를 풀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다듬이돌 앞에 앉혀 놓고, 다른 아이들이 “어깨장군 소매장군 용마루에 대장군 인제는 안정해서고 풀어주옵소사.”라고 축원을 하면, 대가 풀린다. 이와 같이 놀이를 하며 여자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놀았다. 그리고 방망이에 대가 내리게 한 다음, 다른 아이가 물건을 숨기고 대가 내린 아이가 그 숨긴 물건을 찾아 오게 하는 놀이도 했는데, 잘 찾아오지 못했다.
- 358) 남자 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했는데, 묘 위에서 하면 대가 잘 내린다.
- 359) 횡. [김연순] ‘춘향이놀이’는 정월 14일, 15일, 16일 경 여자 아이들이 방 안에 모여 놀면서 부르는 놀이다. 이 놀이의 주관자는 세 명인데, 한 명은 이 소리를 계속해서 부른다. 다른 한 명은 다듬이돌 위에 빨래 방망이를 수직으로 세우고 양손으로 붙들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팔을 벌리고 서 있다. 이때 다른 아이들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 소리를 부르는 아이가 이 소리를 계속 반복하면, 대잡이에게 대가 내리듯이, 방망이를 잡은 아이에게도 신이 내려 제 정신을 놓고 정신없이 춤을 추기도 하는데, 자신에게는 신이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 있는 아이도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자신에게는 신이 내리지 않아 건성으로 방망이로 다듬이돌을 딱딱거리다 일어나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물건을 찾기 위해 벌이는 놀이는 아니다. 남자 아이들은 이 놀이를 하지 않는다. 정월 16일은 ‘귀신 달걀 날’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신을

6) 생활유희요

(1) 이빨던지며하는소리

헌 이는 너 갖고
새 이는 나 다오

→ 뺨 이빨은 지붕 위에 던지며 하는 소리다.

(2) 추울때하는소리

추워추워 춘달래
까막까치 만달래³⁶⁰⁾
언제나 춥나
언제나 뜨신가
아이구 추워 죽겠네³⁶¹⁾

(3) 방귀뀌며하는소리

방구방구 나간다
방구가 내방구
대장군 방구나
누구 방구나³⁶²⁾

모두 엎어 놓는데, 귀신이 집에 들어오면서 신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롯불에 왕겨와 미영씨를 태우고, 헌 채를 대문 옆에 걸어 놓는데, 이는 귀신이 문에 들어오다 채의 구멍을 하나하나 세다가 날이 밝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옥출]

‘춘향이놀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정월 14일날 집안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촌 동서 하나가 ‘춘향이놀이’ 축원을 해 달라고 했다. 그 동서는 앉아 합장을 하고 앉아 있고 ‘춘향이놀이’ 축원을 하니 금방 ‘신이 지피면서’ 합장한 손이 점점 벌어지더니, 다 벌어진 후에는 일어나 무당처럼 춤을 추었다. 이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다. 나중에는 미쳐 헛소리도 하게 되어 ‘정’도 읽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360) [정옥출] 무슨 뜻인지 모른다.

361) 횡. [김연순] 이 소리는 “추워추워 춘달래 / 까막까치 만달래 / 도랑건네 사둔택 / 뿔떡구 살았오 / 머루다래 따떡다 / 불알이 흘려죽었다” 라고 하든지, “추워추워 춘달래 / 까막까치 만달래 / 도랑건네 사둔택 / 뿔떡구 살았오 / 참깨들께 볶아먹고 / 끼이끼이 살았네” 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구방구 나간다
대장군 나간다
네방구 대장이냐
내방구 대장이지³⁶³)

(4) 성난아이웃게하는소리
울다가 웃으면
똥구녕에 털난대³⁶⁴)

우재삐재
울다가 웃으면
똥구녕에 흰털난대
똥구녕에 바늘도 난대³⁶⁵)

(5) 풀뿌리문지르는소리
색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색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³⁶⁶)

(6) 모래집짓는소리
새집 지어라 까치집 지어라
새집 지어라 까치집 지어라

362) 횡.

363) 횡.

364) 횡.

365) 횡.

366) 횡. [김연순] 비름 나물 뿌리를 손으로 자꾸 훑으며 이 소리를 하면 뿌리가 빨개진다.
[정옥출] 도라지꽃에다 개똥불이를 잡아 넣고 앞부분을 막으면, 그 안에서 반딧불이 반
짝일 때 이 소리를 했다.

새집 지어라 까치집 지어라
새집 지어라 까치집 지어라³⁶⁷⁾

(7) 곱세치기

자아 일본놈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요술 꾸며 가지고 대한민국을 잡아
먹을라는 일자란다
일노정장에 대포 소리다
일천이간장 일천이간장
송아지 송아지가 풀만 달라는 군
백낙천 권학문이로군

이천 도래가 견방하니 이천도래가 견방화
이천석 실은 배로군
아관악이 동쪽이요 관악이 동쪽 관악이 동쪽이다 관악이 동정이지 둘이 곱어
서 틈이 없구나

삼월 삼월 모춘 삼일이 설한풍이 불른 비 온단다
전라감사는 고와만 우느냐
아 스리쌀작 견구보니 처녀쩍 걸음이다 슬근이 송풍
삼을 심으니 동자삼이요 삼 남게 연이 걸렸네

돌돌래 광천이로군
자너덧이 곱세틈시다
똥격이새 울어 동트는군 너덧이 곱세틈자는군

오시락 바시락 담 넘어간다
나경동정 나경이동정 오마던 님이 오셨네
자나격이 동정이요 나격이 동정

367) 강변에서 놀며 모래를 손 위에 덮고 그 위를 두드리며 하는 소리다. 그런 다음, 손을
빼면 집이 생긴다.

오대산 산신령님이다
오촌택이면 당숙모라지 꺾으니 오현밭이로군
오신 님 가실 줄 모르네

자 누구 누구가 곱새꾼이나 누워리갈길 청산만 고와 오누나
누워리갈길이 황천객이다 누워리갈길
육진장포가 열두맥이 누워가는 건 황천길이로군
자철산 가는 조기잡이 배란다 농천호걸 한 방 맞다 청용도 드는 칼인가

칠두부측량 만주뜰이다 농천이호걸
농천이호걸에 디디고 나니 맵새난다 농철수 흐르는 물이로군

자 팔아라 드러라 돈 쓸 일 났네
팔도명산이 금강산 만물초로군
아금이라도 억세계 상팔자요 금수두강산
팔아라 드러라 돈 쓰일 일 났네 금강산 유점사로군

북문이 터졌다 수원북문이로군
부자집 마당에 구두가 두 켤이 두 켤이

자 수물녀장 도시요리 장근도감이 나가신다 장근도감이
장차 할 말 취재도 하랑 장근도감이
야 장한림 수풀에 꿩이 긴다 장근이도감
장장거리고 덤비지마라 장근도감이다
십만 석 실어 놓은 배로군 장근이도감

→ 이 ‘곱새치기’ 368)는 옛 祖上들이 화투가 없어서, 우리의 놀이인 진목이라는 것을 갖고 ‘투전놀이’를 하였던 것인데,至今과 같이 고스톱, 찌고뎡이, 섯다, 짓고섯다 등의 투전과는 다르다. 곱새치기 소리를 부르면서

368) 과거에 ‘곱새치기’를 해 보지 않았다.

돈을 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전목은 한지에다 그려서 몇 곱 두께로 단단히 한 뒤에 길이는 약 15cm치이며, 넓이는 2cm치 미만으로 만든다. 이 투전목을 가지고 찜봉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인데, 일에서부터 십까지 40장을 만들어 곱세치기 투전을 하였다.

‘곱세치기’는 원래 함경북도에서 유래된 것인데, 지금은 소리를 들어 볼 길도 없으려니와, 이 놀이 투전을 하는 사람도 없다. 전파된 과정에서 왜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은 곱세치기 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러나 이 소리만이라도 전해진 것이 다행으로 생각된다. 시대의 흐름은 무섭다. 이삼십 대는 포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리라 생각된다.

‘곱세치기’ 내용 중 난해한 것은 풀이해 보고자 한다.

일노전장 :노일 전쟁

백낙천 : 본명은 백거이. 중국 당대의 대표적 시인.

권학문 : 글을 가르쳐야 한다.

이천도래 : 이천 석의 곡물을 실고 배가 고향으로 드러온다.

곱세 : 집을 뻗집으로 엮어 덮은 다음 맨꼭대기에 용구세를 씌우는 것인데, 이 용구세를 곱세라고 한다.

돌격이새 : 솟쩍새

오현발 : 총이 속사 되는 것. 오연발.

누워리갈길 : 죽어서 가는 길

육진장포 : 지난 날 함경북도 육진에서 나던 삼베. 또한, 사람이 죽어서 시신의 염수습할 때 쓰이던 마포. 육진은 이조 세종 조에서부터 육진을 두고 몽고족과 여진족 난을 무찌르기 위해 세웠던 군사의 요충지며, 문종 때 김종서가 육진의 총수령이며 유명한 명장이기도 하다.

농철수 : 이것은 강의 이름인데, 어느 강의 이름인지 알지 못 함.

금의옥식 : 잘 입고 잘 먹는다.

국궁 다테기 : 굴게 다진다.

도시요리 : 일본 사람의 말이며, 지금 중화요리, 일본요리 하는 것과 같다.

슬근이 송풍 나경동정 장근도감 : 시장 장사판의 접장 어른을 말함. 접장의

권리가 상당했다.



어러리 시연

7) 가창유희요

(1) 어러리

후렴 : 어러리 어러리어리요 어러리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얼었다가 녹아지니 봄철이로구나

1. 歲月이 갈려거던 너 혼자나 가지
꽃 같은 이내 청춘을 왜 데리고 가나
2. 일번초당³⁶⁹⁾에 병이 드러서 홀로 누웠으니³⁷⁰⁾
어느 누가 임이라고 병치장 하나³⁷¹⁾

369) 서당에는 학동들이 공부를 하다 쉴 수 있는 초당을 만들어 놓는데, 일번초당이란 첫 번째 초당을 뜻한다.

370) 학동들이 아파도 부모님들이 서당에 가라고 하니, 학동들은 서당에 와서 초당에 드러 눕게 된다.

3. 흥당목 조고리는 붉어야 좋고
물명주 단숫곳은 넓어야 좋드라
4. 모시대 참나물 쓰러진 골로
앞집에 김도령 모시고 나물 캐러 가세
5. 나두야 언제나 화류계 남아가 되여서
안남산천 함박꽃같은 소첩을 두나
6. 낙시대를 푹푹 말아서 개울가로 들거든
싸리 바구니 옆에 끼고 뒷 따라와요
7. 일락서산에 지는 저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날 버리고 가신 님³⁷²⁾은 가구 싶어 가나
8. 꽃은야 보나나 좋소마는
가지가 높고 높아서 못 꺾겠네
9. 태기산아 봉화산아 말 무러 보자
임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³⁷³⁾
10. 울타리 밑에 저기 저 닭은 모이나 주면 보지만
저기야 저 여자 불라면 무엇을 주야 보느냐
11. 술이란 걸 잡수거든 취해지 말고
임³⁷⁴⁾이라고 만나거던 이별을 마라

371) 신세가 외롭고 처량하다는 내용의 노래다.

372) 남편.

373)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12. 물 한 동우 여다가 구정물통에 붙고
 임 한 번 다시 보려고 또 이러 갔네
13. 안남산 빼꾸기야 초성도 좋다
 세 살 적 듯든 목소리 변치도 않아구나
14. 술은야 술술에 잘 넘어가고
 찬물의 냉수는 증치가 민다
15. 담뱃불이 뽐뽐뽐 입³⁷⁵⁾ 오시는 줄 알았더니
 고너매 개똥불이 나를 속여주네
16. 심심산천에 도라지 꽃은 바람에 흔들거리고
 큰 아가씨 손목은 제멋 건들거리네
17. 열두칸 부시 썸지를 다 짓고 나니
 병아리 아범 암탉의 서방이 무등치듯³⁷⁶⁾ 운다
18. 시집을 가면 가고 말며는 말지
 샷갓을 쓰고서 시집을 가나³⁷⁷⁾
19. 어둔골³⁷⁸⁾ 연자방아는 사시사철 도는데
 시집 못 간 뒷집 처녀는 안달이 낫네³⁷⁹⁾

374) 애인.

375) 애인.

376) 두 날개를 퍼덕인다.

377) 결혼할 남자에게 사주가 건너갔는데, 그 남자가 죽게 되면, 여자는 시집도 못 가 보고 과부가 된다. 이 과부가 시집을 갈 때는 가마 대신에 샷갓을 쓰고 간다.

378) 우천면 정금리의 한 마을 이름.

379)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20. 청치마³⁸⁰) 꼬리에다 소주병을 달고
능라도 수풀³⁸¹) 속으로 임 차저 간다
21. 산천초목의 물과 유지³⁸²)도 임자가 있는데
내 인생은 무용으로 생겨서 임자가 없나
22. 석세베 치마 사날 집세기³⁸³) 신영쓸망정
너 것튼 못쓸 놨은 눈알로 돈다
23. 네 잘 낫느니 내 잘 낫느니 인기다툼 말고요
시방시체³⁸⁴) 은전깎쪽이³⁸⁵) 제일 잘 낫네
24. 임자 당신 나하고 살기 싫으면 민적초본³⁸⁶)을 갈라요
산수갑산 썩드러가 막걸리 장사합시다
25. 부뚜막 뒤에다 철길을 놓코
시아버님 진지상을 발끝으로만 미누나³⁸⁷)
26. 한치뿔산에 곤두래 딱지귀 나지미 맛만 같으면
그것만 뜨더 먹어도 봄 사러 가네
27. 일본 동경을 갈러니나 노자돈 생각이나구요

380) 짧은 여자.

381) 버드나무.

382) 잘 모르겠다.

383) 거칠게 짠 짚세기.

384) 요즈음 시대.

385) 일제 시대의 오 전 이상짜리 동전. 이 동전들은 동전 둘레가 갈쭉갈쭉하게 선이 그려져 있다.

386) 호적.

387)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성이 없다는 뜻이다.

남의 여자를 보라니 매 마즐 생각이 난다

28. 심심산천에 참매미 소리 내가 듣기 좋고
늪은 과부 한숨 소리는 내가 듣기 싫어
29. 울타리 밑에다 임 세워 놓고
호박잎이 난출 난출에 임 감춰져요
30. 시발 택시야 딸딸 굴러서 신장으로 북판에 놓고
총각 낭군이 가자고 할 때 왜 못 따라 갔나
31. 우럭죽박에 능라삼팔로 나를 감지 말고
대장부 긴긴 팔로 나를 감어줘요
32. 물 분 기러기 꽃 본 나비야 탐화봉접인데
나비가 꽃을 보고서 거저 갈소나
33. 천지지간 만물지중은 다 잘 마련했건만
청춘홍안 백발이 되는 건 누가 마련했나
34. 옥억뿔 얼룩암소에 정이나 들었오
손익은 연자방아도 정이나 들었오
35. 저 달 보세요 저길 보세요 저 달 저길 보세요
임하고 같이 가려고 뒤떠러졌네³⁸⁸⁾
36. 어스럼 달밤에 귀뚜라미 소리는
정드신 님 우리 랑군 소식이더냐

388) 옆 동네에 사는 홍금옥이 부르는 노래다.

37. 문전옥답의 요지전답³⁸⁹⁾을 왜 다 버리구서
 쓸쓸한 북만으로 무얼 하러 왔나
38. 보리방아 보리개떡에 인정이 오고
 뒤집의 큰애기 솜씨가 나는 좋아요³⁹⁰⁾
39. 삼밭에 수삼대는 늙고 늙더라도³⁹¹⁾
 우리집의 정드신 남은 늙지를 마오
40.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분수정망 없는데³⁹²⁾
 맨두라미 줄봉승어는 왜 심어 냈나³⁹³⁾
41. 허공중천에 높이 뜬 달은 님의 얼굴이련만
 독수공방 외로운 이 심정 너는 알고 있느냐
42. 허공중천에 높이 뜬 거슨 반도래매³⁹⁴⁾요
 우편국에 딱 떠러진 거슨 정드신 남에 소식
43. 인천 항구야 월미도에는 군함이나 뗏는데
 임자 당신³⁹⁵⁾의 술잔에는 불로초가 떴구나
44. 간다 못 간다 버리지 말고

389) 좋은 전답.

390)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391) 수삼대는 씨가 달리는 삼인데, 가지가 옆으로 많이 나 암삼대와는 달리 꺾질을 벗겨 삼을 삼을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다.

392) 생각이 없다.

393) 시집살이가 힘들어, 언제 집을 나갈지 모른다는 내용이다.

394) '반도래매'는 매의 일종으로, 이북의 청진 지방에서 새끼를 처 거울에 남쪽으로 날아 오는데, 사냥꾼들이 이 매를 잡아 사냥용으로 썼다. 사냥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다.

395) 애인.

인천 항구 배 떠나가드시 뚝 떠나가지³⁹⁶⁾

45. 해 달은 오늘 가면은 내일이면 오지
한 번간 우리 님은 언제나 오나
46.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십퍼 지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47. 산천초목이 프룻프룻에 가시던 님이
백설이 휴날려도 왜 아니 오시나³⁹⁷⁾
48. 산천초목은 한 번 늙어다 한 번 젊어지는데
우리 인생 한 번 젊어질 왜 몰라
49. 우수야 경첩에는 대동강이 풀리고
임자 당신의 손이 간³⁹⁸⁾ 데는 내 속이 환히 풀린다
50. 만첩청산의 참매미 소리는 나는 듯기 좋아
어린 가장 잔삭달³⁹⁹⁾ 소리는 나는 듯기 싫어
51. 산천초목의 물과 유지도 임자가 있는데
임자 당신은 무얼로 생겨서 임자가 없나
52. 명사십리가 아니라면 해당화는 왜 피고
모춘삼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울어⁴⁰⁰⁾

396) 가려면 빨리 가라고 하는 내용이다.

397) 돈 벌러 갔던 임이 아니 오니까, 부르는 소리다.

398) 안아 주다.

399) 잔삭달은 소나무의 죽은 가지로, 잔삭달 소리는 그 소나무 가지가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쓸데없는 잔소리를 뜻한다.

400) 연인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53.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저의 분복이요
어린 실랑 만난 것은 중매장이 탓이라
54. 저 건너 갈비봉(401)에 비 오나마나
어린 신랑을 데리고서 잠 자나마나
55. 참나물 모시대 쓰러진 골로
우리네 삼 동서 보나물이나 가세
56. 일강능 이춘천 삼원주인데
놀이 좋고야 물색 좋키는 횡성읍내로다
57. 국화꽃이 곱다 해도 춘추 단절(402)이요
이 내 얼굴이 곱다 해도 이팔 청춘일세
58. 물 분 기러기 꽃 본 나비는 탐화봉접 아니나
나비가 꽃을 보고서 거저 갈소나
59.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싸리굴 익은 동박이 다 떠러진다
60. 동산에 달 뜨기 전에 남은 일 다 하고
성황당 습 속으로 임마중 가세(403)
61. 이 방아 찌어 놓고 시집을 가라네
우리 어머니 그 성화에 나는 못 사리로다(404)

401) 바위만 있는 산.

402) 계절이 짧다.

403) 민속 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창작한 노래다.

62. 어러리 고개에다 주막집을 짓고
가는 손님 오시는 손님들 쉬어나 가지
63. 우리집 서방님은 가리파재⁴⁰⁵⁾ 철길 닦으러 갔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도 왜 아니 오나⁴⁰⁶⁾
64. 우리집의 서방님은 원주 현창⁴⁰⁷⁾ 나루에 소금 받으러 갔는데
일 년 열두 달 다 지나도 왜 아니 오나⁴⁰⁸⁾
65. 갈철⁴⁰⁹⁾ 인지나 봄철인지나 나는 몰렷더니
뫼동산 향화춘절이 날 알려 주네⁴¹⁰⁾
66. 한 길 두 길 세 길 네 길 열 길 물 속은 아려도
사람의 마음 속은 나는 진정 모르네
67. 네가 잘 낫나 내가 잘 낫나 인물다툼 말고요
타관 객지에 떠도는 나를 팔세를 마오
68. 눈이 올래나 비가 올래나 역수장마 질래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⁴¹¹⁾ 막 모여드네⁴¹²⁾

404) 민속 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창작한 노래다.

405) 원주에서 체천으로 넘어가는 재.

406)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407) 문막에 있는 나루.

408)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409) 갈령 철이 아니라 가을철이라는 의미다.

410)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의 흐름을 몰랐다.

411) 검은 구름이.

412) 비가 오려고 한다. * 필자가 고려 말의 상황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69. 노랑 대가리 얼키설키에 뒤범벅 상투
언제나 저 사람 길러서 내 낭군 삼나
70. 여봐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마라
삼년만 기다리면 네 남편 된다⁴¹³⁾
71. 노랑 저고리 다홍 치마를 받고 싶어 받았오
우리 아버지 말 한 마디에 울며 불며 받았오
72. 울타리를 꺾으면 나오신다드니
행랑채를 다 뜨더라도 왜 아니 오나
73.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마라
알뜰한 이내 청춘이 다 늙어간다
74. 세월이 갈려거든 너 혼자나 가지
꽃다운 이내 청춘을 왜 대리고 가나
75. 십오야 달밤에 꾸뜨라미 소리는
성벽 싸러간 우리 낭군의 소식이드냐⁴¹⁴⁾
76. 도랑가시에 거므노리는 무슨 죄가 많아서
큰 아기 손 끝에 칼침을 맞나
77. 한치 뒷산에 곤두래 딱지기 나지미 맛만 같으면
병자년 그 흉년에 봄 사러 가지
78. 울타리 밑에 저기 저 풀 비는 총각

413) 바로 위의 각편에 응대하는 소리다.

414)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해 창작한 노래다.

눈치나 있거던 떡 받아 먹게

79. 무주공산에 머루 다래는 임자가 없는데
나 갖은 인생은 무얼로 생겨서 임자가 없나
80. 산이나 높아야 골이나 깊지
조그만 여자 속이야 더 할 말 있나
81. 진수성찬에 만반지수를 차려놓고서 오시려면 오시나
거므같은⁴¹⁵⁾ 나 하나 바래고 나 여기 왔네
82. 무정한 자동차야 날 실어다 놓고
환고향시킬⁴¹⁶⁾ 줄은 왜 몰라 주나⁴¹⁷⁾
83. 저 건너 갈비봉⁴¹⁸⁾에는 비 오나마나
어린 가장 데리고서 잠 자나마나
84. 무정유정은 정 드릴 탓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중매장이 탓이라
85. 달롱⁴¹⁹⁾ 아제야 실농⁴²⁰⁾ 조카야 물구지⁴²¹⁾나 동세⁴²²⁾
흥 아주머니⁴²³⁾ 싱글벙글 웃어라 잇속만 보자⁴²⁴⁾

415) 바르고 불품이 없다.

416) 친정 집으로 돌아가다.

417) 시집을 가면, 친정에 돌아가기 어렵다.

418) 산이 뽕족해 비가 와서 금방 흘러내리는 봉우리.

419) 달래.

420) 나물 이름이지만, 어떤 나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421) 개울가에 있는 나물.

422) 아제, 조카, 동서를 왜 달롱, 실농, 물고지에 빗냈는지 모른다.

423) 흥이 난 아주머니.

424) 미인의 조건에는 삼흑과 삼백이 있다. '삼흑' 은 머리, 눈동자, 눈썹이 검은 것을 말하고, '삼백' 은 안구, 이빨, 손이 흰 것을 말한다.

86. 술 잘 먹고 돈 잘 쓸 적에 금수강산이더니
돈 떨어지고 돈 못 쓰니 적막강산이라
87. 개울이 좋아서 개울가로 갔더니
시누의 남편도 돌베개를 비라네
88. 청실홍실 놀인 가장⁴²⁵)은 법으로나 살구요
오다가다 만나면은 정으로나 산다
89. 내가 가든지 임자가 있든지 무스네 야단이 나아지
시시 애정스러워 나는 못 사리라
90. 삼사월 양지쪽에 원추리라는 풀은 포름포름한데
금강산 절 구경가기가 점점 늦어진다⁴²⁶)
91. 도랑가색이 까도지⁴²⁷) 딱지기⁴²⁸) 무스네 죄를 짓는지
분질같은⁴²⁹) 큰아기 손 끝에 칼침을 맞나
92. 우편수 배달부 아저씨 발병이나 났는지
정드신 님 문안편지가 무소식이로다
93. 당신이 나 알기를 흑사리 껌질로 아러도
나는다 당신 알기를 공산명월로 알아요
94. 당신은 나를 보면은 본 척 만 척 하여도

425) 정식 결혼한 남편.

426) 삶이 여러 가지로 바쁘다.

427) 무슨 나물인지 모른다.

428) '까도지' 나 '딱지기' 는 나물 이름이다.

429) 예쁜.

나는야 당신 보면은 입맛이 변해진다

95. 당신같이 매정한데다 정을 두느니
멧가루⁴³⁰⁾ 콩콩에 콩속이나 넣지
96. 당신이 잘 낫나 내가 잘 낫나 인물다툼 말고요
양지화 수염 텃석부리가 제일 좋아요
97. 삼찬⁴³¹⁾ 령⁴³²⁾ 말레⁴³³⁾ 선질꾼⁴³⁴⁾이 떴는데
노루목⁴³⁵⁾ 땡땡 갈보야 술아 걸러 네거라
98. 오이밭에 원수는 고슴도치⁴³⁶⁾가 원수요
본당자⁴³⁷⁾마다는 것은 전화줄이 원수라
99. 앞남산 칠쭉꽃은 우구나 불긋
정드신 님 얼굴은 여전두 하구나⁴³⁸⁾
100. 요놈의 총각아 치마폭을 놓아라
물명지 당사실로다 주름 잡은 게 콩 튀듯 한다
101. 정선읍내야 일백육십 호 다 잠 드리주게
콩지갈보⁴³⁹⁾를 옆에 끼고서 성마령⁴⁴⁰⁾ 남자

430) 메밀 가루.

431) 어느 지역인지 잘 모름.

432) 큰 고개.

433) 꼭대기에.

434) 돈을 받고 짐을 날라주는 사람.

435) 어디인지 모름.

436) 고슴도치가 있으면, 참외, 호박, 오이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한다.

437) 여자. 본당자(남자)라고 불려도 된다.

438) 여전히 예쁘다.

439) 시집 안 간 갈보. 6·25 동란 뒤에 갈보들이 많이 생겼다. 갈보들은 술집에서 술 시중을 들고 몸을 팔기도 한다. 갈보가 있는 술집의 술값은 갈보가 없는 주막의 술값보다 2배 정

102.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짜리골 올동박이 다 떠러진다⁴⁴¹⁾
103. 바람아 광풍아 니가 불지마라
 머리 곱게야 단장헨 것이 다 헐크리진다
104. 이삼사월에 진진 해에 즘심은 굵으른 굵어도
 동지나 선달 진진 밤에 임 없이 못 살어
105. 우수야 경첩에 대동강이 풀리고
 요내 기슴 속단풍은야 시시로 찾아든다
106. 산이나 높고 높아야 골이나 깊지
 조그만 여자 속이야 깊을 수가 있나
107. 한 잔 두 잔 맡어다 파는 술 무슨 이문이 있겠오
 여러 손님들 잡순 대로 현금 착착 내셔요
108. 못 하는 아라리를 자꾸 하라고 하시니
 여러분의 대접조로만 한 마디 합니다
109. 오뉴월에나 나는 풀은야 삼재팔난을 적는데⁴⁴²⁾
 우리 인생은 한세상 사는 거 무슨 결단을 못 적나

도 비싸다. ‘들병장수’ 는 병에 술을 담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여자로 술을 팔며 몸을 팔기도 하는데, 그는 주막의 술값에 비해 2배 정도 비싸게 판다. 우천면 정금리에는 제비처럼 얹삽하게 생긴 ‘제비 갈보’, 땡비처럼 쏘아대는 ‘땡비 갈보’, 목이 긴 ‘황새 갈보’ 라는 별명이 붙은 갈보들이 있었다.

440) 정선에 있는 고개 이름.

441) 강을 건너 동박을 따라 가고자 한다. 동박을 따 기름을 짜기 위해서다.

442) * 옛날에는 ‘험한 자연 재해를 겪는다’ 고 해석을 했는데, ‘풀이 퇴비로 잘린다’ 고 해석을 하기도 했다.

110. 아주까리 줄동백아 눈눈이 열이라
산천에 큰애기들이 줄난봉 난다⁴⁴³⁾
111. 앞남산 빼꾸기는야 세 살 적부텀 울더니
연년이 때가 되니 잘도 와서 운다⁴⁴⁴⁾
112. 잔돈푼이 아쉬워서 목장사를 갔더니
동네의 초군⁴⁴⁵⁾들이 목갈보라고 하네
113. 갈보도 아닌 거시 갈보인 척 하고
손목만 잡어도 돈 달라고 하네
114. 진수성찬에 만반진수를 차려놓고서 오시라면 오겠오
거무같은 나를 바래고 나 여기 왔네⁴⁴⁶⁾
115. 어린 아기는 젖을 달라고 발버둥치고 우는데
영감님은 술만 자시고 양산도만 하네
116. 아들딸을 낳라고 산지불공⁴⁴⁷⁾을 말고요
아닌 밤중에 오신 손님을 팔세를 마러라⁴⁴⁸⁾
117. 술 잘 먹구야 돈 잘 쓸 적에 김상복상 하더니
술 못 먹구 돈 떨어지니 개밥에 신세로다

443) 여자들이 아주까리나 동박 기름을 바르고, 바람이 난다.

444)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안다. *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남산 빼꾸기야 초성도 좋다 / 세살적 듣던 목소리 변치도 않았네”

445) 나무꾼.

446) 살도 없고 못생긴 나를 찾아와 고맙다는 내용이다.

447) 산치성.

448)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 성관계를 해 자식을 낳는다는 뜻이다.

118. 꽃치야 꽃은야 곱고 곱다마는
꽃가지가 높고나 높아서 못 꺾겠네⁴⁴⁹⁾
119. 백봉령 굽이굽이에 자동차만 돌고요
요네 가슴 품 안에는 수십만 도네
120. 행주초마 착착 접어서 옆에다 끼고서
총각낭군이 가자고 할 적에 왜 못 따라 갔나
121. 우리 님의 품안이야 얼마나 좋은지
밥 먹다가 깜짝하여도 꿈에 선몽하네
122. 네 날 집세기 육날 미투리 신돌매⁴⁵⁰⁾ 짚끈 매구선
문경 새재 콩지갈보에 접부치러 가네
123. 숙세베 도랑초마를 내가 입었을망정
여기 앓은 아저씨들은 내 눈 알로 돈다
124. 너는 날 안구 나는 널 안구 단들이 꼭 ㄱ안구서
낙연폭포 돌 굴드시 달달 굴러 보세
125. 여보세요 당신아 야속도 하지
가짜 한 자 모르는 내게 문안편지 왜 쓰나
126. 설개바우⁴⁵¹⁾ 노랑 차조밭 어느 누가 매 주나
비 오고 날 개는 날이면 단들이 매러 갑시다

449) 여자가 도도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450) 짚세기를 밭에 묶는 끈.

451) 지명인 것 같은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127.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면 가자구 하더니
온 산천이 어우러저도 가잔 말이 없네
128. 삼베질쌈을 못 한다고 날 가라문 가지요
아사 양궤연⁴⁵²⁾ 막걸리 안 먹구 나 못 사리로다
129. 앞남산 딱따구리는 생 난구⁴⁵³⁾ 구멍두 파는데
우리집 저 멧텅구리는 뚫어진 구멍도 못 파나
130. 꿀두바우⁴⁵⁴⁾ 중석허가 연년이 다달이 나는데
과부에 잡자리 허기는 왜 아니 나나
131. 동박나무 꺾는 소리는 와지끈지끈 나는데⁴⁵⁵⁾
멀구덤불이 넘풀넘풀에 임 못 보겠네
132. 천지야 운기로 눈비가 오면 땅이 녹는 법이요
가셨던 님이 되돌아 올라면 내 몸 산란하네
133. 눈깔 사탕을 입에 물면 세밀⁴⁵⁶⁾이 살살 녹구요
참나무 장작에 매 마즈면 눈알이 팽팽 돈다⁴⁵⁷⁾
134. 울타리 밑에다 호박줄로다 전화를 놓고
애호박 뚱판지 조화로 임 소식 듣네

452) 일제 시대 때의 담배 이름.

453) 나무.

454) 영월군 상동에 있는 지명 이름.

455) 남자가 온다는 뜻이다.

456) 허 밀.

457) 연애를 하다 매를 맞는다.

135. 오양목 석자 없애졌다고 집안이 떨렸는데
 눈치 없는 저 님이야 새 보선 친구 왔네
136. 미창⁴⁵⁸⁾ 아래쪽 서천 명월⁴⁵⁹⁾아 술 가득 부어라
 오복수 돈 지갑에 돈 쫓아진다
137. 아침 저녁 돌아가는 구름은 산 끝에서 자는데
 예화 이제 흐르는 물은 돌부리에서 온다
138. 삼신산에 불로초도 풀이라면 풀이요
 하루밤을 자고 가도 임이라면 임이지
139. 임자 당신 내 집에 왔다가 겨냥 간 것 같어도
 삼흔칠백 맑은 정신은 뒤따라 가요
140. 월미봉 살구나무는 고목이 덜컥 진다면
 오는 새 그 나비도 되도록 간다⁴⁶⁰⁾
141. 마당 웃전에 수삼대는 늙고 늙더라도
 우리집 서방님은 늙지를 마세요
142. 중천에 높이 뜬 달이 우연히 비쳐
 대장부 애간장을 신란하게 한다
143. 문고리를 잡고서 떨지를 말구
 본남편이 집에 없으니 썩 들어오세요

458) 창문.

459) 기생의 이름인 것 같다.

460) 나무가 썩으니, 나비와 새가 오지 않는다.

144. 오늘 갈는지 내일 간다지 베르지를 말고
만경청과의 배 떠나드시 뚝 떠나가게
145. 유정무정은 정들일 탓이요
정 들이고 못 사는 것은 화류계 여자로다
146. 태기산 말랑⁴⁶¹)에 곤드레 딱지가 나지미⁴⁶²) 맛만 같으면
병자년 승년에도 봄 사러 가지
147. 울타리 밑에야 켁켁 짓는 저 몯쓸 놈의 개야
압남산 개굴가지⁴⁶³)가 꼭 물어 가라
148. 보구레⁴⁶⁴) 연광기⁴⁶⁵) 달라 하면은 남이나 빌려 줬다지
번연히 알구야 달라는 것 안 줄 수 있나
149. 밀창문이 딸각딸각해 임 오시는 줄 아렸더니
고너메 골방쥐⁴⁶⁶)가 나를 속였구나
150. 막걸리 육백늑 잔에 십이 원 팔 전 하여도
주모 한 잔 못 주고 내가 다 먹얼네
151. 세상천지야 만물지중은 잘 마련했건만
청춘과부 수절하는 건 잘못 마련했네
152. 총각 랑군의 맨두리⁴⁶⁷)가 저만만하면

461) 꼭대기.

462) 정부.

463) 개를 잡아 먹는 호랑이와 비슷한 동물.

464) 쟁기의 명칭인 것 같다.

465) 물레의 명칭인 것 같다.

466) 생쥐보다 작은 쥐.

잠자리 금경에 지속⁴⁶⁸)은 더 할 말 있나

153. 술 아니 먹자고야 맹서질을 하여도
안주 보고 주모 보니 또 생각난다

154. 강냉이 사절치기 불알같은 통녹에⁴⁶⁹ 오골박짜 끝룬데
당신은 어디로 갈려고 버선 신발을 하나⁴⁷⁰)

155. 과일나무나 쓰일 나무는 폭격에 맞아 죽고요
계집년이나 쓸만한 것은 양갈보가 되었네⁴⁷¹)

(2) 역금어러리⁴⁷²)

1. 나메 집의 서방님은 잘 닳던지 못 닳던지

각구 각구 머리 각구 씨구 씨구 모자 쓰고 입고 입고 양복 입고 신고 신
고 구두 신고 차고 차고 시계 차고 넥타이 휘날리고 경성 시내로 화토 하러
갔는데

우리 집의 서방님은 콩밭골로만 케네⁴⁷³)

2. 너나 내나 죽어지면 육진장포 일곱 매끼 자잘끈 동여 매여

사시나무 장강틀에 대추나무 연초대에 밤나무 마구리에 네 귀에 풍경 달고
왕그렁 텅그렁 오호넵차 부르면서 황성 평창 운주 지골⁴⁷⁴) 대화 방림 강릉
읍내 이통천네 수물두 다리를 건너 북망산천 돌고돌아 뜰잔대⁴⁷⁵) 이불 삼고

467) 모양새.

468) 지속하는 시간.

469) 통노구 술.

470) 애인을 만나러 간다.

471) 6:25 뒤에 나온 소리다.

472) '엮음어러리'는 빠른 말로 엮어나가는 것을 이른다.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부르기가 어렵다.

473) 자신의 남편은 변변치 않게 일밖에 모른다.

474) 운주나 지골은 지명 이름.

475) 무덤 뒤에 쌓은 언덕 위에 심은 잔디.

눌잔때⁴⁷⁶⁾ 울타리 삼아 살은 폭폭 썩어서 흙밥이나 될 인생
너머 그릇케 도착같이⁴⁷⁷⁾ 맘 먹지 마러라

3. 한 길 두 길 세 길 네 길 다섯 길 여섯 길 일곱 길 여덟 길 아홉 길 열 길
낭떠러지기에 곤달갈을 부치라면 부쳐도

후원별당에 잠든 큰애기 나는 못 흠치겠네

→ 이 ‘아라리’ 소리는 영월, 평창, 정선 지방의 특색 있는 사투리가 가미하여 부르면, 그 맛이 더더욱 처량하고 감미롭다. 가사는 그 지방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⁴⁷⁸⁾ 맥락은 다 같다고 생각된다.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은 음율이 경쾌하고 박력이 있으며, 이 지역 아리랑 부르기가 힘겹다. 그러나 끝매무새의 소리를 감어 올리는 묘미의 소리는 듣는이로 하여 경이롭게 생각한다. 이 이상의 곡이 더 있으나 주리기로 하고, 황성의 ‘어러리’⁴⁷⁹⁾와 가사가 대동소이한 점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선에 ‘어러리’는 지금 1200곡이 편집되어 있다고 한다. 황성의 ‘어러리’는 현재 800여 곡에 이른다. 비록 차이는 있으나,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러리’나 ‘아라리’가 모두 강원도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다듬어서 우리의 후대에게 밝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사가 해학적이다.

476) 무덤 봉분 위에 심은 잔디.

477) 남과 화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질대로 함.

478) ‘정선 아라리’는 끝부분을 꺾어 넘기며 길게 끌지만, ‘황성 어러리’는 짧게 노래한다.

479) ‘어러리’는 나무 할 제, 모 심을 제, 김 맬 제 부르는 노동요이다. 또한, 머슴들이 밤에 북쪽방에서 놀며 부르는 정요(情謠)이기도 하다.



20회 태기문화제 어러리 경창대회
어린이 특별출현

(3) 어랑타령

1. 어랑타령⁴⁸⁰⁾의 본 고장은 함경도 원산인데
시사시꾸⁴⁸¹⁾ 본조중은 경성 신마찌⁴⁸²⁾로구나

후렴 ① 어랑어랑 어허야 어람마 되어라 니가 내 사랑아
② 어랑어랑 어허야 어람마 덜커덩 이것이 내 사랑아

2. 산수갑산 머루다래는 얼크러설크러 져는데
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크러설크러 질거나

3. 오이밭에 원수는 고슴도치가 원수요
너와 나의 원수는 저기 저 영감이라네

4. 해달은 오늘 가면 내일이면 또 오련만

480) 과거에는 '어랑' 이라고 하지 않았다.

481) 일본말인데, 그 의미는 모른다.

482) 이 곳에는 술집과 갈보들이 많았다.

나는 언제 여길 떠나면 언제 다시 오려나

5. 무심한 비바람은 무정하게도 나리니
부량청진⁴⁸³⁾ 산수갑산을 어이 가잔 말이나
6. 歲月이 가기는 저기 저 물결과 같고요
우리 人生 늙기는 저 바람 같구나
7. 못 살겠네 못 살겠어 나는 못 살겠네
시집살이 너무 실어서 나는 못 살겠네
8. 우수나 경첩에는 대동강이 풀리고
정드신 님 연설에는 내 맘이 줄러지누나⁴⁸⁴⁾
9. 갈라면 갈라면 진작 진작 떠나지
깊은 정을 다 드러놓구선 왜 떠나가나요
10. 내 방문이 덜커덩 유정 님 오신 줄 알았드니
요 못쓸 년의 바람이 아이구 날 속였네
11. 무정한 기차야 왜 날 실어 놓구요
환고양 생길 줄은 왜 몰랐드냐
12. 얼룩덜룩의 두등베게는 날마둥 밤마둥 비지만
하이칼라 긴긴 팔은 어느 때나 또 비나
13. 돌베나무 배꽃은 피고나 피어 만발했는데
너와 나는 언제 피어 내 사랑 피워볼거나

483) 함경도에 있는 지명 이름들.

484) 조여든다.

14. 드리간다 드러가 삼대밭으로 드러가
무삼배⁴⁸⁵⁾ 텃도지는 내가 무러줄게
15. 방실에 방실에 웃는 님을야 내 못 보니야
어제 오늘에 이내 맘에 깊은 수심만 드네
16. 부량청진 가신 님이야 돈이나 별면 오려니와
북망산천 가신 낭군은 왜 아니 오나
17. 첩첩산중에 물은야 돌고 돌아 벽계수가 됐는데
너와 나는 언제 돌아 두 몸이 한 몸 될거나
18. 오동나무 팔모반에 유리야 술잔을 놓고서
오는 사람 가시는 손님들 원이나 푸러 주지
19.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오래 오래 사셔요
젊고 젊은 우리두야 늙지를 마러라
20. 부량청진 큰애기는 기차 타는 게 소원인데
너와 나는 언제 손 잡고 기차 타러나 갈까나
21. 산도나 좋고 물두나 좋은데 그 누가 있어서
단들이 손 잡고 단풍 구경을 갈까나
22. 요놈의 이총각아 내 손목을 노아라
물같은 이내 손목이 잘그러진다

485) 솟삼대.

22. 산수갑산 동박나무야 꽃 피지를 마라
동박 기름 바른 큰애기 줄남봉 난다
23. 산수갑산 부랑청진 큰애기들 말 무려 보자
임이 그러워 죽는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
24. 이부자리를 못 깔고 명석잠에서 자드래도
너와 나가 한 몸이 되어 열시구나 살거나
25. 너덜머덜 명석자리에 베치마를 덮고 자도(살아도)
너와 내가 정만 있으면 왜 못 사러 가나
26. 정이 있고 정이 없는 것은 네 맘 부칠 따름이요
삼칸 초옥이 작긴 작어도 마음 먹게 달렸네
27. 십오야 밝은 저 달은 눈마중에서⁴⁸⁶⁾ 놀구요
정드신 님 그 얼굴은 내 맘 속에서 논다
28. 구구구 저 비둘기야 너 그리 울지를 말구요
님을 잃은 상사일몽에 맘 산란하다

→ ‘어랑타령’은 함경남북도의 대표적인 소리인데, 이 고장에서도 많이 애창되고 있다. 가사가 조금 음시적인⁴⁸⁷⁾ 면모가 있으나 해학적인 요소가 많다. 그리고 당시의 민족 풍속의 환경이 이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 든다. 한 예로

29. 지근재근이 놀러도 삼팔⁴⁸⁸⁾ 예수건이 져는데

486) 눈동자 안에서.

487) 음란스러운.

488) 보드라운 옷감의 이름.

너는 언제 나를 만나 지근재근이 놀러 줄거나

30. 어린 가장 팔에 누이고 잠 자는 것은 잠자나마나 하구요
정든 님과 잠을 자니 뼈골이 살살 녹는다

31. 요너머 총각아 멀구다래 나무 속으로 드러라
동서남북 다 안 보이니 여기가 안방이구나

→ 가사의 내용이 해학적인 면도 있고, 음적인 가사 내용도 포함은 되어
있어도 그 시대의 흐름을 엿지 지금에 이르러 비판할 수 있으랴.

(4) 딸딸

성님 성님 우리 성님
딸 낳았다 우지 마오
딸딸 딸딸 딸딸 또딸
왜 아니 울겠는가
삼태 칠성 발원하고
삼신 전에 기원하고
동해 용왕 서해 용궁
밤 중이면 새암 떠다
토주 전에 비었는데
정승이 부족하여
산신님이 노하시었나
내년 이맘 도라 오면
아들 다시 낳을끼여

→ 이 소리는 남존여비적 유교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의 한 서
린 소리이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에 해당된다⁴⁸⁹⁾. 조상의 대가
끈긴다는 옛 할머니들이 말한 말이 있다. “씻 속에 씻도 많타.” 며느리를

489) 과거에는 딸을 연속으로 둘만 낳아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된다.

구박하던 옥이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묵묵히 시집사리를 하였다.

(5) 四寸兄任

성님성님 사춘성님
시집살이 어떻든가
동상동상 사춘동상
시집살이 말도마라
부엌이라고 들어가니
거미줄이 우롱주롱
쌀독이라고 들여다보니
거무줄이 우롱주롱
밤새도록 울고나니
행지초마 열닷죽이
눈물코물 다쳐졌네
분짚같은 요내손이
북두깎구리(490)가 다되었네
삼단같은 요내머리
돼지꼬리 다되었네

→ 고단한 시집사리 신세를 한탄한 소리로서 四寸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못사는 집에 시집 가면 먹는 게 문제이요, 좀 사는 집에 시집 가면 일이 문제였다.

① 성님오네

성님오네 성님오네 성님마중 누가가나 성님마중 내가가지
시집살이 어쩔디야 시집살인 좋대마는 말끝마등 눈물일세
눈물코물 행주치마 열다쪽이 다젖었네
시집살인 좋대마는 눈물코물 다흘려서

490) 소죽을 뜨는 갈고리.

시집살이 좋더라고 꼬치보다 더맵더라⁴⁹¹⁾

(6) 訃音謠

하늘잡아	베틀놓고
구름잡아	잉에놓고
잉에대는	삼형제요
눌림대는	독신이라
황경나무	바디집에
대초나무	여러복에
직곡쟁곡	치짜더니
공공개가	공공짓네
문강 ⁴⁹²⁾ 으르	손내몰아 ⁴⁹³⁾
왼손으로	남작받아
두손으로	펴서보니
부모죽은	부고일레
비네빼어	따에꽃고
당기풀어	남게걸고
달이 ⁴⁹⁴⁾ 끌어	폼에폼고
머리풀어	산발하고
한모통이	돌아서니
관짜는소리	귀에쟁쟁
한모통이	돌아서니
아흡형제	우는소리
한모통이	돌아서니
행상소리	귀에쟁쟁
한모통이	돌아서니

491) 횡. [김연순] 나물 뜯으러 다니며 부른 소리다.

492) 문틈.

493) 손을 내서.

494) 이는 ‘달비’ 라고도 하는데, 머리를 푹푹 말아서 올린 머리 모양을 말한다.

수건대 ⁴⁹⁵⁾ 가	앞에섰고
한모퉁이	돌아서니
명진대가	다음섰네
한모퉁이	돌아서니
부모상여	완연하다
상여앞에	가는큰오빠야
상여를뜨락	밭에놓치말고
평지밭에	놓아주오
부모얼굴	다시보세
에리요년	네까짓게자식이나
자식이면	엇그적게
까막까치	짓을적에
와서보지	인제왔나
형님방에	드러가니
설게울음	칫트리고
어머님방에	드러가니
쥐도감감	새도감감
어머니깔던	자리깔고
어머니덥던	이불덥고
어머니베던	비게비고
밤새도록	울고나니
눈물솟아	소이되고
함슴지어	바람되네
우리형님	질삼종대야 ⁴⁹⁶⁾
수건한개	내모르고 ⁴⁹⁷⁾
우리오빠	글종대야

495) 요령의 아래쪽은 파란 색, 노란 색, 까만 색, 빨간 색, 흰 색 천으로 길게 매단다.

496) 길쌈을 잘 한다고 해야.

497) 길쌈으로 만든 수건 하나 내놓지 않을 정도로 인색하다. 과거 부자집은 상두꾼들에게 삼베 두건은 물론 삼베 옷을 해 입혔다.

편지한장 내몰랏네

→ ‘부음요’ 는 가사만 전하여 질 뿐, 그의 내막을 알을 길이 없다. 허나 이 고장의 소리아메는 틀림이 없다.⁴⁹⁸⁾ 예컨대, 동기간의 우애가 없는 것을 말함이며, 부모상을 당한 여식의 한을 달랬던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7) 다복녀

다복다복 다복네야

네어들러 올고가니 우리엄마 찾아가지
네어머니 오마더라 우리어머이 언제와요
살강밑에 삶은팔이 짝이트면 오마더라
살강밑에 삶은팔이 어느천년 짝이나나
귀웅밑에 쇠백다구 살이불음 오마더라
귀웅⁴⁹⁹⁾밑에 쇠백다구 어느천년 살이불나
우리엄마 언제오나⁵⁰⁰⁾

① 다복녀

다복다복 다복네야 네어들러 올고가니 우리엄마 찾아가지
느어머니 오마더라 우리엄마 언제와요
살강밑에 삶은팔이 짝이나면 오마더라
살강밑에 삶은팔이 어느천년 짝이나나
귀웅⁵⁰¹⁾밑에 쇠백다구 살이불음 오마더라
귀웅밑에 쇠백다구 어느천년 살이불노⁵⁰²⁾

498) 어머니의 친구인, 김만준의 어머니와 최이만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부른 것을 듣고 기억했다.

499) [김연순] 소 여물통.

500) 횡. [김연순] 심심할 때 부르거나 밭일등을 하면서 부르기도 한다. [정옥출] 엄마 없는 아이를 할머니가 업고 달래며 부르는 소리다.

501) [정옥출] 디웅. 소 여물통.

502) 횡.

(8) 연잎 댕잎

조개피는	조개가고
장개피는	장개가고 ⁵⁰³⁾
연화로다	연화로다
연화꽃을	꼭어들고
주걱문 ⁵⁰⁴⁾ 을	펼떡여니
어머니는	연잎이요
아버지는	댕잎이요 ⁵⁰⁵⁾
연잎댕잎	다스리지면
어머니도	저승가고
아버지도	저승가고
너의형제	웃찌사나
너의형제	죽거들랑
뒷산에도	묻지말고
앞산에도	묻지말고
고개고개	넘어다가
가시밭에	몰어주게
가지라는	따다먹고
섭흘라는	길렀다가
장인장모	오시거던
오양간에	드려매고
귀따라미	잡아놓고
폭폭살아	주려무나

→ 연잎은 연꽃의 잎을 말함이며, 댕잎은 조리를 만드는 시누대를 일컫는데, 연잎은 물위에 잎을 내밀고, 댕잎은 엄동설한에도 프르름이 싱싱하다. 이 곡 역시 ‘부음요’와 같이 한 맥을 이어나가는 듯하며, 귀따라미

503) 특별한 뜻이 없다.

504) 휘여진 문.

505)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귀뜨라미, 가을에 우는 곤충) 대접할 것이 없는 것을 뜻함이라. 예컨대, 시어머니의 시집사리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⁵⁰⁶⁾

(9) 물래소리

물래야 자세야	비리빙굴 돌아라
물래야 자세야	비리빙굴 돌아라
우리집 서방님	찬 이슬 마즐라
북두성 자로돌아 ⁵⁰⁷⁾	서천을 가르치니
벽공의 떼기러기	찬이슬을 재촉한다
신선한 조석기운	추위가 완연하다
늙으신 우리부모	따뜻하게 하시고
반달같은 개똥이 ⁵⁰⁸⁾	고이고이 길러서
우리가문 영화로세	영화로세
물래야 자세야	비리빙굴 돌아라
물래야 자세야	비리빙굴 돌아라

→ 이 소리는 길쌈하든 촌부의 소리⁵⁰⁹⁾로서 그 맥이 너무도 애조롭다. 내용을 보면, “초년이 공도⁵¹⁰⁾를 뉘라서 아러 주고, 이내 맘에 품은 한을 자식인들 알으랴.” 라는 대목도 있는데, 촌부의 애절한 한이 서려 있는 듯하다.

(10) 베틀가

즈줄개물 치는양은	하늘에서 옥녀씨가
목욕하는 그모양이요	오래기가 끊어지는 양은
십리밖에 살춧대	떨어지는 그모양이요

506) 어머니 세대들이 부른 노래다.

507) 왼쪽으로 기울어 가을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08) 아이들 이름.

509) 직접 노동을 하면서 부른 소리다. 대부분의 민요는 유희요이면서도 노동할 때 부르기도 한다.

510) 바른 길.

경상도 왕거무가	줄루치고 나가는 그 모양이요
눌림대는 호루래비 ⁵¹¹⁾	비개미야 비개미야
만석강에 띄어놓고	눈섭놀이 급는 양은
양귀비가 잔을들고	요대앞에 굽으시는 그 모양이요
배피비단 ⁵¹²⁾ 떨어지는 양은	구시월 시단풍에
떡가랑잎 떨어지는 그 모양이요	도투리마리 뒤집는 양은
만첩청산 벼를 잃고	벼찾아가는 그모양이요
산나무야 산나무야	썩은새끼 목을맸니

→ 이 ‘베틀가’ 는 조금 사실이 다소 천박하나, 베틀가인 것은 불문가지이다.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으나, 부르는 사람의 역양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민요나 농요는 부르기 좋게 이루어진 것이 민요의 특색이다.

① 베틀가 1513)

하늘에 노던선녀	인간에 귀양오니
할일이 전혀없어	우난간에 베틀놓고
베틀다리 네다린데	가로쇠를 지른양은
수만산척 수직이라	분데라 두른양은
말코를 도우잡고	물을친다 자질개는
강태공의 낙시대요	죄수로 주는복을
우수로 밭는양은	떨떨이 황학이요
황학이가 일 ⁵¹⁴⁾ 을품고	배운강에 넘나드는기상이요
최활이라 꿈은양은	남해수루 선무지계
북해수로 놀러논듯	소리좋은 바디집소리
백옥선신 짙은골에	용마우는 소리로다
줄줄이 섰는잉아	七月七夕 견우정자

511) [정옥출] 보통은 ‘독신이요’ 라고 한다. ‘호루래비’ 는 홀애비라는 뜻이다.

512) [정옥출] 무슨 뜻인지 모른다.

513) ‘베틀가’ 는 베를 짜면서 부르지 않고 놀면서 부른다.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들이 부른다.

514) [정옥출] 꾸리.

반공에 솟아올라	잉엣대라 삼형제는
황장군의 심만대가	어리덧이 들리는듯
눈썹노리 디린양은	백조왕의 청천황천
잔을든고 드리는듯	비게미라 오르는양은
순산땅 조자룡이	좌최로 외톨하니
무법산중 다태나무	주어두 허술하라
소리좋은 용두머리	백옥서산 짙은골에
용마우는 소리로다	어허질씩 토투마리
정기산줄 넘어간다	절로굽은 신초리는
가련합사 김자룡이	신끈에라 목을매고
기두강에 넘나드는 기상이요	
뱀뎡이라 뚝는양은	은광주 너른뜰에
선녀들이 나왔어서	엎어지고 자빠칠제
활을썩는 기상이요	어화산뜻 드는칼로
화야산뜻 비어내니	칠년목은 옥추를 찾아들고
쟁이쟁이 재어무니	백대자가 짜였구나
동네방네 으르신네	이내완장 지어줍소
천상에도 선녀로다	지상에도 선녀로다

→ 가로쇠(가로대), 견우정자(견우직녀), 용두머리(베틀 앞다리 위쪽에 있으며 두 개의 다리를 연결하게 눈썹대와 쇠꼬리를 끼우게 된 나무). 이 밖에 각주가 달리지 않은 베틀 각 부의 설명은 베틀 노래를 참조할 것. 베틀가는 그 고장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베틀 형태로 노래한 것은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놔 동남간에다 베틀을 놔.” 이러한 첫머리 가사로 이어지는 대목도 있으나, 잉엣대, 바디, 북 모든 것은 별 차이가 없으나, 가사 내용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 베틀가는 황성의 전해지는 베틀가이다.

② 베틀가 2515)

베틀농세 베틀농세	지하지궁 베틀농세
다방다방 다박녀야	행기초매 들쳐입고
다박머리 들쳐엿고	베가심을 내어보세
베가심을 내어보세	부태를 두른양은
허리에엿겨 둘러놓고	바디집을 치는양은
좁은골에 벼락치는양이요	희발이나 꺾는양은
남해남산 부경씨로	무지개발 돌아가는 그모양이요
북이나 드나드는양은	이양동아양 아기알을 품구
묘향강에 모옥하루	드나드는 그모양이요

③ 베틀가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난간에 베틀노세
 밤에짜면 야광단이요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수심만지네⁵¹⁶⁾

(11) 새(鳥)소리

휘양중천에 봉황새	춤추는 무당새
종금종금 종금새	만수목년 ⁵¹⁷⁾ 풍년새
황금갑옷 떨쳐입고	양유간을 넘나든다
황금같은 피꼬리는	가지끝에 집을짓고
두견접동 슬피우니	이에간장 다녹는다
심심계곡 딱다구리	꼬리갑작 할미새가
넘부르는 재악소리	앵무공작 놀래듯고
긴나래를 펼적퍼니	그위용 일품이라
젊어서도 과부새	늙어서도 구구새

515) 이 ‘베틀가’ 는 옛날에 나온 노래이다. “베 짜는 아가씨 수심만 지나나” 라는 구절의 ‘베틀가’ 는 최근에 나온 노래다.

516) 황.

517) ‘목년’ 은 ‘목은 해’ 라는 뜻이다.

너두먹자 부형새 ⁵¹⁸⁾	다리밑에 굴뚝새
어리석은 때까치요 ⁵¹⁹⁾	부모은공 까마귀요
부부유별 기러기네	까투리들 꿈도함께노니
부랑칭진 참매들이 ⁵²⁰⁾	부웅시웅 다모였도다
삐꾸새는 오지마라	오륜삼강 네모르니
조왕전에 같이가라	목이긴 황새백로
입이넙적 주걱새도	어서빨리 오려무나
뜸북뜸북 뜸북이는	꼬리없어 못오는가
꼬리없는 과랑새도	먼저자리 잡었거늘
박새술새참새 느릅지기	인의용신 장담까지
조석으로 우는까지	옛집에 찾아오고
이새저새 온갖잡새	모일대로 다모였네
어제밤에 어는메서	나래모아 잠을잡나
고양맹방 돌아들어	칠성방 ⁵²¹⁾ 에 자고왔지
그방치장 어떻게뇨	분을사서 암벽하고
연지사서 도베하고	무슨자리 깔었드냐
사명석을 펼쳤드라	무슨밥을 해주드냐
앵두같은 팔을삶고	웁씨같은 전니밥에
무슨식게 담었드냐	수박식게 ⁵²²⁾ 담었드라
무슨간을 해주드냐	양지쪽에 양고사리
음지쪽에 음고사리	한푼두푼 돛나물에
쭉쭉뿔아 참나물에	삼년묵은 더덕채를
요모조모 찢었드라	무슨반을 놓았드냐
요모조모 팔모반에	은구슬로 재개놓고 ⁵²³⁾

518) '부엉이흥내내는소리' 와 관련이 있다.

519) 때까치는 다른 새의 알을 자신의 알인 줄 알고 기른다.

520) 참매는 함경도에서 날아와 겨울을 난 뒤 봄에 다시 돌아가는 철새다. 이 새를 잡아 길러 매사냥에 사용한다.

521) 죽음과 관련이 있다.

522) 수박의 안을 파 먹고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523) 다져 놓고.

무슨이불 덮었더니	무자비단 ⁵²⁴) 한이불을
허리만치 걸쳤더라	무슨베게 놓았드뇨
원앙금침 잡베게를	머리만치 던져놓고
셋별같은 낫요강은	발채만침 떼졌더라
관제수제 ⁵²⁵) 다놓으니	이만하면 만족하이
까들비단 나래새야	일타천리 만리새야

→ ‘새소리’ 는 시골 초부들이 불렀으며, 특히 처녀들이 애창하였다고 한다.⁵²⁶ 과년한 처녀가 시집을 가기 전에 준비물과 새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소리가 더 있다고 하는데, 없어진 것이 아쉽다. 그러나 이것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못내 반갑다. 시집가기 전에 처녀들은 침수 한담 진상진열 등등을 배우고 익힌다. 이것이 시집사리의 기초라고 알았으니, 시집사리의 고단함을 알 만하다.

(12) 똥구랑뎡

얼사좋타 잘 넘어간다 동구랑뎡으로 돌려라
 거무란 놈은 역기를 잘해니 적쇠장사로 돌려라
 동그랑뎡 얼사 좋다 잘 넘어간다 동그랑뎡으로 돌려라

황새란 놈은 다리가 길어 우편수 배달로 돌려라
 동그랑뎡 동그랑뎡 얼싸 좋다 잘 넘어간다 동그랑뎡으로 돌려라

노루란 놈은 뛰기를 잘 하니 마라톤 선수로 돌려라

524) 비단 이름.

525) 官에서 만든 수저.

526) 이 ‘새타령’ 은 강릉에서 이사 온 촌부에게 배웠다. 이 ‘새타령’ 은 기생이 부르지 않는다. 기생은 단가, 서도 민요, 남도 민요, 경기 잡가 등을 부른다.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에는 산전리에 광산이 있는 관계로 술집이 많았고, 기생이 있는 ‘옥’ 이나 ‘정’ 도 여러 군데에 있었다. 갈보들이 있는 술집에서는 술가락으로 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지만, 옥에서는 장구를 치며 소리를 한다. 옥에서 술을 먹으려면, 하루 저녁에 쌀 두세 가마니 정도는 들었다. 30살 정도에 평양 권번 출신인 이옥진으로부터 서도 소리인 ‘공명가’ 를 배웠고, 서울 권번 출신인 정옥화로부터 단가를 배웠다.

동구랑땡 동구랑땡 얼사 좋타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으로 돌려라

체비란 놈은 맏시가 좋으니 평양 기생으로 돌려라
동그랑땡 동그랑땡 얼사 좋타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으로 돌려라

딱따구리는 파기를 잘 하니 나막신 장사로 돌려라
동구랑땡 동구랑땡 얼사 좋타 잘 넘어간다 동그랑땡으로 돌려라

수탉 한 놈은 울기를 잘하니 방송국 가수로 돌려라
동구랑땡 동구랑땡 얼사 좋타 잘 넘어간다 동구랑땡으로 돌려라

(13) 군밤타령

에헤야 군밤아

돈지⁵²⁷⁾ 돈지 도돈지 여리고 설살문 밤이나 군밤아

저 건네 저 집의 늙은이 이 근네 이 집에 늙은이

요 집 저 집 두 늙은이가 노파람 비비다⁵²⁸⁾ 곤건드러⁵²⁹⁾ 젓구나 군밤아

저 건네 저 집의 고양이 이 건네 이 집의 고양이

요 집 저 집 두 고양이가 고약취 한 마리 물어다 놓구서 곤건드러 젓구나 군
밤아

에헤야 군밤아

돈지 돈지 도돈지 여리고 설살문 밤이나 군밤아

저 건너 저 집의 총각 이 근네 이 집의 총각

요 집 저 집 두 총각이 처녀 하나를 업어다 놓구선 곤건더러 젓구나 군밤아

에헤야 군밤아

527) 무슨 뜻인지 모른다.

528) 지직을 짜기 위해 노를 꼬다.

529) 피곤해 떨어지다.

돈지 돈지 도돈지 여리고 설살문 밤이나 군밤아
저 건너 저 집 과부 이 건너 이 집의 과부
요 집 저 집 두 과부가 흠아비 하나를 업어다 놓구서 곤건드러 짓구나 군밤
아
에헤이야 군밤아 돈지 돈지 도돈지 여리고 설살문 밤이나 군밤아

→ ‘동구랑뎡 소리’ 와 ‘군밤타령’ 은 우리의 멋과 해학이 스며 있는 듯
하여 더더욱 애착이 느껴지며 반가운 소리이다. 정요나 민요보다도 더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군밤타령’ 과 ‘동그랑뎡’ 말고 또한 더 있으려니와,
이 지방에선 두 곡만이 구전되고 있다.

(14) 처음 유행가⁵³⁰⁾

북악산 까마까치는 피악피악 울고요
정든 님 병환은 점점 깊어간다

(15) 단가⁵³¹⁾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사리 이만하면 만족하지
에에라 만수

저 건너 잔술밭에 살살기는 저포수야
그 비둘기 잡지마라 그 비둘기도 나와 같이
간밤에 님을 잃고 님을 찾아 나라드느냐
에라 만수

(16) 단가 별곡⁵³²⁾

한송정 술을비어 조그맣게 배를저어

530) 이 노래가 유행가로 처음 나온 것이다.

531) 아래의 두 노래는 황성군 청일면에 있는 강원민속관에 써 있는 것을 베껴 왔다.

532) ‘단가 별곡’ 은 부르기 어렵다.

한강수에 띄어놓고	장안에 기생
일등명창 각각이며	술안주 가득실고 ⁵³³⁾
등등~~~~등	뱃노리 가자
앞산에 섰든산도	술렁술렁 뒤로간다
동자야 배져어라	강릉경포대로 뱃노리가자

(17) 노랫가락

울도담도	없는집에
명주짜는	저처녀야
누구의간장을	녹일려고
네그리	잘낳느냐

물래라면	자아내고
고기라면	뉘아내지
뉘지도갓지도	못할형편이
대장부애간장	다녹인다

해는지고	저문날에
옷갓을메고	어데가오
첩에집에	가시려거던
이내말한마디	듯고가요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꽃과나비	봄한철이요
연못에궁봉어	사시사철

→ 이 두 곡의 정요는 대조적이다. 첫번째 가시는 처녀를 그리다 처녀를

533) * 2006년 1월 11일에 다시 부를 때에는 이 구절 뒤에 '북장구 피리젓대 넉지시 실고' 라는 구절을 더 붙였다. 이 노래는 서울 권번 출신인 정옥화에게서 배웠다.

사모하는 소리이고, 밑의 곡은 부인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첩에 집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또한 남편의 외도를 잠재우기 위한 소리이다. 남녀의 대조가 이루는 듯하다.

밤에오고	밤에간손님이
어느고을	누군줄아니
저문앞저버들	나무에다
이름성명	스고가지 ⁵³⁴⁾

연못속에	금붕어는
꼬리치고	노니는데
석대위에	미륵불은
너만홀로	외롭구나

청배나무 ⁵³⁵⁾	소년쪽에
오만새가	다오더니
그배나무	고목되니
눈먼새도	아니오네

집에다반초 ⁵³⁶⁾	심으지마라
반초압에	물치는소리 ⁵³⁷⁾
없는낭군	발자취소리
귀에쟁쟁	어리워서라

가신다지	못간다지야
얼마나	올었나

534) 술집에서 정을 통한 남자의 이름도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35) 푸르스름한 배. 병처럼 생긴 모양의 ‘병배’ 도 있다.
 536) 이파리가 넓은 꽃.
 537) 물 떨어지는 소리.

송정암 ⁵³⁸⁾ 한강수가	나루터가 되었네
국화매화가 춘추단절 여자일색이 삼십미만	곱고고와도 아니냐 네아무리고와도 이로다
오라버니 명년에나 검동송아지 날시집	장가는 가시고요 톡톡팔아서 보내주
앞남산에 구시월로 이내가슴 시시때때로	피나무단풍은 들고요 속단풍은 든다
해달도삼재 ⁵³⁹⁾ 가 일식월식이 정든님 안변할수	든다면 있는데 만절이라도 있나요
시집가고 홀기는 둘이서 백년해로	장가갈적에 왜불러 정만깊으면 하지

538)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539) 三災.

어린가장 품에안고서
잠자는것은 잠자나마나
노랑대가리 인제길러서
내낭군을 삼느냐

정선읍내 물은동천⁵⁴⁰⁾에 금방이는
열에열두 공이를 다사용하는데
우리집의 멩텅구리는
한공이 사용도 강목을치네⁵⁴¹⁾

우리어머니 나를길러서
한양서울로 준댓조
한양서울은 못줄망정
골라골라 주세요

꽃본나비아 물본기러기
탐화봉접 아니냐
나비가 꽃을보고서
기냥 갈수있나요

→ 이 정요는 처녀가 총각을 그리워 또한 홀아비가 과부를 그리워서 즉흥적으로 불렀던 것인데, 가사의 내용이 다재다능하다. 그러면 이 분들이 글이 유식하고 문장필법이 많아서 가사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전하는 정요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곡 써 보고저 한다.

개구리란놈이 뛰는것은 멀리가자는 뜻이요
이내몸이 옷는것은 정들자는 뜻인데

540) 지명 이름.

541) 사용하지 못하고 가만히 쉰다.

이 얼마나 해학적이며 다정다감한가를 엿볼 수 있지 않는가. 민요도 중요하지만 정요도 한 시대를 주름잡고 있으며 중요한 연가인 것이다. 애정의 묘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가사는 드물다. 이것이 인적이 드물고 멀리 산과 산이 가로 노여 고독을 달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놈의 총각아 못하러왔니
숫돌이 좋아서 낫갈러왔다
요놈의 계집아 못하러왔니
절구가 좋아서 방아찌러왔다

(18) 꽃打令⁵⁴²⁾

이때저때	어느때뇨
우리부모	생기신때라
우리부모	생긴끝에
꽃노래나	짓고가지
쫓아가는	장미화는
가지마다	금빛이요
청송기생 ⁵⁴³⁾	살구꽃은
떼를지어	휘돌았네
무릉도원	복숭아는
그물안에	걸리시니 ⁵⁴⁴⁾
섭위에	모란화는
꽃중에도	임금일세
돌아못간	두견화는
속국산천	생각난다

542) 30살 전후에 난봉치고 다닐 때 배운 노래로 술 먹으면서 부른 노래다.

543) 평양 기생, 서울 기생, 청송 기생이 아름답다.

544) 왜 그물 안에 걸려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불고불은	봉선화는
소조구성 ⁵⁴⁵⁾	춤추고
알쏭달쏭	금은화는
당상관의	관자되고
보기좋은	자약하는
미인마다	희롱한다
당실당실 ⁵⁴⁶⁾	연적화는
단순호치	단장하고
계석치중 ⁵⁴⁷⁾	선비화는
의상대사	지팡이며
호박꽃과	박꽃은
산중에도	충충하고 ⁵⁴⁸⁾
남보다도	매일피는
사시장춘	무궁하는
우리나라	꽃이라네

→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삼천만에 가슴에 피었네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백두산 상상봉에 한라산 언덕 위에 영원히 영원히 아름답게 피었네.” 無窮花에 대한 노래가 있드시, 우리 꽃 무궁화가 꽃 중에 꽃이 아니겠느냐. 南北 통일이 어서 되어 무궁화 꽃 찬란히 아침 이슬 머그웁고, 민족의 정기와 칠천만 동포가 한 마음 되어 영원히 빛나길 간절히 바란다. 이 ‘꽃 타령’은 아주 옛날 선조들 부녀자들이 노동요로 불리웠다고 한다.⁵⁴⁹⁾ 우리 선조들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아시었다.

545) 무슨 뜻인지 모른다.

546) 웃는 모습.

547) 무슨 뜻인지 모른다.

548) 과거에는 산 중턱에도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를 ‘제비집’이라고 했다. 이런 집들도 바가지를 만들기 위해 박꽃을 심었다.

549) 대부분의 민요는 유희요이면서 노동요이기도 하다.

(19) 풍년가(豊年歌)

풍년이왔네 풍년이왔네
삼철리 금수강산에 풍년이왔네
올해도 풍년 명년에도풍년
해해 연년이 풍년이로구나
(후렴) 기화자 좋다 열시구 좋네
어힐씨구나 좋고 좋네

명년춘삼월 화전놀이들가세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또있는가
놀이를말구서 농사일에나 힘쓰세

명년구시월에 단풍놀이들가세
덕고산꼭대기 뒷마루를놓고
다정한내님춤에 다부서졌네

→ 이 ‘풍년가’ 는 그 지방의 지명과 명산명천을 두고 가사를 지어 부른 듯하다. 특히,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느티나무 정자에 농주를 마시며 불리 었든 소리이다. 그러나 지금은 옛 정취를 찾을 길 없다.

(20) 萬古江山

만고강산 유람할제
삼신산이 어테멘고
일봉래 이방장과
삼영주 이아니냐
죽장짚고 풍월실어
봉래산은 구경하니
만학은 천봉이요
물은찰찰 폭포로다

경포대	동정호는
명월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넘어
봉래산을	구경하니
천만봉	학부용 ⁵⁵⁰ 들은
하늘위에	솟아있고
백천폭포 ⁵⁵¹)	급한물은
은하수를	기우린듯
가근경치 좋	타마는
태상 ⁵⁵²)에	자리가 여아닌가

→ 금강산 一萬二千峰, 장안사, 유점사, 비로봉, 내금강, 외금강, 太子城, 명연담, 망군대, 향로봉, 만폭동, 백운대, 만물상, 구룡연, 동석동, 연원동, 백운대, 중향성, 만년동굴 등 기기 묘묘한 자연의 이치를 말로는 표현 못하는지라. 한갓 소리로 불렀으나, 금강산의 이름은 네 가지라. 春夏秋冬 四 계절에 보는 이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름을 부르게 하였으니, 봉래산(여름), 풍악산(가을), 금강산(봄), 개골산(겨울). 한 산의 이름이 이렇게 거창하게 4가지 있다는것도 금강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中國의 곤륜산고 송하재라는 시가 있다. 아무리 높고 웅장하여도 一山 一名인데, 금강산은 一山 四名이다. 中國의 詩人도 아생고려국이요 일견금강산이라 하지 않았나 싶다.

(21)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월명동천 밝은 달아
저게 저게 저 달속에 지수나무 백햇구나
지수나무 몇 가지나 별었던가 삼백가지 별었더라

550) 학과 같은 부용이라는 새.

551) 금강산에 있는 폭포 이름.

552) 太上.

금도꾸로 찍어냉게 은도꾸로 다듬어서 옥대패로 밀어주지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묘서가주 천년만년 살고지고

→ 이 소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이나, 실제로 구전되지 못하고 있다. 유교적 사고에서 볼 때 부모님을 위하고 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임무요 책임이라 생각했다. 부모를 위해 계수나무의 나무를 버혀다 집을 짓고 부모를 봉양한다. 효성스런 이 동요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아깝게도 지금은 아이들이 부르지 않는다.⁵⁵³⁾ 無錢天地小英雄이오 有酒江山多豪傑이라. 비록 가난하여도 해학적인 民族이기에 극복하며 살아갔다.

(22) 長城歌⁵⁵⁴⁾

萬里長城 싸은장수	돌도지고 흙도지고
黃河水를 메었으나	봉래바다 못메웠다
長城밑에 집을짓고	뽕밭심어 가도할제
늬은父母 봉양하고	어린子孫 일깨워서
누에고치 밭일구니	어허정말 좋을시고
막잠잔 누에를	이리골라 저리골라
청솔가지 섭을주어 ⁵⁵⁵⁾	6일만에 드러다보니
가지마다 열매로다	물든고치 따로모고 ⁵⁵⁶⁾
좋은고추 골라내서	좋은고추 실을뽑아
응애(물레)소리 요란하니	이실로 줄을삼고
벼틀위에 올려놓고	섬섬옥수 나비놀듯

553) 이 노래는 동요이면서도 노인들이 대청 마당에 명석을 깔고 달이 떴을 때 부르던 ‘달 타령’ 이기도 하다.

554) 이 노래는 단가조로 부른다. 이 노래는 젊었을 때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는 ‘오입 다닐’ 때 배웠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입’ 과는 그 뜻이 다르지만, 오입에 관해 다음과 같은 농이 전한다. 이삼십 살에 오입을 하고, 사십 살에는 오입을 할까 말까 생각한다.(思) 오십 살은 쉰 살이니 잠깐 쉬면서 성관계를 하고, 육십 살에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肉) 칠십 살에는 칠만 하고, 팔십 살에는 팔만 허우적거리고, 구십 살에는 입으로 오입을 한다.(口) 백 살에는 ‘백구야 날 잡아 먹어라’ 하면서 누워 있기만 한다.

555) 누에가 실을 뽑아 내기 시작하여 솔가리를 수직으로 뽑아두면, 그 위에 올라가 고치를 만든다.

556) 누에가 오줌을 누었다든지 등으로 고치에 색깔이 묻으면, 2등급 품으로 친다.

명주보화 이어지니	북통은 東西간으로
후질철철 저질개는	강태공의 낙시댄가
잉에대는 삼형제요	베틀다리 사형제라
명주보화 이어지니	좋은것은 나리님께
물든고추 실을뽑아	부모봉양 하시리니
이아니 영화인가	여보시오 농부님들
양지쪽에 목화심고	뒷밭에다 삼을심어
추울때는 솜옷입고	더울때는 마의입혀
농사할철 짓고보니	한복고복 하시리라
이윤의 농사법이	오늘날에 이어지니
영화로다 영화로다	우리마을이 영화로다

→ 이 소리는 ‘長城歌’ 라고 하는데,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 문헌상 전해 온 것이 아니고 中國 古문헌에서 傳해진 것을 우리의 先祖께서 소리로 승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소리 가사 내용이 위친부모하고 영농을 권장하고 무영, 삼배, 명주를 권장하여서 農民 영농의식을 일깨운 것이 아닌가 생각 든다. 이러한 곡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그리 흔하지는 않다.

Ⅲ. 민속경연대회 출연기획서

1. 횡성 점말(店村) 옹기굽기⁵⁵⁷⁾

1) 배경

횡성 점말 옹기 굽기는 서울-강릉 간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정금리 한 마을에서 출연했다.

정금리 마을은 신라에 패주한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그 설욕을 꿈꾸며 진을 쳤던 태기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적 농촌 마을로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영동, 영서 문화 교류지인 동시에 이 지방 특유의 전래 민속을 형성하여 온 마을로 횡성, 원주 지역의 옹기그릇을 공급하여 온 대형의 바라골 옹기점이 자리하였던 곳으로 옹기를 굽는 곳은 전국 어디서나 있었으나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을 재현하므로 후세들에게 조상의 얼과 서민의 한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2) 해설(발굴, 재현)

점말 옹기 굽기는 옛 조상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바라골의 옹기굽기는 우리의 기능과 노래와 제례가 함께 어우

557) * 이 민속놀이는 1989년도 9월 제7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했을 때의 팸플릿에 나온 내용이다. 이 놀이는 이종호와 양중환이 공동 기획한 작품이다.

러지는 우리의 전래 옹기장이들의 민속이다.

그릇을 굽는 사람을 장인이라 부르고 옹기그릇을 만드는 옹기장이를 가장 천한 사람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냉대하여 왔다. 그러나 옹기장이들은 사회의 멸시와 가난 속에서도 옹기 굽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쳐왔으며, 옹기그릇은 우리 서민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요, 천민의 호구지책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옹기는 누가 뭐라 해도 옛 조상들의 얼이 담긴 그릇이요 가난한 서민의 그릇으로부터 사대부가의 그릇으로 필연적으로 쓰여져 왔으며, 천민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하나의 옹기 그릇 속에는 옛 우리 조상들의 손때와 애환이 서려 있는 민족의 그릇이요, 또한 우리의 전래 민속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700여 년을 이어져 온 백성의 그릇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3) 출연 과정

작품 구성은 전 5과장으로 입장, 소지 반죽 및 성형, 가마치성, 불지피기, 옹기 도부 및 한마당 놀이로 구성되었다.

제1과장(입장) : 농기, 출연기를 선두로 농악 사물, 소지 반죽꾼, 남여 도부꾼, 흙지게, 물지게, 도공, 소리꾼, 화부, 노인 등의 순으로 입장한다.

제2과장(소지 반죽 및 성형) : 선소리에 맞추어 소지 반죽꾼은 반죽매로 반죽을 하고 도공은 옹기 물레를 돌려 성형을 한다.

제3과장(가마 치성) : 옹기가 잘 구어지기를 기원하는 치성으로 제물을 차려 놓고 고축으로 천신과 산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끝난 후 전후 좌우에 술을 붓고 음복을 한다.

제4과장(불 지피기) : 옹기 가마에 불을 지피어 옹기를 굽는다.

제5과장(옹기 도부 및 한마당 놀이) : 다 구어진 옹기를 도부꾼이 지게와 머리에 이고 장으로 팔러 나가며, 농악 사물과 출연진은 신명나는 한마당 놀이를 펼쳐 옹기 구이를 마무리한다.

4) 출연진 구성

출연단체명 : 정금 민속보존회(회장 : 양두환)

고중 :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신식교, 이용현

총지도 : 정금 민속보존회 이사 이종호

출연진 구성 인원 - 총 60명

임원 - 2명, 가수 - 3명, 도공, 소지반죽꾼 - 20명, 화부 - 7명, 지계꾼 - 6명, 도부꾼 - 15명, 노인 - 2명, 소리꾼 - 5명.

5) 노랫말⁵⁵⁸⁾

어화세상 도공님들 이내말춤 들어보소
이내소리 주는대로 온갖힘을 다해가며
차근차근 이겨보세 황성우밀 바라골에
용기점말 생겼다네 태백산의 주봉되어
봉화산이 솟았으니 봉화산의 정기받아
용기가 유명했네 물래돌려 성형하여
1000도의 소성하여 서민그릇 용기그릇
열사좋다 용기로다 해가뜨나 달이뜨나
일구월십 비는마음 용기구면 잘나오게
도보하면 잘팔리게 어화둥둥 내자식아
칠기청산 보배든가 만첩청산 꽃송이야
귀엽기도 측량없네 한두살에 철을몰라
무럭무럭 자라다가 에이호리 소지야

6) 등치기소리⁵⁵⁹⁾

에이호리 소지⁵⁶⁰⁾야 에이호리 소지야

558) * 이 노랫말은 동일한 내용으로 1992년 9월에 열린 제10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였는데, 이를 안내하는 팸플릿 뒤에 쓰여 있다.

559) 과거에 흙을 이길 때 부르는 소리인 '등치기소리' 라는 명칭이 있었다. 여기에 있는 가사는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이종호와 함께 만든 것이다.

여보시오 도공님들
 소지한번 잘익겨서
 옹기그릇 만듭시다 에이호리 소지야
 에이호리 소지야
 어화세상 벗넘네야
 이내말씀 드리보소 에이호리 소지야
 온갖힘을 다하여서
 차근차근 이겨보세
 황성우밀 바라골에 에이호리 소지야
 옹기점말 생겼는데
 태백산이 주봉되어
 봉화산이 솟았으니
 옹기그릇 유명했네
 물래돌려 성형하여
 천도의 소성이면⁵⁶¹⁾ 에이호리 소지야
 시민그릇 옹기그릇
 예쁘기도 한량없네
 일구월심 비는마음
 옹기구면 잘나오고
 도부하면⁵⁶²⁾ 잘팔리네
 만첩청산 꽃송이가 에이호리 소지야
 이에서 더할소냐
 어화등등 내자식아
 귀엽기도 측량없네
 형제간에 우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나라에는 충신동이 에이호리 소지야

560) 도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밟는 것을 '소지 올린다' 고 했다.

561) 천 도의 온도로 그릇을 굽는다.

562) 지계에 지고 장사하러 다닌다.

인생七十 길다지만
일장춘몽 못면하고
창해유수 흐르는물은
어느장부 막어주고
일락서산 지는해를
누구라서 부뜰소냐
어제에는 흥안이요
오늘날에 백발되니
덧없는 인생살이
허무하기 측량없네
여보시오 벗님들아
부귀공명 탐하지마라
부귀빈천 들고돈다
인생내세 명월래요⁵⁶³⁾
인생거사 부운거라
소시에 순님금도
용기장사 하시였고
공자같은 대성현도
지진지쳐⁵⁶⁴⁾ 하시였고
만고일색 양귀비도
매호관에 못치스며
역발산 기가세도
오강에서 죽었으니
인생무상 할일없네
이윤의 농사법이
오늘날에 이어지니
영화로다 영화로다

563) 다음 세상에서는 달이 오듯이, 새롭고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된다. 우리 민족은 과거 달을 숭상했다.

564) 무슨 뜻인지 모른다.

면면춘춘 풍년들어
격양기를 부르면서
순군순왕 칭손하세
여보시오 도공님들
힘도들고 숨도차니
밭도슬슬 이겨보세
에이호리 소지야
개문하니 만복래요
소지하니 황금출을
학발양친 천년수오
슬하지손 만세영을
어떤사람 팔자좋아
네귀에 풍경달고
고대광실 높은집에
대청마루 돋우서서
흥에겨워 하는말이
인생무상 측량없고
부귀공명 입자있네
노자노자 젊어서놀자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하니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우나니
명사십리⁵⁶⁵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봄이 도라오면
꽃은다시 피려니와
우리人生 어이하여
불여귀를 일삼는고

565) 이북에 있는 바닷가.

장대위에 일등미색
굽다고 자랑마라
어제는 흥안이요
오늘날에 백발되니
그아니 가련한가
여보시오 도공님들
용기소지 잘올려서
학발양친 어린자식
지성으로 봉양하세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신님이 감응하고
용기그릇 잘나오면
도부하면 잘팔리길
일구월십 비나이다
에이호리 소지야
여보시오 도공님들
소리매⁵⁶⁶⁾를 높이들고
추근추근 이겨보세
조선국의 팔도산을
역역하게 돌아보니
백두산의 증조봉은
압록강이 상응하고
운석산의 봉황성은
락도의 여기로다
함경도의 백두산은
승대산의 내맥이요
평안도의 자모산은
대동강이 배합하고

566) 소리를 하면서 치는 때.

황해도의 구월산은
 수양산의 태식이요
 경기도의 삼각산은
 한강이 회조로다
 강원도의 태백산은
 왕옥산의 기손이요
 충청도의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경상도에 도음산은
 낙동강이 원조로다
 전라도의 월출산은
 건지산이 상응했네
 조선국의 팔도산을
 구경한번 잘하였네
 에이호리 소지야
 에이호리 소지야
 용기가잘 만드러졌으니
 가마치성 드립시다

→ ‘등치기소리’는 정금 마을 발화동에 점말이 있어으며, 이 곳 점말에서 용기를 굽던 도공에 의해 부르던 소리가 傳해진 것이다.⁵⁶⁷⁾ 그 소리 全部를 발채하지는 못 하였어도, 그 맥을 찾아 保全을 할 수 있는 것이 多 幸으로 생각한다. 이 소리는 鼎金里 郷土民俗保存會 李鍾浩 會長의 끈질긴 집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고맙고 感謝하게 생각한다. 앞 줄에서

567) ‘등치기소리’는 흙 이기는 소리다. 이는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창작한 노래다. 옛날에 기와나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흙을 맨발로 밟거나 나무 망치로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는 전해지지 않는다. ‘흙을 밟는 소리’가 실제 인물에 의해 전해지지는 않지만, 동네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소리는 ‘지경다지는소리’와 유사했다고 하여, 그와 비슷하게 곡을 구성했다. 정금리에는 현 정금주유소 자리와 둔내 올라가는 초입에 용기 만드는 마을인 ‘점말’이 있다가 일제 시대 때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이종호와 함께 출품작을 만들었다.

기술하였드시, “소시에 순님금도 에이호리 소지야 독장사를 하시엿고 에이호리 소지야” 七字나 여덟 자의 문장으로 이어지면, 뒷소리로 소지꾼들이 “에이호리 소지야” 하면서 소리를 받는다. 앞소리를 주는 사람은 하나나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앞소리를 주는 것이 보통이며, 時代의 변천에 따라 그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가사만 傳해지고 있다.

2. 황성 농가월령가⁵⁶⁸⁾

1) 출연 소재 : 황성 농가월령가

2) 출연 구성 인원 : 남자 47명, 여자 8명 계 55명.

농악 12명, 출연기 1명, 농기 2명, 마을기 2명, 노인 2명, 소탈 3명, 월령가 노래 4명, 부녀 8명, 농군 16명, 장치 2명, 임원 3명.

3) 출연 과정

입장 : 음촌, 양촌이 마을별로 마을기, 농기를 선두로 농악을 치며 춤을 추면서 일렬로 입장을 한다.

좌우 양측에서 입장하여 각기 원형을 만든다.

음촌, 양촌 농악 가락은 일치하여야 한다.

원형이 되면, 농악 가락에 맞추어 관중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고 각기 심명나게 한마당 놀이를 한다.

이어 다음과 같이 4과정으로 출연한다.

제1과정 정월 대보름 달맞이(10분)

한마당 놀이가 끝나면 일렬로 돌아 햇불을 들고 달맞이를 간다. 햇불을

568) * 이는 1997년 10월 제15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칙혀 들고 망우려 소리를 지르면서 절도하여 소원성위를 기원한다.

농악은 심명나게 놀이를 한다. 부녀들은 다리에 올려 달을 보고 소원을 기원한다.

노인은 떠오른 달을 보고 금년 농사의 풍흉년을 점친다. 노인 두리 서로 수군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달맞이가 끝나면 양촌 마을에서 불강통을 던져 시비를 걸어 음촌, 양촌 간 햇불 싸움이 벌어진다. 양촌은 역부족으로 음촌에게 마을기를 뺏기고 주저 안저 집신을 버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한다.

음촌은 농악을 치면서 심명나게 한마당 놀이를 하다 양촌 농기를 돌려 주고 화합하여 농사를 열심히 하자고 약속을 하고 심명나게 한마당 놀이를 한다.

제2과정 씨레질과 모심기(7분)

농악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렬로 서서 농악을 은은히 치면서 놀이를 한다.

농군들은 일렬로 서서 모심기를 한다.

모 한 폭 심고 일러서 월령가 노래에 맞추어 한 바귀 돌러 춤을 추고 모를 심는 율동을 반복하여 4폭을 심는다.

쟁기질꾼은 쓰레에 소를 메워 모 심는 뒤에서 논을 찜는다.

제3과정 보리타적(7분)

농악을 치면서 한 바귀 돌아 도리개를 들고 춤을 추면서 위치에 떨어져 보리타적을 심명나게 한다. 농악은 일렬로 서서 은은하게 농악을 친다.

부녀들은 절구에 보리를 넣어 찢는다.

제4과정 지개꾼 나무 하기(6분)

보리타적이 끝나면 상쇠는 일렬로 돌아 농군들이 지개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데, 있대 지개를 지고 일렬로 지개 작대기로 지개 목발 장단을 노래에 맞추어 심명나게 두디린다. 나무를 해 지개에 지고 다리를 건너 집마당에 내려 놓고 상쇠는 일렬로 돌아 심명나게 한마당 놀이를 하고 인사하고 퇴장한다.

4) 鼎金 農家月令歌⁵⁶⁹⁾

에혜 農軍님들

正月⁵⁷⁰⁾이라孟春되니 立春雨水節氣로다
 一年之計在春하니 범사를미리하라
 봄에만일實時하면⁵⁷¹⁾ 종년일이낭패되네
 上月달⁵⁷²⁾달을보아 수한⁵⁷³⁾을안다하니⁵⁷⁴⁾
 달맞이⁵⁷⁵⁾햇불허기⁵⁷⁶⁾ 흘러오는풍속이요

에혜 농군님들

- 569) 이는 이중호가 정약용의 ‘농가월령가’ 를 구해 이를 바탕으로 본인과 함께 민속예술 제에 출품할 작품을 창작한 작품이다.
- 570) 부락 단위로는 ‘큰 서낭’ 이 있고, 반 단위로는 ‘작은 서낭’ 이 있다. 정월 보름 전에 마을 별로 ‘서낭굿’ (‘서낭제’ 라고 부르지 않았다.)을 했는데, 농악대들이 모여 ‘길군악’ 을 하며 서낭 앞에 가서 ‘서낭굿’ 을 친다. 그런 다음, 위패를 새로 써서 서낭당 안에 붙인다. 정금리 서낭의 위패에는 ‘정금 성황지신 신위’ 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 다음, 절을 하고 차린 음식을 마을 사람끼리 나눠 먹는다. 정금리 서낭당에는 무쇠로 만든 말이 두 개 있었는데, 그 길이는 약 30cm 정도이고, 높이는 15cm이다. 이 말들은 신위 양쪽에서 말머리가 문을 향해 정면으로 서 있었다. 이 때 제주는 이장이나 영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살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했다.
- 571) 마을에 사는 남녀노소 모두가 나와 동네의 보리밭을 차례로 밟는다. 이를 ‘지신밟기’ 라고 한다.
- 572) 보름날 달이 뜰 때 짚으로 만든 사람 인형에 생년월시와 사람 이름을 쓴 다음 이를 살이 없는 방위에 버리는 풍습도 있었다. 이를 ‘액맥이’ 라고 한다.
- 573) 물이 많고 가뭄이 든다.
- 574) 달을 보아 달빛이 하얀 색이면 그 해에 물이 많고, 벌건 색이면 그 해에 가뭄이 든다고 달로 점을 친다.
- 575) 정월 대보름 달맞이는 음력 1월 16일에 한다. 그래야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16일에 달이 뜨기 전에 산에 올라가 솔가지나 다른 나무를 잘라 ‘황덕불’ 을 피우고 떠오르는 달을 향해 절을 하며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빈다. 이를 ‘망월이’ 라고 한다. 이때 소지는 울리지 않는다. 음력 1월 16일을 ‘귀신 닭날’ 이라고 한다. [정옥출] ‘망월이’ 는 ‘달을 봐’ 음력 15일이나 16일에 한다. 뱃동산 꼭대기에 올라가 달이 떠오를 때 달을 향해 절을 하며 일 년 소원을 빈다.
- 576) 아이들은 들판의 논과 밭의 독을 태우는 ‘쥐불놀이’ 를 한다.

二月이라仲春되니	경칩춘분절기로다
初六日점생이 ⁵⁷⁷⁾ 는	풍흉을안다하니
스므날음청 ⁵⁷⁸⁾ 으로	대강은짐작나니
반갑다봄바람은	의구히문을여니
개구리우는곳에 ⁵⁷⁹⁾	논물이흐르도다
보장기 ⁵⁸⁰⁾ 차려놓고	춘경을하오리다

에~혜~농군님들	
三月이라暮春되니	청명곡우절기로다
春日이재양하여	萬物이화창하니
百花는난만하고	새소리각색이라
당전의쌍재비는	옛집을찾아오고
花間의범나비는	分分히날고기니
農夫의힘든일이	가래질 ⁵⁸¹⁾ 찾재로다

에~혜~농부님들	
四月이라孟春되니	立夏小滿절기로다
비온끝에별이나니	일기도청하로다
떡잎갈피질때에	빠꼭새자주울고
보리이삭쾌어나니	피꼬리소리한다
갈격어 ⁵⁸²⁾ 거름할 때	풀베어섞어하소

577) '점생이' 는 세 개의 별이 모여다니는 별을 말하는데, 그 간격의 좁고 넓음에 따라 점을 친다.

578) 그늘지고 환함.

579) 개구리 중에서 '비단개구리' 가 땅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

580) 소가 끄는 쟁기.

581) 논농사를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래질이다. 겨울을 지내면서 논둑의 흙이 떠 있고, 쥐나 두더지의 구멍을 가래로 눈에 있는 흙을 끌어 올려 논둑을 다진다. 그런 다음, 논물을 잡는다.

582) 동네 사람들에게 갈을 쥐어도 좋다는 시일을 결정하는 '갈령' 은 영좌나 이장이 내리지 않고, 이 곳에서는 봉화산 산지기가 내렸다. 이 근처의 하궁리, 궁중리, 정금리, 현천리, 소사리 등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산을 관리하는 산지기를 두었는데, 그 산지기가 갈령을 내렸다. 갈령이 내리더라도 개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갈을 쥐지

면화⁵⁸³) 를 많이 하소 방적의근본이라
에~혜~농군님들

五月이라仲夏되니 망중하지절기로다
南風은때마추어 맥추⁵⁸⁴) 를 재촉하니
보리밭누른빛이 밤사이나겠구나
문앞에터를담고 타맥장⁵⁸⁵) 하오리다
드는낫베어다가 단단히헤쳐놓고
도리깨마주서서 짓내어두드리소⁵⁸⁶)

에~ 혜~농군님들
六月이라계하되니 소서대서절기로다
대우도시행하고 더위도극심하다
초목이무성하니 파리모기모여든다
봄보리밀귀리를 차례로베어내고
늦은콩팥조기장을 बे기전대우들여⁵⁸⁷)
지력을쉬지말고 극진히다스리소

에~혜~농부님들
七月⁵⁸⁸) 이라맹추되니 입추처서절기로다

는 못했다.

583) 일제 시대에는 면화나 아편은 각 집에 재배할 양을 배당을 주었다. 쌀마저도 배당을 주어 그 배당된 양은 값 싸게 공출해 갔다. 소출의 반 이하 정도를 공출해 갔다.

584) 보리 이삭.

585) 보리 터는 마당.

586) 보리, 밀, 벼 등을 수확한 뒤에 우선 단 채로 큰 바위들이나 나무등걸 위에 후려 친다. 이를 ‘채질’ 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치면, 다른 사람은 왼쪽으로 단을 굴리면서 쳐서 이삭을 떨구어 낸다. 이 때 하는 소리가 ‘채질하는 소리’ 이다. 그렇게 해도 달려 있는 이삭들을 모아 도리깨질을 한다. 도리깨는 도리깨질에 능숙한 사람이 앞에서 이삭들을 도리깨로 쳐서 이삭들을 뒤적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를 마주 보고 도리깨질을 한다. 능숙한 사람이 선소리를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뒷소리를 받는다. 이를 ‘도리깨질하는소리’ 라고 한다.

587) ‘대우들여’ 라는 말은 장마에 콩등의 뿌리 근처의 흙이 씻겨 나가면, 다시 흙을 ‘복을 주는’ 것을 뜻한다.

화성은서류하고 ⁵⁸⁹⁾	미성은중천이라
늦더위있다한들	절서야속일소나
거름풀많이베어 ⁵⁹⁰⁾	더미지어모아놓고
자채논 ⁵⁹¹⁾ 에새보기와	오조 ⁵⁹²⁾ 밭에정우아비 ⁵⁹³⁾
밭가에길도닦고	복사 ⁵⁹⁴⁾ 도쳐올리소

에~혜~농군님들	
八月이라중추되니	백로추분절기로다
北頭星은자로 ⁵⁹⁵⁾ 돌아	서천을가르키니
신선한조석기운	추위가완연하다
귀뚜라미맑은소리	벽간에들리누나
백곡이이삭페고	여물들여 ⁵⁹⁶⁾ 고개숙여
서풍에익는빛이	황운이일어난다

에~혜~농부님들	
九月이라계추되니	한로상강절기로다
나뭇잎떠러지고	고니소리높이난다
무우배추캐어들여	김장을하오리다
앞뉘물에정히씻어	한담 ⁵⁹⁷⁾ 을맞게하소

588) 논을 3벌을 맨 다음에 ‘호미씻이’ 를 하는데, 부락 단위가 아니라 반 단위로 냇가등에 놀기 좋은 곳으로 가서 술을 걸어 놓고 음식을 먹고 노는 ‘천렵’ 을 한다. 부락 단위로는 일 년에 한 번 ‘대동회’ 를 하는데, 12월 20일 경에 ‘신입’ 을 받아들이고 동네 계돈을 정리하고 내년도의 동네 계획을 짠다.

589) 서쪽으로 흐르다.

590) 풀앗이로 풀을 베었다.

591) 지체벼는 여주, 이천에서 나는 벼인데, 일찍 피고 일찍 거두어 들인다. 이 벼는 다른 벼에 비해 수확이 덜 나지만, 8월 추석에 햅쌀밥을 지어 조상에 올리기 위해 일부러 심는다. 많이 심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낱알을 털어 방아를 찧는다.

592) 일찍 여무는 조.

593) 허수아비.

594) 밭두렁이나 논두렁에서 흘러 내려오는 흙.

595) 좌로.

596) 벼 안에 물이 차오르며 익어간다.

597) 상겉고 찌다.

우리집부녀들아 겨울옷지었느냐
술빔고떡하여라 강신날가까왔다

에~혜~농군님들
동짓달이라중동되니 대설동지절기로다
바람불고서리치고 눈오고얼름언다
가을에거둔곡식 얼마나하였던고
몇섬은환세(598) 하고 몇섬은왕세(599) 하고
얼마는제반미(600) 요 얼마는씨앗이며
도지(601) 도되여내고 품값도값으리라(602)

에~혜~농부님들
설달이라계동되니 소한대한절기로다
위로는국가봉용 사계로제선봉친
형제처자혼상대사 먹고입고쓰는것이
토지소출아니라면 돈지탕을누가알꼬
예로부터이른말이 농업이근본이라
농자는천하지 대본이라네

→ 위와 같이 ‘農家月令歌’ 를 고르고 선별하여 좋은 대목만 골라 예술로 승화한 문구문장이며, 農事를 경영하는 農夫라면 지켜야 할 敎本이라고 사료된다. 65명의 단원을 훈련하여 강원도 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였으나, 작품이 他道 것을 모방했다는 심사위원의 작품 평에 분노를禁할 길 없다. 他道만 農事를 짓고 江原道는 농사를 무우, 배추, 감자, 옥수수만 경작한다

598) 도지세.

599) 국세.

600) 밥을 해 먹는 쌀.

601) 20여 가마니를 수확하면, 8가마니 정도를 도지세로 주었다.

602) 25년 전에는 ‘십오장례쌀’ 이 있었는데, 봄에 쌀 1가마를 빌리면, 가을에 쌀 1가마니 반을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고리로 빚을 얻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는 말씀인지 펍 의심스러우며 어불성설이라 생각된다. 신소재를 발굴하고 祖上의 혼이 깃드린 作品이라면 더 論할 必要 없이 本道에서 育成하고 미 完된 점이 있다면, 새로이 수정하여서라도 발굴 보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우리 郡에서나마 유지 보존되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도다. 우리가 安東의 ‘차전놀이’ 를 하는 것도 않인데, 어떻게 他道 것을 모방하였다고 生覺하는지 그 심사위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郡과 鄉里에도 ‘상사데이’, ‘단허리’, ‘지경다지기’ 等等 여러 가지 농요가 存在한다. 이 ‘農家月令歌’ 가 저자가 경기도 出身이니 京畿道의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미로되, 오히려 南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참 모르미라. 윤선도 선생이 지으신 ‘魚夫四時歌’ 는 무얼이라 答해야 된다고 生覺되는가. 三面이 바다인 이 나라의 地形上 要件을 볼 때, 윤선도 先生 이 글을 쓰신 글이 그 고장의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말이 안 되는 어불성 설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농부는 굶어 죽 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 법. 우리 民俗團은 계속하여 作品을 出品할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우리 團體에 영광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3. 황성 장타령(603)

1) 출연 소개 : 황성 장타령(민요)

2) 출연 구성 인원 총 출연 인원 : 60명, 남자 : 40명, 여자 : 20명

출연기 : 1, 농기 : 1, 장타령 소리꾼 : 4, 농악 : 20, 장뿔뱅이 : 21, 노인 : 3, 소 : 6, 장치 : 1, 임원 : 3

603) * 이는 1998년 9월에 개최된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기 위해 이종 호와 함께 기획한 출연계획서이다.

3) 출연 과정

농기, 출연기를 선두로 일렬로 농악을 치며 춤을 추면서 입장을 한다. 본부석을 중심으로 원형을 만드러 농악 인사 가락에 맞추어 도라서서 인사를 하고 농악 가락에 맞추어 심명나게 장날에 지신뵈기를 한다.

이어 다음과 같이 4과정으로 출연한다.

제1과정 장터 지신뵈기 5분

1일 오늘은 황성장날이다. 황성장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출연자 전원이 함께 하는 심명나게 농악, 지신뵈기를 한다.

제2과정 장타령 1부 8분

장날의 장사꾼과 장꾼이 절정에 이를 때 장타령꾼은 2명씩 나누어 도라다니면서 장타령을 부르면서 동양을 한다. 장사꾼은 물건을 팔려고 진열하고 왔다갔다 한다.

농악은 일정한 장소에서 또한 중앙에서 원형으로 돌면서 장타령곡에 맞추어 은은한 가락으로 장단을 맞춘다.

장타령은 장사군의 번영과 황성장의 발전을 위한 축원 장타령을 부른다.

장타령꾼은 중절모를 쓰고 지은 중우적삼을 입고 중우가달를 건어 올리고 괴침을 접어 내려 백굽이 나오도록 입고 옆꾸리에 집신을 차고 한 손에 깡통을 든다. 그리고 병신 걸름으로 걷는다.

가꿈 배, 등허리를 글거 이를 잡아 양손 엄지 손톱으로 죽이는 시늉을 한다.

제3과정 장타령 2부 7분

황성, 둔내장은 우리나라에서 으뜸 가는 제일 큰 장이다. 또한, 황성은 애국의 고장이라 부르고 있다. 1919년 4월 1일 황성장날 일제에 항거하

여 장날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독립하려는 애국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장타령꾼은 황성의 5일장을 차저 본다.

일자나 한자 들고 보니 황성장날이 분명하구나
황성은 애국의 고장 만세 소리가 우렁차네
(있때 장꾼 전원은 가슴 속에 숨겨둔 태극기를 꺼내 들어 만세 소리를 지른다.)

2일은 갑천장날이다.(구리들)
2자나 한자 들고 보니 구리들 장날이 분명하구나
태기왕이 섬강에 갑옷을 씨엿다네

3일은 청일장날이다
3자나 한자 들고 보니 버들골 장날이 분명하구나
봉복사의 종소리는 태기왕의 승전보요

4일은 안흥장날이다
4자나 한자 들고 보니 안흥장날이 분명하구나
강능 서울의 중간역이 안흥이 좋을시고

5일은 둔내장날이다
5자나 한자 들고 보니 둔내장날이 분명하구나
황성 둔내장은 동대문 밖에서 제일일세
얼 -- 씨구 씨구 잘 한다 품바 품바 잘 한다

제4과정 장터 한마당 놀이 5분

장타령 끝나면 농악은 심명나게 장꾼과 같이 한마당 놀이를 하고 원형으로 만들어 인사하고 퇴장한다.

1부 장타령

일자나 한자 들고 보니 이월이 송송 야송송 밤중 셋병이 완연하구나
이자나 한자나 들고 보니 이수중노 백로구요 배꽃 필필 날아든다
삼자나 한자 들고 보니 삼월이라 삼짓날에 제비 한 상이 날아든다
사자나 한자 들고 보니 사월이라 초파일에 광등놀이가 좋을시고
오자나 한자 들고 보니 오월이라 단오날에 처여 총각이 한데 모여 축축놀이
가 좋을시고
육자나 한자 들고 보니 유월이라 유두날에 탁중놀이가 좋을시고
후렴 지리구 지리구 잘 한다 품바 하고 잘 한다
칠자나 한자 들고 보니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여 단둘이 만나 사당놀이가
좋을시고
팔자나 한자 들고 보니 팔월이라 한가위날 대풍놀이가 좋을시고
구자나 한자 들고 보니 구월이라 구일날에 국화주가 좋을시고
십자나 한자 들고 보니 시월이라 상달에 고사밭이 한창이라
후렴 지리구 지리구 잘 한다 품바 하고 잘 한다

2부 장타령

일자나 한자 들고 보니 황성장날이 분명하구나
황성은 애국의 고장 만세 소리가 우렁차네
이자나 한자 들고 보니 구리장날이 분명하구나
태기왕이 섬강에 갑옷을 찌었다네
삼자나 한자 들고 보니 버들골 장날이 분명하구나
봉복사의 종소리는 태기왕의 승전보요
사자나 한자 들고 보니 안흥장날이 분명하구나
강능 서울의 중간역이 안흥이 좋을시고
5자나 한자 들고 보니 둔내장날이 분명하구나
황성 둔내장은 동대문 밖에서 제일일세
후렴 얼 -- 씨구 씨구 잘 한다 품바 품바 잘 한다
급행 열차를 집어 타고 하구에 역전에 당도하니 왜놈의 정치가 분명하구나

평양의 기생은 월선이요 진주의 기생은 이해미라 우리나라를 세우느냐고 진주 남강에 빠져 죽네
전라도 남원새에 월매딸 춘향이 불상하고 가련하구나
하나님 먹고 하는 말이 일편단심 먹은 마음이 굽이굽이 생각이 나네
일본놈 방구는 쥐색기 방구요 불런서 방구는 사치 방구
미국의 방구는 원조 방구 인민군 방구는 후퇴 방구
국군의 방구는 승전 방구 대통령 방구는 통일 방구
어떤 방구가 단방구나 어떤 방구가 쓴 방구나
후렴 얼 -- 씨구 씨구 잘 한다 품바 하고 잘 한다⁶⁰⁴⁾

4) 황성 장타령⁶⁰⁵⁾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황성수설 황성장 갈보 많이 못 보고 에누리 많이 못 보고
황성수설 황성장 길이 막혀 못 보고 값이 싸서 못 보고
황성수설 황성장 과부 많이 못 보고 각쟁이 많이 못 보고
황성수설 황성장 만세소리로 못 보고 술이 채서 못 보았네

얼-씨구 씨구 잘 한다 품바하고도 잘 한다
영 넘어 둔내장 장사가 잘 되어 좋고 장꾼 많아 좋을시고
칠석칠석 둔내장 술 많이 못 보고 길이 막혀 못 보고
두메산골 둔내장 술국 좋아 못 보고 길이 막혀 못 보았네
이장저장 다봐도 황성장이 제일일세 품바 품바 잘 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 보니 황성장날이 분명하구나
황성은 애국의 고장 만세 소리가 우렁차네
일자나 한자 들고 보니 갑천장날이 분명하구나
태기왕이 섬강에 갑옷을 씻었다네

604) * 여기까지가 민속놀이 출연을 위한 기획서이다.

605) 이 '장타령'은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안내 팸플릿에 기록된 것을 옮겨 적는다.

삼자나 한자 들고 보니 유동장날이 분명하구나
 봉복사의 종소리는 태기왕의 승전보요
 사자나 한자 들고 보니 안흥장날이 분명하구나
 서울과 강릉의 중간인 안흥이 좋을시고
 오자나 한자 들고 보니 둔내장날이 분명하구나
 횡성 둔내장은 동대문 밖에서 제일이라 하네
 얼-씨구 씨구 잘 한다 품바하고도 잘 한다

5) 橫城 각설이타령

각설이는 地方마다 存在하며 그 사설 內容이 다소 다를 따름이다. ‘千字 뒷풀이’ 606)가 있고 각설이의 恨을 담은 사설이 平均化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生覺된다. 무식하고 양반이 아니라는 천민의 슬픈 애환이 역역히 그 가사에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李朝에 五丁이 있는데, 이 五丁의 出身은 多財多能하여도 그의 子息들도 五丁으로 삶을 영위 하여야 하는 슬픈 이 나라의 政治, 文化, 藝術 등 모든 분야에서 천시된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 비근한 예로써 강능의 가면극. 관노가면희라는 극이 대명사라고 보아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민은 生의 의욕도 없으려니와 그 무영을 연구해도 천민은 천민의 애환 속에 천민대로 사러가는 슬픈 人生의 삶을 저주하며 한과 울분을 되새기며 生의 종말을 이슬처럼 사러 젖으니 그 얼마나 깊고 슬픈 人生사리라고 生覺합니까. 그러한 그들이 時代를 원망하고 父母를 저주하며 부른 것이 각설이다. 또한, 生을 爲해 동냥을 하고 상예집이나 잔치집, 회갑집을 만나면 각설이의 생일이며, 각설이는 엄동설한에도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人生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구절절이 슬프고 고달픈 문구 문장이 ‘각설이타령’ 임니다. 우리는 현대 思考에서 냉철히 비판과 그 내막을 절실히 文學的 思考에서 재조명되어 한 많고 설음 많은 이 民族의 한을 우리의 후대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眞理요 天理라고 생각합니다. 옛

606) ‘천자뒷풀이’ 는 ‘각설이타령’ 의 일부다.

글이 있습니다. 落花不語 空靜樹요 流水無心自入池라. 얼마나 숭고합니까. 이것이 天理요 人理라는 것을 그 누가 否認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저 江 물을 보라. 그 民族의 歷史와 文化는 제왕도 거스리지 못한다는 哲測은 五丁은 五丁으로, 각설이는 각설이로서 世上을 원망하였으리라. 五丁限과 각설이의 限을 써보고저 한다. 橫城場날의 각설이를 기재합니다.

(1) 橫城場 뒷풀이⁶⁰⁷⁾

얼씨구 드러간다	절씨구 드러간다
정문 ⁶⁰⁸⁾ 의판사는 못되나	정승판서 자제로세 ⁶⁰⁹⁾
이장저장 오일장에	장타령꾼으로 드러간다
품바하고 자리한다	얼씨구 자리한다
네선생이 누구신지	미끈미끈 잘도한다
시전서전 읽어는지	논어맹자 읽어는지
구성지게 자리한다	
막걸리동이나 먹었나	결직결직 잘한다
소주병이나 먹었는지	휘청휘청 자리한다
초하루장은 횡성장	만세소리 요란하다
대한독립 만만세	이소리가 뉘소리나
독립찾는 독립의소리	엇지가마니 있을소냐
일본놈의 기마병은	동으로뛰고 서로뛰며
장충소리가 요란하다	대한독립 만만세
남녀노소 손을잡고	만세소리를 외쳐됐네
십만거란족 물리쳤다	교려충신 조충장군
초이틀장은 구리들 ⁶¹⁰⁾ 잠	태기산에 정기밭어
구리봉이 기봉하니	갑옷을씨섯다 甲川面

607) '장타령'은 '각설이타령'의 일부다. 이 '장타령'은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나가
기 위해,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며 작사를 한 것이다.

608) 열녀, 충신, 공신인 경우 정문을 세운다.

609) 비록, 지금은 각설이지만, 조상 중에는 정승, 판서가 있었다.

610) 갑천을 '구리들'이라고 했다.

임금이뵈었다 어답산	매일만난다 매일리
방구구리다 구방리	한치압도못보네 한치산
봉덕사종소리 은은하다	은은이들리는 목탁소리
초사홀장은 유동리	날이맑구나 晴日面
구년치수 다스렸으니	비안온다고 걱정마라
공자같은 대성현도	지진지처 하시였고
요순우탕 문무주공	도덕이 관철해도
天下之大本 농사라오	농사박게 또있는가
천하일색 양귀비도	매호관에 물렸으며
부운같은 우리人生	엇지天理를 어길소나
초나홀장은 안흥장	편안하게이러난다 안흥면
장사났구나 말무덤	생선이많어 ⁶¹¹⁾ 안흥장
태종왕이왔구나 태종대	선생을그리면서 배향산
노고할미죽었네 노고소	물외사없어졌네 물외사 ⁶¹²⁾
운주지골의 문제령	무배추많구나 안흥리
닷세장은 둔내장	태기왕이죽어서 태기산
쌀이많아서 화동리	꾸불꾸불하다 현천리
참나물이많어 청태산	썩은고기많구나 ⁶¹³⁾ 둔내장
八道다모였다 정갑록	인물이많어 요조숙녀
조선의이인 안삼교는	삼교리서 운둔하고
동대문밖에 제일장은	둔내장빠게 없다트라
한달육장 서로만나	만담설화 나눈뒤에
일배일배 부일배라	서출양관 무고인이라
열시구나 나오신다	절시구 자리한다
네선생니 누구신지	나보다도 자리한다
품바하고도 자리한다	

611) 안흥은 강릉 가는 길목에 있어 생선이 많았다.

612) 강원도에서 제일 큰 절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613) 횡성장에서 팔다 안 팔리면, 계속 돌아다니다 닷새만에 이루어지는 둔내장에서까지 파니, 둔내장에는 썩은 물건이 많다.

→ 이것은 횡성장날 뒷풀이로서 장의 면모와 지역 명승 대찰을 읊조린 각 설이다.

(2) 市郡을 음미 郡打令⁶¹⁴)

아산이 무너지라 아산장	평택이 깨지라 평택장
인제가면 언제오나 인제장	기생이 많구많어 평양장
이리오너라 이리장	
광활로 오작교를 선뜻 건너	
바람이 드시구나 풍기장	수원북문이 터졌구나 수원장
춘향이 매맞는다 남원장	안성맞춤 유기가많어 안성장
구래나루 휘날린다 구래장	주인없는 땅이많어 무주장
명태한마리 농구두 대구장	일산이 많어서 양산장
화회마을 바라보며 인동장	조선의 중앙이라 충주장
맑은술이 많아서 청주장	경치가 좋아서 단양장
석가여래 팔상전을 바라보니	은혜를 베프렀다 보은장
큰밭이 많아서 대전장	고동소리 슬피운다 인천장
누구나 빚겨간다 횡성장	국상이 낮느냐 곡성장
프른대가 많어 담양장	승주 고흥에 보성장
부부가 화순하다 화순장	高士가 많아서 全州場
이리 저리 진안장	人蔘이 많구나 금산장
무주 장수에 임실장	농민 봉기에 정읍장
고폐 부안은 김제장	해 저문다고 서산장
인심이 너무좋아 원주장	돈안주고 먹는술은 공주장
왕건의 도읍지라 철원장	
삼천궁녀가 낙화하여 고란사	종소리 못들어 부여장
새우젓이 많아서 강개장	윤선도가 태여났다 부산장
영도다리 낭간위에	고동소리 슬프구나

614) 이 노래도 직접 창작한 것이다.

원통하고 가련하다 통천장	대포소리 요란하다 대포장
만세소리 아우네장	유관순열사가 태극기 들고
만세소리 외쳐내니	삼천만 동포가 두손잡고
힘도 차개 외쳤구나	
북평 평해는 울린장	삼척 냉방이라 삼척장
율곡 선생이 태어나니	어부 칭산은 원말이며
고기가 많아서 강능장	피죽과죽 화거죽의 파주장
왕초가 드러간다 개성장	문물이 휘날린다 광주장
상여소리 휘날린다 곡성장	이리지리 모여든다 이리장
칠보가 많아서 칠곡장	월정사의 밤도깊다 평창장
동근달이 솟아구나 영월장	화양강이 흐른다 홍천장
유능수의 한이서린 천안장	거창하고 거창타 거창장
개울이 좁아서 협천장	무안 삼낭진에 밀양장
진해 충무에 거북선뗏다	통영 앞바다 제압하여
모진놈의 일본놈들	학익진 전법으로 수장했네
방포일성 북소래 진동한다	좌수영깃발 높이들고
승전고를 울리는구나	
도함산 정기받고 경주가 생겨났네	
천년도읍지 필마로 도라드니	무심한 뜬구름만 오락가락 경주장
이장저장 다보아도	돈이없어서 못사구
품바소리로 구걸하여	배가너무부러 가경이라

→ 이 가사는 군 단위의 장날을 음미함인데, 가사 내용이 골고루 기재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 발취하지는 못했어도 일부나마 발취하였다는 것이 크나큰 다행이다.

(3) 서울의 동을 각설이로 노래⁶¹⁵⁾

동대문을 높이지어 동북의호걸이 왕래하고

615) 창작한 작품이다.

태평로거리 선뜻지나	을지로에 당도하여
남산의경치를 구경하니	운무에싸여 가경이라
청량리어물진 고기많타	예나제나 과락호는
간곳마다 득실댄다	서대문을 바라보니
명동의종소리 은은하고	천주경소리 은은하다
왕십리마장 바라보니	중곡면목 바이없네
수유정능을 바라보니	상하월곡이가 일품이라
대왕의종소리 은은하니	종로장터가 분명하다
락원을견지하는 안국동	노송이많구나 수송동
인의예지의 명륜동	세종로이화는 월백하고
루각이많어서 신문로	그지에적선하는 적선동
을지로56가 선뜻지나	남대문정문에 홀로서서
제왕의풍도를 생각하니	오백년도읍지가 분명하다
도봉의도화꽃 민발하고	봉래동손님맞이 한참인데
남창북창을 바라보니	수표단교 뻘이보여
예과모장이 뒤틀린다	무교충무로 집도많다
예의가발러서 인사동	공평무사하다 공평동
통인옥인인의 명륜동	한강로를 선뜻지나
원효로1번지 당도하니	노고산은평에 구준비오고
서계청과별곡 생각난다	용문에드리올사 용문동
을사가많아서 신사동	청암산천 이태원동
한남보광은 동빈고	주성이촌이 서빙고
신설을많이한다 신설동	보문각의 종소리가
오육칠가를 다들린다	용두송인의 청량리
회기전농의 리문동	문이작아서 서소문
충정로의주호가 아름답다	교복송월이 비친인다
촌암옥천의 연천수요	홍지신영에 만리동
북아현산이 벌어내려	은평동이 생겨났네
연희노고산의 록변동	미암중리 역촌중에
부처에빛이난다 불광동	향당막여치나 마장동

모진중곡의 면목동
 위로쳐다봐도 왕십리
 군자많기로 군자동
 안암동1가 언뜻지나
 일락서산 날이저무리
 두견접동도 술피운다
 반달이솟았구나 월곡동
 도화꽃이만발한 도화동
 대흥신수에 용강동
 당인서교의 동교동
 거지가많구나 마포구
 구수신수의 용강동
 신기하구나 신길동
 공작이알을품은 동작동
 검은돌이많어 흑석동
 섬이없어서 여의도
 황금의피꼬리 날아들고
 당산부모는 천년수오
 경복궁터에 쉼을지니
 정도전의 작품이나
 인정전도 드넉구나
 만민이 왕래를하고
 삼각산이 상응하니
 역대문장의 문필봉과
 만고미인 생겨났네
 天은도 망극하고
 열씨구씨구 잘한다

이토정이왔는가 토정동
 아래로내려봐도 왕십리
 모진세파에 중곡동
 종암성북 당도하니
 월출동녀에 달이뜨다
 소귀와같이 우이동
 나루터가많아 마포구
 상수하수는 합정동
 현석새우물에 신정동
 두물이합쳐서 합정동
 도화도리 만발하고
 영동포칠팔가 바라보니
 대방상도 문내동
 백노가모여든다 노량진
 변대방도림에 구노동
 프르고프르다 양평동
 문전에쌍제비 춤을춘다
 신길큰길에 문내동
 학나래를 놀러놓고
 무학의 도술이나
 四大門八소문에 길을내어
 북악산이 기봉하여
 한강이 회조로다
 前南山이 아미하니
 王子子孫이 상생하니
 王은도 측량없네
 절씨구 자리한다

→ 이 각설이는 서울의 종로구, 中區,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로 구성된 것이며, 지금과 같이 많은 구로 분할된

것은 아니다. 구마다 동마다 특색을 살려 가사를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
되며 동마다 이름이 아름답다.

옛 성현들은 산세수세를 보아가며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지금은 되는
대로 지명을 짓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고문헌을 참고하여 지명을 짓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의 지명이 다 기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4) 해방 되구 지은 각설이⁶¹⁶⁾

얼시구 드러간다	절씨구 드러간다
작년에왔던 각설이	죽지않고 또왔네
일자나한자 들구봐	일본놈이 침입하여
대한민국 침노하여	삼천리강산 유린하니
원통하고 애통하다	
일자나한자 들구봐	이승만씨는 대통령
함태영씨는 부통령	방방곡곡 태극기날고
만세소리 우렁차다	
삼자나한자 들구봐	三月이라 삼진날애
강남제비 도라온다	연흥부를 찾아가서
박씨한알 선물한다	
사자나한자 들구봐	四月이라 초파일애
석가모니 탄생하여	만인만유를 제도하니
목탁소리 아름답다	
오자나한자 들구봐	五月이라 단오날애
추천놀이가 좋을시구	옥에갈인 춘향이는
이도령오기 기다린다	
육자나한자 들구봐	六二五사변 부모잃고
천애고아가 되었으니	문전걸석이 원말이나
양반의자식도 씨가있나	
칠자나한자 들구봐	七月이라 七夕날애

616) 이 '각설이타령' 은 이종호가 어디에선가 구해 온 것이다.

견우직녀 상봉하니	천상천하 아름답다
직녀의사랑이 아닌가	
팔자나한자 들구봐	八月十五日 해방되니
삼천리강산 태극기날고	만세소리 우렁차고
아동노소가 춤을춘다	
구자나한자 들구봐	구월국화 만발하고
북풍한설 찬바람에	데기리기 언제왔나
흐르는歲月을 어찌할고	
십자나한자 들구봐	十月一日 국군의날에
우리국군 행사하니	늠늠하고 장엄하다
믿음직스럽구나 우리국군	남북통일 어서하여
남북의가족이 상봉하니	만세만세 만만세라

(5) 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이부길의 ‘각설이타령’

열씨구씨구 들어온다	이때는마침 어느때고
양춘가절 봄들어	가지가지 꽃빛이요
우리나부모가 날날제	자식의영화를 본래다
병신의자식을 나가주	병신몸이 기가막혀여
남에나문전을 지킵니다	한푼의동량을 못취도
장타령이나 들어보소	혼자가면 심심질
둘이나가면 수작질	서이가면 가래질
너이가면은 뒤진질	뒤진뒤에는 썸박질
얼뜬놈은 관상질	발칙한놈 주먹질
들었다놔다 도망질	심산초목에 도끼질
초한승전에 팔매질	경상도 풍기장은
바람이세서 못보고	꼭찢러다 피난장
끔찍해서나 못보고	아삭바삭 담배장은
바서나저서 못보고	뿌레기없는 감나무
감이나함빡 열린것	내려가서 흔들어

올라가서 좇어답어 인간이없는 고데가
돈벼락이나 맞었오

(6) 江原道 場打令

春川이라 샘밭당 길이질어서 못보고 신발이 젖저서 못보고
영남어라 영월장 堤川이라 구만리장 담배많어 못보고 길이멀어 못보고
어화지화 金化장
이귀저귀 양구장 놀기좋아 못보고 當歸많어 못보고
희희충충 준양장 한자두자 三陟장 길이흙해 못보고 배가많어 못보고
이江저江 平康場 明細바뀌 못보고 갑이싸서 못보고
정들었다 정선장 橫城堅說 橫城장 갈보만어 못보고 에누리만어 못보고
火木많은 화천장 감많은 江陵장 길이막혀 못보고 갑이싸서 못보고
양식팔어라 양양장 이통저통 통천장 쌀이많어 못보고 알것많어 못보고
즉금왔다 인제장 영성듬웃 高城장 일빚머서 못보고 심심해서 못보고
울통불통 울진장 이천저천 이천장 울화가나서 못보고 개천만어 못보고
안창곰창 평강장 철덕철덕 철원장 술국이좋아 못보고

→ 이 打令은 二市 二十一郡을 노래한 것으로써 단조로운 면도 없지 않으나, 그 時代의 生活상을 엿볼 수 있다. 걸인과 장돌뱅이들이 각 場마다 이 유를 붙여 場을 보지 못했음을 卽수지를 맞추지 못했음을 푸념조로 늘어 놓으면서, 전자는 구걸 행각, 후자는 自身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라 生覺된다. 時代의 변천과 흐름이란 상인이나 農夫들도 마찬가지로, 高官들도 같았으리라 生覺된다. 문구 문장이 서민적인 것이 더더욱 애착이 간다. 이 타령은 ‘태백 정서’ 라는, 江原日報가 발간한 책에서 발취한 것으로 그 地方의 場마다 특색이 엿보인다.

4. 횡성 어러리 풍년가⁶¹⁷⁾

農경 사회의 노동요는 불가분의 함수이다. 곡식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였다. 이 고장은 산업 사회의 여건이 고루 갖춘 지역이 아니고 앞 뒤가 산과 논밭으로 이루어진 전업 人間村의 아담한 곳이다. 동으로 강능, 북으로 인제, 홍천, 남으로 忠州, 서로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한국 전체의 은광 중에서 일위, 이위를 다투는 곳으로 동방광업 주식회사가 존재하였던 곳이다. 고로 동서의 문물과 남북의 광객들이 줄이어 왕래하였던 곳으로 人心이 좋아 점차 정착민이 증가하여 금일에 이르니, 농요, 민요, 정요가 많이 보존된 계기가 되었으며, 후인이 이를 잘 보존하여 선인의 뒤를 이으니, 이것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어 영서 農요의 본산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어테인들 소리가 없으려면만은 특이한 것은 소리꾼이 많다는 점이다. 앞으로 잘 다듬고 가꾸워 기리 보존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다. 농촌 문화가 꽃 피는 날 우리에게 닥아오길 바라면서.

1) 인원

소리 3명, 농부 15명, 노인 3명, 농기 1명, 출연기 1명, 마을기 2명, 부인 6명, 소 3명, 소모리 1명, 지계 2명, 농악 10명

2) 메나리 타령

천하지대본 농사라오 농사한철 지어보세
뒤뜰논은 천석지기 앞뜰논은 만석지기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중 줄모로나 심어주게
지어가네 지어가네 점심참이 지어가네
점심참은 짓더라도 손을깨워서 심어주게

617) * 이 '횡성 어러리 풍년가' 는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기획을 했으나, 이 작품으로 출전하지는 않았다.

천하지대본 농군님네 우리기쁨 귀할제라
이논자리다 모를심어 금실금실 영화로다
시화연풍 좋아기는 우리마을에 기쁨일세
봄이면 진달래요 가을이면 오곡일세
오실토실 익은곡식 동산밭에서 춤을추네

천하지대본 농부님네 우리마을이 영화로다
오뉴월에 흘린땀이 구시월에 열매되네
농사한철 짓고보니 한복고복 하시리라
해는지고 저문날에 옥창앵도가 불거스니
시요시요 부자네라 원정부지가 이아닌가

3) 단호리

오화월수 단허리아 후렴 오화월수 단허리아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소리 들어보소
일십합력 받아주오
먼데사람 듣기 좋게
가차운사람 보기 좋게
창포밭에 금잉어놀듯
금실금실 메어주소
오뉴월에 흘린땀이
구시월에 열매되네
면면춘춘 풍년들어
격양기를 부르면서
순군순왕 흠향하세
학발양친 늙은부모
지성으로 봉양하고
밥달라는 어린자식

사랑으로 부양하세
이윤의 농사법이
오늘날에 이어져서
만백성이 다먹으니
영화로다 영화로다
우리농부가 영화로다
장인이훤훤 영화로다
동산밑에 누른곡식
넘실넘실 춤을추니
한복고복 하시리라
요순우탕 문무주공
도덕이 관철하고
공자같은 대승현도
지진지처 하여시니
우리농부가 으뜸일세
창해유수 흐르는물은
어느장부 막어주고
일락서산에 지는해는
누구라서 잡을소냐
빈부빈천 돌고돈다
원정부지가 이아닌가
농부된걸 원망말고
부지런히 농사지어
천하지대본 알려주세
오화월수 단허리야
아 ~ 아 ~ 우 ~ 에 ~

4) 출연 과정

제1과정은 기수를 선두로 농악에 발맞추어 입장하여 원진으로 서서 관중을

향하여 인사하고 원진을 프러 징쌩기로 농악 한마당을 논 뒤에 소리꾼은 앞으로 모심기는 제 위치 농부 적소에 배치가 끝난다.

제2과정

메나리 타령이 선창되면 농부는 모를 심는 과정이 시작된다. 천하지대본 농사라는 이 소리가 소리꾼이 부르면, 한 쪽 모를 심고 모 심는 농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뒤로 이 보 정도 물러선다. 이때 모줄을 넘기도 뒷뜰논은 천석지기 모를심고 앞뜰논은 만석지기 소리 나면, 뒤로 이 보 가고 줄을 넘기는 순서로 메나리가 끝나면 16줄의 모를 심게 된다.

제3과정

농악이 쇠를 다러 쇠가 울리면 모를 심든 농부가 일열로 나와 호미를 들고 논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농부는 세마치 장단에 발 맞추워 손을 높이 들고 호미를 돌리면서 춤을 추고 논으로 드러가는데 동에 있던 농부는 서쪽으로, 서에 있던 농부는 동쪽으로 입장이 완료되면, 상쇠는 쇠소리를 끝낸다. 그와 동시에 단허리가 구성지게 소리를 주게 되는데, 농부는 호미를 들고 4박자에 맞춰서 논을 파게 된다. 선소리꾼이 소리를 줄 때에 일제히 이어서 일보 앞으로 전진하고 뒷소리를 받을 때에 논을 매게 된다. 이 소리가 끝나면 덩이 프는 소리로 이어지는데, 얼렷렷 상사테야 얼렷렷 상사테야 하고 선소리가 들리면, 호미를 허리에 차고 손을 휘히 모포기를 홀트면서 상사테야야 덩이 프는 소리가 나가게 되면, 두 벌 논을 맨다. 이 렷케 하면 학익진⁶¹⁸⁾처럼 논을 매는데, 한 구석에 모여 아 여 이 우 웨이 소리로 끝을 맺는다.

제4과정

이 긴소리가 나면 상쇠는 쇠를 다러서 징 싸기로 드러가면서 징푸리와 더부러 원진을 그리면서 인사한다.⁶¹⁹⁾

618) 반달 모양.

619) * 여기까지가 양중환이 기획한 '황성 어러리 풍년가' 의 내용이다.



제17회 강원도 민속축제 횡성농부가

5. 춘향이놀이⁶²⁰⁾

1) 유래

횡성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강원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평창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남쪽으로는 원주시, 영월군, 북쪽으로는 홍천군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횡성군은 태백산맥과 연계된 지역으로 도내 다른 곳과 같이 주로 산지로 형성된 곳이지만, 큰산이 많은 동북방이 산악지대인데 비해 서남방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하고 비교적 넓고 비옥한 평야를 이룬다.

예부터 횡성은 사통팔달의 고장으로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독특히 해 왔다. 중앙고속도로(건설중)와 영동고속도로가 군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공근면과 홍천을 잇는 5번 국도, 안흥면과 평창군을 잇는 42번 국도 그리고 서원면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가 횡성을 지나고 있

⁶²⁰⁾ 이 작품은 2000년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이중호와 함께 기획한 내용이지만, 출품하지는 않았다.

다.

이처럼 잘 짜여진 도로로 인하여 횡성은 인접 지역은 물론,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반면에 횡성의 독특한 전통적인 문화 역시 타 지역으로 쉽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한편 고증자와 연출자가 타 지역에서 이주해 현재 횡성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몇 분을 조사한 바, 춘향이놀이는 철원, 정선, 강릉, 삼척 등 강원도 전역에서 유행했던 놀이로 횡성에서만 행해졌던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춘향이놀이는 고증자의 연구 논문(정재영, “橫城 地方에 口傳되는 傳來童謠 研究”, 어사매 제13호, 횡성문화원, 1998.)과 학위논문(정재영, “전래동요의 교육적 수용방안 연구 - 횡성지방의 전래동요를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그리고 보고서(김진순, 삼척민속지 1 - 가곡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문화원, 1997.) 등에 소개되었을 뿐, 타 지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된 사항은 없다. 아울러 위의 논문과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놀이방법이나 그 유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정이 이와 같아서 춘향이놀이가 언제부터 횡성지역에서 시작되었는지, 또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여 횡성에 전파되었는지, 또 타도에는 춘향이놀이가 없었는지 등은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타 지역의 사정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춘향이놀이는 우리 횡성에서 1960년 대까지도 매우 성행했던 까닭에 지금도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여쭙보면 쉽게 그 놀이 방법을 설명들을 수 있다.

2) 특색

우리의 민속놀이는 남자들이 하는 놀이, 여자들이 하는 놀이, 성인들이 하는 놀이,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춘향이놀이는 여자는 물론 남자들도 즐겨했던 놀이로 성인과 어린이가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놀이 하면 으레 마당과 같이 열린 공간에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여자들의 놀이인 다리뽑기, 종지놀이, 가락지놀이, 풍감놀이, 수박따기 등과 같이 닫힌 공간, 즉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다.

물론 여자들의 놀이인 줄넘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등은 마당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놀이들은 성인되면은 좀처럼 할 기회가 없어져서 추억으로만 남아 있을 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놀이, 즉 어린이들이 대표적인 놀이의 상징으로만 인식된다. 이러한 까닭에 여자들은 결혼을 하거나 성인이 되면은 집안일, 농사일, 길쌈 등 많은 일에 시달리다 짬이 나더라도 주위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 고무줄놀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전유물이 된 놀이에는 같이 동참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성인들만의 놀이 공간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방이다.

방은 여자들이 동네의 모든 정보는 물론 타 지역의 정보까지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벼운 담소로 시작하던 것이 옛날 얘기, 노래, 놀이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춘향이놀이는 이러한 놀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춘향이놀이는 한 사람이 합장하듯이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눈을 감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춘향아 춘향아 남원골 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초파일 물 좋고 정자 좋은데 오늘 저녁에 재미있게 놀다가세” 와 같은 주문을 반복해서 외운다. 그러면 두 손을 모으고 있던 사람의 손이 점점 벌어지고 나중에는 춤을 추게 되는데, 흥이 나면 주위에서 주문을 외우던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 춤을 추고 노는 놀이이다. 이 경우 심하면 신이 내린 사람은 실신을 하여 한동안 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춘향이의 혼이 특정인에게 降神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춤을 추게 되는 것은 일종의 무아경이다. 이처럼 무속에서나 행해지던 신 내림이 일반 민가에 들어와서 놀이화된 것으로는 도둑놈잡기놀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 놀이는 방망이에 신이 내리게 하여 술래가 감춘 물건을

찾는다는 것 외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이들은 신내림을 통한 놀이라는 공통된 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降神을 통한 놀이로는 춘향이놀이가 가장 대표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놀이의 전승이란 특징인 몇 사람에게만 의지해서는 그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관중의 호응이 없는 민속놀이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날 수 있다. 따라 많은 관중이 운집한 곳에서는 그들에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향수에 젖게 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춘향이놀이는 황성에서 자란 50대 이상이면 한 번쯤은 놀이에 직접 참석을 했거나, 주위에서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놀이는 관중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어 출연자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함께 출연하여 익힘으로써 자연스런 전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구성 및 놀이 과정

예전에는 지금처럼 낮에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한가롭게 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일과 더불어 놀이를 함께 행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남자들은 산에 나무 하러 가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노래로 풀거나, 아니면 초등들은 문답으로 하는 노래를 주고 받으며 산에 오른다. 또 나무 하러 갈 때는 여럿이 함께 어울려서 가게 되는데, 이 때는 각자의 지계를 서로 끼워서 지계상여를 만들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상여소리를 하며 산에 오르다가 좀 넓고 평평한 곳에서는 묘 다지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솔방울을 따서 지겟 작대기로 요즘 하는 하키와 비슷한 쟁치기를 했다.

또 여자들은 나물 캐러 가면서 친구가 달래나 시금 또는 찢레 등을 따 먹으면, 놀리느냐고 그 나물 이름의 첫 글자의 운을 따서 노래를 하거나, 수박따기와 같이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렇듯 낮에 잠시 노는 것이 아쉬우면, 남자들은 소죽을 끓여주고

저녁을 일찍 먹고는 자주 모이는 방으로 놀러가며, 여자들 역시 설거지를 일찍 끝내고 낮에 못 다한 얘기나 놀이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들만이 모이는 방으로 놀러 간다. 방에 모이면 처음에는 가벼운 놀이로 시작을 하다가 흥이 나면 춘향이놀리로 발전하게 된다.

* 출연 인원 : 총 60명(남자 어린이 10명, 여자 어린이 10명, 남자 성인 20명, 여자 성인 20명)

* 소요 시간 : 총 38분

제1과장 : 나무 하러 가기, 나물 캐러 가기(12분 - 남자 7분, 여자 5분)

남자 : ① 나무 하러 가면서 문답으로 노래를 서로 주고 받는다.

② 상여놀이를 한다.

③ 짚치기를 한다.

(출연 인원 : 초등 - 10명, 성인 - 20명)

뒤틀집 총각 나무하러 가세

배가 아파 못 가겠네

뒤틀배 자라배

뒤틀자라 에미자라

뒤틀에미 솔에미

뒤틀솔 밭솔

무슨밥 진지밥

뒤틀진지 고리진지

뒤틀고리 버들고리

뒤틀버들 수양버들

뒤틀수양 하늘수양

뒤틀하늘 청하늘

뒤틀청 대청

원대 왕대
원왕 임금왕
원임금 나라임금
원나라 대나라
원대 쌀대
원쌀 보리쌀
원보리 갈보리
원갈 떡갈
원떡 개떡
원개 사냥개
원사냥 꿩사냥
원꿩 장꿩
원장 강릉장

여자 : ① 나물 캐러 가면서 시금, 찹쌀, 달래 등을 따서 먹으면, 그 나물
이름의 첫 글자의 운을 따서 노래를 부른다.
② 수박따기놀이를 한다.
(출연 인원 : 소녀 -10명, 성인 - 20명)

달래먹고 달려가고
시금먹고 시집가고
찹쌀먹고 찹러가고
장먹고 장개가고
뺨먹고 빠드러지고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할멈 문열어주
딸각
개 쫓아주

저개
절반우
고맙수
수박 하나 주
이제 씨 심었수 넬모레 오슈
넬모레 동동 넬모레 동동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할멈 문열어주
딸각
개 쫓아주
저개
절반우
고맙수
수박 하나 주
이제 싹났수 넬모레 오슈
넬모레 동동 넬모레 동동

꼬부랑 깡깡 꼬부랑 깡깡
할멈 문열어주
딸각
개 쫓아주
저개
절반우
고맙수
수박 하나 주
이제 밤톨만큼 컸수 넬모레 오슈
넬모레 동동 넬모레 동동
(남자들은 여자들이 놀이를 마칠 때까지 짱치기를 한다.)

제2과장 : 소죽 끓여주기, 저녁밥 하기(5분 - 남자 2분, 여자 3분)

남자 : 큰손자는 소죽을 끓이고, 할아버지는 노래로 아이를 어른다.

(출연 인원 : 성인 - 2명, 어린이 - 2명)

여자 : 딸은 밥을 하며 노래하고, 어머니는 노래로 아이를 재운다.

(출연 인원 : 성인 - 2명, 어린이 - 2명)

시상달강 시상달강
할아버지 마당쓸다
동전한푼 주워서
밤한말을 사가지고
통노개에 삶아서
이빠진조리로 건져서
고무다락에 치트렸더니
머리카만 새양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밤한톨을 냉길걸 까가지고
껍데기는 할애비주고
보무리는 할미주고
알맹이는 너랑나랑 둘이먹자
시상달강 시상달강

취야 취야 어디서 잤니
부엌에서 잤다
뭇비고 잤니
주걱비고 잤다
뭇덜고 잤니
행주덜고 잤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뒷집애긴 못두자구

금을주면 너를사리 은을주면 너를사리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겐 효자동이

제3과장 : 다리뽑기, 종지놀이, 풍감놀이, 가락지놀이(6분 - 각 그룹 2분씩)

저녁을 먹고 난 여자들은 자주 모이는 방에서 다리뽑기를 하다가 종지놀이, 풍감놀이, 가락지놀이 등을 한다.(3그룹으로 나눔)

(출연 인원 : 여자 30명, 각 그룹 10명씩)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앵기 땡기

고모네집에 갔더니

한알떼이 두알떼이

한놈 두시기 석삼

돌아간다 돌아간다 연해연실 돌아간다

품감문자 풍감문자 풍감문자 풍감문자

반지 반지 굴러갔다 곱게 돌아오세요

제4과장 : 춘향이놀이(15분)

(출연 인원 : 남녀 60명)

놀이가 절정에 이르면 춘향이놀이를 한다.

춘향아 춘향아 남원골 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초파일

산수 좋고 좋은곳에 놀러가자 놀러가자

신이 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춤을 계속 춘다.

6. 將丞婚禮놀이⁶²¹⁾

1) 벽수와 將丞

벽수와 將丞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文化이다. 太古에 傳하여 온 벽수와 장승의 神

仰은 재액과 질병을 퇴치하고 部洛을 수호한다고 믿었다. 뒷山에 山祭堂이나 城皇堂을 모셔서 제를 올리었고 마을 入口에 벽수와 將丞을 세워 厄神, 西神, 살신, 두창神의 범접을 막으려 했다.

洞里的 지계木手⁶²²⁾나 장인이 將丞을 製作하였고, 이는 곧 그들의 社會의 영상이었고 자화상이었다.

벽수와 將丞은 現代 휴머니즘 사관을 남겨준 증거물이다. 韓日 합병과 해방 이후 미신 타파로 그 명맥이 후무한 실정이다.

年初에吉日을 택해 제사를 지냈고 農樂을 올려 娛神의 行事を 올렸다. 造形이기에 창작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將丞의 형태가 같을 수 없으며 개성이 뚜렷했다.

山寺에 山神閣이 있고 부도가 있으며 山寺 入口에 將丞을 나열하였으나 지금은 石將丞만 存在되고 그 자취가 후무한 실정이다.

우리 文化를 제조명함에 社會나 學界, 政府에서 힘써야만 文化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佛敎 文化와 우리의 토착 神仰이 결부되어 城皇堂 앞에 將丞을 세워 國泰民安과 時和年豊을 住民의 無病長壽와 子息의 成就를 祈願했다.

우리 洞里 마을 中央에 鼎金川이 흐르는데, 그 개울을 경계로 陽村과 陰

621) * 2006년도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양중환이 만든 사전 계획서이다.

622) 지계를 만드는 목수.

村으로 구분되었으며, 洞里 中央에는 4500餘 坪 이 되는 野山이 있는데, 以山이 鼎金 큰 城皇을 되시였든 山이다.

우리 洞里는 六個 部落이 있는데, 於屯洞, 內鼎金, 港村, 發花洞, 陽村, 陰村이다. 이 곳에도 작은 城皇이 있어으며, 至今은 於屯洞만이 城皇이 保全 존재되어 있으며, 每年 正月 十五日 前 吉日을 택하여 祭를 올리며 住民의 安寧과 無病長壽 또는 子女孫의 成就를 祈願하고 있다.

至今은 將丞과 숫대를 세우지 않으며 文化의 뿌리가 점차 퇴색되어 간다.

섭다리로 女將丞을 맞지하기 爲하여 길군악을 찾고 다리굿을 찾다고 한다. 다리 中央에서 將丞禮를 올렸다고 하며, 숫대 장승, 大將軍 將丞을 함께 製作하였다고 한다.

五行의 이치로 陰陽이 交合하는 뜻에서 將丞婚禮놀이가 이루어졌다. 六個 部落의 영좌, 고원, 대방 主가 되어 하루 지출되는 금액을 부담했다고 한다.

山田里 李遇庚 氏, 下弓里 韓光熙 氏, 鼎金 嚴鉉泰 氏, 李秉錄 氏 等 地方의 연세 높으신 분께 考證을 得해 今日에 이룬 것이다. 장정 거름으로 三百六拾보를 일리라 했고, 三千六百보를 十里라 했다고 한다. 十里나 二十리에 將丞을 세웠으며 洞里 地名도 명시했다고 한다.

우리의 것을 재조명하고자 하며, 이것이 우리의 眞正으로 뿌리의 文化이다.

2) 考證

(1) 李遇庚 氏

本人은 山田里에서 出生하여 橫城 小學校를 卒業을 하고 漢學을 배우고 전문이 박식한 사람인데, 考證이랄 것은 없으므로 내 나이 七, 八歲 되었을 當時 우리 先親께서 오늘 鼎金에서 인근 주민과 洞民이 다 모여 將

丞呑宮놀이를 한다구 하시면서 衣冠을 정제하시고 이웃 여러 어른과 鼎金으로 出他하시였어. 나 역 先親 말씀 얼핏 듯고 이웃 小童과 더불어 멀지 않으니 鼎金에 놀러갔지. 가 보니 下弓里 一部 住民과 山田里 住民 鼎金里 民 男女老少 구분없이 많이 모였어. 四物 소리가 울려퍼지고 저름으로 화를 만들어 햇불을 밝히고 尹泰鳳이가 앞에서 소리를 주고 뒤따르면서 머 '상사대야' 허든가.

숫대는 앞에 가고 將丞은 청홍 천으로 못거드라구. 아마 그것이 呑宮인가 바. 城皇堂 앞에 가선 陽村, 陰村 四物이各有各 논는데, 趙三福 氏가 상쇠를 잘 치구.

나는 山田里에서 왔다구 장명천 씨가 떡을 많이 어더다 주워서 잘 먹었지. 그때 그 時節엔 城皇神을 모시고 숫대 將丞을 섬기면은 무슨 살겁과 액신을 물리친다고 믿었거든. 복술과 무당이 존립하고 병이 나면 프닥거리 복술과 무당에게 의존하든 때이니, 洞里 지신밟기를 해두 4,5年 生 소나무를 베어다 城皇堂에서 대를 내린 時節이니, 不問可知야. 나는 본시 음치인데다 소질이 없어 무슨 소리 하였는지는 모르되, 그 소리가 지금까지 傳來되었다면 더더욱 좋으련만.

至今 將丞이 山寺에 없드라구. 原州 九龍寺나 甲川 봉복사에 예전엔 있는데, 山神窟 이 모든 것이 우리 民族의 土俗 神仰이야. 이럿케 厄을 프러내면 一身이 無事하며 農事도 잘 된다고 믿었거든. 해방된 뒤에도 鼎金 올라가서 보면 장승이 있었어. 時代의 발전과 科學의 힘이 우주를 지배한다 해도 傳來된 文化의 가치는 말로 表現 못하지. 잘 가꾸고 保全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거야.

나마리아 面議會 議長으로 일을 했지. 農事는 안 지시나요. 할 수 없지. 子息이 다 나가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考證이라니 썩스럽고 미안하구면. 죄송해요.

(2) 韓光熙 氏

나는 나이가 우경씨보다 작으니 동저고리 바람에 집에서 놀고 있어지. 그때 약 5세 정도 우리 아버지께서 의관 정제하시고 정금에 다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드려서 어슴프리 생각이 나지만, 우경씨처럼 이것이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선친께서 말씀하시길 돼지 잡고 떡해고 술 저 놓코 크게 잘 했다고 하시면서 약주가 거나하게 취하셨드라구요.

그 때 당시 면사무소가 안흥면인데, 정금 삼거리가 갑천으로 인제 길인 선창으로 가고, 또한 둔내로 해서 봉평, 강릉을 가거든요. 삼거리 성황이 큰 성황이지요. 내가 본 건을 해방되고도 정금 큰 城皇엔 장승이 있어쓰니, 나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해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못 해도 목에 같이 드러와도 정금리에서 將丞놀이가 있엿다는 것은 말씀드리지요.

머 소리요. 그때 어린 게 멀 알겠어요.

몇 년이 지나 하궁 큰 성황당 장승 세우는 것은 보았지요. 하궁리 젊은 사람이 작구 사고를 내 석장승을 세웠는데, 지금 사고가 없습니다. 옛 것 버리지 말고 새 법 내지말라고 조상님들이 했든 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3) 박관수 선생

將丞에 對한 作品을 말하기 前에 한 분을 소개코저 한다. 朴官洙 先生任. 이 분은 이 곳 분도 아니시며 民族사관고등학교에서 教育者로 근무하시고 계시다 然而나 橫城의 어러리, 農謠, 民謠에 매료되시어 橫城에 소리를 많이 발굴 편집하시었다.

이 곳에 將丞에 對한 뿌리가 傳來된 것을 아시고 將丞에 대한 책을 선생이 소장하신 것을 本人에게 주시었다. 나는 一年 餘의 장고 끝에 一部는 문헌상 채집 一部는 년세 많으신 분을 찾아 채집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옛 祖上任 들이 밀영든 神仰의 一部이며, 民俗的, 土俗的 서민 생활에 의의가 至大하다고 思料되어 今日에 이른 것이다.

江陵大學校 강등학 교수님과 學生들을 데려와 우밀 어러리를 연구하게

한 분도 朴官洙 先生이시다. 후대 어린이를 爲해 어러리 악보를 보급하고 저 악보를 채록 中이시며, 거의 完成되었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다. 또한, 山田里 李遇庚 氏, 下弓里 韓光熙 氏, 嚴紘泰 氏, 鼎金 嚴寧太 氏 等 많은 分의 考證을 得한 分 역시 先生이시다.

勿論 本人은 學者도 아니요 將丞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將丞 놀이가 이 고장의 民俗놀이와 土俗 神仰이라는 뿌리는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本人도 고무원 것은 사실이다.

先生은 이 고장 분도 아니시면서 이 고장을 爲하여 노력하시였고 自己의 사재를 써 가면서 한 점의 가식도 없이 노력하시고 격려하여 주신 것은 불문가지이다. 참으로 感謝하고 고맷기 그지없다.

七十年 以上 그 맥이 끈기였으니 원형대로 保全하기는 至大한 어려움이나 先生任이나 本人은 이것이나 수학하여 保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한다.

以 作品은 先生의 지고한 노력의 결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참으로 고마운 先生任 대단히 대단히 感謝합니다. 宅內의 萬福을 祈願하며 끝칩니다.

3) 작품 구성

(1) 축원

海東 朝鮮國 江原道 橫城郡 偶川面 鼎金里 大城皇 前에 소지 3장을 올리오며 年 月 日 將丞 合宮禮를 올리오니 大城皇之神은 感應하소서. 同居同樂 하옵서소.

城皇當 앞에서 소지 3장을 올리며 告祝하는 것이다. 그 다음 2課정이 進行되는 것이다.

(2) 놀이

놀이는 三課정으로 이루어진다.

一課정

男將丞은 西쪽에서 立場을 하고 女將丞은 東쪽에서 立場하는데, 女將丞은 다리가 있는 곳까지 와 四物 소리에 맞춰서 춤만 춘다. 이때 男將丞은 運動場에서 신나게 놀다 신부를 맞이하러 가며 신부를 맞이한 將丞은 신나게 運動場에서 솟대를 앞세우고 논다. 약 5분 정도 논 연후에 女將丞을 東쪽 다리 모서 놓고 男將丞은 西쪽 다리 끝에 가서 서 있다. 정리가 끝나면, 가마에서 男將丞, 女將丞을 내려 놓는 것이 1과정이다.

二課정

홀기가 다리 中央에 서서 호천문을 낭독하고 將丞 立場을 알리면 가마를 메고 간 사람은 들어서 장승을 모셔서 다리 中央에 가서 초례상 앞에 선다.

告祝

維歲次 丙戌年 一月 戊午 十一日 戊辰日 幼學 ○○○ 敢昭告于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

今爲吉辰 婚禮成家 二姓之合 永久不隕 國泰民安 時和年豐 國力伸張 所紙三帳 祝願發願 感應 敢昭告于 神 尙饗 郡民洞民 無病長壽 所願成就

홀기 男將丞 拜 男將丞은 반절로 두 번 禮를 한다.

홀기 女將丞 拜 女將丞은 반절로 두 번 禮를 한다.

홀기 酒壹배 男女 將丞은 술을 먹는 시늉을 한다.

홀기 男將丞 拜 男將丞은 반절로 두 번 禮를 한다.

홀기 女將丞 拜 女將丞도 반절로 禮를 한다.

홀기 酒二배 男女將丞은 먹는 시늉만 한다.

홀기 男將丞 拜 男將丞 반절로 두 번 禮를 한다.

홀기 女將丞 拜 女將丞 반절로 두 번 禮를 한다.

홀기 酒三배 男女將丞은 먹는 시늉만 한다.

홀기 合宮禮

초례상을 치우고 청홍 천으로 男女 將丞을 목거서 가마에 태우면 2課정 끝난다.

밤, 대추, 콩, 팥, 배 들고 앞에 서고 솥대 다음 男女 將丞을 태운 가마가 선다. 잇때 소리가 나오면, 밤, 대추, 통, 팥 도는 마당에 조금씩 뿌린다. 대추는 國王을 表함이며, 밤은 삼정승, 배는 육판서. 우리의 祖上任들은 國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했다. 콩은 子孫의 번창을 바랬고, 팥은 삼살, 서역神, 마마할멈, 厄運을 물리치며 住民의 안녕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소리가 다 끝나면, 햇불을 높이 들고 四物에 발 말추워 신나게 한 판 논 연후에 마지막 인사로 끝난다.

(3) 소리

얼 ~ 널널 상사데야

영화로다 영화로다 우리 마을이 영화로다

후렴 얼 ~ 널널 상사데야

太古라 天皇氏는 木德 으로 즉위하니

五行中 먼저난게 나무덕이 으뜸이요

天地人 三皇時에 一萬八仟歲 무위위화 하시고

유완유소 聖人君子 德化도 장할시고

구목위소 食木實이 그아니 좋을신가

世上天地 분화후에 삼남화상⁶²³) 이러나니

天皇氏는 불을주고 地皇氏는 물을주어
 海東朝鮮 생겨나니 面面村村 넓은들과
 높은데는 밭을갈고 앓튼데는 논을떠서
 神農氏의 農事法이 子子孫孫 이어지고
 상백초⁶²⁴)를 하시어서 아픈병을 고치시고
 白頭山에 天池는 영대산에 내맥이요
 東皆骨 西九月하니 南地異 北香山하여
 空中으로 드는煞은 舜대將丞 막어주고
 땅으로 드는厄은 大將軍이 막어주고
 우리洞里 大城皇은 영험하기 측량없어
 大將軍과 舜대將丞 이리저리 제도하여
 이산저산 승지간에 마마할멈⁶²⁵) 찾아들면
 大將軍을 앞세우고 舜대將丞 뒤세워서
 求民治病 하였으니 궁홀하기 그지없네
 日出而作 요순백성 어찌편타 할수있나
 하은주 夕陽되고 漢唐宋 風雨일어
 國태민안 時和年豊 한복고복 하이시고
 우리江山 좋을시고 永世無窮 하옵서소
 영화로다 영화로다 大城皇任이 영화로다
 얼덜덜 상사태야

4) 소품

장승 2

숫대 2

성황당 1

농가 2

나무 2

623) 남자 셋, 여자 셋.
 624) 백 가지 맛을 본다.
 625) 천연두.

다리 1 10m

햇불 30

밤, 대추, 콩, 팥, 배

청홍천 각 4m

소창 1필

까치웃 8벌

대회기 1

마을기 4

가마 2

다리는 말구 4cm 정도의 소나무나 낙엽송을 구하여다 이동에 편리하도록 제작해야 됨.

5) 구성 인원

기수 김의환

농기 송공순

마을기 최익수 김동근 이광 양재훈 안병익 진기열

노인 최영수 홍순태 이병록 엄영태 진성근

홀기 양재학 김영배

가마 김성중 이운우 송산순 최철수 엄재순 진한두 김열출 박도찬

숫대 신용승 정옥출

부인 황경숙 김귀자 엄정희 김연순 박귀옥 손영자 진금순 정옥출 정기분
전성운 강영순 박득춘

양촌 원호봉 김진희 김진한 기맘석 이병학 강승호 최돈식 신상열 손충호
원용재 이병태 이계동 김영식 이계원

음촌 이정섭 이상용 허성범 한재균 탁영훈 엄상의 안윤희 안창호 안상현
이우득 윤영훈 최철수 이건동 이상훈

장치 심성섭

사물 이계범 조명화 손성남 이종근 허성자 이호근 엄현태 민창기 박용민
김화자 이영자 진기봉 감수희 김화자 최종근
반상 홍순태 이건동

6) 퇴장

절을 올리고 원진을 그리면서 장안으로 드러가 人事하고 퇴장한다.

IV. 태기문화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제16회 태기문화제⁶²⁶⁾

1) 종합적인 문제점

- 행사의 주최, 주관, 후원 등 역할 분담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계획이 미흡하였음.
- 전야제, 본 행사, 개회식 등 적극적인 홍보 효과로 예년에 비해 참석 인원이 많아 외형적인 면에서는 무난하였으나 경기 운영 및 선수 참여는 미흡.
- 회다지, 미나리 시연, 어러리 경창 등 문화 행사의 면모를 보였으나, 새로운 소재와 창의적인 종목 발굴이 요구됨.
- 군 단위 행사로서의 외부인 참여가 미흡함. -- 종목이 한정됨
- 민속 경기 및 문화 행사 외에 볼거리, 먹거리 행사 부족(예, 이벤트 행사, 향토 음식 코너 등)

2) 분야별 분석

- 종합 계획 : 주최, 주관, 후원의 역할 불분명으로 효율적인 추진 어

626) 2002년 전까지는 군청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태기문화제를 운영했다. 이 때에는 이미 주민들이 태기문화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 2002년부터는 태기문화제가 우천면 면 단위로 확대되어 운영되었다. * 이하의 내용들은 모두 정금민속보존회에서 작성한 것이다.

려움. 주최, 주관, 후원의 재조정 필요. 태기문화제 위원회 정관 제정 및 상설화 필요.

- 홍보 : 사전 홍보는 역할 분담 속에 잘 됨. 행사장 주변인 정금시장에 축제 분위기 홍보물 설치 미흡. 에드벌룬 증설 등 시장 내 축제 분위기 홍보물 확대 필요.
- 주민 동원 : 차량 2대 동원해 주민 반응 좋음. 일부 주민의 과도한 음주 등 안전사고 우려. 주민 귀행 대책 필요.
- 전야제 : 주민 300명 동원 상황. 태기 제례 의식 절차 등 일부 고증이 미흡하니 횡성 향교 등의 협조로 체계화 필요. 달짚태우기에 부적접수 등 참여 확대 필요. 쥐불놀이에 참가하는 어린이 사전 지도 부족함. 달짚태우기 및 쥐불놀이 고증 필요. 전야제행사 분야 폭이 좁으니 이벤트 행사 등 확대 필요.
- 식전 행사 : 정금 초등 사물놀이, 정금 민속 사물놀이 식전 행사로서 규모가 작으니 개최 식전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종목 필요.
- 식후 행사 : 일부 시연 출연자 참가 지연. 식후 행사 종료 전 내빈석 이동 공석.

3) 종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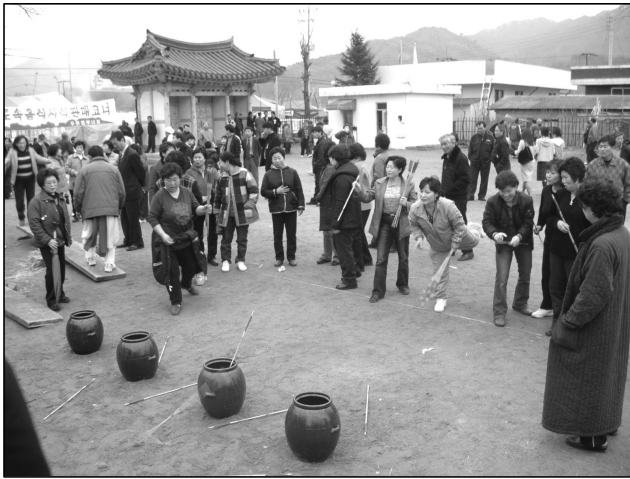
- 어러리 경창 : 참가 인원 상황. 신청곡 어러리 분야로 국한하여 참가자 혼선을 일으킴. 어러리를 농요 등으로 확대 검토 필요. 반주자 없어 흥이 안 남. 장소가 실내로 방청객 불편.
- 장승깎기 : 관내 조영길, 박병섭 시범. 참가 선수 없음. 홍보 및 선수층 부족하니 종목 재검토 필요.
- 고부떡⁶²⁷⁾ 만들기 : 주민 반응 좋음. 지속 운영.
- 장기 : 참가 선수 상황. 단체전으로 통나무 장기도 검토 필요.
- 그네 : 참가 선수 부족. 부녀회를 통한 선수 선발 적극 유도 필요.

627) * 정금리에는 고부회가 있는데, 이들이 주도하여 떡메를 쳐 인절미를 만들기 때문에 '고부떡' 이라고 했다.

- 윗, 널, 투호, 목침 : 참가 선수 적극성. 지속 운영.
- 짚신 : 노인회 참여 적극적임. 지속 운영.
- 글짓기, 연날리기, 제기 : 학생 참여 적극적. 주최측의 관심이 미흡. 관심과 지원 확대필요.

4) 발전 방향

- 정금 마을 단위에서 면 단위 행사로(점차 군 단위) 확대되면서 여기에 걸맞는 행사 계획 추진 체계, 규모, 조직 정비 등을 통하여 태기문화제가 명실공히 지역 문화 축제로서 정착,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태기문화제 정관을 작성하여 상설 기구화한다.
- 명년 제17회는 그 기반 위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앞으로 태기문화제 위원회가 행사 주체가 되어 순수 민간 조직 주도 하에 지역 문화 축제 행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태기문화제 투호놀이

2. 제17회 태기문화제

1) 종합적인 문제점

- 태기문화제 운영 규약 제정 및 조직 정비로 행사체계를 확립하였으나, 일부 위원 및 임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미흡.
- 개회식을 제외한 본 행사(민속 경기, 문화 행사), 부대 행사 등이 매년 반복된 형태로 새로운 소재 발굴 필요.
- 면 및 군 단위 행사로서의 외부인 참여가 미흡함. 권역별 민속 경기 위주로 문화 행사, 볼거리, 먹거리 등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 개발 시급.

2) 분야별 분석

- 홍보 : 사전홍보는 역할 분담 속에 잘 됨. 행사장 주변인 정금시장 축제 분위기 미흡 하니 정금 시장 주변에 청사초롱, 가로기 등과 같은 홍보물 확대 필요.
- 주민 동원 : 차량 3대 동원.
- 전야제 : 전야제 참여 인원이 미흡하니, 이벤트 행사등 종목을 확대할 필요. 달짚 쌓기 양호하나 태기 제례식, 달짚태우기, 쥐불놀이 등 진행 절차 및 질서가 미흡하니, 사전 각본에 의한 진행이 필요.
- 식전 행사 : 정금 초등, 정금 민속보존회, 광암노인회 시물놀이로서 종목이 서로 유사함. 개회 식전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종목 필요.
- 식후 행사 : 국악인 초청은 좋은 반응. 유명 국악인 또는 단체 등 섭외 필요.

3) 종목별 분석

- 어러리 경창 : 참가 인원 성황. 특설 무대 설치. 반주자가 없어 흥이 안 남. 어러리 외 일반인 참가 폭주로 일반 노래 자랑으로 흐르는 경향. 노래 제목 사전 심사 후 참가 폭 제한 필요.

- 회다지 경연 : 처음 시도 반응 좋음. 4개 팀 참가 참가 저도. 홍보 및 관외팀 부족. 복장 통일이 미흡. 회다지 선소리 마이크 미흡. 권역 별, 읍면 확대 필요. 복장 통일에 점수 적용 필요.
- 시연 행사 : 새로운 종목 발굴 필요. 지경다지기등 개발 필요.
- 고부떡 만들기 : 주민 반응 좋음. 지속 운영 필요.
- 장기 : 참가 선수 성황. 시간 지연등 경기 운영 미흡. 단체전으로 통나무 장기도 검토.
- 윷, 널, 투호, 목침 : 일부 종목 참가 선수 부족. 팀별 사전 선수 선발 필요.
- 짚신 : 예년에 비해 아주 미흡. 사전 선수 선발 지속 운영 필요.
- 글짓기, 연날리기, 제기 : 학생 참여 성황. 행사장 협소. 다수 주민 관심 부족. 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발굴 필요.



태기문화제 회다지 경연

3. 제18회 태기문화제

1) 종합적인 문제점 및 대책

- 행사 기간 중 날씨가 추움. 다른 지역과 행사 겹침으로 외부인 참여 미흡 행사 일정조정 검토 필요.
- 위원 및 임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미흡.
- 민속 경기, 문화 행사, 부대 행사 등이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새로운 소재 발굴 필요.
- 면 및 군 단위 행사로서의 외부인 참여가 미흡.
- 권역별 민속 경기 위주 행사로 문화 행사, 볼거리, 먹거리 등 부족.
- 외부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개발 시급.

4. 제19회 태기문화제

1) 종합적인 문제점 및 대책

- 제19회 태기문화제 행사는 각계각층의 협조로 역대 최고의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행사였음.
- 개회식시 약간의 우기로 인하여 축제 분위기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축포, 사물놀이, 농악놀이, 회다지 시연 등으로 호응이 좋았음.
- 민속 경기, 문화 행사, 부대 행사 등이 매년 반복된 행사로 새로운 소재 발굴을 위한 위원 및 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
-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사 진행자 및 참여자는 한복을 착용하고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함.
- 면 단위 행사로서 많은 주민이 참석하였으나, 군 단위 기관 단체의 참여가 더욱 요구됨.
- 의례적인 권역별 행사 참여를 지양하고, 민속 경기 위주의 문화 행

사, 볼거리, 먹거리 제공 및 외부인의 참여 확대가 요구됨.

- 어러리 경창대회를 본 행사에서 전야제 행사로 전환하여 전야제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필요.
- 회다지 경연대회가 본 행사장에서 떨어져 있어 행사가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장소를 천주교 산에서 놀이마당으로 변경하여 행사를 일원화하는 방법도 필요함.
- 식사 시간 일시적인 이동으로 장소가 혼잡하고 준비가 미흡하였으므로 식사 시간 배정 및 충분한 양과 메뉴의 다양화 필요.
- 축제와 연관된 민속품 전시 및 향토 식품 판매를 통하여 지역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종합 시상은 폐회식시, 기타 종목은 경기 종료 직후 실시 필요.

2) 종목별 분석

- 어러리 경창 : 젊은 층의 참여 미흡. 학생부 신설 필요. 참여자의 모임집 편찬 등을 통하여 농요의 체계적인 관리 요망.
- 회다지 경연 : 회다지 참여자 의복, 신발 등 복장 불량. 통일된 복장 또는 특색있게 개선할 필요.
- 태기 제례 : 체계적인 제례 진행 요망. 향교 제례등 정통 제례에 대한 연구 및 준비가 요구됨.
- 고부떡 만들기 : 외부인 행사 참여 미흡. 떡피치기 유료화로 문화 행사 취지 변형. 떡치기 및 시식 행사에 외부 참여자 참여 기회 제공. 떡피치기 순수 민속 행사로 진행.
- 장기 : 시간 과다 소오로 외부인 및 개인 참가자 저조. 전체적인 행사 단체전으로 검토 필요.
- 옷놀이, 널뛰기, 투호, 목침뺏기 : 옷놀이 외부인 참가 미흡. 경기 관련 연구 요구.
- 줄다리기 : 심판 판정에 불복으로 경기 진행 미흡. 경기 진행 관련 연구 요구.

- 글짓기, 연날리기, 제기 : 우기로 진행 장소 협소, 진행 요원 부족으로 진행 미흡.



떡메 치기

찾아보기

【ㄱ】

- 가락지놀이 245, 251
가래질 96
가래질소리 96, 103
가마꾼 44
가진염 45
가진인사 145
가창자 28
각설이타령 229, 230, 236, 237
갈가지 143
갈개 머리 108, 112
갈령 220
갈보 173, 196
강원도장타령 238
개토제 56
거관 44
걸립 28, 42
겨리소모는소리 98
경 42
경기 잡가 196
경기민요 33
경채 42
고려말 169
고모네집에 갔더니 137
고무줄놀이 245
고부떡 263
고부떡 만들기 268
고사리썰기 139
고사리썰기소리 139
고사반 41
고사소리 41
고스톱 159
고원 42, 109
고추잠자리 148
고축 257
곰보놀리는소리 144
곱세치기 20, 23, 157, 159
공기놀이 245
공명가 17, 196
관동팔경가 65
관산벼 40
광고 가락 42
광목 19, 83
광목 포장 45
광중 60, 92, 95
구구구 비둘기소리 151
구문맞춰엮는소리 143
구비문학 23
국수 84
군밤타령 197
군수 42

궁상각치우 33
귀물빼는소리 151
귀신 달걀 날 155
그네 263
글짓기 269
긴방아소리 108
긴방아타령 111, 116
긴상여소리 24, 49, 55
긴행보가 52, 55
길군악 219, 253
길군악 가락 42
길삼놀이 154
길쌈 188
길장대 108
까까머리놀리는소리 144
콩서방 다리세기 138
꽃타령 203, 204
꾼 33

【ㄴ】

남도 민요 196
남장승 257
남존여비 185
널 264
널뛰기 268
노랫가락 199
노산가 57
노제 47, 56
논농사소리 26
논매는소리 65, 109

농가월령가 29, 217, 219, 223
농기 109, 210
농악 18, 29
농악 사물 210
농악대 18, 28, 29, 34, 42, 108, 139
농요 33
눈티없애는소리 151

【ㄷ】

다듬이돌 154, 155
다람쥐놀리는소리 149
다리굿 253
다리굿 가락 42
다리뿔기 245, 251
다리짚기 137
다복녀 189
다복녀타령 103
단가 17, 196, 198
단가별곡 17, 198
단가조 207
단허리 106, 108, 109, 111, 112, 224
단호리 240
달강 달강 133
달구꾼 86
달비 187
달아 달아 밝은 달아 206
달타령 207
답산가 50, 61, 63, 65
당굿 가락 42
대곡 46

대기 42, 108
대기에 109
대도듬 47
대동계 44
대동회 222
대드레 109
대보름 달맞이 219
대장군 46
랭이 프는 소리 242
랭이소리 108, 111, 112, 116
도리깨질 117
도리깨질 소리 117
도리깨질하는소리 117, 221
도부꾼 210
도비 125
돌개모 103
동구랑뎡 소리 198
동요 150
두건동이 84
두레농요 29
두발찌기 60, 88
두발치기 88
두창신 252
등계타령 132
등기타령 132
뒷구짚이 48
뒷소리 50, 52, 111
드래 122
드렁거리 107
드렁너미 109
드렁님이 109
드렁네미 107, 109, 111
드렁넙기 108

들병장수 173
등치기소리 30, 211, 216
디딜방아 144
딸딸 185
때까치 149
땡비 갈보 173
똥구랑뎡 196

【ㄹ】

마두짚이 44
마라소 96
마마할멈 258
마을 69
마주짚이 44
마지기 풀이 109
만경드래 108, 109
만고강산 205
말사위 95
말 219
말따기 놀이 139
말머리잇기 140
망월이 219
매사냥 195
먹섬거리 23
멍에배미 96
메나리 102, 103
메나리타령 101, 239
메뚜기부리는소리 149
모래집짓는소리 156
모심기소리 104

모심는소리 26, 103
 모찌는소리 101, 103
 목도소리 125
 목침 264
 목침뺏기 268
 무녀 63
 무당 155, 254
 무동 42, 108
 무형문화재 18, 29, 34
 문서 24, 41, 83
 문화마을 31, 34
 물동이 49
 물래소리 191
 물맷개하는소리 151
 미나리 18, 102, 105, 114
 미나리타령 29, 35, 100, 101, 103
 미영씨 155
 민속경연대회 102, 127
 민속놀이 29, 30, 35, 139, 209, 246
 민속예술경연대회 18, 29, 35, 209
 민요 33
 밀양아리랑 180

【ㅁ】

마느질 142
 만도래매 165
 만죽꾼 210
 맡는 소리 55
 망개 149
 망귀귀며하는소리 155

망망이 153, 154
 망망이점노래 154
 망아 222
 망아소리 108, 111
 망아타령 114, 116, 117
 망회 56, 60
 배슬어주는소리 141
 벽수 252
 번지소리 99
 번지하는소리 100
 벌통 136
 범잡자리 148
 범구 42
 범구잡이 108
 베틀가 191, 194
 벼뭉는소리 117
 벼베는소리 117
 별주부전 69
 보름 139
 보리개떡 142
 보리밀채질소리 116
 보통염 45
 북록방 180
 북술 41, 254
 북지게 142
 부도 252
 부쇠 42
 부슬비가 오네 150
 부엉이흉내내는소리 153, 195
 부음요 189, 190
 불아불아 132
 비둑비둑 152
 비둘기흉내내는소리 152

비아 비야 150
뿡나무 105

【ㅅ】

사냥꾼 165
사물 109, 258
사물놀이 109
사물소리 254
사양 142
사촌형임 186
산신각 252
산신령 57
산신제 56
산제당 252
산지기 220
살신 252
삼살 46, 258
삿갓 162
상동네 139
상두꾼 44, 48, 49, 188
상모매기 57
상뱀고짬이 41
상사테야 108, 111, 254
상사데이 224
상쇠 41
상여 19, 34
상여꾼 44, 52
상여놀이 247
상여소리 18, 24, 26, 35, 49, 50, 61,
82, 246
상예 43
상주님 57

상포계 44
새소리 194, 196
새타령 196
샌님 42
생금 129
서낭굿(서낭제) 108, 219
서낭당 42, 108, 219
서낭신 42
서도 민요 196
서도 소리 17
서신 252
서역신 258
서울권변 17, 196, 199
석곡 44
석장승 252
선소리 84, 86, 109
선소리꾼 26, 50, 108
선창 114
섭다리 253
섯다 158
성군 99
성난아이놀리는소리 145
성난아이웃게하는소리 156
성님오네 186
성복 56
성복떡 46
성황 255
성황당 255
세발찌기 60, 88
세발치기 88
소고짬이 42
소드레 109
소리꾼 16, 26, 33, 210

소리판 26
 소모는소리 96, 100
 솟대 253, 254
 수궁가 33
 수박따기 138, 245, 246
 수박따기놀이 248
 수삼대 165
 수심가 16, 33
 수영 걸다 141
 시살달강 132
 시상달강 132
 시중잡가 24, 50, 52, 67
 시집사리 186, 191, 196
 신위 33
 신입 222
 신재효본 변강쇠가 24
 십오장례쌀 223
 씨레꾼 99
 씨레질 96
 쓰레소리 98

[ㅇ]

아기어르는소리 132, 133, 134
 아기재우는소리 135
 아라리 24, 180
 아이논 108
 아이논매기 108
 아침 방아 짙어라 148
 안소 96
 안택 42

암삼대 165
 앞구쟁이 48
 앞니 빠진 갈가지 143
 앞소리 52
 앞소리꾼 49, 52, 109
 애사 84
 앵맥이 219
 액신 252
 액운 258
 어랑타령 181, 184
 어러리 16, 24, 26, 27, 96, 101, 104,
 111, 160, 180
 어러리 경창대회 268
 어러리경창 263
 어러리타령 102
 어리랑타령 139
 어부사시가 224
 어울림 131
 얼룩암소 27
 얼룩침소 129
 여장승 257
 역금어러리 179
 율음 122
 율음어러리 179
 연가 203
 연기(영기) 42, 108
 연날리기 269
 연잎 댓잎 190
 연자매소리 29
 연자방아소리 29
 연회 56, 60, 87
 영동할머니 41
 영좌 42, 109, 220

오돌떠기 101, 106
 오들뜨기 105
 오들띄기 105
 오로롱 보로롱 142
 오봉산타령 33
 오입 207
 오줌싸개놀리는소리 145
 옥설가 50
 옹기굽기 29
 옹기장이 210
 와리바시 곤장(젓가락 장단) 16
 왕겨 155
 우걱부리 129
 우는아이놀리는소리 145
 우밀 어러리 255
 우밀어러리타령 29
 운재소리 122
 울력 130
 원뿔 33
 원주 미나리 104
 유물세 44
 유소해 147
 유학 43, 47
 유행가 198
 육레놀이 29
 육자베기 33
 옷 264
 옷놀이 268
 은광 17
 음운맞춰역는소리 143
 음울 180
 이거리 저거리 137
 이밥 144

이빠진아이놀리는소리 144
 이빨던지며하는소리 155
 이장 220
 일벌 136
 일벌모으는소리 136

【ㅈ】

자장가 135
 자진방아 111
 자진방아타령 116
 작두 122
 작은 서낭 219
 잔삭달 166
 잠자리 퐁퐁 147
 잠자리 동동 148
 잠자리잡는소리 148
 잣대모 103
 장구배미 96
 장기 263
 장뽕 142
 장성가 208
 장수벌 136
 장승 252, 255
 장승깎기 263
 장승타령 25
 장승합궁놀이 253
 장승혼례 19
 장승혼례놀이 24, 30, 252
 장타령 29, 30, 225, 228, 230
 재담(사설) 33

쟁기찰이 108
 저리소 97
 적벽가 33
 전수장학생 34
 전수조교 34
 전승마을 34
 점말 옹기굽기 209
 점생이 220
 정 155
 정금민속보존회 18, 29, 34, 35
 정선아라리 180
 정선어러리 27
 정옥화 196
 정요 180, 199
 제기 269
 제비 갈보 173
 제비집 204
 젓줄 139
 조군 44
 조랑밭 주머니 45
 조문객 44
 종지놀이 139, 245, 251
 주루떡 42
 줄넘기 245
 줄다리기 139, 268
 줄모 101, 103
 줄잡이 103
 쥐불놀이 219
 지경다지기 224
 지경다지기소리 30, 65, 130
 지경다지는소리 30, 127, 131
 지경다지소리 127
 지신밟기 28, 41, 42, 219, 254

지워님 56
 지전 82
 진도아리랑 180
 진방아 111, 116
 진방아타령 116
 짓고섯다 158
 짜개이 고쟁이 105
 짜른방아 116
 짜른방아소리 108
 짜른방아타령 111
 짜른상여소리 24, 48
 짜른행보가 52, 55
 짧은상여소리 55
 짱치기 247
 찌고탱이 158

【*】

창덕궁타령 33
 창호지 19
 채질 116, 221
 채질하는소리 221
 처음 유행가 198
 천렵 222
 천자뒤틀이 229
 천지각 129
 청 33
 청장이 동동 147
 청장이잠자리 148
 청청 맑어라 150
 청춘가 16, 111

청회 56
초동 247
초례상 258
초인지적 자세 28
초한가 24, 50, 57, 65
초혼 56
촌부 191
춧불 41
총각대방 109
추울때하는소리 155
축원 154
춘향가 33, 93
춘향이놀이 155, 243, 251
춤추게하는소리 154

【ㄹ】

칸따기 104
쾌 89, 92
큰 서낭 219
큰기 108
큰장사 43

【ㄴ】

태기문화제 31, 33, 34, 262
태백문화제 18, 34
토끼타령 23, 50, 57, 69
통성명 145

퇴롱 28, 44, 46
투전놀이 158
투전목 159
투호 264

【ㅇ】

팔난봉 16
팔 258
평양권번 16, 196
평창어러리 27
평토제 56
포구수 42
풀뿌리문지르는소리 156
풀씨는소리 20, 23 117, 119, 122
풍감놀이 245, 251
풍감돌리기 139
풍경소리 37
풍년가 205
프닥거리 254

【ㅎ】

하관 56
하동네 139
학익진 242
함경남북도 184
함경북도 159
함진에비 44

합장 155
 해썰미 96
 해제 가락 42
 해학 184
 햅쌀밥 222
 행보가 49, 55
 향불 45
 향유소 23, 122
 향유의식 23
 향유주제 23
 향유지식 23, 28
 향유행위 23
 현 채 155
 호르래비 192
 호리소 97
 호리소모는소리 98
 호무씻이 109
 호미씻음 109
 호미씻이 222
 혼백문 45
 흘기 257
 화재 139
 화투 16
 황덕불 219
 황새 갈보 173
 왜 254
 햇불 254
 회 작대 60
 회다지 18, 29
 회다지 경연대회 268
 회다지 선소리 56
 회다지 전승마을 18
 회다지꾼 57, 86
 회다지소리 18, 23, 26, 50, 56, 61,
 65, 82, 84
 회심곡 24, 50, 52, 65, 67
 횃대 95
 횃소리 56
 횡성 미나리 104
 횡성 어러리 풍년가 239
 횡성 장타령 224
 횡성두레농요 29
 횡성들소리 29
 횡성어러리 27, 180
 횡성어러리타령 29
 휴머니즘 252
 흥부타령 33